

발간등록번호

11-1543000-001159-01

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2016. 01.

[연구기관 :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GAP 인증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01월 27일

(협)지역농업네트워크

책임연구원 김종안(지역농업네트워크)

공동연구원 김기현(지역농업네트워크)

길청순(지역농업네트워크)

송기선(지역농업네트워크)

윤성희(지역농업네트워크)

권지혜(지역농업네트워크)

허선영(지역농업네트워크)

김성태(지역농업네트워크)

박은희(지역농업네트워크)

김민성(지역농업네트워크)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3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8
제2장. GAP 개념 및 의의	13
제1절. 도입 배경 및 경과	15
제2절. GAP 개념 및 가치	34
제3절.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와의 구분	40
제4절. 각 국별 GAP 및 Global G.A.P와 비교	44
제3장. GAP 현황 및 현안	61
제1절. 운영현황	63
제2절. 설문조사 (요약)	74
제3절. 면담 조사	99
제4절. 기타 의견조사	119
제5절. GAP 관련 주요 정책	122
제4장. GAP 활성화방안	143
제1절. 기본 전략	145
제2절. 추진 방향	152
제3절. 세부 사업	185
제5장. 부 록	197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99

표 목 차

<표 1. GAP 인증현황>	5
<표 2. 식중독 발생현황(2002~2015)>	15
<표 3. 원인별 식품사고 현황>	16
<표 4. 국내외 주요 환경 오염사고>	17
<표 5. 세계 주요 식품사고 현황>	19
<표 6. 미국 주요 식품 사고 내역 (2006~2015)>	20
<표 7. HMR 종류 및 분류>	22
<표 8. 국제 농산물 및 식품가공 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24
<표 9. HACCP와 기존 위생관리체계 비교>	25
<표 10. HACCP 적용 대상 식품>	26
<표 11. HACCP vs ISO 22000>	28
<표 12. 일본 식품안전관리체계 기본구성>	30
<표 13. 영국 FSA 성과목표(~2015년)>	31
<표 14. 독일 식품안전관리 관련 기관 연관도>	32
<표 15. 농산물 위해요소>	35
<표 16. 기관별 역할분담>	39
<표 17. 친환경농산물과 GAP 비교>	40
<표 18. 주요국 GAP 체계 비교>	48
<표 19. Global GAP Equivalent(동등성) 인정 목록>	51
<표 20. Global GAP Resembling(유사성) 인정 목록>	52
<표 21. 국가별 GAP 인증 세부 기준 현황>	53
<표 22. G-GAP 대비 국가별 대분류 비교>	55
<표 23. 우리나라 Global GAP 인증 현황>	57
<표 24. Control Union 인증업체 국내 G-GAP 실적>	59
<표 25. GAP와 Global GAP의 차이>	60
<표 26. GAP 연도별 인증 현황>	63

<표 27. GAP 시도별 인증현황>	64
<표 28. GAP 인증 면적 분포 현황>	65
<표 29. GAP 면적 주요 시·군(1,000ha 이상)>	66
<표 30. GAP 면적 증가율 분포 현황>	66
<표 31. GAP 면적 전년대비 주요 증감 시·군 >	67
<표 32. GAP 면적 전년대비 주요 감소 시·군 >	68
<표 33. 인증농가별 현황>	69
<표 34. 300인 이상 단체 인증 현황>	69
<표 35. 인증건별 재배면적 상위 20개 현황>	71
<표 36. GAP 인증기관 현황>	112
<표 37. 설문 및 면담 등의 GAP 인증제도 도출 현안>	121
<표 38. GAP 연계사업의 우대조치별 분류>	122
<표 39. GAP 연계사업의 정책분야별 분류>	122
<표 40. GAP 연계사업 현황>	123
<표 41. GAP 연계사업 현황(계속)>	124
<표 42. 통합적 GAP 정책 연계 적용 방안>	127
<표 43. 통합적 GAP 정책 연계 사업 의무화 적용방안>	128
<표 44. 품목부류별 대표사업 GAP 기대 인증 면적>	129
<표 45.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예산>	131
<표 46. 기존 정책 연계 지침 개정(안)>	131
<표 47. 기존 정책 연계 지침 개정(안)>	132
<표 48. GAP 인증제도 개편안>	149
<표 49. 농업환경개선 5개년 계획 단계별 실천 계획(안)>	158
<표 50. 제 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선안>	161
<표 51.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 공모사업 추진방향>	180
<표 52. (참고) A 유통업체의 협력업체 대상 QC 체크리스트>	182
<표 53. (참고) B 유통업체의 협력업체 대상 QC 체크리스트 [품질 관리-생산단계 부문 발취]>	183

그림 목 차

<그림 1. 연구방향 및 목표>	7
<그림 2. 식중독 발생현황 추이(2002~2015)>	16
<그림 3. 식중독 발생 원인군>	17
<그림 4. 웰빙 안전·개방화시대 GAP농산물 확산 방안(‘14.12)>	38
<그림 5. GAP 연도별 증가 추이>	63
<그림 6. GAP 개별인증 및 단체인증 건수 및 농가수 현황>	70
<그림 7. 연도별 GAP 인증 소비자 인지도>	73
<그림 8. GAP 인증과정>	116
<그림 9. GAP 인증 심사 절차>	116
<그림 10. GAP 정책 통합연계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25
<그림 11. GAP 연계 대상사업군 분류>	126
<그림 12. 시도 단위 GAP 추진협의체 구성방안 및 구성현황>	151
<그림 13. GAP 발굴 전략사업(안)>	151
<그림 14. 시군-인증기관 GAP Running mate 운영 개요>	156
<그림 15.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한 집단인증제 확대 모형 및 정책 패키지>	168
<그림 16. 시장 대응적 GAP 전략 체계도>	172
<그림 17. 충남오감 GAP 의무화 전략>	174



최종보고서

GAP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제1절. 연구 배경과 목적

1. 배경

1) 농산물 및 식품 안전에 대한 국내외 관심 고조

- 식품안전 사고 발생의 여파 등 안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 식품사고 발생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빠른 전파로 소비자 불안감 가중
 - 특히, 도시화 및 산업화로 외식, 단체급식 등 식생활 패턴이 변화됨에 따라 높은 식품 안전성 민감도를 나타냄
 - 소비자의 농식품 선택기준(2011, KREI) : 안전(59%) > 건강·영양(21%) > 조리(11%) > 가격(9%)
- 세계적으로도 각국이 식품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등 무역장벽화하고 있음
 - 전세계 118개국에서 Global GAP 인증을 활용하고, 우리나라 FTA 체결국 중 42개국이 Global GAP 인증으로 농산물 거래
 - 미국의 경우 수출 농산물 GAP 수준관리 요구, 홍콩은 잔류농약 기준을 신규로 제정하고, 인도네시아는 수입농산물에 GAP를 의무화하여 GAP를 무역장벽으로 활용

2) 농식품 안전성 보증을 위한 각종 인증제도 운영

-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종식시키기 위해 인증제도 도입
 -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 지표 중 하나인 부적합율은 1.1%(2015년기준)으로 2013~2014년 0.9%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EU 1.6%(2010년), 미국 1.4%(2009년) 등 선진국 수준임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은 계속되고 있음

- 하지만, 소비자의 불안과 불신은 계속되고 있으며, 소비자는 농산물 구매시 안전성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생산단계에서 안전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인식함(2011, KREI)
-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에 정부는 식품안전성 및 정확한 식품정보제공을 위해 지리적표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HACCP, 친환경농산물(유기농.무농약.저농약), 유기가공식품, 전통식품품질인증, 한국식품명인 등의 국가인증제도 운영
- ‘식품 안전강국 구현’을 국정과제(79번)로 제시하고 GAP 농산물 적용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 현 정부에 들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발족하고, 식품사건을 ‘4대 약’으로 규정하여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을 출범시키는 등 식품안전 정책 강화

3) GAP 확산 필요성 증가

-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요구의 증가와 수출 농산물의 안전관리 이행 요구 등으로 GAP 확산 필요
- 국내 개별 농가 및 소규모 작목반 등 기존 산지유통에 참여하지 않았던 생산자도 로컬푸드의 증가 등으로 시장 출하 유통여건이 개선되고 있어, 안전 농산물 생산에 부합하는 GAP 참여 필요성 증가
- FTA 확대 등 시장개방이 가속화되고 수출대상국이 비관세장벽으로 GAP 제도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수출농가의 GAP제도 참여 필요성 급증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 GAP 제도 확산의 정체요인 해소

○ 2006년 GAP 제도 도입이후 여러 차례 활성화 방안 수립



○ 2015년 기준, 전체 재배면적 대비 3.9% 수준으로 전국적 확산에는 미흡함

- GAP 재배면적 비중 : 2014년 5.9만ha(3.5%) → 2015년 6.5만ha(3.9%)

- GAP 인증농가 비중(2015) : 4.8%

<표1. GAP 인증현황>

연도	인증품목 (품목)	인증기관 (개)	관리시설 (개)	인증건수 (건)	농가수(호)	재배면적 (ha)
2015	153	44	717	4,019	53,583	65,410
2014	136	44	681	2,689	46,323	58,763
2013	132	48	756	2,499	46,000	58,703
2012	110	51	718	1,969	40,215	55,215
2011	89	49	606	1,756	37,146	49,548
2010	86	45	565	1,459	34,421	46,701
2009	59	43	484	1,233	28,562	40,081
2008	59	38	417	1,053	25,158	37,129
2007	50	31	316	364	16,769	24,754
2006	45	21	190	220	3,659	1,373

(출처 : GAP정보서비스 www.gap.go.kr)

□ GAP 확산의 주요 정책 요인

○ 생산단계

- GAP 생산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강력한 유인책 미흡하여 인증에 필요한 노력과 비용 및 인력수요를 상쇄시킬 시장 수요가 낮음
- 중앙 및 지자체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가점부여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확산 효과가 미흡함
- 규모화된 주산지를 중심으로 GAP 인증, 수출단지 GAP인증 등 정책지원사업으로 의무적용 추진, GAP와 정책사업간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2014년 GAP 제도 개선을 완료함에 따라, 손쉽게 GAP 인증을 받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이 필요함

○ 유통소비 단계

- 유통조직 및 대형유통업체의 GAP 취급에 대한 유인책 없음
- GAP 농산물 소비 및 대량 수요처 발굴이 미흡
- 시장에서 GAP가 차별적인 포지셔닝을 갖추지 못함
- 소비자가 GAP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소비확산으로 이어지지 못함
- 유통거래물량이 미흡하여 GAP 농산물의 생산확대를 견인하지 못함

○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 지속적 제도보완 및 일관된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업체계 및 역할분담 체계화
- 교육 및 컨설팅, 전문지원기관, 인증기관, 인증심사원 등 정책 지원체계의 전문화, 내실화 제고

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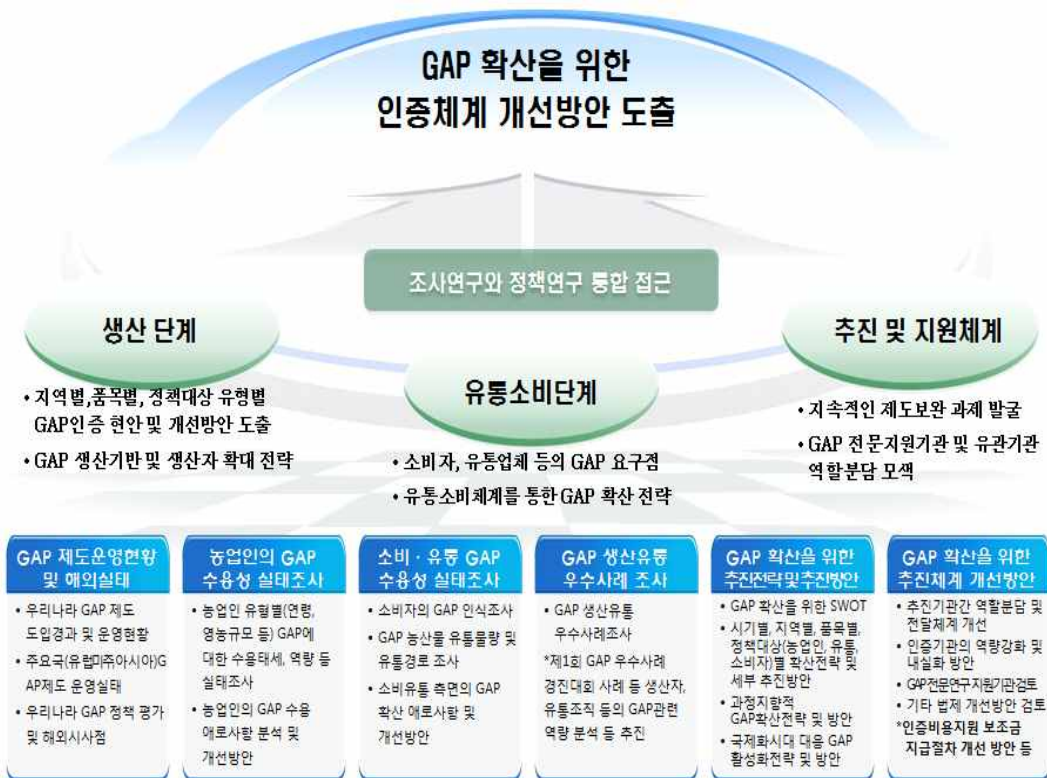
□ 연구 목표

- GAP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도출

□ 연구 방향

- 생산단계 : GAP 생산기반 및 생산조직 확대 전략 도출
- 유통소비단계 : 유통·소비체계를 통한 GAP 확산전략 도출
- 추진 및 지원체계 : 지속적 제도보완 과제 발굴, GAP 전문지원기관 개설 및 역할분담 방안, 교육·컨설팅, 인증심사원 및 컨설턴트 육성 전략 모색

<그림 1. 연구방향 및 목표>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1)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5년
- 목표연도 : 2025년
- 과업기간 : 2015.07.29. ~ 2016.01.28. (6개월)

2) 공간적 범위

- 국내 및 해외 주요국

3) 내용적 범위

- GAP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 실태 조사
 - 우리나라 GAP 제도 도입 경과 및 운영현황
 - 주요국 GAP 제도 운영 현황 및 실태
 - 우리나라 GAP 정책 평가 및 해외 시사점
- 농업인의 GAP 수용성 실태조사
 - 농업인 유형별(연령, 영농규모 등) GAP에 대한 수용태세,역량 등 조사
 - 농업인의 GAP 수용 애로사항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소비유통 GAP 수용성 실태조사
 - 소비자의 GAP인식조사
 - GAP 농산물 유통물량 및 유통경로 조사
 - 소비.유통측면의 GAP 확산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도출

- GAP 생산·유통 우수사례 조사
- GAP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모색
 - GAP 확산을 위한 SWOT 분석
 - 시기별, 지역별, 품목별, 정책대상(농업인, 유통, 소비자)별 확산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 과정지향적 GAP 확산 전략 및 세부추진방안 모색
 -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GAP 활성화 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 GAP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개선 방안
 - 추진기관간 역할분담 및 전달체계 개선
 - 인증기관의 역량강화 및 내실화 방안
 - GAP 전문연구 지원기관 검토
 - 기타 법제 개선방안 검토

2. 연구 방법

1) GAP 제도 운영 현황 및 해외 실태조사

- 문헌조사
 - 선행연구 및 관련 보고서
 -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농업전문연구기관의 선행연구 자료 다수
 -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를 위한 GAP제도의 활성화방안' (2012) 등 소비자단체 학술자료 다수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개선방안' (2013), 농림축산식품부 'GAP

농산물 확산방안' (2014) 등 정책자료 및 관련 보고서 다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산물품질관리연보' (각년도) 등 통계자료 다수

□ 인터넷 조사

- 해외 주요국 GAP 운영 실태 조사
- Global GAP 동등성 조건 검색

□ 관계 전문가 자문 의뢰

- 국내외 GAP 전문가 및 선행연구자 자문 진행

2) 농업인의 GAP 수용성 실태조사

□ 주요 유형별 설문조사 실시

- 지역, 품목, 연령, 영농규모 등을 고려한 표본 산출
- GAP 관련 현안, 수용 애로사항 및 향후 GAP 인증·확대 의향, 관련 제도 개선 의견 수렴 등 진행

□ 우수사례 분석 및 현장 적용 시사점 도출 (면담조사)

-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 농업인 중심 현장 애로사항 및 주요 개선방안 도출

□ FGI 또는 소그룹 워크숍

- 생산기반 및 생산자조직 육성을 위한 주요 관계자 FGI 또는 워크숍 진행
- 개별 농업인, 출하회(작목반), 영농법인 등의 GAP 현안 인식, 수용태세, 역량 등 도출

3) 소비유통 GAP 수용성 실태조사

□ 주요 관계자 설문조사 실시

- 소비자 관련 민간단체, 농정원 등과 협력으로 소비자 GAP 인식조사 실시
 - 기존 농정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주요 설문 방향 도출
 - 표본 선정에 있어 핵심 타겟층 설정(예: 40~60대 주부 등)
- 일반 소비자 외에 영양교사, 단체급식 관계자, 유통업체 및 유통조직 등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 실시
 - 소비 및 유통분야에서 GAP 관련 인식 및 주요 현안, 시사점 도출

□ FGI 또는 면담 조사

- 농식품 소비정보교류사업 참여 소비자단체(농정원 농식품 소비자정책 포럼 참여 단체) 관계자 의견수렴
- 유통조직, 유통업체, 급식업체 관계자 의견수렴
 - 홈플러스, 만인산농협(APC),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4) GAP 생산·유통 우수사례 조사

□ 제1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사례 분석

- 경진대회 참여 조직 및 개별농업인 우수요인, 역량 분석
 - 각 시군별 추천 사례 포함 경진대회 출전 사례 전수 분석
- 경진대회 상위 입상자 면담 조사를 통한 우수 요인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국내외 GAP 생산·유통 연계사례 조사

- 유통조직이 GAP 생산을 견인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사례 발굴 추진
- 기타 GAP 관련 시사점이 있는 생산자, 유통관계자 등 면담조사를 병행한 사례조사 추진

5) GAP 확산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방안, 추진체계 개선방안 모색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 과정에서 도출되는 전략 및 추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여 연구의 완성도 및 대내외 연구 신뢰도 확보
- 관계 전문가들의 해외 사례 및 동향에 대한 자문을 기반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응한 GAP활성화 전략 및 세부 추진 방안의 모색

□ 문헌조사 및 서지, 인터넷 조사, 현장사례조사 등을 통한 체계적인 추진전략 및 개선방안 도출



최종보고서

GAP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제2장. GAP 개념 및 의의

제1절 도입 배경 및 경과

제2절 GAP 개념 및 가치

제3절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와와의 구분

제4절 각 국별 GAP 및 Global GAP와 비교

제1절. 도입 배경 및 경과

1. 식품안전 환경 변화

가. 식품사고 경각심 증가

1) 식중독 사고 추이

□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

- 우리나라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510건을 최고점으로 최근 10년간(2006~2015) 연평균 295건(환자수 7,166명)이 발생하고 있음 (누적 3,435건(환자수 998,032명))

<표2. 식중독 발생현황(2002~2015)>

연 도	식중독발생건수 (건)	환자수(명)
2006년	259	10,833
2007년	510	9,686
2008년	354	7,487
2009년	228	5,999
2010년	271	7,218
2011년	249	7,105
2012년	266	6,058
2013년	235	4,958
2014년	349	7,466
2015년	229	4,852
합계	2,950	71,662

<그림2. 식중독 발생현황 추이(2002~2015)>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정보포털 식중독 통계>

□ 식품사고 주요 원인

- 식품사고(2002~2015)의 주요 원인은 유해미생물이 1,996건으로 전체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인을 밝히지 못한 경우도 1,297건으로 나타남

<표 3. 원인별 식품사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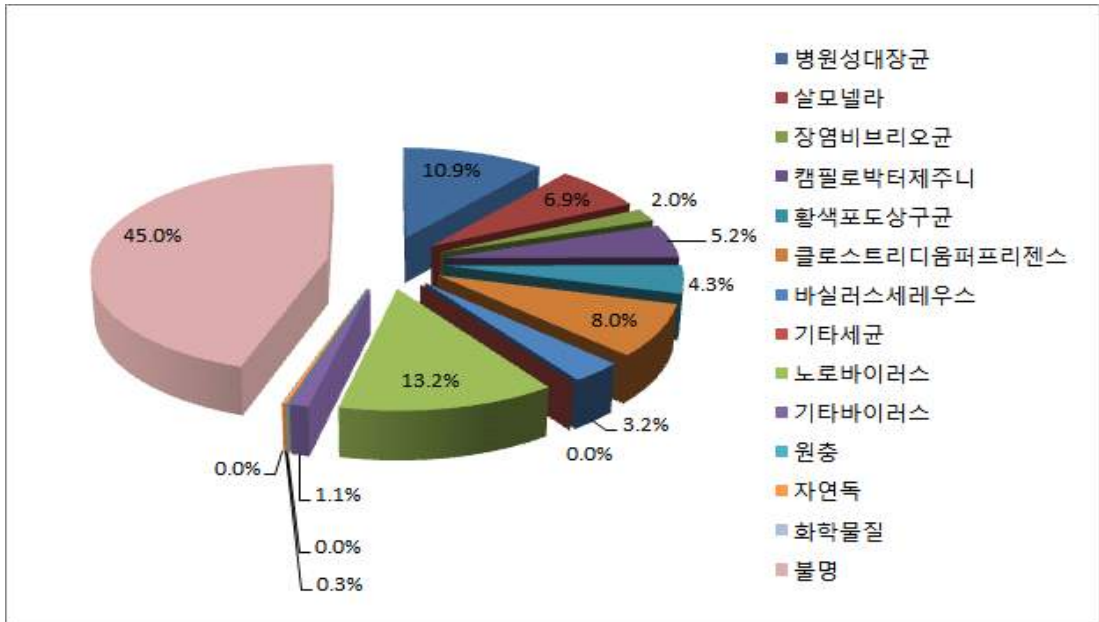
구분	유해미생물	화학물질	자연독	불명	합계
발생건수(건)	1,996	5	34	1,297	3,332
비율	58.1%	0.1%	1.0%	37.8%	100%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 2014년의 경우¹⁾ 식품사고의 원인을 분석하면 장염비브리오균(13.2%), 병원성대장균(10.9%), 클로스트리디움퍼프리젠스(8.0%), 살모넬라(6.9%) 등 유해미생물의 비중이 높음

1) 2015년의 경우, 식품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조사 중인 건이 다수 있어 2014년 기준 분석

<그림 3. 식중독 발생 원인균>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통계시스템>

○ 기후변화 등의 원인으로 식중독 사고는 향후에도 다발할 것으로 예상됨

2) 토양 및 수질오염 등 먹거리 안전 위협 안전사고 발생

□ 국내외적으로 토양 및 하천 오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표 4. 국내외 주요 환경 오염사고>

사고 년도	사고명	원 인	피해 규모 및 시사점
2013	포스코 페놀 유출	석회질 지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침하현상이 배수로에 균열 원인	지하수 주수천 12곳 중 3곳 오염
2013	삼성전자 불산 누출	배관철거 작업 중 불산 용액 누출	1명 사망, 3명 부상
2013	청주공단 불산 누출	점검 작업 중 부주의로 불산 누출	1명 부상, 하천 오염
2013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작업자 과실로 인한 불산용액 누출	5명 사망, 18명 부상
2011	일본 후쿠시마 원전	지진(쓰나미)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다량 방사능 유출	토양오염/해수오염 방사능 우려 고조

사고 년도	사고명	원 인	피해 규모 및 시사점
2010	방사성 오염 식수사건	원인파악 불가	수질검사 결과 기존 수치의 58배를 초과
2009	여주군 마을 방사성 물질 검출	자연방사선 물질 노출	상수도에서 라돈과 우라늄 기준수치 3배 검출
2009	춘천 지하수 방사선 물질 검출 사건	암석이나 토양 등 자연방사선 물질 노출	우라늄 기준수치 30 ppb 초과
2007	태안 기름유출 사건	유조선 탱크가 파공되어 유출	5.159ha에 달하는 어장 피해
2006	벤젠 비타민 C 음료 사건	실험실에서 일부 청량음료에 소량의 벤젠이 함유	빠른 대처로 인하여 제품수거 및 성분조성 검사로 인명피해 방지
2005	말라카이트 그린 파동 사건	2005년 7월 12일 중국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논란	수산물의 소비 위축
2003	탱크로리 추락 화재사고	솔벤트유를 실은 22.5톤 탱크로리 전복	논 솔벤트유 유출
2000	탱크로리 전복사건	옥탄 20톤을 실은 탱크로리 전복	옥탄 하천오염 발생
1995	씨프린스호 사건	태풍 '페이'로 인하여 운항도중 강풍과 높은 파도로 충돌	기관연료유 1,400톤 중 약 700톤 정도 유출
1987	미국 텍사스주 불산누출 사건	마라톤 석유회사 정유시설에서 크레인이 열교환기를 알킬레이션 유닛위로 올리던 중 사고 발생	인근 농경지 불산 수치 50 ppm 검출
1986	스위스 바젤의 제약회사 사건	제약회사의 원자재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라인강과 인근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1986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 사건	증기폭발로 노심의 일부가 파손되고 건물 일부가 날아가면서 방사성 물질이 방출	반경 60km 이내 주민 13만 5천명 이동
1976	이탈리아 세베소 다이옥신 누출사건	농약제조회사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이 방출	32,000여명의 입원 어린이 다수 포함
1973	미국 미시간주 PBB 사건	화재 진화용 소방제와 가축사료 첨가제를 동시에 생산하는 회사에서 부주의로 두 제품 포장용기가 서로 바뀌어 제조	많은 가축들이 죽었으며 어린이 37명이 농약 중독, 그 중 9명 사망

나. 국제적 식품사고 증가

1) 세계 주요 식품사고

- 주요 선진국 및 중국에서도 치명적인 식품사고가 발생하여 전세계에 식품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

<표 5. 세계 주요 식품사고 현황>

발생국가	내 용
스웨덴	아크릴 아마이드 검출 - 1997~1998년 1,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food survey와 섭취실태조사 결과 1일 인체노출량이 35~40 μ g/day로 검출 (1일 위해지수 산정결과 2.9~3.5 μ g으로 신경독성 발생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검출됨)
유럽	곰팡이 독소류(마이코독신) - 2006년 유럽연합 신속정보시스템(RASFF)에 874건의 곰팡이 독소류 검출
유럽 (독일)	장출혈성 대장균 EHEC O104:H4 - 2011SUS 독일에서 처음 발생, 한달간 2,684명이 설사증세를 나타내었으며 810명이 신부전으로 발전, 39명이 사망함 - 발생초기 스페인 오이가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나 독일산 새싹이 다시 원인으로 지목된 이후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함
미국	리스테리아 식중독 - 2011년 미국 콜로라도산 캔털루프 멜론을 통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 - 최근 10년동안 미국에서 일어난 식중독 사건 중 가장 치명적인 사건으로 총 33명이 사망하였음
중국	클렌부테롤 돼지 - 2010년 천식약인 클렌부테롤을 사료에 섞어 먹여 키운 돼지고기를 먹고 집단 식중독에 감염

2) 농산물 및 농식품이 원인인 식품사고 : 미국 사례

- 미국의 경우, 2015년 유제품인 치즈가 원인이 되어 10개주 30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3명이 사망한 사고를 비롯 주 원인이 농산물인 식품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미국 오바마 정부는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을 시행하여 자국내 식품안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함은 물론 해외 식품제조시설에 대한 현장 실사 확대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식품안전 정책을 강화

<표 6. 미국 주요 식품 사고 내역 (2006~2015)>

produce(제품)	발생년도, Bacteria 명, 발생 지역, 발병자, 입원환자, 사망자
soft cheeses (치즈)	2015년, <i>Listeria monocytogenes</i> , 10개주, 30명 발병, 28명 입원, 3명 사망
Cucumbers(오이)	2015년, 38개주, 838명 발병, <i>Salmonella</i> Poona, 165명 입원, 4명 사망
Commercially Produced, Prepackaged Caramel Apples (사과가공품)	2014년, <i>Listeria monocytogenes</i> , 12개주, 35명 발병, 34명 입원, 7명 사망
Foster Farms Chicken(닭요리)	2013년, <i>Salmonella</i> Heidelberg, 29개주, 634명 발병, 약 240명 입원
cantaloupe (메론)	2012년. S. Typhimurium and Newport, 24개주, 261명 발병, 94명 입원, 3명 사망
raw clover sprouts (클로버 싹)	2012년, E. coli O26, 11개주, 29명 발병, 7명 입원
romain lettuce (로메인 상추)	2011년, E. coli O157 : H7, 10개주, 60명 발병, 최소 30명 입원
cantaloupe (메론)	2011년, <i>Listeria monocytogenes</i> , 28개주, 147명 발병, 143명 입원, 33명 사망
papayas (파파야)	2011, <i>Salmonella</i> Agona, 25개주, 106명 발병, 10명 입원.
alfalfa and spicy sprouts (알팔파 싹)	2011, <i>Salmonella</i> Enteritidis, 5개주, 25명 발병, 3명 입원.
cantaloupe (메론)	2011, <i>Salmonella</i> Panama, 9개주, 20명 발병, 3명 입원.
hazelnuts (헤이즐넛개암열매)	2011, E. coli O157:H7, 3개주, 8명 발병, 4명 입원.
alfalfa sprouts (알팔파 싹)	2010 <i>Salmonella</i> I 4,[5],12:i:-, 26개주, 150 명 발병, 33명 입원.
alfalfa sprouts(알팔파 싹)	2010 <i>Salmonella</i> Newport, 12개주, 44 명 발병, 7명 입원
shredded romain lettuce (절단로메인상추)	2010, E. coli O145, 5개주, 33명 발병, 12명 입원.
alfalfa sprouts (알팔파 싹)	2009 <i>Salmonella</i> Saintpaul, 14개주, 235명 발병, 7명 입원.
raw produce (원재료)	2008 <i>Salmonella</i> Saintpaul, 43개주, 1442명 발병, 286명 입원., 2명 사망
cantaloupe (메론)	2008 Litchfield, 16개주, 51명 발병, 16명 입원.
tomatoes (토마토)	2006 (Jimmy John's), 2012 <i>Salmonella</i> Typhimurium, 21개주, 183명 발병, 22명 입원
french spinach (시금치)	2006 E. coli O157:H7, 26개주, 200명 발병, 102명 입원., 3명 사망

<출처 :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 www.cdc.gov 인용 >

2. 식품소비여건의 변화

1) 외식의 증가로 인한 식품 안전에 대한 관심 증가

- 사회구조의 핵가족화, 여성 경제참여 증가, 1인가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외식이 증가하면서 ‘안전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 외식비 증가 추이
 - 5.9천원('75) → 285.7천원(' 10) → 304.8천원('12) *75년대비 51.7배 이상 성장
- 외식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외식분야 안전관리 요구 증대
-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 표명 : 4대 사회악 규정

2) 수입 식품 증가

- 세계 5위 수준의 식품 수입국
- 전체 섭취열량 대비 수입식품 비중 : 50%(2009)
- 한미FTA, 한EU FTA, 한중 FTA, TTP 가입 협상 등 세계 자유무역체계의 확대로 수입식품의 지속적 증가 예상
-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불안 증가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2013) 결과, 수입식품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 57.8% VS 안전하다 6.4% 로 조사됨 (대한상공회의소, 주부 500명 설문)

3) HMR시장의 확대

- HMR은 (Home Meal Replacement)의 약자로 가정에서 데우거나 끓이는 등의 조리과정 후 간편히 먹을 수 있는 가공, 조리, 포장식품으로 다른말로는 가정간편식이라고도 함
- HMR은 식재료 포장, 조리방법 등에 따라 RTP, RTC, RTH, RTE 4가지 종류로 분류됨

<표 7. HMR 종류 및 분류>

분류	내용	예시
RTP	식재료를 요리하기 편하게 세정, 소량포장한 상품	조리용 포장재료
RTC	식재료를 손질해 바로 조리가 가능한 상품	찌개, 탕 등
RTH	가열하여 바로 섭취 가능하게 한 상품	카레, 미트볼, 스파게티 등
RTE	조리과정이 없이 구매 후 바로 섭취 가능한 상품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 최근 가치관의 변화, 평균 결혼연령 증가, 맞벌이가구 증가 등 여성의 활발한 사회진출, 고령화 심화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1인가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27.1%(약 448만명)로 나타남
 - 향후 1인가구 비중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1인가구의 증가현상은 소량으로 구성되어 있고 간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HMR에 대한 매출 및 수요 증대로 이어져 HMR시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 약 1조7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함
 - 특히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매출이 상승하고 있음
 - 유럽,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보면 우리나라 1인가구 비중 및 HMR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3. 주요국 식품안전관리 전략

가. 식품안전시스템

1) 식품안전시스템 개념

- 식품안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직이 공동 작업하는 조직화된 구성요소의 집합
 - GAP, GMP, HACCP, ISO22000 등이 대표적이며 생산자, 기업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자체적으로 농장이나 공장의 생산공정에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
 - 주로 국가표준화기구(ISO)를 통해 민간에서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HACCP은 국가지정 HACCP만을 허용하고 있음
- 식품안전시스템은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통해 생산단계에서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Table)의 각 단계의 식품안전을 확보하는 것임
- 위험분석은 일반적으로 장애의 손실이나 악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나 정도를 추정하고 그것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려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위험평가(Risk assessment), 위험관리(Risk management), 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 등으로 이뤄짐
- 식품안전을 위해 규제나 정책을 입안하고, 이해관계자 간 정보 교환과 의사소통을 실시하는 일련의 절차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절차를 제정함
 - Codex는 ①식품안전과 관련된 문제의 확인 ②Risk profile 확립 ③위험평가와 위험과리를 해야 할 위해(Hazard)의 우선 순위 결정 ④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위험방침의 책정 ⑤위험평가 실시의 의뢰 ⑥위험평가결과의 검토 순으로 식품안전의 위험분석을 설명함

2) 식품안전관리 시스템 종류

<표 8. 국제 농산물 및 식품가공 안전관리 시스템 현황>

규격	적용범위	적용국가
Global GAP	농산물	유럽(전 세계 확대)
GMP+	동물사료	네덜란드(유럽 내 확대)
ISO 9001	사료 및 식품	전 세계
HACCP	식품체인	전 세계
BRC	식품가공	영국, 네덜란드(확대 중)
SQF-2000	식품체인	호주, 미국
NSF-guideline	식품체인	미국
FMI Inspection	식품체인	미국
IFS	식품가공	독일
ISO 22000	사료 및 식품체인	전 세계
Traceability	사료 및 식품체인	전 세계

<출처: 이철희, “농식품 안전관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 『계간 농정연구』, 농정연구센터, 2009.>

□ HACCP

○ HACCP은 사전예방적 시스템으로 위해요소 중점관리체계임

- HACCP은 Haz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의 약자로 식품이 제조, 유통되는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모든 제조공정을 제어하고 있으며 기존 법규 준수, 위생설비, 생산 시설 설비, 위생관리 등이 선행된 이후,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체계로 주요국가에서는 모든 식품가공과정에서 HACCP적용을 권장하고 있음

<표 9. HACCP와 기존 위생관리체계 비교>

구분	HACCP 체계	기존 위생관리 체계
특징	위해의 사전예방, 전 제층의 안전성 확보	위해의 사후통제, 최종제품 불량률 최소화
위생관리방법	공정관리 (중요관리점 관리, CCP)	최종제품 관리, 검사
위해요소관리	분석에 의한 위해요소 관리	규정된 위해요소만 관리
신속성	필요시 즉각적 조치 가능	시험분석에 장기간 소요
소모비용	시스템 도입 후 운영경비 저렴	시험분석에 많은 비용 소요
제품안전성 관리자	비숙련공도 가능	숙련공만 가능

- HACCP에서 관리하는 위해요소는 크게 생물학적 위해요소, 화학적 위해요소, 물리적 위해요소로 구분
 - 모든 원료와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 분석 실시 후 HACCP 7원칙에 따라 HACCP 관리계획 수립
-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일정 품목을 지정하여 HACCP 의무 도입 적용
 - 심사도 정부에서 시행하여 업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축산물은 농림수산부에서, 나머지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10. HACCP 적용 대상 식품>

구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p>자율적 적용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사육업 • 집유업 • 유가공업(우유류, 가공유류,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아이스크림류 분유류) • 식품가공업(햄류, 소세지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건조·저장육류, 갈비가공품) • 알가공업(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알가열형성제품) • 식육포장처리업(포장육) • 축산물보관업(축산물 보관창고) • 축산물운반업(식육운반업) •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소) • 사료제조업(배합사료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식품 중 기타 빵 또는 떡류, 면류, 일반가공품의 기타가공품 • 빙과류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 도시락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 • 김치절임식품 중 김치류, 절임류, 젓갈류 • 특수영양식품중 영아용(성장기용) 조제식, 곡류조제, 기타 영/유아 주스류 • 두부류 또는 육류 • 저산성 통·병조림 중 굴 통조림 • 건포류 • 드레싱 • 빵 또는 떡류 중 빵, 케이크류 • 생식류 • 고춧가루 • 면류(생면, 숙면, 유탕면)
<p>의무적용 대상(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 연체류, 패류, 일반가공의 기타가공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 만두류 • 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 식품 • 김치류 중 배추김치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 약자로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을 의미
 -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 설비 등 하드웨어적인 기준과 함께 원료에서부터 생산, 포장, 출하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위한 기준임
 - 건강기능식품은 제품 특성상 일반 식품에 비해 높은 기능성과 효능을 강조할 수 있는 식품으로 정부의 특별한 관리 아래에서 인증을 시행하고 있음
- GMP는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 건강기능식품 벤처제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나, OEM형식의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GMP지정이 필수조건임
- GMP 지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정을 위해 기본저인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위생, 품질관리와 관련된 기준서 수립, 기준서 준수를 통해 인위적 과오 최소화, 교차오염으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 품질보장 체계 확립 등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ISO 22000

- ISO 22000은 HACCP이 가지고 있던 지역성 및 규제중심의 강제성 중심의 식품안전관리를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차원으로 국제표준화한 규격임
 - ISO 22000은 HACCP이 가지는 지역별 운영방법 차이점 존재, 정부 주도의 규제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주도의 자율적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인증
 - 조직규모나 식품 분야에 상관 없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
- ISO 22000는 ISO 9001의 요구사항을 기본 틀로 두고 7항 제품실현에서 대신 HACCP(원칙 12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안전한 제품의 기획 및 실현'을 요구하고 있음
 - ISO 22000은 식품안전 경영시스템으로 위생관리를 품질경영시스템(QMS)적으로 접근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제도로써 HACCP과 QMS가 모두 병합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11. HACCP vs ISO 22000>

구분	HACCP	ISO 22000
사업방식	정부주도 중심 + 민간	민간주도
규제여부	규제중심(정부중심) -강제성	고객만족중심 - 자율성
기준의 범용성	지역성(국가별/기관별 해석 차이 존재)	통용성(세계적 동일규격)
요구사항	7원칙 12절차	7원칙 12절차 포괄
포괄성	포괄성 결여(부가적 프로그램 필요)	포괄적 개념
유연성 문제	경직성	유연성, 개방성
접근방식	구체적 접근(HOW, 제품별)	시스템점 접근(WHAT, 목표)

□ 이력추적제도

-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 관리
- GAP 인증 농산물은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농산물을 관리하고, 농산물의 생산·출하 정보를 기록하여 출하일로부터 1년이상 보관 (의무사항은 아님)

나. 주요 국가 식품안전관리 전략

1) 미국

□ 식품안전현대화법

- 2011. 1월 제정된 법으로 문제 발생 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사전 예방을 중심으로 식품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 핵심임
- 사전예방 및 위해 기반의 식품안전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절한 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법 집행권한을 FDA에 부여

- 예방권한 : 식품 공급에 대해 포괄적이고 과학 기반의 예방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
 - 의무적 예방관리 : 식품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해성 평가, 어떤 예방 단계 또는 관리가 위해성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는지 명시, 해당업체가 예방관리를 차질없이 시행하는지 어떻게 감시할지를 명시, 감독 기록을 일상 업무로 유지 (기록관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명시
 - 생산의 안전기준 설정 의무 : 과일과 채소의 안전한 생산과 수확을 위해 과학에 기반을 둔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해야 함(자연발생적 위해,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 위해성 고려)
 - 의도적 식품 오염방지 권한 : 의도적 식품변조행위 방지 규제 공고
- 식품 안전관련 검사와 준수(inspection and compliance) 의 권한 : 필수 검사의 빈도 설정, 최초 검사 이후 3년에 한번씩 검사, 외국 기업도 검사 대상에 포함
- 대응조치 : 강제 리콜, 추적 강화, 고위험성 제품 추가 기록 보존
 - 식품 강제 리콜 조치 발동 권한 부여
 - 이동 제한 등 억류조치 확대, 식품 등록 정지 권한
- 수입식품과 관련 수입업자의 책임을 명시하고, 제3자 인증이나 규정을 요구, 반입금지 권한 부여

□ 식품안전검사국(FSIS)

- 농무성에 속한 식품안전검사국은 FDA가 식품안전현대화법에 의해 제정한 각종 규정들을 집행하는 기관임
- GAP 기준을 중심으로 실행규범을 통해 식품매개 질환 예방, 농장에서 식탁까지 관리 강화, 소비자 권한 및 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

2) 일본

- 일본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은 위험평가, 위험관리, 정보교류별로 역할 관계를 달리하고 있음
- 위해요소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이후 분석에 의거하여 필요대책을 개발, 위해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

<표 12. 일본 식품안전관리체계 기본구성 >

구분	주무부처	관련 법	수행업무
위험 평가	식품안전위원회	식품안전기본법	-위해성 평가 수행 -위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기관에 보고할 의무 존재 -위해관리 적용 현황파악 -국내외 위해 정보수집 및 분석
위험 관리	후생노동성	식품위생법 등	-검역소 업무 -보건/복지 지역국 운영 -지자체 및 지역 보건센터 등 -식품위생과 관련된 위해관리
	농림수산성	농약단속법 사료안전법 등	-농림 지역국 운영 -작물 시험장 운영 -농림, 수산관련 위해관리
	소비자청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	-식품의 표시관련 위해관리
위험 정보교류	상기 모든 부처	-	-식품안전관리 정보 공급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 기회 제공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제3차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재인용>

- 일본에서 위해성 평가에 대한 책임은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식품안전위원회(FSC)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평가범위는 화학물질류, 생물류, 새로운 제품류로 구분됨

- 일본의 후생노동성에서는 식품안전관리 규정 및 기준명시, 그에 따른 기준여부를 감시하고 있으며 주로 방사능, 식중독, 광우병, 수입식품, 잔류농약, 오염물질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농림수산성에서는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안전에 관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는 농업생산공정관리(GAP), 식품제조단계에서의 HACCAP 관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3) 영국

- 영국의 식품안전 및 위생은 영국식품기준청(FSA)에서 전체 책임지고 있음
 -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영국 전역의 식품안전 및 위생, 식품 표시 등 식품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법 집행에 관여하기도 함
 - 각 연방(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국별로 FSA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연방마다 기관의 역할에 차이점 존재
 - 국민을 위한 안전한 식품을 식품안전 전략목표로 세워 5가지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13. 영국 FSA 성과목표(~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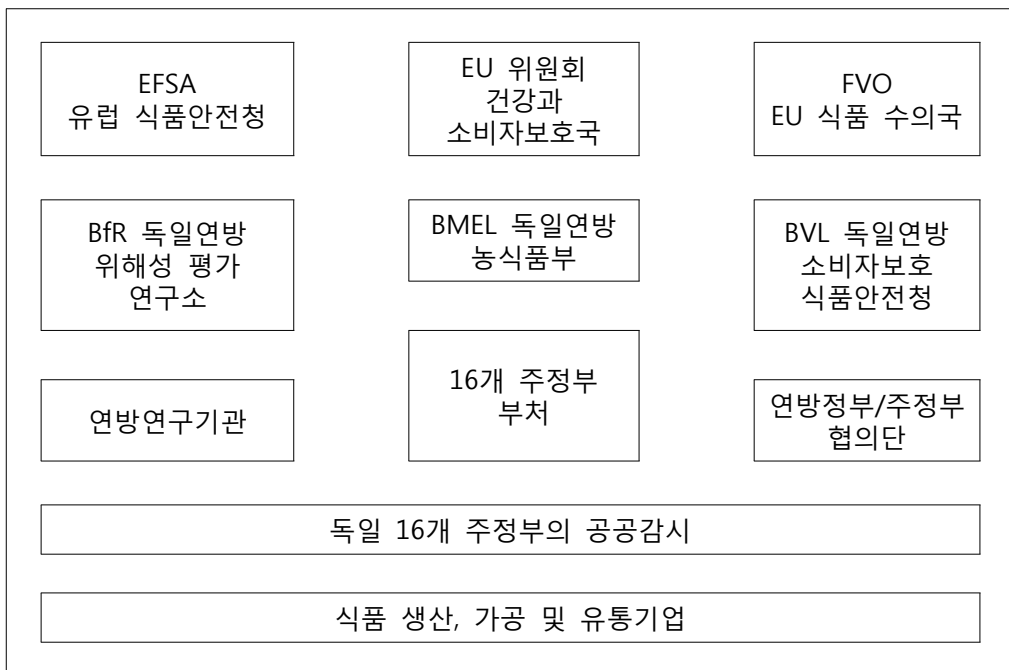
연번	성과 목표
1	식품생산 및 급식 시 소비자의 관심사항 해결을 최우선으로 함
2	수입식품의 안전성 제고
3	소비자가 이해 가능한 식품(종류와 장소)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4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지원 (효과적이고 위해기반의 균형 잡힌 규제 및 시행)
5	안전한 식품의 생산 및 판매

<출처 : FSA Strategy to 2015(updated May 2013), 2014.>

4) 독일

- 독일은 EU의 EFSA 정책과 관리지침을 따르고 있으며, 위해성 평가와 위해성 관리는 각각 독립된 기관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 독일의 경우 민간기업에 위탁을 금지하는 등 국가차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BVL
 - 2002년 설립된 독일연방 소비자보호 식품안전청으로 주정부(지방정부)와 중앙정부, EU 간에 조정 역할을 수행
 - 유럽 식품사료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책임기관이며 식물보호제품,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및 새로운 유형의 식품검사 및 승인 역할 수행
- BfR
 - 독일연방 위해성 평가연구소로 유럽식품안전청(EFSA)과 협력기관이며, 주로 건강위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역할 수행

<표 14. 독일 식품안전관리 관련 기관 연관도>



<출처 : Brochure Food Safety Strategies, 2014.>

5) 유럽연합

□ EFSA

- 유럽 식품안전청으로 유럽위원회, 유럽 의회와 같이 EU 독립기관으로 유럽 연합의 식품 및 사료의 안전과 관련된 위해성평가 수행
- EFSA에서는 모든 먹이사슬에서의 위해요소에 대한 평가 및 정보교류를 담당하고 있으며, 위해관리와는 별도로 독립되어 있음
-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유럽 각국에 위해관리와 관련된 의견제시 등의 자문역할을 수행

제2절. GAP 개념 및 가치

1. 개념

가. 기준 법률 : 「농산물품질관리법」

1) 법률 상 정의(제2조1항 4호)

- ‘농산물우수관리’란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세척·건조·선별·절단·조제·포장 등을 포함한다)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함

2) 연구보고서 상의 개념

-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관리자가 지켜야 하는 생산 및 취급과정에서의 위해 요소 차단 규범
- 궁극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농축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 후 관리, 저장과정 중의 비료, 농약, 중금속, 미생물에 대한 관리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체계²⁾
-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수확·수확후 처리·저장과정 중의 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위해요인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계³⁾

2)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농촌경제연구원, 2006

3) 위해요소 사전관리 시스템(GAP·HACCP) 의무화 방안연구, 농촌경제연구원, 2012

나. 핵심 가치

1) 농산물 안전성

- GAP 실천 농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과학적 기준을 성실하게 이수해야 함
-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체계의 핵심 근간으로 GAP 기준 사항 준수

2) 농업생태계 보전

-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여야 함
- GAP 실천농가는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해 힘써야 함

3) 농작업자의 안전, 건강, 복지

- GAP 실천농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농작업자의 안전, 건강, 복지문제에도 충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

다. 농산물 안전성을 해치는 위해요소

- 위해요소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요소나 조건을 의미

<표 15. 농산물 위해요소>

구분		오염원	특징
화학적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선, 아프라톡신, 환경호르몬	의도적 살포, 재배토양, 자연환경, 독소생성곰팡이	잔류농약은 자연 감소
생물적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퇴비, 유기비료, 가축, 음용수, 농업용수, 동물, 작업자	오염 후 원상회복, 자연감소가 어려움
물리적	돌, 유리, 금속물질, 나무, 플라스틱 등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	작업자 부상, 물리적 손상

2. 제도의 필요성

가. 도입배경

1) 식품안전에 대한 세계적 동향

- 각 국은 국가 농산물 생산관리시스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으며,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요구가 증대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함임
- 생산단계에서부터 생산단계에서부터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 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 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일환임
- Codex는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 기준을 비준하고 향후 과일.채소류 교역에 있어 Codex GAP 협의사항을 근거로 비관세장벽화를 가능하도록 하였음
- 농산물품질관리제도 도입 및 농산물품질관리 관련 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나. 도입 절차 및 경과

1) 시범사업 (2003~2005)

- 품목 : 수박, 딸기, 인삼 등 42개 품목
- 참여기관 : 농협, 유통공사, 생약협회, 인삼공사, 장원산업, 풀무원 등
- 실적 : 9농가(2003) → 965농가(2005)
-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GAP 관리기준, 대상품목, 세부실시요령 등을 마련함(200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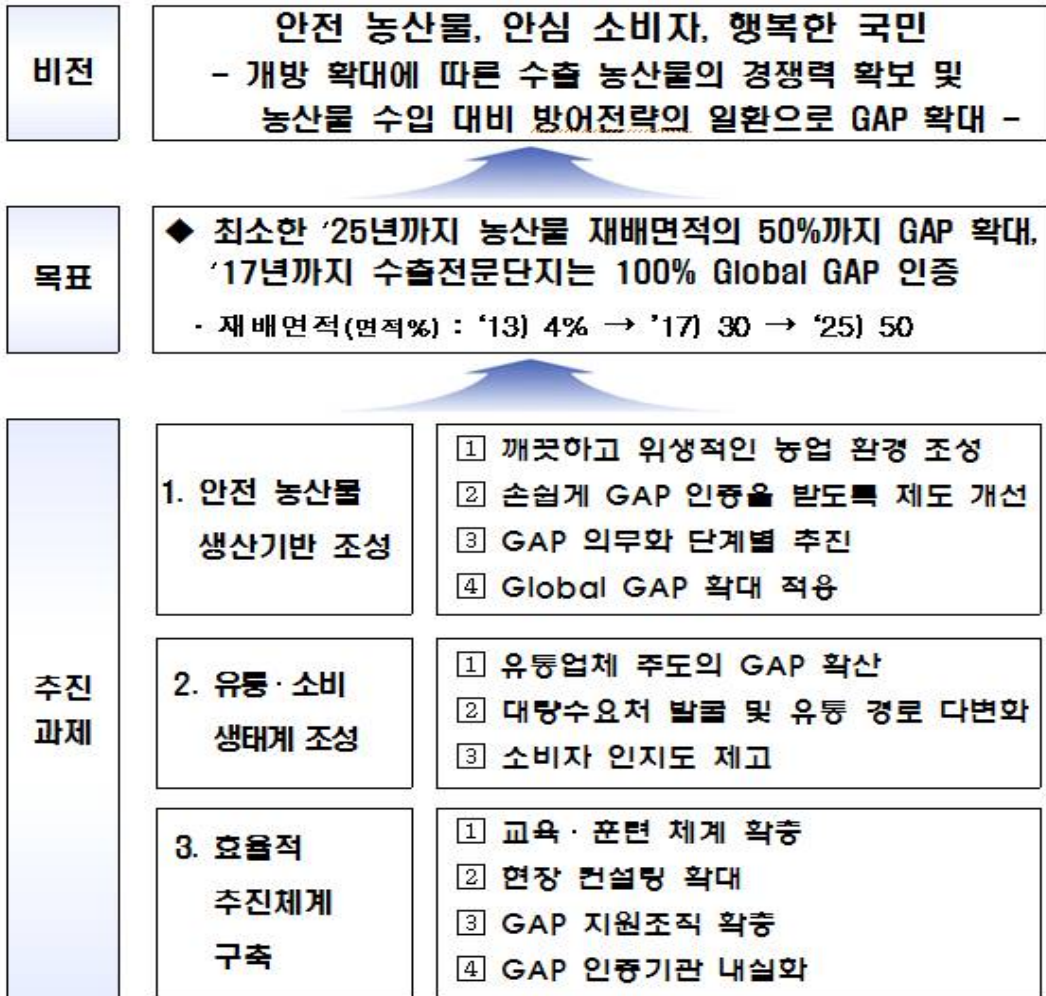
2) GAP 도입

- 본격 시행 : 2006.01
- GAP 정보시스템, 이력추적관리시스템 구축 (2006~2007)
- 대상품목의 확대 : 105품목(2008.09) → 전품목 (2009.12)
- 명칭변경 : 우수농산물관리제 → 농산물우수관리제(2009)

3) GAP 활성화 시도

- 2011년 조직육성, 생산확대 등 GAP제도 활성화 계획 수립
- 2012년(07월) 인증 유효기간 연장(1년 → 2년), 집단인증제 도입
- 2013년(10월) 소비자중심 제도 개선방안 발표
- 2014년(9월) 제도개선 및 규정 개정, 인증절차 간소화 등
- 2015 웰빙, 안전, 개방화시대 GAP 확산방안 발표

<그림 4. 웰빙·안전·개방화시대 GAP농산물 확산 방안('14.12)>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2015.01.05.>

다. 역할분담

1) 관련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가 GAP를 총괄하여 규정 마련, 운영예산 확보 등 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민간인증기관 관리 등 담당

<표 16. 기관별 역할분담>

구분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총괄, GAP 규정 마련, 운영예산 확보 및 홍보 추진, 운영실태 점검 등
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 인증기관, 관리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인증품 사후 관리 안전성 검사
민간인증기관	인증실시, 인증농가 사후관리
농촌진흥청	GAP 교육, 위해요소관리계획 매뉴얼 제작

라. GAP의 편익 및 기대효과

- 안전 먹거리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시스템
 - 식품 친환경성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욕구 충족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식품안전체계가 구축됨
- 무역장벽으로 역할 및 수출 지원
 -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해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동등 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 한편, 수출시 ‘FTA 원산지 증빙절차 간소화(’15.03)’로 GAP·친환경 등 정부 인증서로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기존 제반서류(농지원부 등 5종) 대체로 수출 건당 40시간, 약50만원 상당 비용 절감⁴⁾
-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 농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됨
- 농가 경영상 합리성이 증대됨
 - 관행적 농업보다 영농(경영)일지 작성, 적정 시비 및 농약사용으로 농업경영이 합리화되어 비용 절감 효과 가능

4)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2015.08.27.) ‘FTA활용으로 농수산물 수출산업화 지원한다’

제3절.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와의 구분

1. 양 인증제도의 구분

<표 17. 친환경농산물과 GAP 비교>

구분	친환경농산물	GAP	
근거법률	친환경농어업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도입시기	2001	2004년도입 → 2006 시행	
핵심가치	환경적 가치 / 환경 보전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 안전성 담보	
법률상 정의	친환경농어업(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수산물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통하여 얻은 것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의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 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	
대상 품목	모든 농산물 가능(농가 또는 작목반 인증)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농산물(축산물 제외)	
규격	규격 제한 없음	표준 규격의 특·상·보통	
인증구분	(농산물의 경우)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수산물, 무항생제축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단일 인증	
인증유효기간	1년	2년(인삼 등 일부 3년)	
인증현황 (15.12)	농가	85,165호(7.6%) *전체농가수 2014기준	53,583호(4.8%) *전체농가수는 2014기준
	면적	100,046ha(5.9%)	65,410ha (3.9%) *전체면적은 2014기준
	생산량	825,482톤	1,068,167톤

구분	친환경농산물	GAP
제한 사항	<p><유기농산물> -유기종자의 사용 -화학적으로 합성된 농약과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음 -두과작물/녹비작물 등 윤작,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완전부숙 가축분뇨 퇴·액비 등의 천연비료 사용 -천연물질, 식물추출물, 미생물제, 천적 등 친환경농자재나 왕우렁이 사용 등 자연농법만을 이용 작물생육 및 병해충·잡초를 관리하면서 재배한 농산물</p> <p><무농약농산물>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종자 사용 금지 -병해충·잡초관리 및 방제는 유기농산물 생산조건과 같음 -비료에서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사용 허용. 천연비료와 화학비료를 적절하게 활용하되 화학농약없이 생산한 농산물</p>	<p>-종자·묘목의 선정 -유전자 변형 농산물 종자에 대한 제한 규정 없음(현실적으로 사용불가) -재배 전 토양관리 -비료 및 양분관리, 물관리 -작물보호 및 농약의 적정 사용(병해충 방제 및 농약살포, 잔류농약·중금속 등 분석, 농약의 보관 및 관리 등 기준을 준수해야 함), 농기구관리, 수확작업 및 수확 후 관리, 수확 후 관리시설, 유해물질 및 쓰레기 관리, 작업자의 건강·안전·복지, 환경문제, 생산자 교육 등 관리기준 준수</p>
상대적 차이	<p>-재배생산 단계 영농일지 기록, 저장수송단계의 청결유지 등 단순한 수준의 안전성 관리제도 적용 -수확 후 선별, 세척, 포장 등 처리단계의 위생안전관리 소홀 -이력추적 미흡 : 생산에서 재포장 과정까지 기록관리 -유기농/친환경농업인단체/소비자생협 등 유관단체 및 관련 활동 활발</p>	<p>-GMO 종자 사용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고, 제초제 및 농약/화학비료의 사용이 가능한 점 등에서 친환경농산물인증 대비 친환경성이 다소 미흡 -수확 후 농관원 기준에 따라 지정된 시설에서 처리 -생산부터 유통단계까지 단계별 기록관리 (이력추적제 의무화 완화) -민간영역의 자발적인 단체/조직 및 관련 활동 미약</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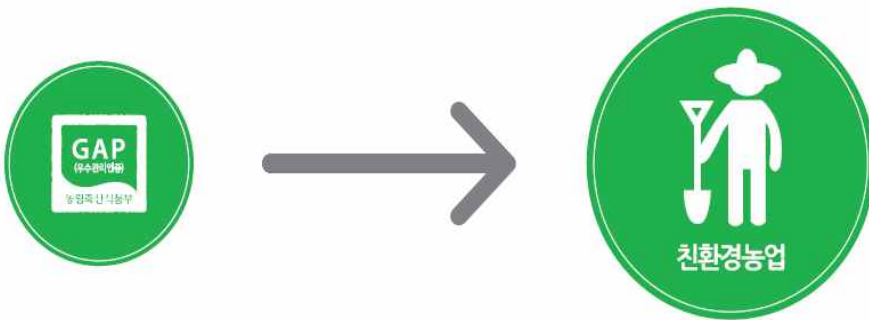
2. 유기농업단체 입장

1) 아이쿱생협

- 성명서나 보도자료, 교육자료 등 GAP 관련 공식적인 자료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친환경인증에 미치지 못하는 농산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교육청이 2013년 11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선방안’ 발표를 계기로 아이쿱회원(운소맘;윤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엄마들의 모임을 의미)들의 친환경 급식 지지과정에서 GAP에 대한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 특히 GMO 사용가능, 제초제 등 농약 사용 가능, 화학비료 사용 가능 등의 GAP 기준을 친환경인증제와 비교하여 친환경 급식에 역행한다고 주장함

2) 한살림

- 기본 입장



- GAP는 기존 관행 농지들에 대해 최소한의 관리기준을 높이는 것일 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님
- GAP는 그 자체가 도착점이 아니라 친환경농업으로 나가야 함

- 특히, 환경에 민감한 투입재인 제조제의 사용을 허용하기 때문에 환경친화적 농업이 어렵고, GMO까지 인정하기 때문이 GAP인증은 한계가 있음
- GAP가 친환경농산물보다 우수하게 관리된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담보하는 농산물로 인식되는 것은 곤란함
- GAP는 돈이 많이 드는 수확후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농 중심의 다품목 소량생산보다는 대규모 시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규모화를 촉진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 적정농업규범 내지 적정생산관리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 다만, 관행농업의 범주에 속하면서 적정생산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친환경농업영역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p><출처> 한살림 'GAP 바로알기' 교재 한살림홈페이지 www.hansalim.or.kr</p>	

제4절. 각 국별 GAP 및 Global G.A.P와 비교

1. 각 국별 제도 운영 실태

가. GAP 국제 동향

1)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 원칙’에 근거하여 신선 상태로 소비하는 과일, 채소류의 안전 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 간 협의를 시작하여 2003년 7월 본회의에서 과일, 채소류에 대한 생산 취급기준을 비준하였음

2) FAO(국제식량농업기구)

- FAO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기존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 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개하고 있다고 판단함
- 이에, 2003년 4월에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 체인 접근법’ 도입 필요성을 주장함
-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
- 식품체인접근법에서 토양, 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 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임

3) EU(유럽연합)

- 유럽연합은 동구 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고, 일반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 제정을 통해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
- 민간 유통조직 협의체인 EUREP (Euro-Retail Produce Working Group)은 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신선과일, 채소류 생산기준인 Global GAP를 개발하여 국제적인 인증으로 확산하고 있음
- 생산자조직과 유통업체 간 계약시 Global GAP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계약 위반시 위약금 등으로 제재하고 있음
- 네덜란드의 경우, 인근 유럽 시장의 까다로운 소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구조 혁신, 생산 환경, 품질 관리 등의 측면에서 최고의 기술과 노력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GAP 도입
-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을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GAP 농산물 기준에 맞추기 위해 ICT융복합 첨단 농업 환경 제어 기술의 도입 등 철저한 준비와 농업구조 재편 추진

4) 아시아

- 수출 상대국의 식품 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 GAP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후진적 농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각국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
- 중국은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에서 기준을 설정, GAP 인증을 담당하고, 국가에서 총괄하는 인증체계로 전체 농산물에 대한 GAP 실행, 실행 농가 보조금 지급을 목표로 추진





- 농산물 수출이 많기 때문에 수입국들의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GAP 제도를 ‘양호농업규범’으로 명명하여 관리
- 중국 GAP는 중국 농업의 영세성과 지역간 농업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여 1급인증, 2급인증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함
- 1급 인증의 경우, 2009년 2월 Global GAP와 동등성 인정에 대한 MOU를 체결함
- 일본은 2002년 GAP를 도입하여 2006년 관리 기관인 JGAP를 설립하고, 2007년부터 EurepGAP와 동등성인증협약을 체결하여 내수용과 수출용을 이원화하여 운영
- 일본의 GAP는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출용 GAP의 경우 Grobal GAP와의 동등성이 인정되어 농산물들을 수출하고 있음.
- 일본GAP협회에서 인정한 인증기관은 총 4곳으로, 이곳에서 일본 내의 모든 GAP인증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수입농산물의 GAP 의무화를 표명한 ‘신선농산물수출입 관련 장관령(2016.2월 시행 예정)을 통해 무역장벽으로 활용

5) 미주지역

- 자국 국민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GAP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 시 수출국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로 GAP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은 식품의약청(FDA)이 GAP 실행 규범을 마련하고 농무성(USDA) 주정부의 기금조성, 검가시준설정 교육체계구축 등의 실무지원 및 GAP관련 정보제공하며,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 ; Federal State inspection Service)에서 GAP 실행 관리, 각 주립대학교에서 GAP교육을 담당하는 체계로 운영

- 주별로 농업프로그램과 연계되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므로 주별로 GAP 실행에서 차이가 발생하기도 함.
- GAP권장지침에는 물관리, 퇴비·액비관리, 농작업자 건강 및 위생관리, 재배지 위생관리, 선별시성관리, 운송, 기록 및 역추적 까지 포함하고 있음
- 식품안전현대화법(2011년) 제정에 따라 실행규칙이 2016. 6월 확정 예정임

<표 18. 주요국 GAP 체계 비교>

구분	EU	일본	중국	미국	한국
인증 구분	Grobal GAP(GGAP)	JGAP(국내용/수출용)	1등급/2등급	규범	GAP
동등성 (G-GAP 기준)	-	동등성 인정 중단(수출용)	동등성 인정 (1등급)		동등성 미인정 (개별 GGAP 인증 획득)
관리 감독	민간	JGAP협회 (민간)	국가인증 인가 감독관리위원회 (CNCA)	주정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증 기관	민간	민간 4개	민간 + 국가 : 15개 (대부분 국가 기관인 CQC 에서 인증)	민간(유통업체)	민간 45개
대상 품목	과실, 과채류, 화훼류, 축산, 양곡, 수산물 (양식새우) 포함	국내용 : 50품목, 수출용 : 과일	GAP 국가표준이 있는 농산물 265개 품목 (축산물, 농산물, 향신료, 차, 양식 수산물 등)	상추, 시금치, 토마토, 버섯, 호두 등 채소류를 중심으로 조리 하지 않고 섭취 하는 농산물 위주	식용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농산물
인증 유효기간	1년	2년	1년	-	2년
산형태 (개별/단체)	개별/단체, 개별 벤치마킹/단체 벤치마킹	개별/단체	개별/단체	-	개별/단체
GAP 인증 마크	없음	GAP 농장 마크 GAP 농산물 마크   수출용 -부착금지	1등급 2등급  	없음	 
특이사항	-유통업체 주도로 GAP제도 도입 -GGAP는 Codex 등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준	-농산물이 아닌 농장에 인증 부여 -GAP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제 조한 상품에 JGAP 농산물 마크 사용	-유럽의 GGAP 기준을 참고로 GGAP 수준으로 GAP 제도를 도입 -정부 주도형 GAP 인증제도 운영	-주로 수출시 활용 -주마다 GAP제도 운영 및 시행방법에 차이점존재 -보건부, 농무성, 주정부, 대학에서 각각 역할을 분담 하여 운영 • FDA - GAP기준 제정, • USDA- 자금조성, 교육 체계 구축 등 실행지원 • 주정부 - GAP단체 지도, GAP운영 관리 및 검사 • 대학 - 생산농가 GAP 교육	-정부주도형 GAP 인증제도 운영 -GGAP와 동등성 협약 미체결 (별도로 GGAP인증 후 수출)

2. Global G.A.P

1) 개요

- Global GAP는 식품과 농업 작업의 유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화학비료의 투입을 줄이고,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책임있는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설계됨
- 1997년 EUREP라는 유통업체 협의체 주도로 GAP 제도를 추진하다 2007년 'Global GAP'으로 명칭을 변경
- Codex, HACCP 기준에 근거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든 Global GAP는 효율적인 인증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농업생산자와 유통업체간 간에 GAP에 대한 실용적인 매뉴얼로 역할을 함

2) 운영 실태⁵⁾

- 심사원 교육 : 1,700명 이상
- 인증 기관 : 140개
- 국가수 : 118개국
- 인증 품목 및 생산자 수 : 415개 품목 140,000명 이상

3) 인증 형태

- Global GAP의 인증유형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됨
 - 개별농가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Option 1
 - 생산자 단체가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 Option 2

5) <http://www.globalgap.org>

- 개별농가가 벤치마킹을 통해 인증 받는 경우 - Option 3
- 생산자 단체가 벤치마킹을 통해 인증 받는 경우 - Option 4

4) 벤치마킹 스킴(Benchmarking Schemes)

- Global GAP에서 타 국가의 GAP를 Global GAP로 승인하는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됨
 - Equivalent(동등성) : Global GAP체계를 전체적으로 수용하는 방식
 - (1유형)Scheme : Global GAP의 CPCC와 GR을 그대로 수용
 - (2유형) AMC (Approved Modified Checklist) : Global GAP의 CPCC를 수용하나 checklist를 추가하는 방식
 - Resembling(유사성) : 몇가지 경우를 제외한 후 Global GAP체계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동등성과 마찬가지로 두가지로 분류됨
 - (1유형)scheme : 독립적인 GAP 기준과 함께 Global GAP의 CPCC와 GR를 수용
 - (2유형)AMC(Resembling Approved Modified Checklist) : Global GAP기준(요구사항-위의 schem과 동일)에 checklist를 추가하는 방식
- 벤치마킹 과정(Procces)
 - 서류평가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평가 과정으로 Global GAP의 기준 부합 여부를 평가. 서류평가 시 회원들에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목을 넓힐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함
 - QMS 현장평가 - 서류평가와 함께 품질관리시스템(QMS - quality management system)에 대한 현장평가 실시
 - 벤치마킹 위원회 검토 - 생산자, 소매/식품 서비스 전문가 등 GAP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벤치마크위원회에서 검토 후 승인

<표 19 Global GAP Equivalent(동등성) 인정 목록>

Scheme Name (체계명)	country (국가명)	작물	범위	표준 버전
AMAG.A.P.	오스트리아	F&V	Scheme	GLOBALG.A.P.IFAV4.0-AMAG.A.P.VJänner/2012
BANAG.A.P	프랑스	F&V	Checklist	GLOBALG.A.P.IFAV4.0-BANAG.A.PV5.0
BOPPGrowerStandard	영국	F&O	Scheme	GLOBALG.A.P.IFAV4.0-BOPPGrowerStandard,Version2
CertifiedNaturalMeatProgram	우루과이	CS	Checklist	GLOBALG.A.P.IFAV4.0-NaturalMeatV2012
ChileG.A.P.	칠레	F&V	Checklist	GLOBALG.A.P.IFAV4.0-ChileG.A.P.V4.02013
EHPEACodeofPracticeforSustainableFlowerProduction-SilverLevel	에티오피아	F&O	Scheme	GLOBALG.A.P.IFAV4.0-EHPEAV4
IKBVarken	네덜란드	PG	Scheme	GLOBALG.A.P.IFAV4.0-IKBVarke nV14.0
KenyaGAPInternational	케냐	F&V, F&O	Checklist	GLOBALG.A.P.IFAV4.0-Kenya-G APEd.3V6
KFCSilverStandard	케냐	F&O	Scheme	GLOBALG.A.P.IFAV4.0-KFCed.9_2012
MPS-GAP	네덜란드	F&O	Scheme	GLOBALG.A.P.IFAV4.0-MPS-GA PV9
MéxicoG.A.P.	멕시코	F&V	Checklist	GLOBALG.A.P.IFAV4.0-MéxicoG .A.P.V5.0
naturane	스페인	F&V	Checklist	GLOBALG.A.P.IFAV4.0-naturane V3.0
NewZealandGAP	뉴질랜드	F&V	Scheme	GLOBALG.A.P.IFAV4.0-NewZeal andGAPV6.0_June2013
QS-GAP	독일	F&V	Scheme	GLOBALG.A.P.IFAV4.0-QS-GAP V3.0_01.01.2014
SwissGAPHortikultur	스위스	F&O	Scheme	GLOBALG.A.P.IFAV4.0-SwissGA PGG-V4_November-2012
UNE155000	스페인	F&V	Scheme	GLOBALG.A.P.IFAV4.0-UNE155 000V2013
UNEG.A.P.	스페인	F&V	Checklist	GLOBALG.A.P.IFAV4.0-UNEG.A. P.Revision1

<표 20. Global GAP Resembling(유사성) 인정 목록>

Scheme Name (체계명)	country (국가명)	작물	범위	표준버전
IKBNederlandVarkens	뉴질랜드	Pigs	Scheme	GLOBALG.A.P.IFAV4.0-IKBNederlandVarkensV8.9
ChinaGAP	중국	Fruitand Vegetables/Combinable Crops	Scheme	GLOBALG.A.P.IFAV4.0-ChinaGAPVersion2013
FlorverdeSustainableFlowers	콜롬비아	F&O	Scheme	GLOBALG.A.P.IFAV4.0-FSFV6.0
RedTractorAssuranceforFarmsFreshProduceScheme	영국	F&V	Scheme	GLOBALG.A.P.IFAV4.0-RTFreshProducev3.0October2014

* CS (소/양-Cattle and Sheep), F&V (과일/채소-Fruit and Vegetables), F&O (화훼/장식물-Flowers and Ornamentals), PG (돼지-Pigs)

나. Global GAP와 국내 GAP

1) 대분류 세부 항목 현황

- EU가 26대분류, 233개 세부 항목으로 가장 방대한 인증 기준 보유
 - 위탁사업자, 문제제기, 리콜 절차 등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도 다수 포함
- 그 외 미국 7대분류 210개 세부항목, 일본 15대분류 138개 세부항목, 그리고 한국은 12대분류 71개 세부항목을 보유함

<표 21. 국가별 GAP 인증 세부 기준 현황 >

구분	세부 기준
EU	233
1. 공통기준	4
2. 기록관리 및 내부자가점검. 내부심사	3
3.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20
4. 위탁사업자	2
5. 폐기물 및 오염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4
6. 환경 보존	4
7. 문제제기	1
8. 리콜 절차	1
9. 식품보안(화훼에는 적용하지 않음)	1
10. GLOBALG.A.P. 상태 표시	2
11. 로고 사용	1
12. 이력추적 및 구분관리(생산자가 병행생산/병행 소유권 등록이 된 경우 의 무사항)	8
13. 추적성	1
14. 종묘	10
15. 생산지 이력 및 생산지 관리	2
16. 토양관리	3
17. 비료 사용	21
18. 관개/관비(Fertigation)	12
19. 병해충종합관리(IPM)	5
20. 작물보호제	57
21. 장비	2
22. 토양관리(토양훈증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2
23. 상토(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없음)	2
24. 수확 전 관리 (부록 CB. 1 GLOBALG.A.P. 지침 -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참조)	3
25. 수확작업	18
26. 농산물 취급(생산자의 소유권 하에서 취급하는 경우, 적용)	44

구분	세부 기준
일본	138
1. 농장운영	14
2. 계획과 기록	4
3. 판매관리와 이력추적	9
4. 토양, 수질, 종자의 관리	10
5. 비료 등의 관리	15
6. 농약의 관리	34
7. 수확, 수송과 관련한 위생 관리(포장에서의 출하용 포장을 포함)	5
8. 농산물 취급(보관, 선별, 상점, 세정, 포장, 출하)	8
9. 물의 보전	3
10. 토양의 보전	2
11. 주변지에 대한 배려	4
12.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감량 및 재활용	4
13. 에너지 절약	2
14. 환경 보전에의 의식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배려	5
15. 작업자의 안전	19
미국	210
1. 일반적인 질문	15
2. 농장 점검	26
3. 이 필드를 수확 및 필드 포장 활동	21
4. 하우스 선별 시설	34
5. 보관과 운반	31
6. 도매 유통 센터 / 터미널 창고	48
7. 예방식품 방어절차	35
한국	71
1. 농산물 이력추적 관리	3
2. 종자 및 묘목의 선정	2
3. 농경지토양관리	6
4. 비료 및 양분관리(버섯류는 미적용)	6
5. 물관리	2
6.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15
7. 수확 작업 및 보관	8
8. 수확 후 관리 및 시설	21
9. 환경오염 방지 및 농업생태계 보전	2
10.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3
11. 교육	2
12. 위해요소 관리 계획서	1

<표 22. G-GAP 대비 국가별 대분류 비교>

EU	일본	미국	한국
공통기준	농장운영	일반적인질문	위해요소관리계획서
기록관리 및 내부자가점검, 내부심사	계획과 기록	농장점검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작업자의 안전		작업자의 건강 안전 복지
위탁사업자			
폐기물 및 오염관리, 재활용 및 재사용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감량 및 재활용		환경오염방지 및 농업생태계보전
환경보존	주변지에 대한 배려		
	환경보전에의 의식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배려		
문제제기			
리콜 절차			
식품보안(화훼 예외)		예방식품 방어절차	
GLOBALG.A.P. 상태표시			
로고사용			
이력추적 및 구분관리 (생산자가병행 생산/병행 소유권등록이 된 경우 의무사항)	판매관리와 이력추적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추적성			
중요			종자 및 묘목의 선정
생산지이력 및 생산지관리			
토양관리	토양, 수질, 종자의 관리		농경지토양관리
비료사용	비료 등의 관리		비료 및 양분관리 (버섯류는 미적용)
관개/관비(Fertigation)	물의 보전		물관리
병해충 종합관리(IPM)	농약의 관리		작물보호 및 농약사용
작물보호제			
장비			
토양관리	토양의 보전		
상토			
수확전 관리		하우스선별시설	
수확작업	수확, 수송과 관련한 위생관리	수확 및 필드 포장 활동	수확작업 및 보관
농산물취급 (생산자의 소유권 하에서 취급하는 경우 적용)	농산물취급(보관, 선별, 상점, 세정, 포장, 출하)	보관과 운반	수확후 관리 및 시설
그외	에너지절약	도매유통센터/터미널창고	교육

2) 국내 Global GAP 인증 현황

- 우리나라는 글로벌 GAP와 벤치마킹 스킴을 2011년 aT-GAP로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례만 있을 뿐 국제적인 GAP 동등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 국내 Global GAP 인증기관 : 없음
- 인증 농가
 - 2016. 1월 현재 우리나라의 Global GAP 인증 현황은 총 19개 생산자(단체)가 인증을 획득하고 유지하고 있음
 - 인증면적은 약 600ha 수준임 (심의중인 면적 포함)
 - 인증 품목은 배, 버섯, 사과, 감귤, 토마토, 인삼, 토마토, 양배추 등 18개 품목 (파프리카 품목 심의중)
 - 전체 참여 농가는 225명으로 이중 개인 인증 농가는 9농가임
- 인증기관
 - 우리나라 Global GAP 인증은 3개 인증업체가 주로 진행함
 - CU-KOREA : Control Union KOREA 16개 품목 *심의중 : 6개소
 - 한국사무소 :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24 창성빌딩 4층
 - 국내에서 25건의 인증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사무소에 심사원 2명이 활동
 - ICG : Intertek Certification GmbH : 1개 품목(인삼) 인증
 - BCS 2개소 심의(2016) : 버울새송이영농조합(경남 창녕), 청아랑영농조합(경기 광주)
 - 한국사무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11길 20 안국빌딩 403호
- 인증수수료
 - 품목과 규모, 재배방법(노지, 시설 등) 등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지지만, CU 코리아에 따르면 개별농가 250만원, 단체(10농가 정도) 400~5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됨

○ 해외에서도 3가지 경비로 구분

- Global GAP 등록비 ; 2~1,000유로
- 인증비 : 25~130 유로
- 인증심사 현장비용 : 인증기관에 따라, 국가, 품목, 규모 등에 따라 다름

<표 23. 우리나라 Global GAP 인증 현황>

연번	생산자 (생산자단체)	인증 품목		인증 형태	참여 농가	지역	인증유효일
		개수	품목 명				GGN
1	Anseong Fruit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1	Pears	단체	45	경기	27/02/2016
							4050373642150
2	BAEKMA MUSHROOM COOPERATIVE	1	Mushrooms	개인	1	충남	15/12/2016
							4056186434715
3	Barun Food	11	Cabbages, Capsicums (Peppers/Chillies), Carrots, Courgettes (Zucchini, Marrow), Cucumbers, Endives, Lettuce, Onions, Pears, Radishes, Spring Onions, Tomatoes * Onions의 경우 현재 인증 진행중임	단체	3	충남	16/09/2016
							4056186271334
4	CHARMTRAE	1	Mushrooms	개인	1	충북 청주	06/04/2016
							4050373572754
5	Cheonan Pear Gardening Nonghyup	1	Pears	단체	14	충남 천안	20/12/2016
							405285241174 5
6	Cheongsong Appl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1	Apples	단체	21	경북	20/12/2016
							4056186381712
7	Chungju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1	Apples	단체	24	충북 충주	17/12/2016
							4052852303750

연번	생산자 (생산자단체)	인증 품목		인증 형태	참여 농가	지역	인증유효일
		개수	품목 명				GGN
8	Green Co., Ltd	1	Mushrooms	개인	1	경북	01/12/2016 4049928606754
9	Hansarang Co.,Ltd	1	Mushrooms	개인	1	경남	04/11/2016 4056186372901
10	JESKOREA Co., Ltd	1	Mandarins	단체	72	제주	15/11/2016 4050373642211
11	Namyangju Green	3	Lettuce, Spring, Onions, Tomatoes	단체	5	경기	23/07/2016 4056186256829
12	Nolme-Insam (NonSan Ginseng)	1	Ginseng Root	개인	1	충남	27/11/2016 4050373595029
13	QUALI KOREA CORP.	1	Mushrooms	개인	1	서울	26/08/2016 4050373572754
14	Rawganic Korea	1	Tomatoes	개인	1	전남 화순	17/12/2016 4056186408426
15	Seat Byeol Mandarin	1	Mandarins	개인	1	제주	28/12/2016 4056186434081
16	Sin Gimpo Agricultural Cooperative	1	Pears	단체	24	경기	26/01/2016 4052852977975
17	Ture Farmer	1	Mushrooms	개인	1	경북	13/01/2017 4056186443786
18	HAI NONG CO., LTD.	1	Chestnuts	단체	8	서울	28/12/2016 4056186428165
19	Hwaseong Grape Association	1	Grapes (Table)	단체	16	경기	27/10/2016 4050373930073
총합계(중복제외)		18			241		

<출처 : Global GAP 인증정보 <http://database.globalgap.org>>

<표 24. Control Union 인증업체 국내 G-GAP 실적>

연번	Project ID	Project	인증 상태	농가	면적 (ha)	읍년	지역	품목
1	839336	Namyangju Green	인증	5	21.69	2	경기 남양주	쌈채소
2	818143	Hwaseong Grape Association	인증	16	7.12	2	경기 화성	포도
3	839491	Barun Food	인증	3	3.10	2	충남 서천	쌈채소
4	814001	QUALI KOREA CORP	인증	1	0.50	1	경기 안성	버섯
5	822530	Cheonan Pear Gardening Nonghyup	인증	15	52.40	2	충남 천안	배
6	842930	HAI NONG	인증	8	49.00	2	충남 청양	밤
7	805731	Green Co., Ltd.	인증	7	4.43	1	경북 청송	버섯
8	842466	Hansarang	인증	1	0.45	1	경남 의령	버섯
9	815707	Anseong Fruit Agricultural Cooperative Association	심사중	57	81.68	2	경기 안성	배
10	833975	Sin Gimpo Agricultural Cooperative	심의중	31	32.50	2	경기 김포	배
11	815747	Naju Pear Cooperative Association	심의중	25	96.90	2	전남 나주	배
12	843349	TANJINDEUL PAPRIKA	심의중	4	17.60	2	전남 장흥	파프리카
13	818141	Gyeongbuk National Univ. Apple Research Institute	심의중	50	84.30	2	경북 봉화	사과
14	842925	Rawganic Korea	인증	1	1.32	1	전남 화순	토마토
15	844440	True Farmer	인증	1	0.23	1	경북 안동	버섯
16	815609	Jecks Korea Co., Ltd.	인증	71	61.64	2	제주	감귤
17	843348	SaetByeolMandarin	인증	1	1.10	1	제주	감귤
18	843388	Jeju Citrus Grower's Agricultural Cooperative	심의중	2	4.01	2	제주	감귤
19	842471	Cheongsong Apple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인증	24	50.62	2	경북 청송	사과
20	822374	Chungju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인증	23	31.76	2	충북 충주	사과
21	834178	CHARMTRAE	인증	1	0.35	1	충북 청원	버섯
22	843372	BAEKMA MUSHROOM COOPERATIVE	인증	1	0.06	1	충남 부여	버섯

<출처 : 컨트롤유니온코리아 내부자료(2016.01.20. 현재) >

3) 주요 시사점

- 국내 GAP 도입 초안이 글로벌 GAP 규격을 참고하여 만들었지만, 포괄하는 기능이 부족하고 기준 자체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태임
- 항목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정밀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음

<표 25. GAP와 Global GAP의 차이>

구분	GAP	Global G.A.P
대상	농산물	농산물, 가축, 양식어류
인증비용	50,000원	800,000~4,000,000원(규모에 따라)
신뢰대상	소비자	소매상 (유통업체)
신뢰목표	농산물 자체	생산 체계
복지	무관	근로자(농업인) 복지
환경보호	약함	환경과 공존
내용	개념적	구체적이고 절차적
체크항목	47(필수25, 권장22)	234개(FV 경우)

<출처 : FTA 확산에 따른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수출 품질관리 기술 개발, 동의대, 2013>

- 현재 상황에서 Global GAP과의 동등성 협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임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주도의 인증체계로 민간 주도의 G-GAP 인증과 격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같은 국가 주도형 GAP 인증체계를 갖고 있는 중국이 동등성 협약을 맺음으로 추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현실적으로 최초 동등성 협약까지는 8단계에 걸쳐 최소 3년~5년 정도(갱신시 2~3개월) 기간이 소요되어,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국내 전문가 그룹이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이 지배적임
- 일본의 JGAP협회처럼 공공기관적 성격을 갖는 국내 협회를 설립하거나 현행 유관조직 및 협회를 전환하여 Global-GAP 수준에 맞게 국내 GAP 기준 상향 검토 등을 통해 착실하게 동등성 협약 추진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최종보고서

GAP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제3장. GAP 현황 및 현안

제1절 운영현황

제2절 설문조사(요약)

제3절 면담 조사

제4절 기타 의견조사

5절 GAP 관련 주요 정책

6절 주요 현안

제1절. 운영현황

1. GAP 인증 현황

가. 연도별 인증 현황

<표 26. GAP 연도별 인증 현황>

(단위: 개, 건, 호, ha, 톤)

연도	대상품목	인증품목	인증기관	관리시설	인증건수	농가수	면적	생산계획량
2007	100	50	31	316	364	16,796	24,754	331,421
2008	105	59	38	417	1,053	25,158	37,129	419,842
2009	전품목	59	43	484	1,233	28,562	40,081	434,047
2010	전품목	86	45	565	1,459	34,421	46,701	509,931
2011	전품목	89	49	606	1,756	37,146	49,548	642,165
2012	전품목	110	51	718	1,969	40,215	55,215	691,228
2013	전품목	129	48	756	2,499	46,000	58,703	749,274
2014	전품목	136	44	681	2,689	46,323	58,762	795,886
2015	전품목	153	44	707	4,019	53,583	65,410	1,068,167

* 대상품목 확대('09.12.19.): 국내에서 식용으로 재배되는 모든 품목(축산물 제외)

- 2015년 GAP 인증면적은 전체 면적(2014년 기준 1,691,116ha) 대비 약 3.9%로 전년도 3.5%에 비해 증가하였음
- GAP 인증 농가수는 전체 농가수(2014년 기준 1,120,776호) 대비 약 4.8%로 전년도 4.1%에 비해 증가하였음
- 2007년 이후 전체적으로 인증건수, 농가수, 면적, 생산계획량이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림 5. GAP 연도별 증가 추이 >



나. 시·도별 인증 현황

<표 .27 GAP 시도별 인증현황>

(단위: 호, ha)

시도	농업현황		14년도		'15년도		증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계	1,120,775	1,691,106	46,323	58,762	53,583	65,410	7,260	6,648
서울특별시	2,751	480	1	-	2	1	1	1
부산광역시	7,070	6,351	67	79	84	101	17	22
대구광역시	17,290	8,660	-	-	22	15	22	15
인천광역시	12,928	20,098	78	44	115	108	37	64
광주광역시	11,869	10,370	164	126	616	334	452	208
대전광역시	9,357	4,385	67	29	78	33	11	4
울산광역시	11,559	11,369	144	171	7	17	△137	△154
세종특별자치시	6,072	8,444	117	97	82	68	△35	△29
경기도	129,906	176,025	7,782	10,312	9,032	11,594	1,250	1,282
강원도	69,887	108,726	4,133	10,422	4,403	10,600	270	178
충청북도	76,435	112,096	3,307	3,098	4,201	3,818	894	720
충청남도	135,335	219,215	5,612	6,840	5,967	6,341	355	△499
전라북도	104,037	204,613	7,699	11,685	7,480	11,009	△219	△676
전라남도	160,141	305,888	5,402	4,921	5,804	5,952	402	1,031
경상북도	192,583	277,649	9,548	8,931	11,689	11,291	2,141	2,360
경상남도	135,111	154,051	1,666	1,476	3,032	2,883	1,366	1,407
제주도	38,444	62,686	536	531	969	1,245	433	714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자료, 농관원 GAP정보시스템>

- 2015년 기준 GAP 인증면적은 경기도가 11,594ha로 가장 많으며, GAP 인증 농가수는 경상북도가 11,689호로 가장 많음
- 2014년 대비 인증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광역시 및 자치시 제외) 2,360ha가 증가한 경상북도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시도는 전라북도(676ha)로 나타남
- 2014년 대비 인증농가가 가장 많이 증가한 시도는(광역시 및 자치시 제외) 2,141호가 증가한 경상북도였으며, 가장 많이 감소한 시도는 전라북도(219호)로 나타남
- 대부분 2014년 대비 농가수와 인증면적이 증가하였으나, 전라북도만 농가수와 인증면적이 모두 감소함

다. 면적별 시군현황

- 지자체 시군 중에서 10천ha 이상인 시군은 1개소이며, 대다수 시군이 500ha 이내의 인증면적을 갖고 있음

< 표 28. GAP 인증 면적 분포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10,000ha 이상	3,000~2000	1999~1000	999~500	499~100	99이하
시군	142	1	3	13	22	53	50

< 표 29. GAP 면적 주요 시·군(1,000ha 이상)>

(단위: 호, ha)

시도	시군	'15년도		비고 (주요품목)
		농가수	면적	
강원도	철원군	3,729	10,023	쌀, 토마트
경기도	평택시	2458	2,829	쌀, 배
전라북도	부안군	1,192	2,803	쌀, 보리쌀
전라북도	김제시	1,752	2,334	쌀, 감자, 보리쌀
경기도	여주군	1238	1658	쌀, 배
경기도	연천군	887	1563	쌀, 사과
충청남도	논산시	1,604	1,532	쌀, 배, 수박
충청남도	아산시	1,214	1,507	쌀, 배
경상북도	상주시	1,401	1,385	쌀, 배, 포도
경기도	이천시	925	1383	쌀, 복숭아
전라북도	정읍시	573	1,202	쌀, 수박, 복숭아
경상북도	경주시	1,331	1,135	쌀, 배, 부추
전라북도	익산시	772	1,106	쌀, 메론, 딸기
전라남도	나주시	806	1,094	배, 미나리, 메론
경상북도	봉화군	863	1,039	사과, 참당귀
전라북도	군산시	667	1,023	쌀, 배, 표고버섯
경기도	용인시	914	1,017	쌀, 수박, 오이

라. 전년대비 증감 현황

- 142개 시군 중에서 100개 시군이 증가하고, 42개 시군이 감소함
- 경남 창녕군(2,833%)과 고성군(1,344%)이 증가율이 높았으며, 실제 면적증가는 경남 거창군이 308ha가 증가함

< 표 30. GAP 면적 증가율 분포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계	증 가				감 소	
		1,000%이상	999~500	499~100	99이하	100~50	49이하
시군	142	2	5	23	70	12	30

< 표 31. GAP 면적 전년대비 주요 증감 시·군 >

(단위: 호, ha)

시도	시군	14년도		15년도		전년대비 증감		면적 증감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농가수	면적	
경상남도	창녕군	2	6	81	176	79	170	2,833%
경상남도	고성군	13	9	119	130	106	121	1,344%
경기도	고양시	2	2	12	17	10	15	750%
충청북도	옥천군	31	21	275	153	244	132	629%
전라북도	진안군	10	7	47	52	37	45	643%
경상남도	거창군	84	52	446	360	362	308	592%
강원도	화천군	6	32	29	15	23	△17	△53%
충청남도	당진시	75	525	195	231	120	△294	△56%
전라남도	완도군	100	52	30	18	△7	△34	△65%
강원도	평창군	79	102	46	34	△33	△68	△67%
강원도	삼척시	70	39	26	12	△44	△27	△69%
충청북도	괴산군	544	587	139	159	△405	△428	△73%
충청남도	부여군	202	680	63	103	△139	△577	△8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44	171	7	17	△137	△154	△90%
강원도	강릉시	58	52	5	3	△53	△49	△94%
경상북도	고령군	98	57	5	2	△93	△55	△96%
경상남도	남해군	38	52			△38	△52	△100%
강원도	동해시	2	1	2	0	0.0	△1	△100%
충청남도	계룡시	1	1	1	0	0.0	△1	△100%

□ GAP 면적 감소 시군 현황

< 표 32. GAP 면적 전년대비 주요 감소 시·군 >

(단위: 호, ha)

시도	시군	감소면적 (ha)	감소 사유	비고
강원도	화천군	△17	도라지 재배농가 인증 미갱신	
충청남도	당진시	△294	쌀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	
전라남도	완도군	△34	유자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고금청학동유자영농조합법인, 11농가)	
강원도	평창군	△68	딸기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대관령 여름딸기작목반 10농가, 용평 수출딸기작목반 9명 등)	
강원도	삼척시	△27	딸기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하장여름딸기작목반 8농가)	
충청북도	괴산군	△428	복숭아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불정농협복숭아공선출하회, 50농가)	
충청남도	부여군	△577	밤, 수박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부여밤영농조합법인 63농가, 굿뜨래수박GAP 공선출하회 20농가 등)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54	배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울산원예농협보배GAP공선회 139농가)	
강원도	강릉시	△49	쌀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강릉사천솔향 탐라이스 생산단지 57농가)	
경상북도	고령군	△55	딸기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 40농가)	
경상남도	남해군	△52	고사리 재배단지 인증 미갱신 (창선농업협동조합, 38농가)	
강원도	동해시	△1	면적 감소	
충청남도	계룡시	△1	면적 감소	

마. 인증 농가별 현황

<표 33. 인증농가별 현황 >

(단위: 건)

구분	500인 이상	499~300	299~100	99~50	49인 이하
인증건수	4	12	76	156	3,771

1) GAP 인증 규모화(300인 이상)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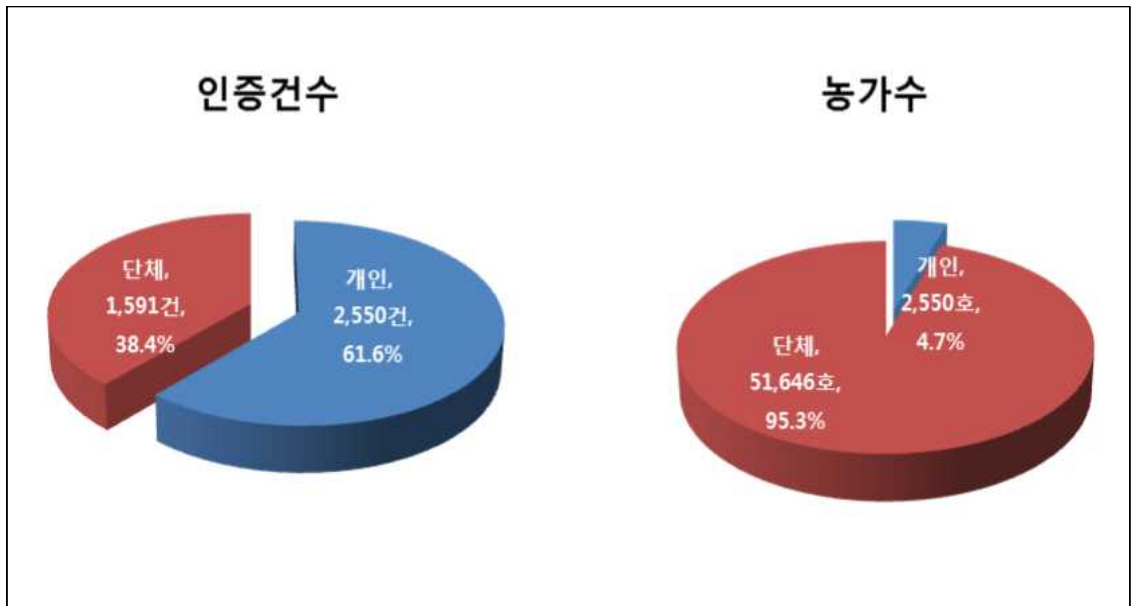
<표 34. 300인 이상 단체 인증 현황 >

(단위: 명)

시도	시군	인증단체명	인증농가	품목
강원도	철원군	김화작목반	970	쌀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704	쌀
경기도	평택시	팽성농업협동조합	650	쌀
충청남도	아산시	충남쌀 명미화단지 둔포 서부단지	521	쌀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488	쌀
전라남도	해남군	땅끝농협마늘작목반	459	마늘
강원도	철원군	동송농협이평리쌀작목회	419	쌀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능금농협GAP작목반	388	사과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농협벼작목회	387	벼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농협GAP작목회	383	사과
경기도	평택시	평택농업협동조합	365	쌀
강원도	철원군	동송농협오덕리쌀작목회	356	쌀
경기도	안성시	안성마춤단지	334	쌀
경기도	연천군	연천농협	332	쌀
경상북도	안동시	서안동농협고품질쌀단지	308	쌀
경기도	이천시	이천명품쌀단지작목반	301	쌀

- 2016년 1월 기준으로 GAP 개별인증 건수는 2,550건, 단체(집단) 인증 건수는 1,591건으로 개별인증 건수가 61.6%로 많은 반면, 농가수는 단체(집단) 인증 참여농가가 51,646호로 개별인증 농가보다 약 20배가 많음

<그림 6. GAP 개별인증 및 단체인증 건수 및 농가수 현황>



- 개별인증 건수가 많은 시군은 금산군 473건, 청양군 203건, 산청군 140건의 순이며 대상 품목은 인삼, 깻잎, 구기자, 딸기임
- 단체인증 건수가 많은 시군은 제천시 104건, 김제시 63건, 김천시 50건 등이며 대상 품목은 백수오, 백출, 오미자, 울무, 황기(이상 제천), 감자, 쌀(김제), 포도, 사과(김천) 등임
- 인증 건별로 가장 많은 참여농가와 재배면적을 보유한 곳은 철원 김화작목반(쌀)으로 970농가 1,717ha이며, 면적으로는 철원 동송농협이평리쌀작목반(1,409ha), 철원 동송농협오덕리쌀작목반(1,379ha), 여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969ha) 등의 순이며 면적기준 상위 20개 인증건별 중 19건이 쌀 품목으로 나타남
- 면적 기준 상위 20개소 전체가 집단인증이었으며, 품목은 상위15위개 중 사과(봉화능금)를 제외한 전 품목이 쌀 품목임

<표 35. 인증건별 재배면적 상위 20개 현황 >

순위	생산자단체명	품목	농가 수	재배 면적(ha)	계획 생산량(톤)	소재지
1	김화작목반	쌀	970	1717.2	12448.15	철원군
2	동송농협이평리쌀작목회	쌀	419	1409.7	9381.67	철원군
3	동송농협오덕리쌀작목회	쌀	356	1379.6	9181.29	철원군
4	천황작목반	쌀	189	922.5	5283.45	철원군
5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쌀	704	859.9	4769.53	여주시
6	부안중앙농협명품쌀단지	쌀	198	804.4	5634.52	부안군
7	대마리작목반	쌀	155	789.2	4777.16	철원군
8	화지작목반	쌀	199	781.2	4722.63	철원군
9	동송농협장흥리쌀작목반	쌀	222	746.9	4970.89	철원군
10	여주시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쌀 (고사하카리)	488	721.1	4363.18	여주시
11	평성농업협동조합	쌀	650	712.5	4600.846	평택시
12	연천농협	쌀	332	677.6	3468.9414	연천군
13	흥양농협 우수농산물단지	쌀	222	614.5	4298.56	고흥군
14	충남쌀 명미화단지 둔포 서부단지	쌀	521	587.3	9055.57	아산시
15	봉화능금농협GAP작목반	사과	388	525.4	18415.98	봉화군
16	명품부안쌀 동진단지	쌀	203	500.9	3453.49	부안군
17	지경작목반	쌀	157	477.9	3345.56	철원군
18	연무농협벼작목회	벼	387	474.1	3443.05	논산시
19	자연담은쌀작목반	쌀	170	430.6	2610.87	파주시
20	충남쌀 명미화단지	쌀	273	425.0	2740.89	아산시

○ 참여 농가수의 경우, 100농가 이상 참여하는 GAP 인증 건은 총92건으로 이중 쌀 품목 58건(13,721호), 사과 15건(2,545호), 배 3건(430호), 포도 2건(241호) 등으로 나타남

- 이중 생산자단체명에 농협(조공법인포함)이 표시된 생산자단체만 43개(소농가 10,094호)로 농협조직을 통한 GAP 육성 가능성 확인

6) 생산자단체명에는 표시되지 않은 단체 중에서도 농협조직 소속 생산자단체는 상당수 있음

바. 주요 시사점 및 검토 사항

□ GAP 인증 확대 우수 시군 지원 방안 모색

- 철원, 평택, 부안, 김제, 논산, 여주, 상주, 경주, 아산, 연천, 부안 등 인증 농가 및 인증면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시군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 2016년 시행 예정인 '주산지 토양 및 수질 분석 지원사업' 연계 모색
 - 우수 시군에 대한 비용 차등 지원 또는 '토양 및 수질 분석 적정량 추정을 위한 GAP 환경분석(가칭)' 사업비 지원
- 기타 정책 연계 방안 모색 및 관련 정책사업 추가 발굴

□ 단체(집단) 인증에 대한 접근 전략 모색

- 단체(집단)인증은 인증 건수는 전체 인증의 41% 수준이지만, 참여 농가는 전체 GAP 농가의 96%로 절대 다수이고, 인증면적 또한 전체 GAP 인증면적의 95.5%(60,121ha)에 달함
- 또한, 단체(집단)인증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규모화, 조직화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유통조직 및 유통업체 등 유통마케팅과 연계할 실익도 높아 경쟁력을 갖음
- 따라서 단체(집단)인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
 - 단체(집단) 인증을 위한 인증도우미 제도 지원
 - 단체(집단)인증 생산자 단체의 경영일지 작성, 인증 서류작성(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 및 유지 관리, 고령농가의 행정절차 대행 등을 지원할 전담 도우미 배치 및 인건비 또는 활동비 지원
 - 단체(집단) 인증 생산자단체 유통조직 GAP 시설지원 우대
 - 단체(집단)인증 생산자단체가 속한 유통조직에 GAP 시설 및 시설보완 지원
 - 단체(집단) 인증 생산자단체-유통조직-유통업체 협력체계 구축 지원
 - 3자 MOU체결 후 유통업체에 전용매대 설치 및 마케팅 비용 지원
 - 기타 농약 및 농작물영양제 공동보관함 지원 등 단체(집단)인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사업 추가 발굴

2. 소비자 인지도

가. 조사대상

- 전국 5대 광역 도시 소비자 :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 표본수 : 1350명

나. 조사장소

- 이마트,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전국 24개 지점 국내 대형 유통업체 출구

다. 조사 내용

- 국가 인증제도 인지도
- 국가인증 농식품 구매경험

라. 조사 결과

- GAP 소비자 인지도 추이
 - 22%('11) → 35%('12) → 42.8%('13) → 57.4%('14) → 61.4%('15)

<그림 7. 연도별 GAP 인증 소비자 인지도>



제2절. 설문조사 [요약]기

1. 인증농가

생산단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적용 실태조사 (인증농가)

□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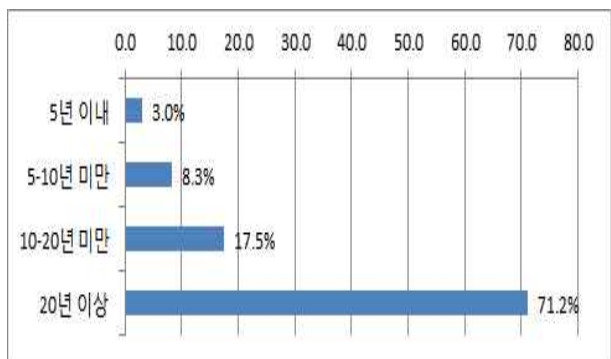
- 일 시 : 2015.12.01.~2015.12.20
- 설문대상 : GAP인증 농가
- 설문내용 : GAP인증 현황, 만족도, 및 향후 개선방향 조사
- 응 답 자 : 302농가

일반 현황 질문

1. 영농활동 일반현황

1-1 영농경력

구분	빈도	비중(%)
1 5년 이내	9	3.0
2 5-10년 미만	25	8.3
3 10-20년 미만	53	17.5
4 20년 이상	215	71.2
합계	3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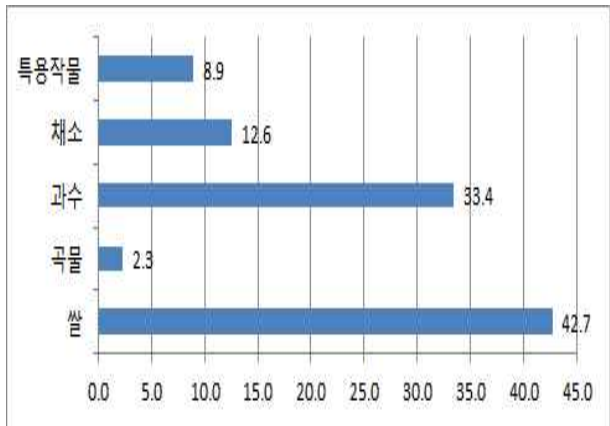
□ 설문에 참여한 GAP 인증농가의 71.2%가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이 17.5%, 5~10년 미만이 8.3%, 5년이내가 3.0%로 나타남

□ 87.7%의 응답자가 영농경력이 10년이상으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농가들의 영농경력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7) 전체 설문분석 자료는 부록 참조

1-2 주 인증 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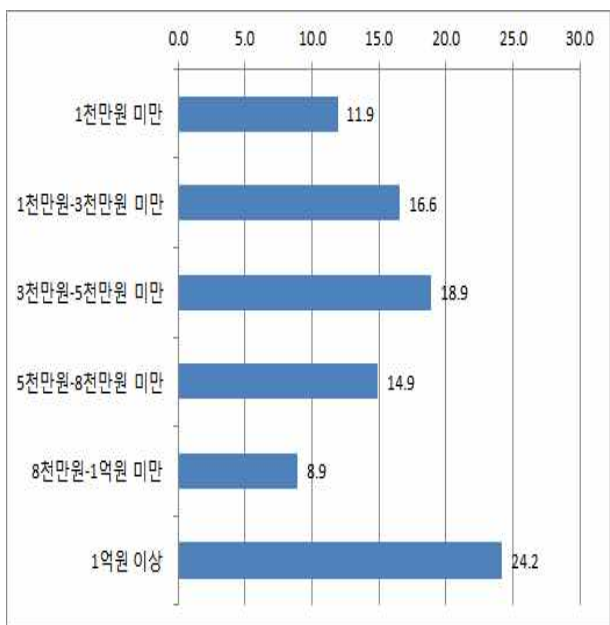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쌀	129	42.7
2 곡물	7	2.3
3 과수	101	33.4
4 채소	38	12.6
5 특용작물	27	8.9
합계	302	100%



□ GAP 주 인증작목으로는 쌀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수 33.4%, 채소 12.6%, 특용작물 8.9%, 곡물 2.3% 순으로 나타남

1-3 영농규모(연매출액)

구분	빈도	비중(%)
1 1천만원 미만	36	11.9
2 1천만원-3천만원 미만	50	16.6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7	18.9
4 5천만원-8천만원 미만	45	14.9
5 8천만원-1억원 미만	27	8.9
6 1억원 이상	73	24.2
7 무응답	14	4.6
합계	3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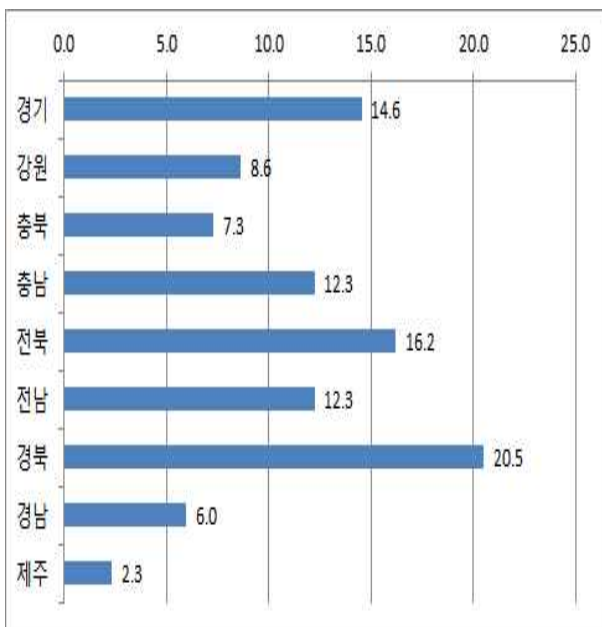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연 평균소득은 1억원 이상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8.9%,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6.6%, 1천만원 미만 11.9%, 8천만원~1억 미만 8.9%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평균 농가소득 3,400만원(출처 : 통계청)보다 대부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며(48.0%의 응답자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소득 분포가 대부분 고르게 나타남

1-4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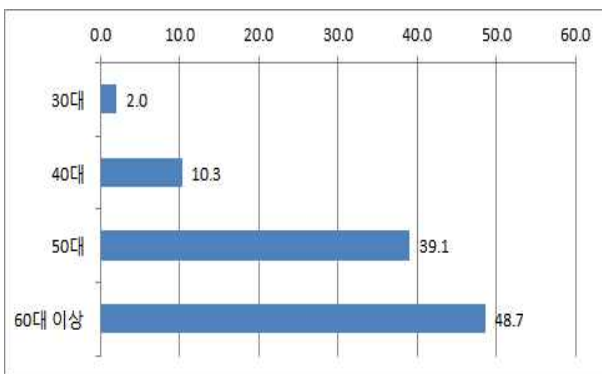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경기	44	14.6
2 강원	26	8.6
3 충북	22	7.3
4 충남	37	12.3
5 전북	49	16.2
6 전남	37	12.3
7 경북	62	20.5
8 경남	18	6.0
9 제주	7	2.3
합계	302	100%



- 경북지역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16.2%, 경기 14.6%, 충남/전남이 각각 12.3%, 강원 8.6%, 충북 7.3%, 경남 6.0%, 제주 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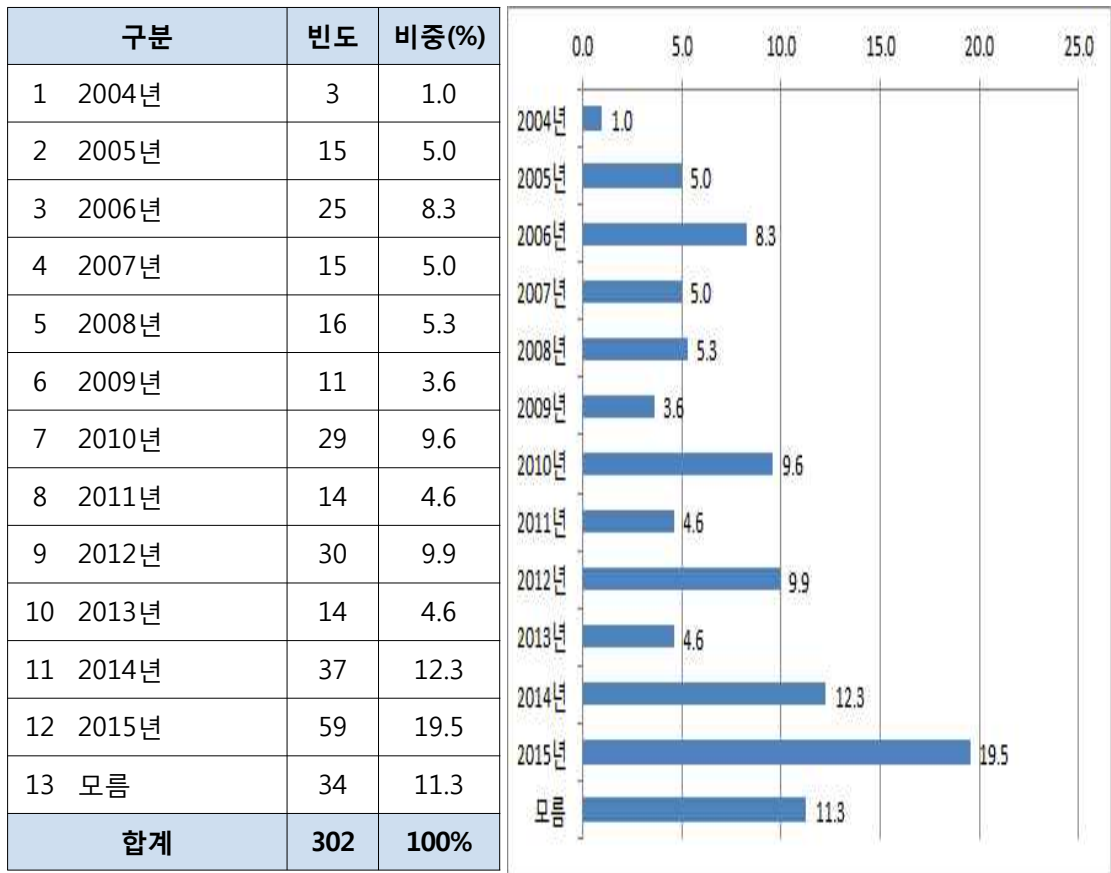
1-5 연령대

구분	빈도	비중(%)
1 30대	6	2.0
2 40대	31	10.3
3 50대	118	39.1
4 60대 이상	147	48.7
합계	302	100%



- 농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 39.1%, 40대 10.3%, 30대 2.0% 순으로 나타남

1-6 GAP 최초 인증 시기



- GAP 최초 인증시기는 2015년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14년12.3%로 나타남
- 최근 2년 동안 (2014~2015년)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의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개년(2011~2015년)동안이 62.2%로 최근 인증 받은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요약 및 시사점

1) GAP 인증 실태

- GAP 인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서가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가 17.5%, 납품 거래업체의 요구가 10.3%로 나타나 대부분 경제적 이익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음
- 작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쌀, 곡물은 다른 작목에 비해 농산물을 납품 하는 거래업체의 요구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가 높게 나타나, 작목별 로 인증이유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씩 존재함
- 농산물 인증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과반수 이상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역별, 연령별, 작목별로 어려움을 느낀 정도에 차 이점이 있어 향후 정책수립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가장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북, 경북 충 남,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작 목별의 경우 특용작물, 과수, 채소, 쌀, 곡물 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 답함
- 농산물 인증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과 인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 인증과정과 조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 농산물 유통비중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직거래, 도매시장, 농협 순으로 나타나, GAP 농산물의 경우 도매 시장보다 주로 유통업체나 직거래 비중이 높음(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따라 유통비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
- GAP 제도 참여결과에 대한 만족도로는 과반수 이상(53.5%)이 만족하 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는 응답도 17.9%로 나타남

- 인증제도 만족이유로는 농산물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이 18.1%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 농산물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남
- 가장 큰 GAP 인증이유였던 ‘안전한 농산물생산’이 60.6%였으므로, GAP 인증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GAP 제도 참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인증에 따른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53.7%)과 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13.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인증을 통한 가격상승부분이 미미한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음

2) GAP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 향후 지속적인 GAP 참여 의사로는 전체의 91%가 참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3%만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GAP 인증유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GAP참여만족도 53.3%에 비해 높은 참여의지(91%)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 만족도와는 별개로 GAP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석결과에서는 연령대가 적을수록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젊은 층에서 GAP 제도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작목별 분석결과에서도 특용작물, 채소류, 쌀, 과수, 곡물 순으로 참여의지가 높게 나타나, 작물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함
- GAP 인증 의무적용에 관해서는 농민들의 73%가 의무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모든 품목이 54.0%, 일부품목이 19.9%로 나타나, 대부분 의무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GAP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판로확보(31.%), GAP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28.7%), GAP 생산자/참여업

체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23.2%)가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보다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소비자교육 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GAP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국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지원 및 해당 성적서 GAP 활용이 3.9점,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3.9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농민들이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GAP 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유지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농산물 판로확보, 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남.
- 또한 현재 GAP 인증절차와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큰 불만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별/작목별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여 향후 차이점들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미인증농가

생산단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적용 실태조사 (미인증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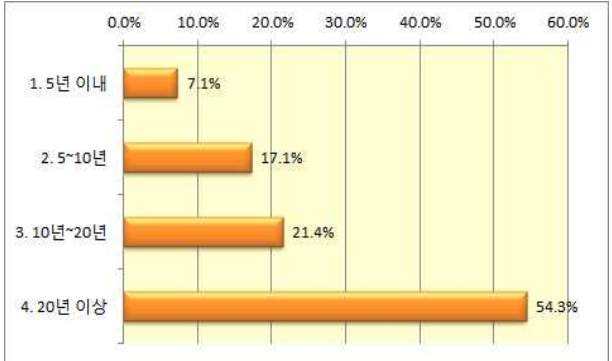
-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5.10.01.~2015.12.20
 - 설문대상 : GAP 미인증 농가
 - 설문내용 : GAP 미인증 현황, 향후 참여의향 및 개선방안 조사
 - 응 답 자 : 73농가

일반 현황 질문

1. 영농활동 일반현황

1-1 영농경력

구분	빈도	비중(%)
1 5년 이내	5	7.1%
2 5~10년 미만	12	17.1%
3 10~20년 미만	15	21.4%
4 20년 이상	38	54.3%
합계	70	100%



- 설문에 참여한 농가들의 54.3%가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 21.4%, 5~10년 미만 17.1%, 5년 이내 7.1%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75.7%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농경력이 오래된 농가들이 설문에 많이 참여하였음

1-2 주 재배 작목

구분	빈도	비중(%)
1 쌀	22	32.4%
2 곡물	1	1.5%
3 과수	5	7.4%
4 채소	34	50.0%
5 특용작물	1	1.5%
6 기타	5	7.4%
합계	68	100.0%



-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으로는 채소가 5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쌀 32.4%, 과수/기타가 각각 7.4%, 곡물과 특용작물이 각각 1.5% 순으로 나타남

1-3 영농규모(연매출액)

구분	빈도	비중(%)
1 1천만원 미만	0	0.0%
2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2	28.6%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5	35.7%
4 5천만원~8천만원 미만	15	35.7%
5 8천만원~1억원 미만	0	0.0%
6 1억원 이상	0	0.0%
합계	42	100%



- 응답자들의 연평균소득은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8천만원 미만이 각각 35.7%로 가장 높았으며, 1천만원~3천만원 28.6%로 나타남
-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연평균 8천만원 이상의 저소득층은 0%였으며, 전체의 71.4%가 3천만원~8천만원으로 나타나. 중간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 설문 응답자의 75.7%가 영농경력 10년이상으로 대부분 영농경력이 오래되었으며 주 재배작목은 채소, 쌀, 과수, 기타, 특용작물, 곡물 순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는 모든 응답자가 1천만원 ~ 8천만원이었으며 특히 3천만원~8천만원이 71.4%로 대다수를 차지함

2) GAP 인증실태

- 미인증농가들의 100%가 최소 GAP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78.3%가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농가들이 GAP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AP 인증을 받지 않은 주요요인으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해서, GAP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경제적 이익이 없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전반적으로 비용/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47.3%로 경제적 이유로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GAP 절차의 복잡함과 이해 부족에 대한 부분도 많아 향후 GAP 이해를 위한 농가교육 및 홍보활동과 인증절차에 대한 교육지원 또는 절차간소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GAP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 미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GAP 참여의향 조사결과 전체의 74.8%가 참여할 의사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참여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은 5.1%로 매우 낮은 편임

- 특히 참여하겠다는 비율 74.8%는 앞선 GAP 인식설문에서 GAP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 78.3%와 비교하여 보면, GAP에 대해 알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또한 향후 GAP 인증 의무화에 대한 설문결과 과반수가 넘는 62.2%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반대의견은 20.8%로 나타나 미인증농가들도 의무적용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편이었음
- GAP 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는 농산물 판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GAP생산자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증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됨
- GAP 개선안의 경우 GAP에 대한 정부홍보확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부보조/지원 확대, 판매처 발굴/확대, 산지시설확충, GAP인증신청 및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가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인증신청 서류 및 이력추적 항목간소화의 경우, GAP 인증을 받지 않는 이유인 ‘인증절차가 복잡해서’와 연관되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 또한 함께 실시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증농가에 비해 미인증농가들이 개선안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미인증농가들이 GAP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미인증농가의 경우 GAP 인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대부분 GAP에 참여할 의사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그를 위한 정부차원의 GAP 판로확보, 생산자 지원 및 소비자 홍보 등이 시행되어 GAP 농산물 시장이 확대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3. 소비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5.12.01.~2015.12.20
 - 설문대상 : 일반 소비자
 - 설문내용 : GAP농산물 구매여부 및 GAP 인식 현황 조사
 - 응 답 자 : 200명

일반 현황 질문

1. 소비자 일반현황

1-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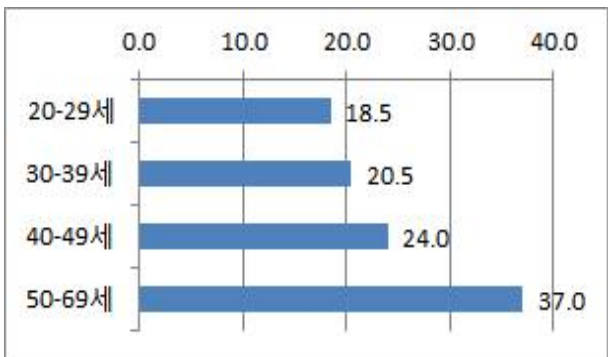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남자	96	48.0
2 여자	104	52.0
합계	200	100%



□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52%가 여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48%로 나타남

1-2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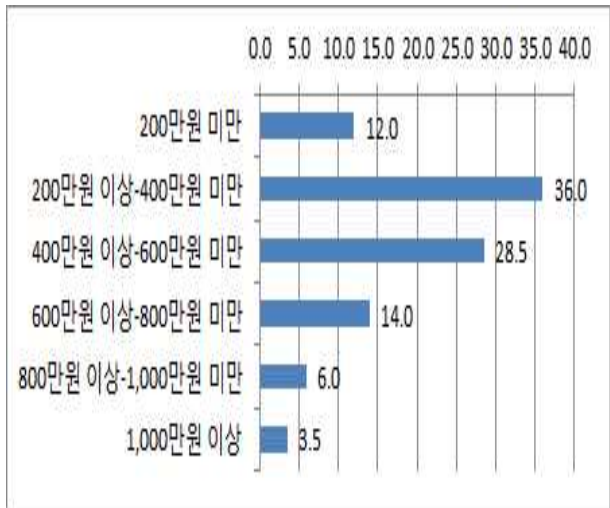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20-29세	37	18.5
2 30-39세	41	20.5
3 40-49세	48	24.0
4 50-69세	74	37.0
합계	200	100%



- 응답자 연령으로는 50~69세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세 24%, 30~39세 20.5%, 20~29세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1-3 평균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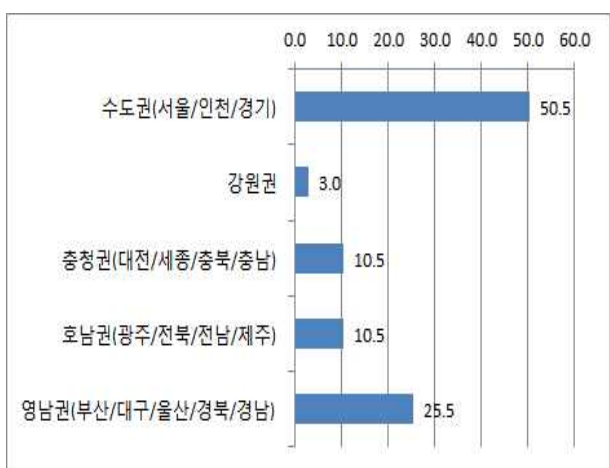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200만원 미만	24	12.0
2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2	36.0
3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57	28.5
4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28	14.0
5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2	6.0
6 1,000만원 이상	7	3.5
합계	200	100%



- 응답자 평균수입의 경우 월 200만원 ~ 4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만원 ~ 600만원 28.5%, 600만원 ~ 800만원 14%, 200만원 미만 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64.5%가 월 200 ~ 600만원 사이의 평균수입을 올리고 있음

1-4 거주 지역

구분	빈도	비중(%)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1	50.5
2 강원권	6	3.0
3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1	10.5
4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21	10.5
5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1	25.5
합계	200	100%



- 응답자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25.5%, 충청권과 호남권이 각각 10.5%, 강원권 3%로 순으로 나타남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 응답한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득은 200~600만원이 전체의 64.5%로 가장 많았음
-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충청권/호남권, 강원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농산물 구입장소로는 대형유통매장이 과반수에 달하는 4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래시장, 일반슈퍼, 생협 등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구입장소로는 30대가 대형유통매장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다양한 장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20대,(29.7%) 40대(27.1%), 50대 이상(25.7%), 30대(1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구입장소는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대형유통매장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이 가장 다양한 경로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었음
- 농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품질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 맛, 원산지, 안전성, 다양성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정도로는 중금속오염 여부가 3.79점으로 가장 민감하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약사용량(3.64점), 유해미생물관리여부(3.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8개 항목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2) GAP 관련 일반 소비현황 질문

- GAP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인 78%가 GAP 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내용에 대해서 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25.5%로 나타나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GAP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연령별 분석결과 GAP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40대, 20대, 50대 이상,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대 중에서 40대~50대 이상이 GAP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많이 접하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구입시 GAP 인증여부 확인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의 16%만이 GAP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농산물 구입 시 GAP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연령별 분석결과 40대가 GAP 인증 여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선 연령별 GAP 제도 인식결과와 동일한 연령대 순으로, GAP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연령대 순으로 농축산물 구입시 GAP 여부를 많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GAP 여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GAP농산물 구입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4.5%가 구입한 경험이 존재하였으며, 전체의 32.5%가 구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특히 구입하는 편이다의 응답은 24%였으나 항상 구매한다는 응답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GAP 인증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싸다는 응답이 전체의 57.8%로 나타났으나,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들도 42.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음
- GAP 인증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보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 편은 40%, 불만족한 편은 2.2%로 나타나 대부분 품질에 있어 큰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음
- GAP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가 과반수 이상(5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품질은 신뢰할 수 있어서(37.0%)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대부분의 GAP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GAP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은 신뢰한다는 의미로, 이전까지 시행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GAP 농산물 구입장소로는 대형유통매장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협 등 친환경 전문매장, 일반슈퍼, 직거래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GAP 농산물은 유통매장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산물 구입장소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던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GAP 인증농산물 구입비중이 가장 낮게(2.2%) 나타남
- GAP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 해서가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비싸다/판매처가 드물다가 7.7%로 나타남.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므로 향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GAP인증 제도 관련 설문

- 현재 GAP농산물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약/비료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 m 농약을 적게 사용한 농산물, 맛/크기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위해요소관리에 대한 인식이 23.5%로 높기는 하나 GAP와 이력추적을 동일시하여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게 나타남
- 특히 GAP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40대, 50대 이상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이라는 인식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40대 41.7%, 50대 이상 37.8%)
- 소비자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GAP에 대한 정확한 인식교육이 필요함
- 정부의 GAP 농산물 확대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85%가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46.5%, 모든 농산물에 대해 확대하자는 의견이 38.5%로 나타남
- GAP 인증제도 적용이 가장 필요한 농산물로는 채소, 쌀, 과수, 곡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일반쌀과 GAP 쌀 중 가격이 비슷할 경우 GAP 쌀의 구입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2/3에 해당하는 66.5%의 응답자가 GAP 쌀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반이다가 28.0%, 일반쌀을 구입하겠다고 5.5%로 나타나 가격이 비슷할 시 대부분 GAP 쌀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함
- GAP쌀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으로는 5!10% 미만이 39.4%, 5% 미만이 26.5%로, 일반쌀에 비해 약 0~10% 높은 가격까지는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AP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GAP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있으나 자세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약 50% 미만으로 나타남.
- 농산물 구입 시 품질을 가장 중요시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 향후 GAP의 안전성관리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구매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GAP농산물 구입장소로 대형 유통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GAP 농산물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GAP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을 교육한다면 GAP 농산물을 꾸준히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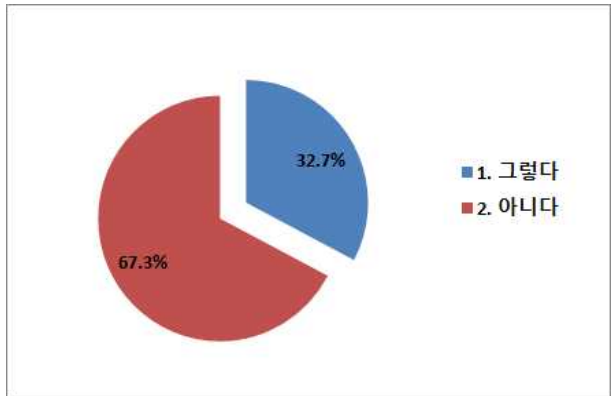
4. 단체급식 관계자 설문

GAP 확산을 위한 단체급식 관계자 설문조사 결과

-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5.07.28.
 - 장 소 : 서울 COEX (2015 우수급식산업대전)
 - 설문대상 : GAP마스터교육 참석자(학교급식 및 유통업체 관계자) 100여명
 - 설문내용 : 단체급식 GAP농산물 사용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
 - 응 답 자 : 56명

1. 현재 (학교/공공/단체)급식에 GAP인증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그렇다	18	32.7%
2. 아니다	37	67.3%
*응답	55	
*무응답	1	
합계	5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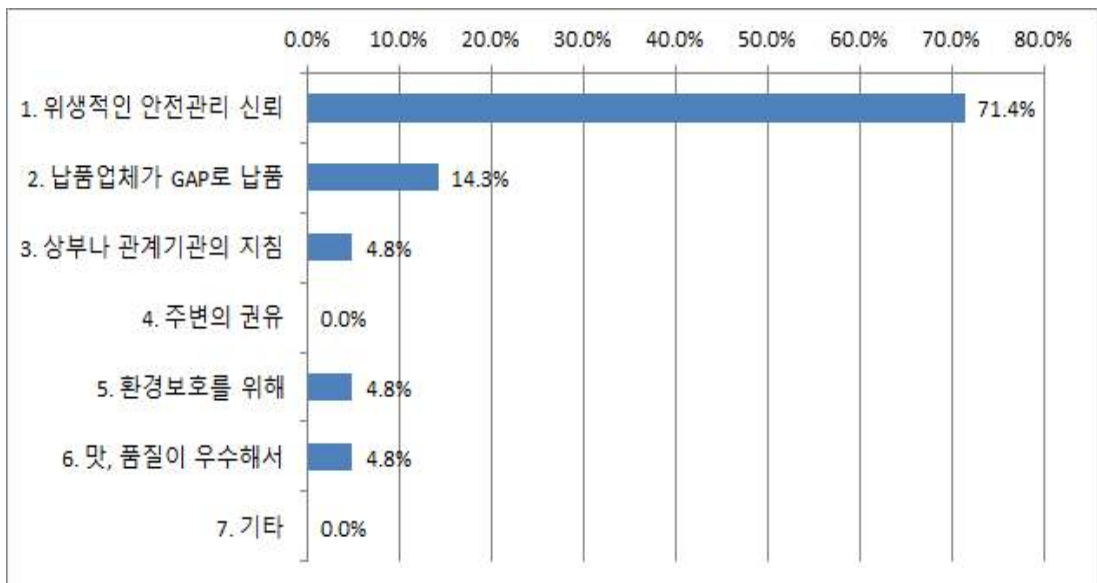


- 현재 단체 급식에서 GAP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은 18명 (전체의 32.7%이었으며, GAP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이 37명(전체의 67.3%)로 나타남
- 설문에 응답한 55명 중 현재 GAP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체의 약 1/3로 나타나 현재 어느정도 GAP농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2. GAP농산물 구입 형태

2-1. GAP인증 농산물을 구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위생적인 안전관리 신뢰	15	71.4%
2. 납품업체가 GAP로 납품	3	14.3%
3. 상부나 관계기관의 지침	1	4.8%
4. 주변의 권유	0	0.0%
5. 환경보호를 위해	1	4.8%
6. 맛, 품질이 우수해서	1	4.8%
7. 기타	0	0.0%
*응답	21	
*무응답	35	
합계	5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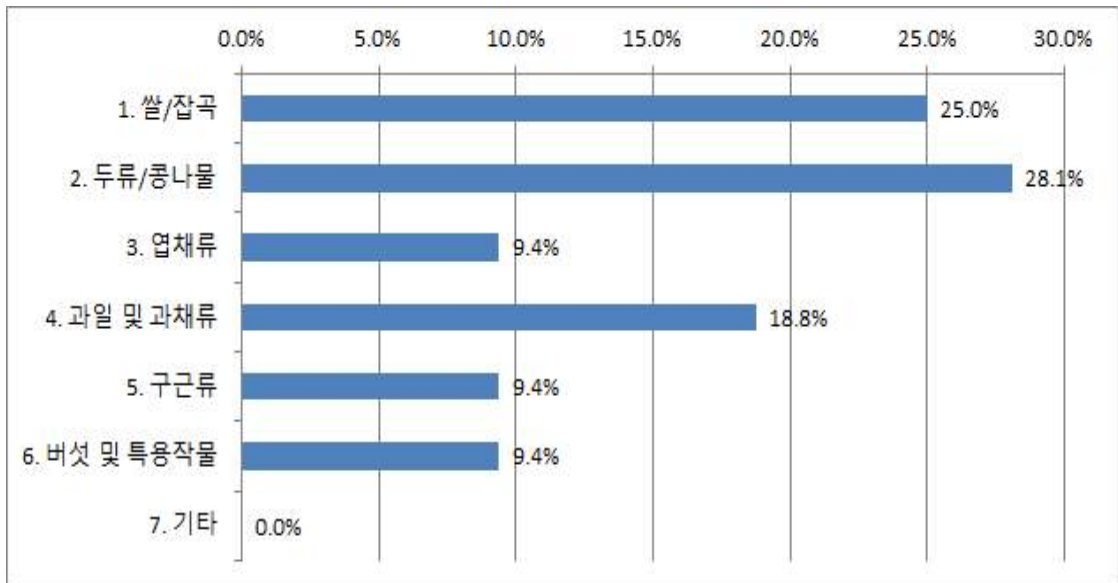


- GAP농산물을 구매하는 가장 이유로는 위생적인 안전관리를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전체 21명 중 15명으로 71.4%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납품(공급)업체가 GAP농산물로 납품하기 때문이 3명 (14.3%), 상부나 관계기관의 지침 때문에, 환경보호를 위해, 맛과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각각 1명씩(4.8%)으로 나타남
- 따라서 대부분 안전한 농산물을 사용하기 위해 GAP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됨

2-2. 주로 어떤 품목군에서 GAP농산물을 사용하십니까? (중복응답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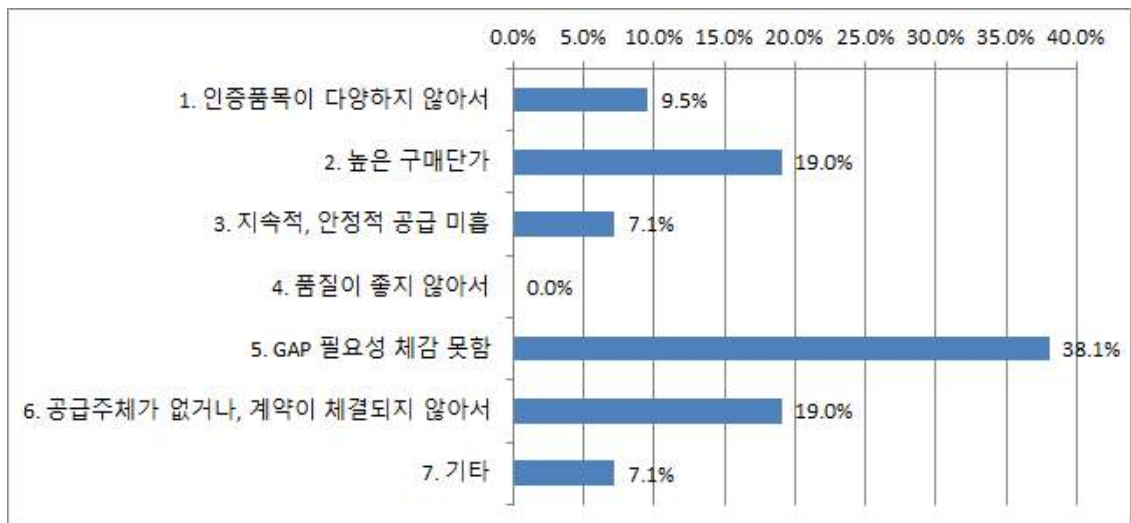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쌀/잡곡	8	25.0%
2. 두류/콩나물	9	28.1%
3. 엽채류	3	9.4%
4. 과일 및 과채류	6	18.8%
5. 구근류	3	9.4%
6. 버섯 및 특용작물	3	9.4%
7. 기타	0	0.0%
*응답	32	
*무응답	24	
합계	56	100%



-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GAP농산물 품목으로는 두류/콩나물이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쌀/잡곡이 25%, 과일 및 과채류가 18.8% 순으로 나타남
- 엽채류, 구근류, 버섯 및 특용작물은 모두 각각 9.4%로 나타났으며 상위 3개품목(두류/콩나물, 쌀/잡곡, 과일 및 과채류)를 제외하면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남

3. GAP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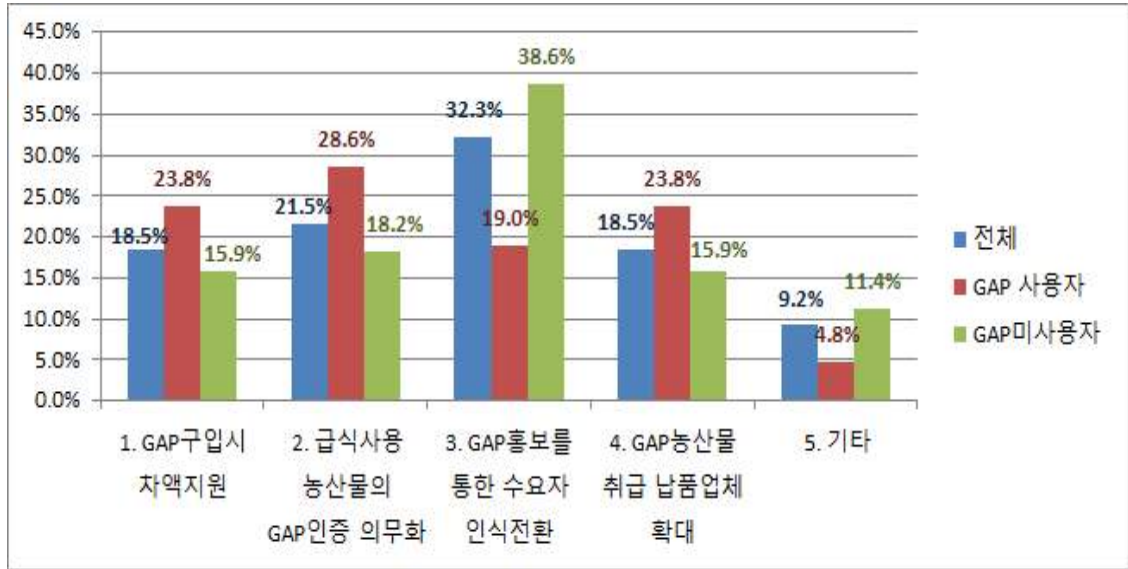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인증품목이 다양하지 않아서	4	9.5%
2. 높은 구매단가	8	19.0%
3. 지속적, 안정적 공급 미흡	3	7.1%
4. 품질이 좋지 않아서	0	0.0%
5. GAP 필요성 체감 못함	16	38.1%
6. 공급주체가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8	19.0%
7. 기타	3	7.1%
*응답	42	100%
*무응답	14	
합계	56	100%



- GAP농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답한 가장 큰 이유로는 GAP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해서라는 항목이 전체 응답자 42명 중 16명(38.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상대적으로 높은 구매단가 때문에, 공급해주는 주체가 없거나 공급주체와의 납품계약이 체결되지 못해서 라는 이유가 각각 8명(19%)이 응답하였음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연중공급이 미흡해서 또는 기타 항목 또한 각각 3명(7.1%)이 응답하였음
- 결국 높은 구매단가 또한 큰 이유이나 일반농산물과 GAP농산물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필요성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여 GAP를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

4. GAP농산물의 급식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정책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전체		GAP 사용자		GAP 미사용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 GAP구입시 차액지원	12	18.5%	5	23.8%	7	15.9%
2. 급식사용 농산물의 GAP인증 의무화	14	21.5%	6	28.6%	8	18.2%
3. GAP홍보를 통한 수요자 인식전환	21	32.3%	4	19.0%	17	38.6%
4. GAP농산물 취급 납품업체 확대	12	18.5%	5	23.8%	7	15.9%
5. 기타	6	9.2%	1	4.8%	5	11.4%
*응답	65	100%	21	100%	44	100%
*무응답						
합계	65	100%	21	100%	44	100%



- GAP농산물의 급식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나 정책으로는 GAP홍보를 통한 수요자 인식전환이 전체 응답 중 32.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급식사용 농산물의 GAP인증 의무화가 21.5%, GAP농산물 구입시 차액지원과 GAP농산물 취급납품업체 확대가 각각 18.5%, 기타가 9.2% 순으로 나타남
- 이미 GAP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응답자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GAP를 사용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급식사용 농산물의 GAP인증 의무화가 2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GAP구입시 차액지원과 GAP농산물을 취급하는 납품업체 확대가 각각 23.8%로 높게 나타남
-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던 GAP홍보를 통한 수요자 인식전환은 19%로 나타났으며 기타가 4.8%로 나타남
- 반대로 GAP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응답자들은 GAP홍보를 통한 수요자인식전환이 38.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급식사용 농산물의 GAP인증 의무화가 18.2%, GAP구입시 차액지원과 GAP농산물 취급 납품업체 확대가 각각 15.9%, 기타가 11.4% 순으로 나타남

-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재 GAP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GAP농산물 인증의무화, 차액지원, 납품업체 확대 등 GAP농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제도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GAP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GAP 홍보를 통한 수요자 인식전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 현재 귀하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구분	전체		GAP 사용자		GAP 미사용자	
	빈도	비중	빈도	비중	빈도	비중
1. 영양교사	6	10.9%	1	5.6%	5	13.5%
2. 학교급식센터 관계자	3	5.5%	2	11.1%	1	2.7%
3. 기타 단체급식 관계자	15	27.3%	3	16.7%	12	32.4%
4. 유통/납품업체 관계자	8	14.5%	3	16.7%	5	13.5%
5. 공무원	2	3.6%	1	5.6%	1	2.7%
6. 기타	21	38.2%	8	44.4%	13	35.1%
*응답	55	100%	18	100%	37	100%
*무응답	1					
합계	56	100%	18	100%	37	100%



제3절. 면담 조사

1. 우수 농가

1) 고창 배 영농조합법인

일시	2015년 10월 23일(금)	구분	고창배영농조합법인
장소	고창배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주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선도 법인, GAP는 인증은 G-GAP인증을 위한 준비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차원에서 내수시장 거래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GAP농산물의 국내 유통에 대한 의견이 거의 없음 - 법인 조합원 가입의 기본조건과 GAP인증의 기본 조건이 큰 차이가 없음 - 수출주도 법인이기 때문에 기본 재배관리 및 재배수준의 조건 까다로움 - 영농일지 및 농약사용대장은 필수 • GAP 인증의 장점은 정부지원이 용이하다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국내 FTA관련 사업에 이점이 있거나, 원예작물생산단지 평가 등에 가점이 있는 것에 만족 • GAP 인증의 단점을 굳이 찾자면 '인증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및 검사 등 외부 기관을 불러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음 - 다만 시작~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이 다소 김 • 국내 GAP인증이 수출에 주는 경쟁력은 거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지 내부에서 G-GAP에 대한 인지도가 있을 뿐 - 일차적으로 수출대행업체의 능력이 매우 중요 - 현재 수출대행업체 3곳과의 거래로 수출 시행중 • 한국수출배법인(13개소) 조직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GAP이슈는 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단가 결정의 역할이 가장 큼 -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지의 검사관이 현장에서 따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출지의 검사 기준이 중요, 국내GAP는 효력 없음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업계의 경우 G-GAP인증을 준비하고 있으나 GAP인증 처럼 유관기관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는 실정 • 외부(해외)에 공신력 있는 국내의 농식품 관련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가 		


2) 금산 만인산농협 꺾잎공선출하회

일시	2015년 10월 23일	구분	만인산농협
장소	만인산농협 APC 사무실		
주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주 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기 최우수 농가(4명)을 중심으로 한 GAP 인증 및 출하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배기술이 높은 농가를 중심으로 품질차별화전략으로 GAP 인증을 함께 진행하여 높은 가격을 형성 현재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GAP 인증이 확대되어 있으며 주로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출하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번 이상 인증을 갱신한 농가들이 존재하며, 공선출하회원의 GAP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여 100% 인증을 목표하고 있음(2015년 10월 현재 약 80% 인증 완료) 기존에 주로 주요 대형마트들에 출하하고 있으며, 2015년 GAP 경진대회 대상 이후 GS 등에서 GAP 상품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인증 초기 인증기관(금산 국제 인삼약초연구원)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거래처(유통업체) 설득에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여 안정적 출하처를 유지할 수 있었음 향후 상추, 케일 등 기타 업체류에도 GAP 인증을 확대할 예정임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 타 인증기관에서 다소 무리한 GAP 인증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전체 GAP 농산물의 품위저하 및 소비 신뢰 하락이 우려됨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품목의 적합약제 등록 지원 필요 		
			



3) 천안 직산농협 배 공선출하회

일 시	2015년 10월 23일	구분	직산농협
장 소	직산농협 경제사업소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공선출하회를 중심으로 집단인증으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선출하회 차별화 요소로 GAP 인증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공선출하회 가입 조건으로 GAP 인증 및 유지를 요구하고 있음 • GAP 출하처 발굴의 어려움 및 미미한 가격차 등으로 인한 GAP 마크 미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로 생산하여 APC에서 선별하고 있지만 시장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하여 출하시 GAP 마크는 부착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상품으로 출하하고 있음 • GAP 인증을 통한 영농환경 관리 및 영농자재비 감소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일지 작성 및 교육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영농활동 및 정보공유 가능 - 또한 농약, 비료등 약제처리시 처리주기 및 정량사용 준수를 통해 전반적인 영농구입비용이 감소함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채널 확대 및 소비자 홍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GAP 농산물을 출하할만한 유통업체, 경로 등이 다양하지 못해 농산물 출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향후 소비자 홍보 확대 등을 통한 GAP 수요가 증가된다면 출하처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 • 영농일지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영농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간단한 사항 등은 작성식이 아닌 체크식으로 간소화하여 영농일지 작성에 대한 부담 경감이 필요 • 시군 공동브랜드 선정시 GAP농산물 우선 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공동브랜드 선정 시 GAP 농산물만 취급하거나 GAP 농산물 우선화 등의 지원정책을 시행한다면 GAP 취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4) 제주 넘버원농장

일 시	2015년 11월 09일	구분	넘버원 농장
장 소	제주 넘버원농장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개별인증 후 지속적으로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감귤 한라봉 품목으로 GAP인증 시작, 저농약인증과 GAP 인증을 함께 병행하고 있었으나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이 폐지되어 향후 3년동안은 GAP 인증만 유지할 계획임 • 직거래를 통한 판매단가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 인증이 아닌 개별농가인증의 경우 직거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라 판단하여 GAP 인증이후 100% 직거래로만 판매 - 인증 이후 소비자와 안전성관리 등에 관한 신뢰도 상승으로 일반 농산물보다 높은 단가를 받고 있음 - 또한 매년 직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연 10~15%정도의 매출상승 발생하고 있음(2014년 매출액 4억 5천만원)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생산농가와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농약 인증 폐지로 대부분 품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관행농업으로 다시 전환되고 있음 - GAP 인증 확산을 위해서는 GAP인증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을 유기농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필요함 		
			

5) 파주 탄현농협 쌀 작목반

일 시	2015년 11월 09일	구분	탄현농협
장 소	탄현농협 사무실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주 회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집단인증으로 GAP 인증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시작 이후 매년 참여 농가와 인증면적이 증가하여 2015년 현재 인증 면적 346ha, 인증농가 170농가가 함께 참여하고 있음 • 경기 G 마크 등 기타 인증과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탄현농협 자연담은 쌀 작목반의 경우 GAP 인증과 함께 경기 G 마크, 저탄소인증을 병행하여 차별화 하고 있음 - 일부 농가에서는 우렁이 농법 등 친환경 농법도 함께 병행 • 관계자별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농협, 농업기술센터, 조공법인 간에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생산자는 생산에만 집중(농협 - GAP 인증지원 및 작목반 활동 지원, 센터 - GAP 사업지원 및 교육, 조공법인 - 농산물 수매 및 유통)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기준과 관련된 GAP 인증제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정책적으로 GAP를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큰 것 같아, 급작스런 인증 증가로 인한 인증 부실이 우려됨 - 또한 현재 인증 기준이 모호하여 인증기관마다 해석이 다름. 인증 기준을 명확히 하여 표준화 하여야 내실있는 GAP 인증이 될 것같음 		
			

6) 포항 GAP 연합회

일 시	2015년 10월	구분	포항 GAP 연합회
장 소	포항 GAP 연합회 사무실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다양한 작목반을 중심으로 집단인증으로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항 GAP 연합회는 2006년부터 GAP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포항지역의 작목반들을 중심으로 인증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현재 31개 작목반, 698개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인증품목으로는 사과, 부추, 쪽파, 쌀이 존재 • 품질 균일화 및 차별화를 위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참여농가로 인해 품질균일화를 위한 작황조사를 2년에 1번씩 실시하여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있음 - GAP 농산물의 경우 GAP 인증시설인 서포항농협 유통센터를 거쳐 출하되어 일반농산물과 GAP 인증농산물을 엄격히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음 - 또한 GAP 인증 작목반 - 농산물 생산, 포항시 유통사업단 - 공선 및 판로확보, GAP 인증자 협의회 - 인증 농가 및 단체를 위한 농정활동, 사업발굴, 인신신청 대행, 안전농산물 생산지도 및 교육 등 역할을 분담하고 있음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효과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저농약 인증과 GAP 인증을 함께 병행하고 있는 농가들도 있으나 특별한 경제적 효과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음 		
			



7) 광양 농산물 수출유통센터

일 시	2015년 10월 19일	구분	광양 농산물수출 유통센터
장 소	광양 농산물 수출유통센터 사무실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 인증을 시작하였으며 파프리카 작목반을 통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인증을 받아 파프리카 작목반 회의를 이용하여 GAP 인증관리 기준 준수 교육, 각종 재배관련교육(재배일지, 병해충 방제일지, 작업일지) 및 영농기술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영농교육의 경우 네덜란드에서 파프리카 전문가를 직접 초청해 교육하는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음 - 향후 애호박 품목으로 GAP 인증을 확대할 예정 •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GAP교육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자 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센터에 근무하는 선별인력 교육 시 주임 이상 직원들에게 매년 GAP 전문교육과정 이수를 추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음 • 수출 물량 증가 등 매출액 증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격적으로 GAP 인증을 받은 이후, 일본시장에서 선호도가 올라가 수출량이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 발생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과정에서의 별도 인증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선별과정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판매기관에서 GAP 인증을 받지 않아 판매까지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유통과정에서도 콜드체인시스템 등 차별화된 경로관리가 필요함 • GAP 인증 시 시설개선 비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이 노후화 된 농가들이 많아 GAP 인증 시 생산환경 개선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GAP 인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집단인증을 위한 매뉴얼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인증을 하는 단체를 위한 인증 매뉴얼이 필요함. 자재 공동구매, 농약, 재배법, 작업 순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매뉴얼이 필요함 		

8) 구례 지리산과 하나되기 영농조합법인


일 시	2015년 10월 20일	구분	지리산과 하나되기 영농조합법인
장 소	지리산과 하나되기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수유 품목을 중심으로 GAP 인증과 무농약 인증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부터 GAP 인증을 받아 무농약인증과 함께 병행하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무농약 폐지 이후인 2016년부터는 유기농인증을 함께 받을 예정 • 직거래를 통한 매출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 이후 GAP 인증을 받은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홍보와 GAP 마크가 부착된 포장재를 개발하여 마을 블로그, 마을 직거래 쇼핑몰에서 판매를 시작 - 농산물 직거래 및 GAP 인증 가공식품 판매, 마을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직거래를 통해 판매량이 증가하여 매출증대 효과 발생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특성 고려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수유의 경우 품목 특성 상 수확시 열매가 나무아래로 떨어져 위험요소에 노출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품목특성을 고려한 작업안전 매뉴얼 제작이 필요 • 친환경 인증과의 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인증과 GAP 인증 병행 시 영농일지를 작성을 포함하여 별도의 비용요소가 크게 더 투입되지 않아 인증을 함께 병행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됨 - 조심해야 할 부분은 농민들 사이에 저농약에서 GAP로 전환하라는 이야기가 많아 대부분 농민들이 GAP를 친환경의 다른 한 종류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음. 농민들에게 GAP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요함 		

9) 강진 탐진들



일 시	2015년 10월 20일	구분	탐진들
장 소	탐진들 사무실		
주 제	GAP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내 용	<p><GAP 인증 및 운영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전문 단지로 2006년부터 인증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년부터 파프리카 GAP 인증을 받았으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증 면적 및 참여농가가 증가하다가 2014년 소폭 감소하였음 (2014년 수출이 어려워 개인적 사유로 이탈) • 친환경(저농약) 인증과의 병행 중지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농약인증과 GAP 인증을 병행하여 왔으나, 2016년 인증 폐지 이후 친환경 인증을 다시 받지 않고 GAP인증만 받을 계획임 • 엄격한 청결/위생 관리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 수출전문단지로 GAP인증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영농일지작성, 농약 관리를 시행하여, 농가들이 GAP 인증을 받을 때 거부감 없이 쉽게 진행됨 - GAP 인증 이후 더 엄격하게 청결/위생을 관리하고 있음 <p><기타 애로사항 및 개선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이익이 미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으로 인한 경매가격 상승, 수입단가 상승 등의 혜택이 거의 없어 농가들의 아쉬움이 존재 		
			

2. 유통업체 및 바이어

1) 신세계 푸드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구분	신세계푸드
장 소	메사빌딩 6층 면담실		
주 제	GAP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인증 농산물보다는 산지 계약재배-관리 형태로 안정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인증을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책임은 유통업체로 돌아옴 - 단순 GAP인증만을 믿고 유통하기엔 현실적인 보장이 되지 않음 - GAP인증 기관에서 또한 '인증'까지만 담당, 이후는 책임자 모호 - 따라서 사내 산진 전담 보직을 따로 운영하여 생육관리, 병해, 정식시기, 토양과 수질의 안전성 관리 실시 - GAP를 소량 취급하고 있지만 일부 거래처의 요구에 의한 것임 • 대체적으로 강제적인 수요정책, 불공정한 도매시장 체계에 반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농산물 또한 강제적 요소 강함, 실제로 친환경이 맞는지 의문 - 과거 김치 HACCP 사례, 의무화 이후 점차 간소화 되었음, 인증 남발 - 다만 각 주체의 의식구조의 전환에 대한 기여는 있었음 • 확산을 위해서는 '규제'와 '소비자 의식 전환'의 방법 있을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제는 단기적 성과가 있을 것이나 실효성은 의문 - 소비자 의식 전환 노력은 장기적 과제이나 실효성 있을 것임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계 기업 Q.C 기준 참고 • 도매시장 GAP출하시 상장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적 요소 가능 		
			

2) 푸드머스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구분	푸드머스
장 소	로즈데일빌딩 3층 면담실		
주 제	GAP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인증 마크 표시, 필요한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 수단으로써의 가치, 소비자 인지가 없다면 일반농산물과 같음 • 푸드머스의 GAP농산물 취급액은 연간 20억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농산물 13~15억원, 쌀 8.4억원 - 계열사 ecmd으로 나감, 일반 급식 업체의 수요는 거의 없음 • 푸드머스 양지 센터에서 GAP농산물 소분 포장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6농가의 업체류 거래, 강원도 농가를 관리하는 벤더와 양상추 거래 • 산지에 대한 Q.C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자재 센터내 GAP팀에서 검사, 농가 교육, 등 직접 진행 - Q.C의 내용은 GAP인증 기준과 동일하며 추가 사항은 없음 • 시장에서 GAP농산물만 취급하겠다고 '선언'한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우 어려울 것임, 농가 20~80대 다양 - '생산성'문제, GAP를 위한 재배 과정은 일반에 비해 생산선 떨어짐 • 경제성 이슈는 이제 그만 다루어져야 하지 않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소비자는 공감하나 농가는 매우 어려울 것임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GAP 상장 의무화, GAP 직불금, GAP 농약만 유통, GAP 농산물만 유통·가공 가능 등의 방안 논의 		
	 		

3) 그린푸드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구분	그린푸드
장 소	로즈데일빌딩 3층 면담실		
주 제	GAP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소량 취급, 일반 농산물과 차이점이 없어 구분하지 않는 것이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조달비율이 50% 이상으로 GAP 농산물은 전체 취급액의 5% 미만 수준 - GAP인증 농산물도 대부분 일반농산물로 취급하고 있음 - 현재 15개 백화점 및 단체급식에 농산물들을 공급하고 있으나 거래처에 GAP에 대한 이슈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친환경/ 비친환경에 대한 이슈만 존재) • 대량수요처 주요취급품목의 경우, GAP 공급업체를 찾는 것부터가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취급품목인 노지채소의 경우 GAP공급 주체가 거의 없어, 조달자체가 힘들 - 품목부류별 특성을 살려 단계적인 GAP 접근이 필요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매시장 취급비율이 높고 직거래 업체들의 경우에도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산지 QC강화는 현실적으로 힘들 • 따라서 도매시장에 GAP 취급 의무화 및 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하여 도매시장 중심의 GAP 농산물 취급확대를 우선시하는 것이 효율적임 • 품목도 노지보다 시설채소 중심으로 GAP 인증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 		

4) 이마트

일 시	2015년 10월 28일(수)	구분	이마트
장 소	로즈데일빌딩 3층 면담실		
주 제	GAP인증제도의 현황과 과제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로 GAP 취급량에 차이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실/과채류는 GAP 취급실적 無 - 업체 및 양곡류는 전체의 2% 미만으로 취급하며, GAP 대신 대부분 친환경을 구매하는 편 • GAP 인증 후 발생하는 안전위생에 책임에 대한 의구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품질관리를 하고 있으며, 산지품질관리의 경우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함 - GAP의 경우에도 안전위생에 대한 책임을 유통업체특에서 담보하기에 어려움이 큼 • 행정관리 간소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업체가 GAP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서 관리 등을 전산화시켜 행정관리를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함 - 인증서 관리시스템을 유통업체와 농관원의 전산시스템을 연동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음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의 자발적 규범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의 경우 관리에 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품질에 대한 차이점은 존재하지 않음 - 따라서 인증표시가 없이 규범화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정 품목을 중심으로 한 GAP 확산전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확산을 위해서는 전체품목중심이 아닌, 과실, 양곡 등 1회 수확 및 저장이 가능한 품목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인증 기관

가. 주요 현황

-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업무는 국제적 추세에 따라 민간인증기관에서 수행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GAP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시설, 업무규정을 갖춘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
- 근거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농관원 고시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 및 운영요령(고시 제2014-34호)
- 인증기관 현황('16.01) : 44개소

< 표 36. GAP 인증기관 현황 >

시도	인증기관명	인증건수	농가수(호)	재배면적(ha)	생산계획량(톤)	친환경인증여부	비고
계		4,019	53,583	65,410	1,068,167	23개소	
충남	(재)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488	825	700	6,243		
서울	농협중앙회	420	18,749	25,307	387,834		
서울	(사)한국생약협회	252	670	267	1,170		
충북	(재)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	234	1,093	731	7,207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협력단	212	789	728	22,670	친환경	
대구	주식회사 온누리친환경	158	2,188	2,124	38,977	친환경	
전남	농업법인플럼코트맘(주)	158	1,649	1,866	45,226		
광주	토지영농조합법인	155	287	519	4,353	친환경	
전북	농업회사법인 성농	152	2,392	3,671	28,719	친환경	
충남	(주)비씨에스코리아	145	1,525	1,472	41,547	친환경	
대전	동부팜한농(주)	135	2,276	3,010	72,702		
울산	아이센(주) *경농합병	130	2,092	2,372	39,967		15.11.9

시도	인증기관명	인증 건수	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생산 계획량 (톤)	친환경 인증 여부	비고
전북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127	2,379	3,404	51,849	친환경	
제주	(사)제주농림수산물인증센터	117	1,382	1,368	41,469	친환경	
충남	(주)대한인증원	116	3,676	4,680	49,104	친환경	
대전	산림조합중앙회	115	206	317	2,082		
경북	(주)에버그린농우회	99	691	569	19,245	친환경	
전북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농품	98	394	383	14,736		
경기	(사)농산물품질평가협회	86	1,011	922	28,581	친환경	
경남	농업회사법인예농(주)	80	509	528	19,201	친환경	
경기	한경대학교산학협력단	66	2,696	2,991	27,614	친환경	
경기	용인시농업기술센터	63	903	996	9,487		
경기	글로벌유농인	52	631	646	18,509	친환경	
전북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8	997	2,145	21,063		
충북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36	774	688	6,857	친환경	
전북	(주)지리산인증	33	351	348	5,844	친환경	
제주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2	102	85	4,082	친환경	
강원	강원대 산학협력단 삼척캠퍼스분단	30	196	204	3,558		
경남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30	54	56	1,892		
경남	(주)우리농인증	28	169	188	6,995	친환경	
광주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18	104	88	1,792	친환경	
전남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17	193	201	9,335	친환경	
대전	(주)한국인삼공사	12	51	65	402		
전북	(주)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12	150	154	2,356	친환경	
제주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11	17	23	723		14.12.9

시도	인증기관명	인증 건수	농가수 (호)	재배 면적 (ha)	생산 계획량 (톤)	친환경 인증 여부	비고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9	44	76	1,676	친환경	
전남	주식회사 이앤컴퍼니	8	491	379	4,231		
전남	한국작물연구소 주식회사	8	230	196	5,149	친환경	
경기	(주)푸드머스 에이치앤에스연구소	7	11	22	2,286		
경기	주식회사 대유에코텍	7	94	133	2,155		
충북	(주)그린하이	7	125	220	1,669		14.12.2
전북	(사)자연들농식품인증문화원	5	189	364	2,378	친환경	
경기	삼성웰스토리(주)	3	3	1	1,423		
경기	(주)엔에스쇼핑	3	161	146	2,475		
경기	(재)경기농림진흥재단	3	3	2	226		
경북	(주)웰빙농수산식품인증원	2	59	54	1,096		15.3.19
충남	중부대학교 산학협력단	1	1	-	1		
서울	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1	1	1	11		15.4.21

나. GAP 인증심사 개요

- 인증심사는 인증을 신청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의 기준에 적합하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이행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임
- 서류심사는 인증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임
- 인증신청인 구비서류(12종)
 - 농산물우수관리인증(신규,갱신)신청서
 -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 사업운영계획서(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
 - 토양검사성적서 (최근 4년이내)
 - 수질검사성적서 (최근 4년이내)
 - 토양관리 시비 처방서(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처리)
 - 잔류농약검사 성적서(인증 후 수확하기 전에 제출)
 - GAP교육이수 여부 확인증(수료증 등)
 - 영농일지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 1년 이상 기록
 - 농산물출하정보기록장 (단, 영농일지에 정확한 내용있으면 생략 가능)
 - 인증신청 수수료 (인증 수수료/ 출장비)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인증기관명의 요청 서류
- 현장심사는 계획이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임

□ GAP 인증과정

< 그림 8. GAP 인증과정 >



□ GAP 인증 심사 절차

< 그림 9. GAP 인증 심사 절차 >



다. 주요 현안 및 검토 사항

1) 인증기관의 제도적 보완 요구

□ 인증 서류 간소화

○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GAP 자율점검표 활용 유도 (간소화)

- GAP 실천 수준을 자율점검하게 한 후, 위해요소관리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자율 점검표로 대체 (제1회 농식품 규제개혁 현장포럼(7/10))
- '15 주요 작물 자율점검표 개발 중(10개 품목, 농진청)
- 다만, GAP 인증 신청서류는 3종(신청서 및 첨부서류 2종)으로 간소화되었으나 실제 신청인이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12종 내외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임

□ 토양 및 용수 분석 성적서 제출 완화

○ 주산지 토양 및 용수분석 공용성적서 활용 ('16 주산지 GAP 토양용수 분석 지원사업)

- 5년마다 1회이상 토양 및 수질 분석 실시해야 하나 관련 공용 성적서가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분석비용(약 307천원) 절감효과 기대

2) 검토 요구

□ GAP 수수료 개편 및 인증기관 자율성 부여

○ 수수료의 경우 친환경인증은 심사관리비를 농관원, 농진청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에 따라 징수

- 농관원장 및 농진청장은 표준 심사관리비를 인증기관에게 권장할 수 있음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인증기관이 자율적 결정 가능)

○ 반면, GAP의 경우 수수료를 5농가까지는 5만원으로 하고 추가시 인당 2천 원을 적용하되 최대 4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함으로 단체(집단)인증으로 참여 농업인이 많을 경우 인증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함 (*수수료 체계에 대한 인증기관 자율성 배제)

- 예컨대, 철원 김화작목반(쌀) 참여농가 970호를 인증할 경우, 인증 심사비는 최대 40만원에 불과하지만 인증기관 심사원이 표본조사할 심사대상은 최소 97농가임
- 또한 재배필지 경작여부 전수 조사, 토양·용수 시료채취 등을 감안하면 인증기관 운영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함
- 이를 보전하기 위해 1년 단위로 인증건수와 농가수 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인증기관입장에서는 운영 실비에 미치지 못하고 인증실적대비 배분으로 일부 기관에 편중된다는 지적
- GAP인증기관협회 관계자는 ‘인증기관 심사원 인건비 보조’ 또는 ‘인증 심사비 결정의 자율성 부여’ 등을 제안함
- 인증기관 실적 인센티브제 도입 및 유통조직, 유통업체 협력모델 발굴
 -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영농환경, 농산물 품질 및 품위 등 현장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주체 중 하나인 인증기관(심사원)의 적극적인 GAP 확산 활동 독려
 - 단순 조사표에 의한 GAP 인증 심사를 넘어 유통조직 및 유통업체의 상품화 또는 품질관리(Q.C)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생산관리를 지원 또는 컨설팅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인증기관이 일종의 안전농산물 Q.C 기관이 되어 유통조직 및 유통업체를 통한 소비 촉진에 기여토록 하고, 해당 실적이 우수한 인증기관에 ‘GAP 농산물 마케팅 촉진비(가칭)’ 등의 인센티브 지급
 - 금산 만인산농협 GAP 깻잎 초창기에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GAP사업단이 유통업체가 신뢰할 만한 각종 안전성 분석데이터를 제시하여 전국단위 유통체계를 구축한 이후 깻잎 생산자(단체)가 자발적으로 GAP 인증을 획득하고 있음.
 - 반면, 컨설팅과 인증심사를 엄격히 구분할 것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음. 예를 들어 농협중앙회의 경우, 인증기관보다는 컨설팅기관으로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 농관원은 사후 관리 감독 기관으로 인증기관 성과평가 진행
 - 인증기관의 활동 역량을 ‘S-A-B-C’단계로 분류하여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지자체 등 수요자에게 정보 공유
 - 수요층에 의한 GAP 인증기관 선택으로 인증기관간 건전한 경쟁 및 성과 창출

제4절. 기타 의견조사

1. 온라인 정책포럼⁸⁾

1) 개요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GAP 농산물 인지도 제고 방안 의견수렴
- 토론기간 : '15.08.17~09.06(3주)
- 주제 : GAP 지도의 소비자 인지도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2) 주요 결과 (조회 309회, 참여글 96건)

- 소비자 공감형 홍보활동 강화 필요(TV, 라디오, 신문 등)
- HACCP처럼 대학 교과과정에 GAP 제도 수록하여 개념확산
- 친환경(환경)과 GAP(안전성)제도의 개념을 명확히 정해 정책 추진 필요
- 친환경제도처럼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강화로 제도 내실화 유도
- 대형마트에서 GAP 농산물을 구매하고 싶어도 인증농산물이 없으므로 소비자가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진열판매 강화
- 일부 지자체(서울 경기, 전남)의 학교급식으로 GAP를 사용제한 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의 GAP 확대 정책이 지자체에서도 일관되게 조치 요망
- GAP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공감할 수 있는 한글 명칭 변경 필요
- 기업(KOBACO 공모) 또는 유명 광고기획사를 통한 전략적 광고 필요
- 친환경 매장에서의 GAP 취급확대 등 친환경제도와 상호 협력 강화 필요
- 기타 의견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에 애로가 있어 운영에 대한 재검토 필요
 - 고령 농업인에 대한 참여 배려와 농가수익 및 판로확대 지원 필요

8) GAP 소비자 인지도 제고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결과,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15.09)

3) 시사점 (적용 방안)

- GAP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정책 추진에 활용
 - 알기 쉬운 명칭 변경, 학교급식 등 대형급식처 확대, 대형마트 취급 확대 등
- '16년도 GAP 교육·홍보 계획 수립에 반영
 - GAP정책 홍보 시 전문 광고 기획사 또는 공모를 통한 전략적 홍보 추진
- 친환경 취급 전문매장에 대한 GAP 취급 확대 추진
 - 친환경 취급 전문 유통업체와 상호 업무협력 MOU 추진
- 농업인의 애로사항 적극 개선 추진
 -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간소화 등 관련 규정 개정 추진
- GAP 참여 농업인에 대한 우대정책 강화
 - GAP 참여 농업인의 농림사업정책 참여시 우대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대
상사업 지속 발굴 및 확대

2. 기타

- 일부 언론⁹⁾ 및 블로그 등에서는 GAP를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도에 농
업계 다국적 기업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논조를 펼치기도 함
 - 기사 일부 내용
 - 몬샌토 등 GMO 종자 및 농산물 수출 다국적 회사와 고엽제 수준의 제초제 및 고
독성 화학제품을 수출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유기농을 죽여야 GMO와 농약이
산다' 라는 내부방침을 공공연히 과학언론계에 전파
 - 소비자로 하여금 유기농식품에 등을 돌리게 하고 화학농업과 유기농업을 오십보
백보로 보이게 하는 것

9) 흥*신문(2015.05.28.) <뉴스진단, 친환경농산물과 충돌하는 GAP란> 제하 기사

<표 37. 설문 및 면담 등의 GAP 인증제도 도출 현안>

구분		주요 현안	
인증제 위상 재정립 및 인증체계 다각화	제도의 위상 및 인증주체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은 규범적 성격이 강하나 실제로는 인증제도로 운영 / 이미 대부분의 영농지역이 GAP 수준으로 관리 (예. 토양검사 부적합율 1% 미만) 국가인증 체계는 우리나라와 중국이 유일함. 정부주도로 지속적으로 양적 확장을 추진할 것인지, 민간주도로 질적인 관리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인증표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범적 성격의 GAP에 인증표시제 사용의 적합성 (Global GAP는 유통단계에서의 인증표시제 사용 금지) 	
	친환경인증 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설계는 안전관리인증체계이나 실제 현실에서는 친환경인증과의 결합관계로 인지(예. 저농약 대체) 기술적 친환경인증 어려움이 있는 과수 등 대체 인증 요구 	
	정책 결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 방식의 타 농림사업 정책 결합도의 한계 존재 농림사업의 기본 조건으로 GAP 의무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 제기됨. GAP 직불금 연동 검토 	
	지자체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나 역할인지 및 동기유발 미흡 지자체 공동브랜드관리시스템에 GAP 결합 추진 필요 지자체 단위의 GAP 보편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산지유통과 로컬푸드 등 대안유통을 아우르는 GAP 유통계획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휴양마을 등 마을공동경영체계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GAP 인증모델 개발 검토 	
	유통조직참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지체의 핵심주체인 유통조직-출하조직 연계 참여 강화 GAP 보편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 확대 필요- 예)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지원 	
생산단계	농가 인식(마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를 규범요소로 인식하기 보다 가격 차별을 위한 품질 요소로 강하게 인식. 그럼에도 GAP 인증농가들은 GAP를 통해 농장 환경이 개선되고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자부심이 제고되었다는 부분은 인정함 GAP 인증이 시장에서 가격보전이 되지 않고, 유통 판로를 찾지 못해 인증에 대한 동기유발 저조 GAP를 통해 품질이 향상되거나 좋은 가격을 받는다는 인식보다 당초 좋은 품질, 우수 농가가 인증을 받아 가격이 높은 우수사례가 많음⇒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방식 재검토 	
	농약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농약 사용의 어려움(소면적 재배작물 - 전국 재배면적 1,000ha 이하인 작물) : 전용 농약 부족으로 적정 농약 사용 지도가 어려워 농가의 농약 오남용이 많아 안전성 우려 품목별 농약/비료 사용 기준을 맞춤형으로 제시 요구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생물농약, 생화학농약 등 친환경농약개발이 필요하나 국내 제조사의 신농약개발을 위한 기술이 낙후되고, 개발기간이 10~12년, 개발확률 1/35,000, 비용은 500억~1000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KREI, 생산 및 수입단계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2006)) 농진청(국립농업과학원)의 직권등록 확대 필요성 제기 : 소면적 및 수출유망작물 대상 농약직권 등록시험 - 2013~2018 매년 25억 투자 *2013년 30작물 45해충 88종 살충제 시험 	
	경영일지 등 서류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일지 작성의 어려움. 체크방식의 경영일지 작성 및 전산화 방안(OCR카드)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 어려움 	
	이력추적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력추적제 등록 의무 완화 - 친환경인증제와의 차별적 요소가 사라졌다는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현장 농가들은 대체로 환영. 	
	인증기관 공공성 담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50% 정책목표는 보편성 추구 전략으로 민간인증기관 중심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지역인증기관화 전환 검토 인증심사원 역량 담보 및 처우 개선 : 인증심사원 1500명 수준 유지 필요 	
인증단계	토양/용수 D/B 범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농진청 홀토람, 친환경인증 토양/용수 등 관련 D/B의 통합적 관리 및 범용사용 (공통시험성적서) 	
	인증기관 애로사항	운영상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수수료 현실화 등 경영적 어려움 토로(친환경인증수수료의 자율 책정과 대비됨) : 친환경병행 기관 23개/45개 ⇒인증기관 부실화 및 GAP 인증 기피 우려, 인증기관의 주도적,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임 인증기관 운영비 증액 요구(인증기관) : 예산확보 부담, 운영비 지급 기준 설정 및 관리감독에 따른 농관원(총괄기관) 행정수요 발생
		인증 심사 프로세스 상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보고서 서면 작성 후 시스템 등록 등 업무 부담 요소 산재 출장비 산출 및 증빙 등 심사 외적인 행정 업무 발생
		G-GAP 인증기관 부재 정책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G-GAP 인증기관이 없고, 다른나라와 동등성 협약 없음 ⇒ 수출 및 무역장벽으로 기능 미약 GAP 인증기관협회, GAP생산자연협회, GAP연합회 등 관련 단체의 활동 및 역할, 기능 등이 정립되지 않음 민간영역의 GAP 정책 파트너십 형성이 미흡
총괄기관(농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정보시스템 개선 : 인증농가 D/B 관리 및 활용에 어려움 관련 업무(교육, 인증, 홍보 등)가 기관별 분산되어 통합적 관리가 어렵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어 혼선 		
상품화단계	GAP 시설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HACCP 수준의 과도한 인증시설 기준 제시로 시설인증을 위한 사업비 과다 투자 우려 GAP시설(보완)사업으로 지원받지도 GAP 취급실적이 없는 시설이 많음 	
유통단계	유통업체 QC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와의 QC 일체화 어려움 호소(책임과 관리)-(현재는 협력업체 관리 중심) GAP 농산물을 취급하고자 하여도 년중 안정적 공급물량 확보가 어려움 	
	친환경유통업체 QC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록마을(초록개런티), 울가홀푸드(저농약관리기준) 등의 사례에서는 자체 QC로 (GAP+제조제사용금지)의 별도 기준 	
	도매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시장의 GAP 취급 의무화 등의 정책이 시장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 상장수수료 감면 등의 정책 결합 요구 GAP 유통 물량에 대한 통계가 없고, 실제 시장유통 물량은 낮을 것으로 추정됨 	
소비단계	소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인지도가 낮으며, 저농약 친환경인증 수준으로 이해 (농약을 덜 쓴 농산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은 공감대를 갖고 있음 농산물 안전에 대한 주요 지표는 GMO, 방사능, 위해미생물, 농약사용여부(잔류농약, 특히 제조제) 등으로 GAP로 사전 예방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제5절. GAP 관련 주요 정책

1. GAP 정책 연계 현황

가. 정책 연계 현황

- 농식품부 농림사업 중 36개 사업군에 대한 GAP 연계 반영
 - 농림사업의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크게 5가지의 사업유형으로 분류
 - 생산지원사업 중 단지조성, 주체육성 등은 주체육성사업으로 별도 분류
 - 유통사업군은 시설지원사업과 조성지원사업으로 분류
 - 평가반영은 사업선정평가가 아니라 사후평가 반영사업군을 의미
 - 타 정책연계 우대조치사항을 분석한 결과 가점부여 및 우선선정방식이 전체의 80% 차지

< 표 38. GAP 연계사업의 우대조치별 분류 >

구분	가점부여	우선선정	평가반영	기타	합계
생산기반지원	2	7			9
생산주체육성	1	3			4
유통시설지원	6	1		1	8
유통조성지원	4	1	2	1	8
평가반영사업			1		1
기타사업	2	2		2	6
합계	15	14	3	4	36

- 정책분야별로 분석해보면 원예식품분야와 식량분야 등 품목중심 우대조치가 27건으로 전체의 75% 수준

< 표 39. GAP 연계사업의 정책분야별 분류 >

구분	식량분야	원예식품	농촌	광특	합계
생산기반지원	3	5		11	9
생산주체육성	1	3			4
유통시설지원	1	4		3	8
유통조성지원		8			8
평가반영사업		1			1
기타사업		1	5		6
합계	5	22	5	4	36

< 표 40. GAP 연계사업 현황 >

번호	사업명	사업 분야	GAP 우대내용	반영 방식	비고
1	농지구모화사업	생산기본지원	농지구모화 지원대상자 선정시 GAP인증 농업인(농업법인)에게 가산점부여	가점	식량
2	배수개선사업	생산기본지원	2014년 기본조사 대상지구 선정시 GAP인증 필지(지역)을 포함한 지구를 우선 선정 제출토록 하는 문구추가	우선 선정	식량
3	농기계 임대사업	생산기본지원	농기계 임대시 GAP 인증 농업인에게 우선 임대할 수 있음	우선 선정	식량
4	고품질 쌀 유통활성화 사업	유통시설지원	RPC 경영개선 및 벼 매입자금차등지원 등을 위한 경영평가지 GAP인증 RPC 및 GAP인증 벼매입RPC에 가점부여	가점	식량
5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	생산주체육성	2014년 들녘별경영체 선정 평가지 GAP인증 지역(경영체)에 가점 항목 추가	가점	식량
6	인삼·약용작물 계열화 지원	생산주체육성	계약재배신청서에 GAP인증서를 첨부토록 하여 GAP인증농가는 계열화계약재배대상자로 우선적으로 선정	우선 선정	원예
7	인삼 생산·유통 시설현대화	유통시설지원	2014년 인삼생산유통시설 현대화사업선정평가지표에GAP인증관련내용반영	가점	원예
8	가능성 양잠산물 종합단지조성사업	유통시설지원	2015년 양잠산물종합단지 사업자 서면평가지표에 가점 반영	가점	원예
9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	평가사업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공판장 평가지표 중 개설자 자율관리지표(10점)에 GAP농산물 취급실적을 가점으로 반영	평가 반영	원예
10	원예시설현대화	생산기본지원	사업신청시 GAP인증서를 첨부토록 하여 GAP인증경영체는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마련	우선 선정	원예
11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생산기본지원	사업대상자 선정시 GAP 인증 농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우선 선정	원예
12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생산기본지원	사업신청시에GAP인증서를 첨부토록 하여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마련	우선 선정	원예
13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생산기본지원	사업신청시에 GAP인증서를 첨부토록 하여 GAP집단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우선적으로 선정	우선 선정	원예
14	식품외식종합자금	유통조성지원	농식품 시설현대화자금 지원대상자 선정시 GAP 인증업체에 가산점 부여	가점	원예
15	중소식품기업 협력지원사업	유통조성지원	사업수행조직 선정지표(안)에 GAP등 정부정책과의 연계성 반영	가점	원예
16	과실전문생산 단지 기반조성	생산주체육성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우선 지원	우선 선정	원예

< 표 41. GAP 연계사업 현황(계속) >

번호	사업명	사업 분야	GAP 우대내용	반영 방식	비고
17	과원영농 규모화사업	생산주체육성	사업신청시에 GAP인증서를 첨부토록 하여 GAP인증을 받은 과수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지침마련	우선 선정	원예
18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기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시 GAP 인증자 가점 부여	가점	농촌
19	생명산업기술 개발	기타지원	GAP관련연구에 대해 2014년 생명산업기술개발 기술수요조사 참여시 기획대상과제로 우선선정	우선 선정	농촌
20	농업경영컨설팅	기타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GAP인증대상 포함	우선 선정	농촌
21	쌀소득 등 보전 직접 지불사업	기타지원	쌀직불금 신청 필지 중 GAP 인증 필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토양 및 농약잔류검사 대상에서 제외	기타	농촌
22	농촌자원복합 산업화지원사업	유통시설지원	보조사업자 선정시 GAP인증관리시설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자 등에게 가점부여	가점	광특
23	농업기반정비 사업	생산기반지원	2014년 사업대상지구 선정시 GAP 인증 지역(농가)을 우선선정토록 하는 문구 추가	우선 선정	광특
24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	유통시설지원	2016년 예비사업단 선정지표(안)에 반영	가점	광특
25	산지유통활성화 사업	유통조성지원	산지유통종합평가지표에 GAP관련 인증에 대한 가점	평가 반영	원예
26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유통시설지원	GAP시설인증 및 조직인증시 우대사항 포함	우선 선정	원예
27	농축산물판매 촉진 사업	유통조성지원	원예전문생산단지 실태조사 평가지표에 가점부여	평가 반영	원예
28	우수농식품 구매지원	유통조성지원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평가항목에가점부여	가점	원예
29	외식산업육성 사업	유통조성지원	우수외식업지구지정요건 중 우수식재료의 종류에 포함	기타	원예
30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활성화	유통조성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GAP인증대상 포함	우선 선정	원예
31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생산기반지원	자격요건상 GAP경영체 우선지원내용 반영 및 가점부여	가점	원예
32	산지유통시설 지원	유통시설지원	GAP인증시설·조직 가점부여	가점	원예
33	농산물마케팅 지원	유통조성지원	우대조치사항 평가기준에 반영	가점	원예
34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기타지원	대상자평가시 GAP인증 취득시 가점부여	가점	농촌
35	농산물우수관리(GAP)제도운영사업	기타지원	GAP시설보완사업임	기타	원예
36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	유통시설지원	신청기본요건내 GAP 관리시설 반영	기타	광특

나. 기존 정책연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가점 및 우선반영 방식의 한계
 - 사업대상자 선정시 가점 및 우선반영 방식의 경우 현장에서의 정책의지와는 무관한 사업대상 선정 우려가 높은 방식
 - 자격요건이나 이행요건에 부여되는 강제적 의무화 지표가 아닐 경우 현장의 정책담당자는 “권장사항” 정도로만 인지
- 평가사업의 경우 의무이행지표로서 미흡
 - 도매시장평가, 산지유통종합평가 등 사후평가시스템이 갖추어진 사업과 연계한 강력한 평가시스템 도입 필요
 - 가점 방식보다는 본 항목지표로 편입될 필요가 있으며, 평가점수 배점에 대한 정책적 의지 반영 필요
 - 예를 들어 과수산업발전계획 연차평가의 경우 본 항목지표에 반영되어 있으나 “친환경/GAP/HACCP 등 인증농산물 취급 통합배점
- 펼치는 방식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타겟팅 방식 필요
 - GAP 우대사항을 반영하는 단위사업의 확대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방식 재검토 필요
 -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선계획, 후지원 사업대상군들의 경우 상위계획수립단계에서 GAP 육성방안을 계획수립에 의무적 반영 확대 필요

< 그림 10. GAP 정책 통합연계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 통합적 GAP 정책 연계 방안

1) 추진 개념과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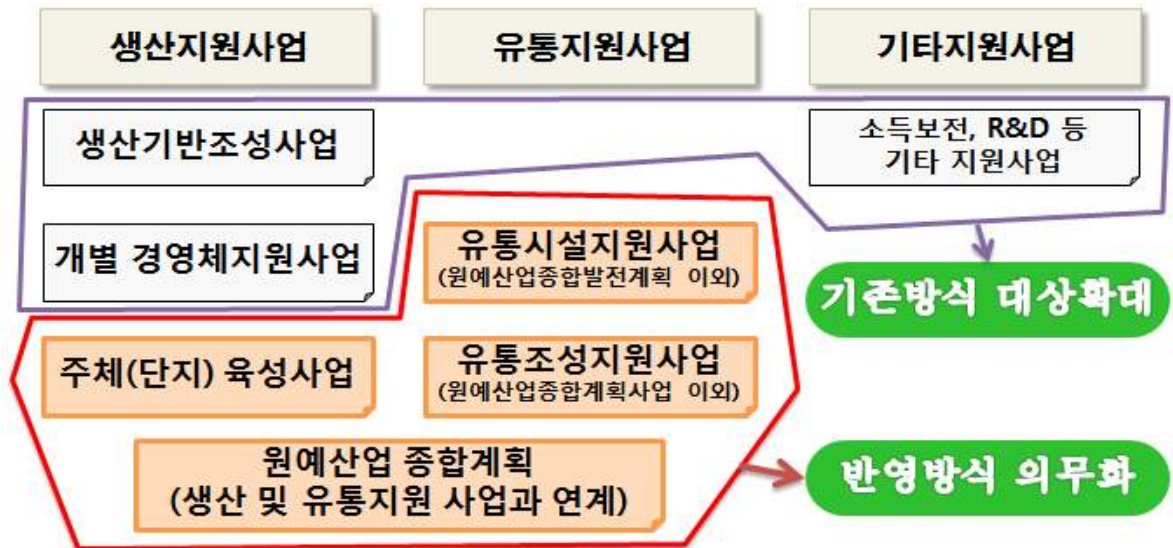
□ 상위계획 수립 사업 분류

- 단위 농림사업 선정의 자격조건으로 부여되는 상위종합계획 수립 대상사업 2개에 GAP 육성계획수립 의무화 반영
 - 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최상위 법정계획, 장기 추진)
 - 원예산업종합계획(산지유통종합계획+과수산업발전계획)

□ GAP 연계 단위 사업군 분류

- 농림사업 전체에 대한 대상재분류 작업을 통하여 GAP 연계방식을 이원화 하는 방식 도입
 - 기존 방식 유지 : 개별경영체 단위 지원사업으로 GAP 의무화 연계성이 작은 사업군은 지속적으로 GAP 우대조항 반영사업 확대
 - 반영방식 의무화 :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군 중 통합적 산지유통 대상사업 13개와 GAP 연계성이 높은 사업군 선발

< 그림 11. GAP 연계 대상사업군 분류 >



□ 평가 반영 사업군 분류

- 정기적인 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군에 GAP 관련 평가지표를 분항목으로 편제 운영
 -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 원예산업 종합평가
 - RPC 경영평가
 -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

2) 적용 방안

□ 기본 적용 원칙

- 정책추진방식의 프로세스에 맞추어 계획수립단계, 사업선정단계, 사업이행단계, 사후평가단계 등에 GAP 의무화 방식과 반영강도 조정

<표 42. 통합적 GAP 정책 연계 적용 방안>

구분	세부기준	대상사업	반영 방식
1. 기존 방식 유지	가점 및 우선대상자	개별경영체 중심 지원사업	3, 4번 이외에 GAP 반영사업군 미반영사업군의 경우에도 지속적 확대 (특히 직불금제도 등 영향력이 큰 사업군)
2. 상위계획 수립 반영	계획반영항목 의무화	원예산업종합계획 농업농촌및식품산업 발전계획	해당 상위계획내용에 GAP육성계획 반영 의무화
3. 사전 의무화 전환 (사업자 대상 선정시)	자격요건 의무화 (인증 의무화)	생산지원사업 중 통합적산지유통 대상사업군	사업신청자격요건에 GAP 인증자 혹은 인증 의무화를 전제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이행요건 의무화 (취급 의무화)	주체육성사업 및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시 계획수립지침에 GAP 인증 농산물의 연차별 취급 독려가 아닌 연차별 의무화 이행지표 제시
4. 사후 의무화 전환 (사후 계획점검 평가시)	사후평가제도에 항목 반영	원예산업종합계획 연차평가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 원예산업 종합평가 RPC경영평가 도매시장평가	연차별 평가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사업군에 대해서는 GAP 관련 평가항목을 본평가에 핵심지표로 반영

□ 고려 사항

- 품목부류 : 식량 및 원예과수작물 최우선 의무화 반영
 - 단지화 조성가능성 및 유통시설 경유 대상 품목
- 평가시스템 : 이행요건 의무화의 경우 공모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의무화는 가능하나 사후적 평가시스템이 없는 사업군의 경우 별도의 평가시스템 확보 필요

3) 세부 적용 방안

- 2018년까지 농림사업의 GAP 의무화는 21개 대상사업 중 13개 사업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운영.

< 표 43. 통합적 GAP 정책 연계 사업 의무화 적용방안 >

구분	계획수립의무화	선정단계의무화		사후평가의무화	합계
		자격요건의무화	이행요건의무화		
사업대상수	4개(2개)	5개	16개	5개	30 (28)
단기	3개(1개)	2개	11개	4개	20 (18)
중장기	1개	3개	5개	1개	10
사업대상					
단기	산지유통종합계획 과수산업발전계획 원예산업종합계획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현대화	들녘별경영체 밭작물공동경영체 과실전문생산단지 과원영농규모화 고품질쌀유통활성화 산지유통시설지원 과수거점APC지원 GAP시설지원 농산물마케팅지원 과실브랜드육성지원 농축산물판매촉진지원	원예산업종합 계획 연차평가 원예산업종합 계획 종합평가 과수산업발전 계획연차 RPC경영평가	
중장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업에너지시설 이용현대화 첨단온실신축 지원사업	인삼약용작물계열화 인삼생산유통시설현대화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 공동선별비지원 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도매시장 평가	

라. 기대효과

- 품목부류별 대표 사업의 GAP 연계시 경지면적 대비 18.5% 인증
 - 대상 사업면적이 넓은 품목부류별 대표사업 대상지를 GAP 인증으로 전환할 경우 전체 경지면적의 18.5%에 해당하는 319,366ha 인증
 - 가장 넓은 대상지를 보유한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의 경우, 현행 사업대상지 선정시 가점 부여 방식에서 계약된 RPC에 GAP 의무 출하물량을 반영하도록 지침을 변경할 경우 향후 132천ha의 GAP 인증 확대를 꾀할 수 있음

< 표 44. 품목부류별 대표사업 GAP 기대 인증 면적 >

분류	대표 사업	'15년 현재	향후 계획	합계
식량작물	들녘별경영체 육성	81,033ha	132,600ha	213,633ha
약용작물	인삼약용작물계열화	2,452ha	6,409ha	8,861ha
과수작물	과실전문생산단지	4,976ha	1,543ha	6,519ha
원예작물	밭작물공동경영체	-	90,353ha	90,353ha
합계		88,461ha	230,905ha	319,366ha
경지면적대비 비율		5.1%	13.4%	18.5%

2. 2016년 제도개선 및 신규 추진사업

가. 농림축산식품부

1) 주산지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 사업

□ 개요 및 목적

- GAP 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주산지를 중심으로 토양·용수 분석 비용 지원
- GAP 인증 참여농가의 부담 경감 및 인증 면적을 전체 경지면적 대비 30% 수준(2017년) 확대

□ 시행주체

- 주관 : 지방자치단체
- 수행 : GAP인증기관, 토양·용수분석기관, 컨설팅 컨소시엄

□ 사업대상 및 유형

- 사업대상 : 지역별 주산지, 들녘별경영체, 시군 전략품목, GAP/친환경농업 추진 특화품목, 광역친환경농업지구·단지 등
- 유형
 - 1유형 : 단일품목 재배지역이 특정지역에 밀집되어 하나의 단지로 대상구역 설정
 - 2유형 : 주품목과 부품목 2~3개 품목이 혼합된 주산지
 - 3유형 : 주품목이 분산형 주산지로 되어 있으나 작목반(또는 법인 등 경영체) 중심으로 연접지역 등 예정지를 포함하여 검사 대상 구역 설정
 - 4유형 : 주품목이 생산자 조직화되어 있으나 개별농가 단위로 분산

□ 사업 예산

<표 45.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예산>

구 분	2013년까지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이후
계 (백만원)				12,000	24,000
국 고(50%)				6,000	12,000
지방비(50%)				6,000	12,000

□ 기대 효과

- 2016년 목표 : 120개 주산지 (153천ha *전체 농경지 대비 9% 수준)
- 대상 토양·용수 성적서는 5년간 활용할 수 있으며(농관원 개정 고시 2015-71호) 반경 500m 연접 농지도 해당 성적서 인용 가능하여 GAP 인증 신청시 농업인의 비용 절감 및 절차 간소화에 기여

2) 기존 정책 연계 지침 개정(안)

<표 46. 기존 정책 연계 지침 개정(안)>

내역사업명	현행	개정안	담당과
고추 비가림재배 시설(p.483)	※ 상기 사업대상자 중 아래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선 지원 - GAP(고추) 인증 농업인.농업법인	(좌동) (신설) 사업시행계획서에 GAP인증 여부 및 향후 계획 명시	원예 산업과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 조성사업 (p.487)	○ 선정요건 - GAP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우선 지원(p.488)	(좌동) ○ 사업대상자 * (신설) 2018년 사업대상지구부터는 사업면적의 50%이상 GAP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지구(사업완료 후 2년 이내)	원예 경영과

<표 47. 기존 정책 연계 지침 개정(안)>

내역사업명	현행	개정안	담당과
밭작물공동 경영체육성지 원사업(신규)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품질관리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 ○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	(좌동) ○ 역량강화: 컨설팅 및 교육 -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인증취득(신설), ...	원예 산업과
들녘경영체 육성사업(p. 228)	평가시 가점부여	(좌동) 사업자 선정 조건 반영 (신설) 4년차 다각화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사업대상자의 30% 이상 GAP 인증을 받은 경우 신청 가능(또는 우선지원)	식량산 업과
원예산업종 합계획(통합 적산지유통 종합계획)	(마련중)	원예산업종합계획(통합적산지유통 종합계획) 공통평가 지표에 반영 검토	유통 정책과
산지유통시 설지원사업 (p266)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p.270)	(좌동) ...구비하고 GAP 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유통 정책과
과수거점산 지유통센터 건립지원 (p.280)	신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농산물(GAP)관리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p.283)	(좌동) ...구비하고 GAP 농산물 취급계획을 수립할 것	원예 경영과
인삼.약용작 물계열화사 업 (p.379)	사업대상자 지원요건:계약재배 -GAP인증농가는 계약재배 대상 우선권 부여	사업대상자 지원요건(좌동) ① GAP인증 의무 조건 계약재배(전체사업면적 50%) - 계약단가 : 3,450천원(10당) ② 일반 계약재배(전체 50%) - 계약단가 : 2,850천원(10당) * 16년은 GAP인증 취소에 대한 패널티는 없음	원예 산업과

내역사업명	현행	개정안	담당과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원예시설현대화)	2015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GAP인증, 농업재해보험 가입 농업경영체 우선 선정	2016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16년부터는 GAP 인증 또는 GAP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지원금액 차등 지원 예정 - GAP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단계적으로 축소 및 지원 중단 예정 *지원한도액 비율:(‘15)100%→(‘16)90%→(‘17)50%→(‘18) 25%→(‘19) 미지원	원예산업과																
시설원예현대화(p.473)	2. 지원자격: 시장·군수가 종합 판단하여 우선지원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p.474)	(좌동) ** (신설) 채소류는 2018년부터 GAP인증을 받은 농업인·농업법인 등에 한하여 지원 <참고: 과채류 GAP인증 현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농가 수 (호)</th> <th>면적 (ha)</th> <th>생산량 (천톤)</th> </tr> </thead> <tbody> <tr> <td>전체(A)</td> <td>88,265</td> <td>46,693</td> <td>2,165</td> </tr> <tr> <td>GAP(B)</td> <td>4,823</td> <td>3,195</td> <td>151</td> </tr> <tr> <td>비율(B/A)</td> <td>5.5%</td> <td>6.8%</td> <td>7.0%</td> </tr> </tbody> </table> ※ GAP인증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지원대상 포함여부 검토	구분	농가 수 (호)	면적 (ha)	생산량 (천톤)	전체(A)	88,265	46,693	2,165	GAP(B)	4,823	3,195	151	비율(B/A)	5.5%	6.8%	7.0%	원예경영과
구분	농가 수 (호)	면적 (ha)	생산량 (천톤)																
전체(A)	88,265	46,693	2,165																
GAP(B)	4,823	3,195	151																
비율(B/A)	5.5%	6.8%	7.0%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p.534)	* 사업 신청 시 기본요건 점검표상에 GAP 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	(신설)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지원받는 경우(신설 및 보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1항(별표5)에 의한 우수관리시설(GAP시설) 기준에 적합한 위생요건 구비(권고) * '18년부터는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사업비를 조성받는 경우 우수관리시설(GAP시설) 인증을 취득할 것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p.1049)	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에 가점 부여 가능	(좌동) * (신설) 사업계획에는 GAP 농산물 취급물량 확대계획을 포함	농촌산업과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개정(제2015-71호)

□ 개정 이유

- GAP 인증 확산 정책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사항 등의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농산물 공급을 위함

□ 개정 내용

-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과거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 서류는 생략 가능(3조 3항 신설)하고, 인증내역의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관 판정 생략 가능(7조1항 개정)
 - 갱신 등 기 인증 농업인의 서류 준비 부담 경감 및 절차 간소화
-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 계획 중인 농산물도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4조1항 개정)하였고,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의 신청 기한 예외 규정 신설(4조3항 신설)
 - 현행 인증 신청시기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중이면서 생육기간이 2/3가 경과 되는 않은 경우에만 신청
 - 이모작 등 동일포장에서 다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품목별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산계획 중인 농산물도 신청 가능해짐
 - 또한, 생육기간이 짧아 생육기간 2/3이 경과되기 전 인증 신청이 어려웠던 품목(버섯, 새싹채소 등)의 신청 기한 예외로 애로사항 해결
- 인증신청 서류 접수 및 처리기간 계산 등 민원사무처리 법률 규정 준용(4조1항 개정) 및 인증 중복처리 여부 통보(4조2항 신설)
 - 인증신청 서류 처리 관련 법률 규정 준수 명시
 - 인증기관이 신청서 접수시에 인증 제한 자 및 인증 중복 여부 확인 후 신청서류를 접수하도록 함으로 신청 농가가 불필요한 서류 준비 및 시간 소요를 줄일 수 있음

- GAP 영문 인증서 발급 가능 (8조4항 신설)
 - 수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문 인증서 발급 규정 신설
 - 영문 인증서 서식 제정
-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따른 사후관리를 관할 농관원 사무소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10조1항, 2항, 11조2항 일부 개정)
 - 기존 인증기관 취소로 사무소가 처리해 준 사항을 규정에 명문화함
- 인증 유효기간의 최초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추가 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1년 이내로 재연장 가능(11조5항 신설)
 - 생산된 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을 위한 연장기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었던 것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하고, 추가연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1년 이내로 제한하여 조속한 처리를 유도함
-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처리절차를 명확히 함 (12조2항, 3항 신설)
 - 단체의 경우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될 경우 추가 인원 전체를 각각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본 심사가 가능할 경우에는 표본추출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 농관원의 생산과정 조사항목 단순화 및 처리절차 명문화(15조5항 일부개정, 17조2항의 1 신설)
 -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와 농관원의 평가가 중복되는 부분은 제외하여 농관원의 생산과정 조사가 간소화됨
 - 이중 평가에 따른 농업인의 부담 경감
 - 농관원 생산과정 조사 및 절차 : 해당 사실을 인증기관에 통보
 - 인증품과 일반품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못한 경우
 -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
 - 생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기준을 초과한 경우
 -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이 초과한 경우
 -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 GAP 기본교육 미이수,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미작성의 경우

- 유통판매과정 조사결과 인증기준 위반한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17조4, 5항 개정)
 - 생산과정과 마찬가지로 유통판매과정 상 위반사항에 대해 인증기관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 농진청 지정 교육기관 이외 기관도 GAP 기본교육 과정 신설 가능 (18조 2 신설)
 - GAP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하고 있으나 교육기관 및 횟수 부족으로 농업인의 교육이수에 애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본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농관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기본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신설
 - 지정교육기관이 아닌 기관 또는 단체도 교육 예정일 10일전에 농관원장에게 기본교육 실시를 신청할 수 있으며, 5일 이내로 승인여부를 획득받을 수 있게 됨
 - 인증 신청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신청 농업인이 필요한 시기에 해당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증 신청조건 충족에 유리
-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경과조치 신설(부칙 제2조의 1 신설)
- 토양·농업용수의 분석기간 5년 연장 및 생략 기준 설정(별표 1)
 - 해당 농경지에서 반경 500m이내에 위치한 농경지의 토양분석 결과서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인용
 - 농업용수의 수원이 동일하며 유입경로가 같은 경우 수원에 대한 분석 결과서 인용 가능
 - 현행 4년에 1회 분석을 실시하던 것을 1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 공공기관의 토양중금속, 수질분석 등을 활용할 경우 농업인의 토양 용수분석 생략 가능
 - 예) 2015년 농경지 중금속 등 오염실태 조사사업에 따른 휴·폐광산지역의 개황조사 격리거리 2~4km의 1/4를 적용(농관원,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
 - 단, 농업용수의 경우 동일 수원이면서 유입경로가 같은 경우에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정함

- 농어업경영체등록 상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공동 경작인으로 보고 기본교육 이수자로 인정(별표 1)
- 인증심사원 심사 제외 규정 (별표 2, 신설)
 - 인증심사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자신 또는 자신과 관계된 인증심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규정 신설
-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 또는 생산자단체와의 계약재배내역서 등 경작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시 경작여부 확인 전수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2)
 - 재배필지 전수조사로 인한 인증기관의 업무 부담 해소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자료, 계약재배내역서로 경작여부 확인 가능시 전수조사 생략 가능
 - 그동안 인증기관들은 구성원이 많거나 재배농지가 광범위하게 이산되어 있는 경우 등은 전수조사의 업무 부담이 크고, 출장비 증가 등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 농업경영체 등록부 상의 재배작목 등록 등으로 확인가능할 경우 전수조사를 표본조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음
- 서류 및 현지 심사에서 각 단계별 조사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2), 생산과정 조사요령, 유통판매과정 조사 요령(별표3)을 명시함
 - 조사항목,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시사점

- 그동안 농업인 및 인증기관 등에서 요구한 GAP 인증 심사관련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개정됨
 - 계획 생산 중인 농산물도 인증 신청 허용
 - 기본교육 신설 : 적시에 GAP 기본교육 이수 가능
 - 토양 용수 성적서 유효기간 5년으로 연장
 - 공공기관 자료 활용 경작여부 확인

다. 농촌진흥청

1) 쌀 농산물우수관리(GAP) 종합 시범단지 조성('16년)

- 사업량 : 6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개소당 50ha 이상(1~2개 단지)
- 사업대상
 - 마을단위 또는 들녘별 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GAP시설로 지정된 RPC와 계약재배가 가능한 작목반, 농업법인 및 농업인 단체
- 시범요인
 - 생산단계 벼 재배관리는 농산물 우수관리(GAP)인증 기준적용
 -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및 농산물우수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 2014-33호(2014.10.7.)) 참조
 - 수확 후 처리는 우수농산물관리 시설에서 우수농산물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처리하도록 기술지원
- 지원범위
 - 중금속, 잔류농약 등 토양, 수질 등 정밀검사 및 종합관리 기술
 - 재배단계 위생관리 및 건조, 저장 등 수확 후 관리기술 지원
 - 쌀 재배단계 생산기록의 이력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활용 및 교육 등

2) 엽채류 농산물우수관리(GAP) 시범('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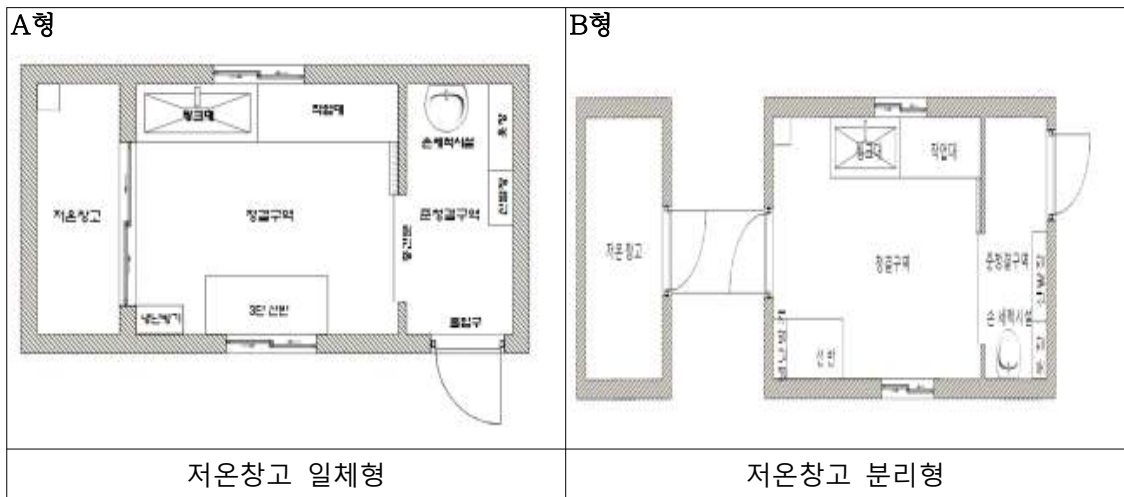
- 사업량 : 4개소
- 사업비 : 8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규모 : 개소당 10농가 이상, 농가당 18m²~30m² 시설설치

□ 사업대상

- GAP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위한 단지화 가능지역
- 농가당 0.1ha 이상 재배농가로 구성된 작목반, 작목연구회, 협동조합

□ 시범요인

- 신선채소류 수확후 위생관리 매뉴얼 적용
- 오염원차단(작업공간구획, 방충망, 손세척, 냉난방시설 등)
- GAP 기준에 맞는 수확후 관리시설이용(엽채류 선도유지 등)
- GAP 엽채류 생산을 위한 안전, 위생 관련 교육 등
 - 신선도 2배 연장 시킨 초간편 냉수 침지 기술 (Soft ware)
 - 손쉬운 식중독균 오염예방 안전위생 실천가이드라인(Soft ware)



□ 지원범위

- 신선도, 안전성, 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한 수확후 처리시설 (Hard ware)
- 시설 : 18m² (유동적)의 컨테이너 박스
- 시설내부 샌드위치 판넬, 저온저장고내 우레탄 설치: 열효율향상
- 저온창고 설치 : 수냉시설(싱크대), 엽채류의 선도유지
- 작업공간 구획 및 출입구 에어커튼, 방충망 설치: 유해미생물 오염원 차단

- 손세척시설과 냉난방시설 설치: 개인위생향상 및 작업자 건강증진
- 농산물우수관리 시설 안전위생 실천가이드라인 지원(Soft ware)
-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작업도구 등
- GAP인증 신선채소류 저온저장/유통을 위한 포장재 개발
- GAP 농산물의 인식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 추진 방향
 - 농산물우수 관리 사업성과 확산을 위하여 단지 중심으로 추진
 - 안전 위생기준에 부합한 “농가 보급형 수확후 처리시설” 조기보급

3) 약용작물 신품종 GAP 재배 확대시범(‘16년)

- 사업량 : 6개소
- 사업비 : 12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 : 약용작물 주산단지 영농조합법인, 연구회 등
- 시범요인
 - 개발된 약용작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 및 GAP 표준재배 실천
 - 미세종자 파종을 위한 생력화파종기(배출식 파종기) 개발보급
- 지원범위
 - (기반조성) 예정지 관리(토양 정비, 유기물 공급 등)
 - (품종보급) 약용작물 신품종 종묘
 - (생력화기술) 미세종자파종기, 관수 및 관비시설, 수확기 등
 - (재배기술) 농자재, 현장컨설팅, 교육, GAP 매뉴얼 등
 - 시범사업 대상 농가 및 단체는 GAP 인증 신청
- 추진절차 : 지침(12월)→ 공고(1월) 및 선정(1~3월) → 시범사업 대상자 교육(2~4월)→ 사업시행 및 정산(~12월)

□ 추진방향

- 약용작물 신품종의 재배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 품질향상을 위한 약용작물 신품종의 GAP 기술 투입

4) 농산물우수관리(GAP) 활용 할랄식품 자원화 시범사업('16년)

□ 사업량 : 3개소

□ 사업비 : 600백만원(개소당 20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으로 할랄농산물 생산이 가능한 영농조합법인, 품목별연구회, 농업인단체 등 농가 공동 참여

□ 시범요인

- GAP 및 할랄기준(이슬람에서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것)에 맞는 농산물 원료공급 생산단지 조성(개소당 3~10ha 내외) (필수)
- GAP 농산물을 활용한 내수 및 수출용 할랄식품 생산.가공.유통
- 할랄식품 마케팅을 위한 포장재 및 홍보 등 지원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할랄음식 메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선택)

□ 지원범위

- GAP 및 할랄 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수확후 처리 및 가공으로 내수 및 수출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세척기, 건조기, 분쇄기, 포장기, 저온저장고), 제품 개발, 컨설팅, 홍보 등
 - 시설비(GAP 처리시설, 할랄기준 등)는 사업비의 20% 이내

□ 추진절차 : 지침(12월)→ 공고(1월) 및 선정(1~3월) → 시범사업 대상자 교육(2~4월)→ 사업시행 및 정산(~12월)

□ 추진방향

- GAP 농산물과 연계한 할랄식품 원료공급 체계 확보 및 상품화 지원
- 할랄식품 기준에 맞는 GAP 농산물 생산 및 가공·유통기술 실천



최종보고서

GAP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제4장. GAP 활성화방안

제1절 기본 전략

제2절 세부 추진 전략

제1절. 기본 전략

1. 비전

안전 농산물, 안심 소비자, 행복한 국민

- 웰빙·안전·개방화 시대 GAP 농산물 확산 방안(2014. 12) 비전 공유

가. 농림사업 적용 GAP 공공성 담보

1) 기본 전제

- GAP 확대를 정책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 안전 농산물(먹거리) 생산 및 공급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정책인 농림사업의 근간으로 GAP 기준을 광범위하게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임무

-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 증진
- 농업인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 농촌지역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2) 접근 방법

- 농업 생산영역 뿐만 아니라 농촌영역인 지속가능한 깨끗한 영농환경 조성의 기본 규범으로 GAP 적용 범위 확산 추진 : 환경 보전 영역 접목
 - Global GAP 26개 대분류 중 환경보전 영역의 지표 반영 검토
 - 친환경농업인증제도의 환경보전의 가치를 지원하는 기반 조성

- 2025년 생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농림사업 대상에 GAP를 의무화 하여 농업생산의 기본조건으로 제도화
- 농림사업 근간을 GAP로 설정하면 GAP 관련 정책의 공공성 강화 및 공적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면서, 민간영역과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모색

나. 개념의 전환 : 규범 · 의무화와 시장대응의 이원화

1) 기본 전제

- GAP의 기본 취지는 농산물 생산의 안전성/위생관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농업 생산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함. 미국 및 EU의 경우에도 인증 농산물이지만, 실제 시장 출하단계에서는 별도의 인증 표시제도를 사용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우리나라 등 아시아권은 제도 도입단계에서부터 인증과 인증 표시제도를 병행적으로 도입하여 운영. 특히 표시제도 도입으로 시장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요구하지만, 실제 이러한 소득상승의 경제적 효과 유발은 극히 어려움.(KREI)
- 따라서 규범으로의 GAP와 안전성 및 위생관리의 차별성에 중점을 둔 시장대응형 GAP로 이원화 추진

2) 접근 방법

- 규범적 · 의무화 GAP (일반 GAP)
 - 현 GAP인증제도가 갖는 공익성, 공공성의 강화
 - 안전 먹거리 생산의 최소 조건 충족, 환경보전 기능
 - 장기적으로 인증제도라기 보다 농산물의 재배, 수확, 유통과정에서 관련 주체들이 지켜야 할 규범으로 인식 전환

□ 시장지향적 GAP (GAP+, Kora-GAP)

- 소비자(수요)를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차별적 요소의 부각
- GAP+ : 안전성+무(無)제초제
- Korea GAP : Global GAP 동등성 협약체결, 수출지향

□ 단계적 접근

- (1단계)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을 계기로 일반 GAP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적 개입 강화(관련 정책 집중)
 - 목표 : 전체 재배면적의 25% 수준 인증 달성 (양적 기반 확장)
 - 현행 토양 용수의 부적합 판정비중이 낮으므로 참여농가들의 최소한의 지침이행으로 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GAP 기준 및 절차 간소화
 - 품목별 표준재배매뉴얼 보급 및 해당 매뉴얼에 따른 체크 리스트 적용
 - 농약보관함 공동(마을단위, 집단인증단위 등) 보관함 확대 보급
 - 새해영농설계 교육 등 보편적 기본교육 실적 인정
 - 농림사업의 기본조건으로 일반적 적용 : 생산기반+깨끗한 농촌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등 연계, 궁극적으로 직불금 연계)
 - 2단계 GAP 접근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 GAP+, Korea-GAP 기준 설정 등
- (2단계) 시장지향적 GAP 체계 도입 및 GAP 이원화 접목
 - 목표 : GAP인증의 질적 변화, GAP+ 및 Korea-GAP 선포
 - 농촌사회 전반적인 규범으로 통용되는 일반 GAP와 다르게 소비자(수요)자에 맞춘 안전농산물 시장 형성
 - 유통업체 등 민간영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시군단위 통합마케팅조직 취급 농산물 GAP 의무화
 - 시장 출하되는 농산물 브랜드 관리 기준조건화 : 도매시장,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수출 농산물 등
 - GAP+ 기준 마련 및 관련 제도 보완 : 무제초제, GMO 제한 등

- Korea GAP 기준 마련 및 G-GAP 동등성 협약 체결
- 소비자판촉전, 팸투어, 급식 등 소비관련 정책 접목

○ (3단계) 국가주도 인증체계에서 민간주도 인증체계로 전환

- 목표 : 전체 농경지 50%이상 일반 GAP 인증, 유통농산물의 70% GAP+ / K-GAP인증
- 일반GAP의 인증표시 미부착
- GAP+, K-GAP 인증체계의 관리 영역을 민간영역으로 이전 완료
 -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되는 농산물 생산기반에서 유통주체들이 주도하는 안전농산물 소비자(수요자) 공급체계로 전환 완료
 - 소비자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전반에 대해 사전예방의 '안전 먹거리' 라는 신뢰도가 제고되고, 특히 유통되는 농산물은 안전관리시스템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된다는 확신을 갖게 됨

GAP 직불금 검토

- 생산량의 변화와 연계되지 않으면서 안전성담보, 환경보전기능 강화 등 공공성이 강조되고 농업인의 이행의무부담을 전제로 직불금 연계 검토
- 직불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직접 지불금을 위한 농업인의 기본 조건으로 GAP인증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2. 추진 전략

가. GAP 인증제도 개편

<표 48. GAP 인증제도 개편안>

구분	규범적 GAP		시장 대응적 GAP	
성격	공공(공익)성, 규범적, 의무적		차별적, 선택적, 무역장벽	
목표	GAP의 전국화 : 경지면적 50%		차별화, 상품화, 시장대응 강화 : 유통물량 100%	
	면적의 양적확대 / 보편적 생산		안전성의 질적 차별화 / 인증신뢰도 제고	
주도	정부 및 공적기관		시장 및 유통업체, 소비자 선택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 농관원 ↔		K-GAP협회(가칭)=유통업체+ 인증업체+전문가집단
		가칭)K-GAP인증원(공공기관) 10)		
인증 마크	GAP		GAP +	
	사용 → 단계적 미사용		부착	
현행 GAP기준 대비 강도	현 수준 또는 일부 간소화 (위해요소관리계획서 간편화)		현 수준 또는 약간 강화 (미생물, 방사능 등)	
	현행 GAP 기준 적용 (농약(제초제포함)/화학비료/GMO)		적정 농약/화학비료○ 단, 제초제 × GMO △	
	기본교육 (2년1회 4시간이상)		전문교육+컨설팅	
	농업기술센터/새해영농교육 등 집합교육		전문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등 맞춤형교육	

10) HACCP관련 준정부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과 유사한 조직

구분	규범적 GAP	시장 대응적 GAP	
가격지지 기대 효과	없음 (보편적 기준)	효과 있음(중~하) (저농약 수준)	효과 있음(중~상)
타겟 시장	시장 대응요소 없음	국내 유통	수출 시장
현재 비교대상	일반 농산물 (부적합율 1%미만)	로컬푸드인증농산물 舊)저농약 농산물	수출규격 및 품질인정
정책수단	농림사업 GAP 100% 의무적용 (특히, 생산기반 관련 사업)	시군공동브랜드/ 농식품파워브랜드 대상 등 소비자 및 식품산업육성 정책 연계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 연계 농촌지역사업 접목	유통업체 MOU, 판촉전 등 소비지 집중 공략 스타팜 지정 및 팸투어, 경진대회, 급식 접목 (*친환경인증농산물도 동일한 지원)	
	⇒ 궁극적으로 직불금 연계		
추진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농업기술센터 등)주도의 정책적 추진 - 매년 토양·용수 분석 등 안전성 D/B 축적 : 종합검정실 - 마을/집단인증제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영역과의 파트너십 강화 : 유통업체 및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유통조직(특히 농협)과 유통업체, 외식분야 등 출하처 확대 - 소비자 홍보 강화 	
제약 조건	농가의 자발적 인증참여 유도가 어려울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에 대한 친환경단체의 우려(농약/화학비료) - Global GAP 동등성 획득까지 3~5년 소요 	
공통사항	이력추적제, GAP 인증시설 경유, 영농일지 등 기록관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16.06.23시행)」 대상 사업		

<그림 12. 시도 단위 GAP 추진협의체 구성방안 및 구성현황 >



나. 전략 사업의 발굴

< 그림 13. GAP 발굴 전략사업(안) >

GAP 인증제도 개편	규범화/의무적 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25% 인증 확보 후 규범화 선언 GAP는 규범화 선언 이후 인증표시제 폐지 	
	시장지향	K - 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수출용 G, GAP 동등성 확보
		G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년 안전+환경지향의 新 인증제 도입
규범적/의무화 GAP 전략	지자체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기술센터 및 공공기관 지역인증기관화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경진대회) GAP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자체 사업 발굴 : 1시군 1GAP 전략사업(예주선도마을) 	
	심사기준 현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농약 및 사용기준을 현장요구 반영 보완 위해요소관리계획서 등 농가 부담요인 보완 	
	마을/집단인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단위 인증 모형 발굴 / 깨끗한 농촌만들기 사업 연계 들녘별경영체, 발작골공동경영체, 공선출하 등 집단인증 활성화 	
시장지향적 GAP 전략	소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주체(시군, 광역 통합마케팅조직 포함) 주도의 소비지 집중 공략 단체 급식 등 소비 촉진 	
	수출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Global GAP 동등성 협약 추진 : 인증기준 정비 FTA 대응 수출 관련 정책 연계 	
	GAP 기준 브랜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매시장, 로컬푸드(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법률), 수출농산물 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 등 신규 시장 발굴 및 시장 확대 	
공통 전략	GAP 접근성/인지도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GAP 정보시스템 개편 보완 및 App 개발 농업인 및 소비자 교육, 귀농/창업농 교육 등 교육 대상 발굴 	

제2절. 추진 방향

1. 공통 전략

가. GAP 접근성 및 인지도 향상

- 기본 방향
 - 현재 GAP 인증제도는 농업인이나 소비자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은 되고 있으나, 실제 접근성이나 현장 인지도는 낮음
 - 농업인이나 소비자나 쉽게 GAP를 이해하고,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홍보 및 교육 강화

나. 세부사업

1) GAP 정보시스템 개편

- 개요
 - GAP 정보시스템을 농업인, 소비자, 인증기관, 유통관계자 등이 쉽게 접근하고, 관련 정보를 입력하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보완
- 사업내용
 - GAP 정보시스템과 친환경 정보시스템, 이력추적시스템 연동 또는 통합
 - GAP 관련 어플의 개발 및 정보시스템 연동체계 구축
 - 어플 : 농업인용, 인증심사원용, 소비자용으로 구분
 - 농업인용 : 표준재배매뉴얼영농일지, 현장사진등록 등 인증신청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
 - 인증심사원용 : 현장심사, 유통조사 등 심사 및 사후관리 관련 정보의 실시간 입력 조회
 - 소비자용 : 농산물 이력정보 조회, GAP 관련 정보서비스 수신

2) GAP 교육 및 홍보

□ 개요

- 농관원 고시 개정으로 농업인 GAP 기본교육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GAP 교육 활성화
- 젊고 전업농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창업후계농업인과 안전 먹거리 생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예비(도시민) 귀농인 및 귀농인(귀농 5년차 이내)에 대한 GAP 교육 확대
- 소비자 대상 GAP 농장 팸투어, 스타팜농장 연계 교육, 식생활교육, 급식관계자 등 현장교육 지원

□ 사업내용

- 창업농 및 귀농교육 연계
 - 현재 정부지원 귀농교육과정은 민간 교육운영기관을 공모하여 추진 (총괄 : 농정원)
 - 표준 교육 또는 공통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추진
 - 2015년의 경우, 갈등관리, 농촌사회의 이해 등의 과정은 공통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한 바 있음
-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시행되면, 지역농산물의 우선 공급을 위한 가공업체, 유통업체, 급식관계자간 협의가 활성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GAP 교육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필요함
- 소비자 교육
 - GAP 인증 농산물을 활용 현장 식생활 교육 강화
 - 스타팜 등 체험농장을 통한 우수안전관리 이해

2. 규범적/의무화 GAP 전략

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역할 강화

□ 기본방향

- 규범적·의무화 GAP 확산을 위해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책 연계 및 신규 사업 집중
 - 안전 먹거리 생산과 깨끗한 농촌 및 영농환경 보전을 위한 국가적 책무로 GAP 생산기반 확대(총 경지면적 25%이상) 견인
-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 및 시군 관련기관(재단, 연구소 등) GAP 인증기관화
 - 총 경지면적의 25% 수준으로 GAP 인증면적을 견인하여 시장 유통물량의 상당량이 GAP인증 농산물이 되어 유통조직 및 유통업체, 가공업체, 급식업체 등이 GAP 인증농산물을 제한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GAP 생산 및 인증 지도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일정기간(1~2년) 외부 인증기관과 러닝메이트로 GAP 인증 확산을 견인
- 농관원의 GAP 총괄 역할 강화와 민간 파트너십
 - GAP+ 인증기준 마련 및 신() 인증체계 주도
 - KOREA-GAP 인증기준 마련 및 Global GAP 동등성 추진
 - 일본의 JGAP같이 인증관리를 위한 전담 협회구성(안) 지원 및 권한 위임
 - 유통업체, 민간인증기관, 학계 및 전문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K-GAP협회(가칭) 설립
 - GAP+, Korea-GAP 인증 관리 위임

1)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산하 관련기관 GAP 인증기관화

□ 사업개요

- 안전 먹거리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GAP 인증면적을 견인하기 위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GAP 인증기관화
- 사례 : 용인시농업기술센터

- GAP 인증 업무와는 기능적으로 분리되면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GAP 생산기반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현장성있는 지자체 기관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강화
 - 시군 및 농업기술센터 관련 지원사업과 연계된 GAP 확대 전략 가능
 - 관내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있는 현장성에 기반한 농업기술센터가 GAP 생산기반 확충에 나설 경우, 농업인들의 참여와 신뢰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강원도 시군처럼 접근성이 떨어져 인증기관이 꺼려하거나, 인증심사원 출장비 등의 실비 부담이 큰 경우, GAP 인증과 품목별 특성이 결합된 주산품목(쌀, 과수, 업채류, 인삼약초 등을 보유한 지자체 등에 우선적으로 확대
 - 필요시 인증 심사업무를 일정 자격을 갖춘 외부 심사원을 위촉하여 활동하도록 함으로 GAP 현장 지도업무와 긴밀한 상호관계는 유지하되 심사는 독립적으로 수행되도록 운영
 - 시군 관내 영농현장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인증심사원의 전문성을 제고
 - 경영이 어려운 영세한 인증기관에 속해 활동하는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도 기대할 있음

□ 사업내용

- 시군 농업기술센터 GAP 인증기관 등록 확대
 - 1개소(2015) → 25개소(2020)
- 외부 인증기관 러닝메이트제 시범사업 (가칭, GAP Running-mate 제도)
 - 시군별로 특정 인증기관을 1~2년 단위로 지정하여 관내 GAP 추진계획 사업량을 총괄 계약함으로써 집중력있는 GAP 수요 발굴 및 인증업무 효율화 제고
 - 2016 주산지 토양 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에 참여하는 인증기관을 향후 1~2년 계약으로 GAP 인증 활성화 유도
 - 시군별 GAP 기본 계획 및 추진전략에 의거, 매년 GAP 인증기관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하여 'GAP 러닝메이트' 로 지정 운영
 - 'GAP 러닝메이트' 로 선정된 인증기관은 해당 시군별 관내 GAP 희망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GAP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인증 심사, 인증 등록을 체계적으로 수행

- 기존 생산자(단체)가 우선 집행한 이후, 정산과정을 통해 환급하던 안전성 검사비용을 직접 해당 인증기관에 지자체가 집행 및 정산

○ 운영 방식(안)

- (시군) 전년도 GAP 교육 이수 실적 또는 GAP 인증 의향이 있는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수요를 미리 파악하여 해당 수요에 부합하는 인증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용 확보 → 역량있는 GAP 인증기관 공모 선정 → 인증기관 GAP 인증활동 지원 → GAP 인증 건수 및 농가수 등에 따라 관련 수수료, 안전성 검사비를 인증기관에 집행 → 정산 및 사업결과 보고
- (인증기관) GAP 환경분석에 기초한 시군 GAP 러닝메이트 제안(공모 참여) → 선정 후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GAP 교육, 컨설팅, 인증 지원 → 관련 수수료 및 안전성 검사비 시군 청구 → 사업 결과 보고

<그림 14. 시군-인증기관 GAP Running mate制 운영 개요>



인증업무와 지도업무의 기능적 분리

- 국가표준화기구(ISO) 규정에 동일 기관에서 컨설팅 및 지도와 인증업무를 동시에 진행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주로 민간이 인증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며,
- Codex의 ‘식품안전에 관계되는 위험평가의 역할에 대한 원칙’에서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상호 긴밀한 관계 속에서 기능적 분리를 권고하는 등 농업기술센터의 인증기관 역할 수행에 대체로 부정적인 편임
- 하지만, 우리나라의 HACCP의 경우 국가지정 인증체계로 민간 영역의 역할이 제한적인 점, 위험평가와 위험관리를 각 부처가 기능적으로 나누고 있으나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부 부서로 통합이 제안¹¹⁾ 될 정도로 민간인증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춰 GAP의 경우도 농진청(농업기술센터), 농관원 등 공공영역이 주도하는 형태의 추진 모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농진청 및 농업기술센터의 지도 업무와 인증업무가 동일 조직, 동일부서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있기는 하지만, GAP 인증면적의 양적 확보를 위한 한시적 전략의 차원에서 인증업무를 외부 위촉심사원 또는 외부 인증기관과 러닝메이트제도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판단됨

2) 시군 GAP 활성화 계획 수립

□ 개요

- GAP 기준에 적합한 안전 농산물 생산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 웰빙 안전 · 개방화시대 GAP 농산물 확산방안('14.12) 에서 제시한 「농업환경개선 5개년 계획」 에 연계사업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수립

11) 농식품 위험평가 체계 확립 및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 호서대 산학협력단, 2011

< 표 49. 농업환경개선 5개년 계획 단계별 실천 계획(안)>

1단계('15)	2단계('15~'17)	3단계('18~'19)
<기반 조성>	<개인위생 강화 및 환경개선>	<영농기록 생활화 및 환경 개선>
.GAP 환경 개선 5개년 계획 수립('15.상) .시군별 "GAP 확산 운동본부" 구축('15.하)	.농작업시 손씻기, 장화 세척 생활화, 작업장내 취사 금지 등 매뉴얼 보급 .소규모 수확 후 처리시설 지원 간이화장실 설치 지원, 공동 퇴비장 및 상시 폐기물 처리장 마련	.비료, 농약 등 영농기록 작성의 생활화 .모바일 기반 영농일지 개발.보급 .수확 후 처리시설, 간이화장실, 폐기물 처리장 지원 확대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GAP농산물 확산방안, 2014.12>

□ 사업내용

- 농림사업 추진시 기본적인 생산기반 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GAP 활성화 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또한 농산물 생산과 연계된 유통시설의 경우에도 GAP 시설인증을 권장하고, 관내 GAP 생산 및 유통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 수립
 - 2016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시 주원료를 지역 내에서 매입하는 우수한 업체 및 농산물 우수관리(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갯줄 계획인 업체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계획에 GAP 농산물 취급물량 확대 계획을 포함하도록 지침을 개정
- 시군 GAP 활성화계획은 향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농업식품산업 부문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되도록 지침 반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2013~2017)' 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의해 5년마다 수리하는 법정계획으로, 중앙단위 제1차 '농발계획이 종료되는 2017년 2차 계획 수립시 GAP 관련 정책 방향을 명시하여 시군 농발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

가칭) GAP 활성화 계획 기본 목차

- 일반현황
 - 시군 농업 및 GAP 일반현황
- 목표 및 추진방향
 - GAP 활성화 목표 : 쌀(곡물) / 원예 / 과수 / 인삼약초 / 특용/ 기타
 - 추진방향 / 성과지표
- 추진체계
 - 시군 GAP 활성화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시군 토양검정실, 분석실, 기타 유관기관 협력 체계
- GAP 생산 활성화계획
 - 품목별 GAP 육성 방안 및 연계사업 계획
 - 마을 또는 공동경영체 GAP 육성방안 및 연계사업 계획
 - GAP 생산기반 조성 사업 계획
 - *주산지 토양·용수 안전성분석 사업, 고품질상쌀유통활성화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발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GAP 생산여건조성사업
- GAP 유통 활성화계획
 - GAP 관련 시설 현황
 - GAP 시설 경유 목표
 - GAP 시설 수요 및 설치계획(신규/보완) : 국도비 연계사업
 - *산지유통시설지원사업,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인삼·약용작물계열화사업, 인삼생산시설현대화사업, 시설원예현대화사업, 고추비가림재배시설,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발작물공동경영체지원사업, 들녘별경영체육성사업, 원예산업종합계획(통합적산지유통종합계획), 임산물산지유통센터조성사업,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등
 - 자체 GAP 시설 지원사업 : 소규모
- 투자계획

3) 지자체 GAP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개요

- 규범화·의무적 GAP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업의 성과를 확산

□ 사업 내용

○ 시군 GAP 우수 사업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지자체 자체 GAP 사업이 일정 성과를 거둘 경우 해당 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련 행정문서를 매뉴얼화하여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보급
 - 세종특별자치시 GAP 인증도우미 지원사업, GAP 장려금 지급사업 등
 - 제주도 GAP 선도마을육성 시범사업
- 지자체 우수 사업 중 전국 표준화가 가능한 사업은 농림사업에 반영하여 성과의 전국 확산 추진

○ 제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선정 방식 검토

- 제1회 GAP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영농현장에서 경영체가 실천한 GAP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
 - 평가항목(100) : 이해도/의지(15), 창의성(15), 실천성(20), 경제성(15), 홍보 발전가능성(15), 파급효과(20)
- 제2회 대회는 경영체의 GAP 실천 노력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추진 의지 및 정책 연계와 맞물려 성과를 창출한 사례 경진대회로 추진
 - 2)안 GAP 인증 경영체(농업인,작목반, 단체)와 지자체, 유통조직(업체) 등의 연계사업이 우수 사례를 종합하여 선정
 - 3)안) 경진대회의 신청분야를 경영체와 지자체, 또는 유통관계자 등 2~3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

< 표 50. 제 2회 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선안 >

구분	1안	2안	3안
시상부분	- 1회 대회와 마찬가지로 경영체 중심으로 우수사례 시상	1개 부분 통합 시상 - 우수 GAP 경영체 (단, 지자체의 GAP 추진실적 및 의지, 연계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	2~3개 부문별 시상 - 우수 생산자(경영체) - 우수 추진 지자체 - 우수 유통조직(업체)
중점 평가요소	- 개별 경영체의 GAP 추진의지 및 성과 창출여부	- GAP경영체와 지자체간 연계 협력으로 성과 창출 여부	- 각 부문별 우수 성과 창출 여부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 GAP 목표 설정

- 2018년 GAP 인증면적 10% 달성 (175ha)
 - 전체 농경지 대비 GAP 인증면적 1% (2015) → 10% (2018)
- 농업분야 보조사업 선정시 GAP 우선 및 인증자 가점 부여 방침 확정
- 총사업비 : 8억 2천만원(시비 100%)

□ GAP 추진 사업

- GAP 인증 도우미 사업
 - 사업비 : 1억원 (매년)
 - GAP 신청서 작성, 영농일지 관리 등 행정처리가 서툰 농업인의 애로 해소 지원
- GAP 장려금 지급 사업
 - 사업비 : 7억 2천만원
 - GAP 인증을 받은 삼광벼 재배농가 지원 : 조곡 40kg 당 3천원 지급

세종특별자치시 사례

- GAP 인지도 제고 노력
 - 소비자 홍보 및 교육 추진
 - 차별화가 가능한 포장재 개발
 - 판촉활동 등 소비 활성화 대책 추진
 - GAP 활성화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4.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인증 10% 확대
 - 삼광벼 인증 농가 장려금 지원(ha당 54만원, 인증 도우미 운영)
- 친환경 농업 지구 조성(농식품부 공모/연동면 33ha)
 - 친환경 생태보전 직불금 신설(ha당 30만원)
 - 축산분뇨 퇴비화를 통한 세종형 친환경 순환농업 클러스터 구축
- 클린 축산 구현 및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기반 마련
 -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및 친환경 축산시설 구축 등 총광농원 약취 개선

<GAP 인증 10% 확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업무보고 자료>

철원군 사례

□ GAP 인증 면적 압도적 1위

○ 인증면적 : 10,023ha

- 철원군 전체 농경지(13,250ha) 대비 75.6%

○ 참여 농가 : 3,729호 (쌀 3,504 토마토139, 파프리카 78, 피망12)

- 철원군 전체 농가 3,911호 대비 95.3%

□ GAP 인증 확대 배경

○ 2007년 철원군 오대쌀 품질관리기준으로 GAP 인증 추진

- 철원지역 4개농협 RPC 주도

- 갈말농협 RPC GAP 인증시설 등록(2007) 후 김화농협, 동송농협, 철원농협 모두 GAP 인증 시설임

○ 강원도내 최초 GAP 인증 취득

- 영농일지 작성, 생산이력 입력, 농약 및 비료 안전사용 교육 등 참여농가들이 상당부분 GAP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판단됨

○ 집단인증제를 통한 확산

- 김화농협의 경우, GAP인증에 최대 참여농가가 참여한 김화쌀작목반 970명, 김화피망공선출하회 12명, 김화파프리카작목반 60명, 김화농협토마토공선출하회 135명 등 집단인증을 통해 GAP가 확산되고 있음

		
<p>GAP를 소개하는 상품홍보물</p>	<p>GAP 인증 표시항목</p>	<p>GAP 인증 철원 오대쌀(갈말농협)</p>

제주도 사례

□ 2016년 GAP 선도마을(단체) 육성 시범사업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 또는 생산자단체
 - 마을주민 50%이상 참여 및 GAP인증 연차별 계획이 수립된 마을 또는 생산자단체
 - 생산자단체로서 법인 설립 후 1년이 경과된 조직,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직
 - 법인구성원중 농업인이 5인 이상이며, 농업경영체 등록된 조직 등

○ 지원 대상사업

사업명	사업비	사업추진 기간	접수·문의처
GAP 선도마을(단체) 육성 시범사업	300백만원 (국비 150, 도비60, 자담90)	2016. 1 ~ 12월	친환경농정과

- 지원 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 비율은 사업지침(계획)에서 정한 비율로 함

○ 추진방향

- 고품질 안전 먹거리의 생산 및 힐링, 위생 편의시설·장비구축
- GAP 생산시설 및 수확 후 유통·전처리(집진, 세척, 건조, 포장) 등 위생·안전시설
- GAP 인증 및 교육·역량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등 추진

○ 지원요건

- GAP 교육·컨설팅을 추진한 마을로, 사업완료 GAP 인증 50ha 이상, 매년 완료시 인증 면적의 20%이상 확산계획이 수립된 마을(단체)

○ 지원내용

- 생산·위생기반 : GAP 안전먹거리 생산시설,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전처리시설 : 저장, 선별, 집진시설, 칸막이, 에어커튼, 세척, 건조시설, 포장시설의 개보수, 지게차 등
- 기타 : 위생, 안전시설, 방충, 환풍시설, 폐농자재보관함 등

친환경 및 우수관리 농산물 육성조례 : 부산 강서구

□ 제정 목적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0조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1항에 근거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안전농산물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친환경농업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농산물

□ 지원사업 및 대상자 선정 기준

- 지원사업(제3조)

- :농산물 생산 저변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사업대상 선정기준(제7조)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상자 선정

- 농산물 생산 및 실천의지 여부
- 농산물우수관리 또는 친환경농업의 인증 및 유통실적
- 영농 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사점

-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보조금 지급에 제한이 있으므로 친환경 및 우수관리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우수관리(GAP) 육성을 명문화한 조례로는 유일하며, GAP인증 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을 안전농산물로 명시하여 양 인증간의 경합 및 갈등요인을 사전에 배제

- 타 시군의 경우도 양 인증 농산물의 저변 확대를 위해 조례 제정 검토

나. 마을 및 집단인증제 강화

1) 집단 인증제 필요성

- GAP 인증 확대의 단기적 선택 경로
 - 산지유통조직과 연계된 생산자단체(공선출하회 등)를 대상으로 조직화, 규모화하여 유통업체 대응역량 확보 가능
 - 개별농가단위의 인증보다는 조직단위의 집단인증제 활성화가 GAP의 보편적 확산을 위한 최우선 정책 집중화 대상임.
- GAP 인증 유지의 최우선 대상
 - GAP는 신규인증 뿐만 아니라 갱신을 지표가 중요하며, 집단인증의 경우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조직 및 단체의 집단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탈적 행동의 자제요인이 충분
 - 안전위생관리의 공동화로 인하여 균질한 품질관리기준을 지켜나가는 과정들이 생산자단체들의 조직력 강화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
- 시장의 품질안전이슈의 지속적 강화
 - 유통업체의 경우에도 물량규모화 이슈에서 생산단계에 대한 품질관리 이슈로 넘어간 상황이며, 이후 농산물 사후적 품질 뿐만 아니라 안전위생관리에 대한 요구가 강화될 것임.

2) 집단인증제 접근의 핵심 방향

- 생산단계 : 농작업환경관리 지원 방안
 - 집단인증제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인증 대상지구/단지 등을 중심으로 하여 공동의 농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 필요
 - 예) 공동간이화장실, 공동농기구창고 등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현장수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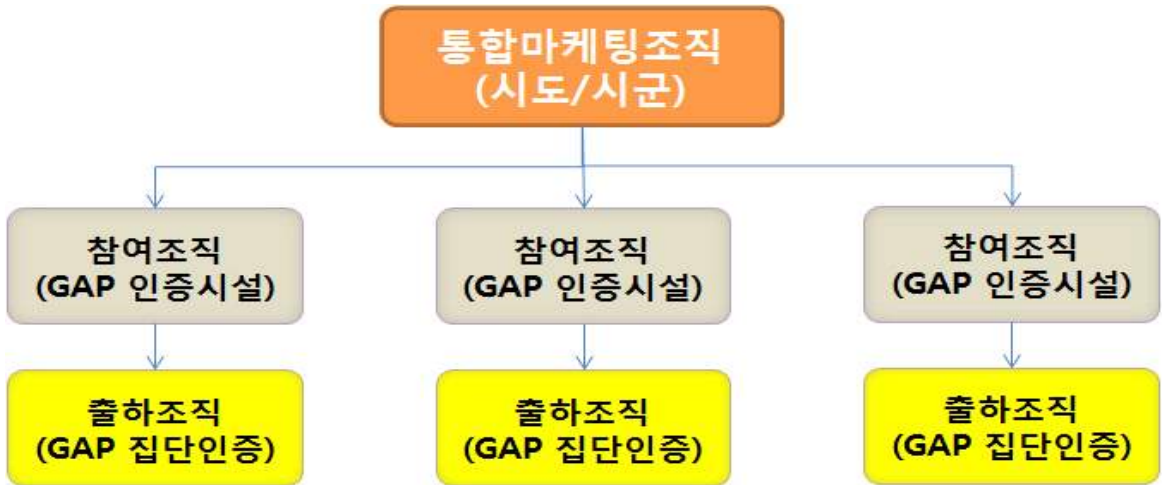
□ 인증관리단계 : 인증행정 및 이력관리 지원

- GAP인증 및 관리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행정소요사항에 대하여 인증도우미 제도를 한시적으로 지원
 - GAP 인증단계에서의 행정 편이 제공과 인증 이후 이력관리 등에 대하여 참여생산자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인력 지원 사업 추진
 - 한시적 지원방식 : GAP 인증유효기간과 맞추어 2년 정도의 한시적 인력 지원정책 도입

□ 유통단계 : 유통조직(시설운영포함)과 생산조직 연계성 확보

- GAP 집단인증은 결국 집단인증된 농산물이 잘 출하되고 팔릴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조직과의 연계성 확보 필요
- 기본적 접근 방식 : 시도/시군단위 지역통합마케팅조직, 품목광역조직, RPC 등 유통조직 연계 모델 도입 필요
 - 이행의무화 : 원예농산물생산유통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목표율 제시
 - 인센티브 : 통합마케팅조직 참여출하조직 집단인증시 신사업우선지원

<그림 15. 통합마케팅조직과 연계한 집단인증제 확대 모형 및 정책 패키지 >



■ 집단인증 활성화 정책 패키지

(기반)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 (목적) GAP 집단인증 대상 지역에 대한 지역맞춤형 농작업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
- (내용) 공동 농기구 보관함, 공동 화장실 등 집단화된 지역에 맞는 세부환경개선사업비 지원
- (예산) 농촌진흥청과 연계한 사업예산 확보 및 관리

(관리) 인증도우미 제도

- (목적) 집단인증 이후 상시적인 인증실천 모니터링 및 영농일지 등 관리 지원 인력 확보
- (내용) 농협 등 연계 유통조직 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 시군단위 인증도우미 인력풀 매칭
- (예산) 인건비 혹은 운영비 지원에 대한 가능성 타진

(주체)유통조직 집단인증 활성화

- (목적) 인증생산자조직+유통조직을 패키지로화하는 집단인증 활성화 지원
- (내용) 사업지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 필요
- (예산) 주산지 안전성검사 신사업 매칭 우선 지원, 농촌자원복합화 패키지 사업 개발 지원

□ 판매단계 : 유통업체의 QC 요건 강화

- 소비단계에서 유통업체가 집단인증 생산자단체 혹은 유통조직의 농산물 취급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 접근방식 : 유통업체가 산지 및 협력업체 선정시 GAP 집단인증조직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QC와 관련된 사항에 해당 항목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
 - 단 이후 GAP 농산물에 대한 시장전략은 "더 좋은가격" 보다는 "유통업체출하의 기본요건" 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통업체의 입장에서 사업참여가 용이할 것임.

3) 마을 인증모형을 통한 GAP 활성화

□ 배경

- 마을은 주로 지자체 조례에 의한 법정리(또는 행정리)로 구성되고, 자조·협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의 공동조직의 하나로 인정받음
 - 마을회, 영농회, 작목반 등 비법인격 단체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춤
- 최근 농촌사회가 급격한 고령화로 농업생산인력은 물론 기본적인 마을 유지조차 힘든 경우가 많아지면서 일본의 집락영농의 사례처럼 마을단위 공동경영의 운영형태가 많아지고 있음
- 소수의 전업농 및 젊은 후계농업인이 주축이 되어 우량 농지를 기반으로 규모화 및 전업화로 소득작물 및 쌀 품목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마을단위의 농업생산 체계는 영세 고령농의 소량 다품목 생산체계가 두드러지고 있음
- 규모화 및 전업화된 소득작물은 GAP 인증체계에 쉽게 편입될 수 있으나, 대다수 고령 농업인의 영농기반은 GAP 인증체계에 유입되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영세 고령농은 영농일지 작성이 어려운 것은 물론, 관행농업의 형태를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농업소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현재의 GAP 인증 체계에 참여할 동기요인이 없음

□ 필요성

- 반면, 마을은 농촌사회의 핵심 공간으로 깨끗한 영농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
- 최근 로컬푸드 활성화로 인해 소량 다품목의 마을영농체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으며, 고령 농업인의 삶의 질과 소득 보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이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도농교류가 활발해 지고, 농촌체험마을 등 농촌의 휴양 및 힐링의 기능이 중요한 자원으로 각광받게 됨
- 따라서 마을의 농업생산기반을 GAP 집단 인증체계로 관리하는 것이 고령 농업인의 영농기반을 유지하면서 로컬푸드를 비롯한 6차산업화 전략을 보다 체계화하는 기여함

□ 추진 전략



○ 마을단위 GAP 집단인증 모형 발굴

- 소량 다품목의 로컬푸드 농업생산 기반과 깨끗한 농촌만들기 접목
- 고령농업인 생산한 소량 다품목의 GAP 인증 농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공동작업장, 농민가공 시설은 물론 화장실 및 위생시설, 공동 농약보관함, 폐농자재수거함, 어르신 안전시설 등 설치

○ GAP 마을인증 도우미 사업

- 마을총무, 귀농인, 체험마을 사무장 등 역량있는 지역주민을 '인증도우미 교육' 을 통해 역량강화 후 인증 도우미로 활용
- 영농일지 작성, 공동 농약보관함 관리, 위해요소관리계획 작성, 기타 GAP 기준 준수 사항 수시 점검 및 마을 교육 주관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연계 모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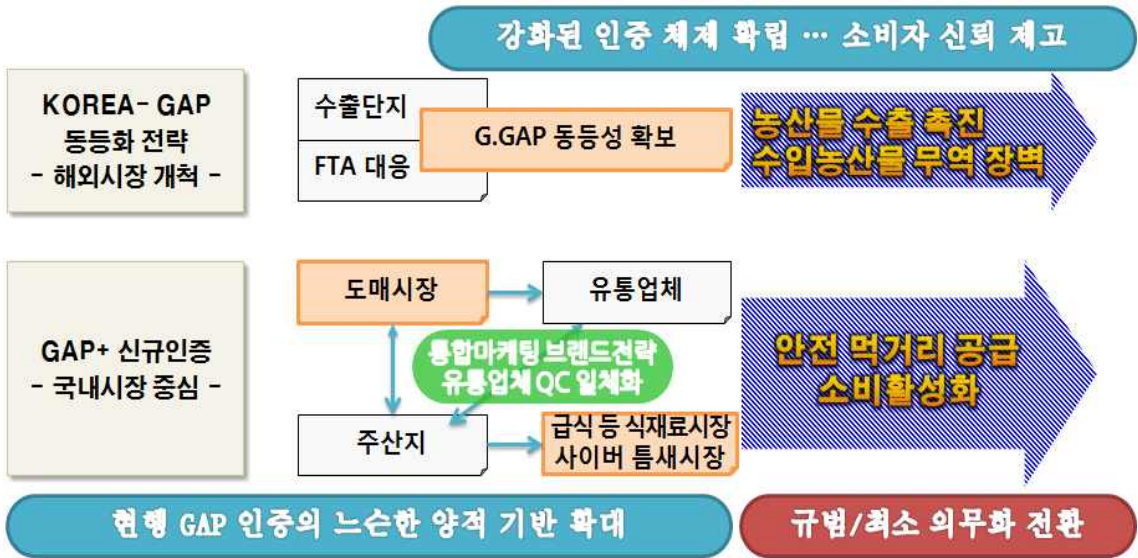
- GAP 농산물 활용 소득사업 (제조 가공지원)
- 소규모 로컬푸드 및 농민가공 기반 체험 전시 지원사업
- 체험마을기반 GAP집단인증 공동인프라 조성
 - 제주도 GAP선도마을 육성시범사업 벤치마킹

3. 시장 대응적 GAP 전략

□ 기본 방향

- 규범화 의무적 GAP를 통해 GAP 인증 농산물의 양적 확대를 기반으로 시장 대응형 GAP 농산물 유통 및 소비 활성화
- GAP+, KOREA-GAP를 통한 안전 농산물 유통체계 확립
 - GAP+ 기반 국내 유통
 - KOREA GAP 기반 수출 촉진

<그림 16. 시장 대응적 GAP 전략 체계도 >



가. 브랜드 정책 연계

□ 기본 방향

- GAP 기반 브랜드 인증 체계 모색
 - 시군 및 광역단위 공동브랜드의 GAP 인증 기준 의무화
 - 품질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GAP 인증

- 농협청과사업단 ‘프라네’ 브랜드 GAP 확대
 - 청과 실적 1,000억, 대외마케팅 500억 달성
- 원예산업종합계획(통합적산지유통) 관련 정책 GAP 접목
 - 충남도 광역연합사업 ‘충남오감’ 브랜드 GAP 의무화 추진

충남도 광역연합브랜드 '충남오감' GAP 의무화 추진

□ 충남오감 브랜드 GAP 인증 추진

○ 추진 배경

- 충남광역연합사업 공동브랜드인 '충남오감' 의 기본 품질관리 GAP 기준적용
- 공선출하회 농가 카드관리 및 재배이력 관리
- 고품질 생산을 위한 교육(회의)체계 정례화
- 믿고 유통할 수 있는 충남오감 인지도 확대를 위한 차별적 마케팅 추진

○ 목표

- '충남오감' GAP 의무화 (참여농가 100% GAP 인증)

○ 추진 방법

- 참여조직(농협)이 GAP 농가 교육 주관
 - 농진청 지정 GAP 교육기관이 아니어도 GAP 기본교육 과정 신설가능(농관원 고시 2015-기. GAP인증 등에 관한 세부 실시요령 제18조 2항)
- '충남오감' 참여 조직(농협)이 주도하여 공선출하조직 집단인증제 유도
- '충남오감' 참여 조직(농협) 유통시설의 GAP 시설인증 100% 취득 및 GAP 취급을 제고 (필요시 GAP 시설보완사업 연계)

<그림 17. 충남오감 GAP 의무화 전략>



125

RAO-ET

<출처 : 충남광역전략품목연합마케팅육성사업 운영지원 컨설팅 보고서, 지역농업네트워크, 2015>

시군공동브랜드 GAP 기준 명시 사례 : 예천군, 강화군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천새움’

○ 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68호)

- 제4조(브랜드사용신청자격) ③항 : 브랜드 사용자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 등으로 한다 (2014.07.07.개정)
- 해당 생산품목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에 의거 인증을 받은 자('14.7.7개정)

□ 강화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제3조(상표의 사용승인 신청) : 조례 제4조에 따라 농수특산물 공동브랜드(이하 상표)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별지 2호서식에 의한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에 따른 품질인증 또는 같은 법 제7조의 2에 의한 우수농산물 인증을 받은 서류

시군공동브랜드 GAP 기준 명시 사례 : 예천군, 강화군

□ 시사점

- 2016년 1월 기준으로 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45개이며, 이중 26개 지자체에서 세부 시행규칙을 통해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신청 또는 품질인증 심사 기준 등을 명시
- 예천군, 강화군, 화순군 등의 경우처럼 시군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 및 승인관련 기준에 'GAP(우수관리)'를 명시한 시군이 있는 반면, 상당수 지자체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제시하거나, 관련 심사 기준에 대한 규정이 미흡한 경우가 많음
- 심사기준 항목(예)
 - 생산조직(10점), 산지유명도 및 성가도(10점), 대외 신용도(10점), 판매물량 및 판매망확보(10점), 생산(농장)포장입지(10점), 생산기술 수준(10점), 생산시설 및 자재(종자등)(10점), 자체 품질관리기준(10점), 품질관리 열의도(10점),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점)
 - 보통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적합으로 판정함
- 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의 사용 신청 및 승인기준에 GAP 인증을 명시하면 별도 심사기준을 갈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인 브랜드 품질관리에 기여할 수 있음

나. GAP+ 기준 로컬푸드 인증 체계 구축

□ 개요

- 최근 농산물의 새로운 유통경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로컬푸드에 대한 각 지자체의 관심과 이를 육성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조례제정으로 이어지고 있음
- 특히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제 13361호)’이 2016. 6월 시행을 앞두고 지역농산물의 유통의 주요한 방법으로 로컬푸드 유통(직거래, 직매장, 학교급식, 농민장터 등) 확대 전망
 - 지자체장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해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가공사업자와 지역농업인간의 지역농산물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의 지원, 관내 조달계약시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가능, 대형유통업체 내에 지역농산물 판매장소 설치 운영 권장, 박람회 및 직거래장터, 홍보행사 등의 지원, 학교(단체)급식 관계자와 생산자간 협력 강화 시책 강구 등
- 각 지자체도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로컬푸드 인증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
 - 2016년 1월. 44개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활성화 등에 대한 조례 제정
 - 이중 4개 지자체에서 로컬푸드 인증을 위한 규칙 제정 (안성시, 고양시, 대전시 유성구, 완주군)

□ 시사점

- 로컬푸드 인증의 기본 체계를 GAP+ 신인증체계 접목 필요
 - 고양시와 완주군의 사례에서는 GAP 인증 농산물이어도 유기 합성 제초제의 사용을 금지함 (완주군이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제시)
- 유기합성제초제에 대한 소비자의 안전성에 대한 정서적인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GAP 인증 농산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금지, GMO 종자 사용 금지 등을 GAP+ 인증기준으로 검토

- 향후, 지역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법률이 본격 시작되면 지자체별로 지역 농산물의 자체 로컬푸드 품질기준을 설정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질 것이며, 해당 품질 및 안전성의 기준으로 GAP+ 인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농식품부가 로컬푸드 표준 조례안 제정을 통해 GAP 이상 품질 및 안전기준 제시
- 재배·생산 농산물이 아닌 자연 채취하는 들나물이나 새순나물 등에 대한 로컬푸드 안전성을 위해 농경지 이외 마을단위 토양 및 용수 분석 등 안전성 검사 실시 필요성 대두

GAP 기준 로컬푸드 인증체계 구축 사례 : 완주 등

- 고양시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936호)
 - 안전성기준(제6조 2항)
 - 안전성의 기준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 이하일 것 (단,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 금지)
 - 호르몬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할 것
- 대전광역시 유성구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849호)
 - 인증심사(6조)
 - 인증심사시 GAP 인증 농산물, 친환경인증농산물 현장심사 실시 생략
- 안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71호)
 - 인증기준(5조)
 - 농산물 : GAP(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 가공품 : 주원료를 인증받은 농산물로 50%이상 사용
 - 현장심사의 생략(16조) :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 주원료를 인증받은 농산물로 50% 이상 사용한 가공품
- 완주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제1107호)
 - 인증기준(5조)
 - 농산물 : GAP(우수관리) 잔류농약 허용기준 이하 농산물, 단 유기합성 제초제는 사용을 금함
 - 축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 가공품 : 원 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 현장심사의 생략(16조) :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GAP,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산물
 -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인증을 받은 축산물
 - 원부재료를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함유비율이 50% 이상인 가공품

다. 농식품파워브랜드 선정 공모사업 연계

□ 개요

- 매년 선정하는 농식품파워브랜드는 지자체에서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브랜드 관련 평가임
- 해당 공모사업에 GAP를 접목하여 GAP 기반 브랜드 평가를 실시하면 산지 및 유통조직, 지자체의 GAP 브랜드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 추진 방향

<표 51.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 공모사업 추진방향>

내역사업명	개요 및 현행	개정 및 추진방향	담당과
농식품파워브랜드대전 공모사업	<p>-매년 농식품부 주최로 농식품 파워브랜드 선정</p> <p>*분야 : 원예농산물, 전통식품, 건강기능성식품, 일반식품 및 외식</p> <p>-시상 : 대통령상 외 21점 시상</p> <p>-모집 : 매년 5월~6월 경</p> <p>-지자체마다 대표 상품 및 브랜드를 출품하여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상한 지자체는 해당 사항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지자체장의 주요 관심사항이 됨</p> <p>-현재 국가인증내역을 첨부하도록 함 (GAP 포함)</p>	<p>- 신청서 및 심사표에 GAP 인증여부와 주요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 추진 (원예농산물 분야 해당)</p> <p>*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별가점을 부여하여 GAP활성화 견인</p> <p>- 지자체에서 GAP 확대에 대한 인식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p>	식품산업정책과 / 농정원

라. 소비지 연계 활성화

1) 도매시장 GAP 정책 추진

□ 개요

- 현행 GAP 인증농산물의 유통과 소비가 촉진되지 못하는 원인 중 하나는 충분한 GAP 원물 유통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임
- 유통업체 및 식재료 업체들의 주요 원물확보 통로인 도매시장에서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GAP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
- 심지어 GAP 인증을 받고도 일반 농산물로 도매시장에 유통되기도 함

□ 추진 방향

- 도매시장 GAP 상장수수료 감면사업
- GAP 농산물 우선 경매제 도입 검토

2) 유통업체 QC 제도 일체화

□ 개요

- 유통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QC의 경우 대부분 원물 소싱 협력업체에 대한 조사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세부내용에 농산물생산관리에 대한 일부 내용을 포함.
- 유통업체에서 GAP 인증농산물에 대한 취급 확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GAP 수준의 생산단계 QC 적용을 일체화하는 작업 가능성 타진
- 초록마을 등 일부 직영매장을 갖춘 유통업체의 경우 GAP 기준에 자체 관리 기준을 더한 QC 기준을 적용하기도 함

□ 추진 방법

-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의 농산물 납품 QC를 GAP 인증기준 (또는 GAP+ 신인증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준 정비

<표 52. (참고) A 유통업체의 협력업체 대상 QC 체크리스트 >

구분	분류	서류명	세부사항
1	서류 관련	영업허가(신고)증	계란업체 한함.
2		PL(생산물책임보험)가입증서	
3		건강진단서(보건증)	1회/년, 임시직포함해서 전직원
4			
5			
6			
7			
8	제품 관련	자가품질검사	잔류농약, 항생제 등
9		제품 표시사항	제품라벨, 박스등
10		제품의 거래기록	제품거래기록서
11			
12			
13			
14	작업 관련	자체 위생점검일지	작성 및 점검일지 기록
15		생산작업기록서류	생산일보
16			
17		음용수 수질검사(수질검사성적서)	공인기관 성적서 (단, 세척농산물에 한함/상수도 제외)
18	운반차량관리 기록부	원료/제품 차량 자동 온도기록지, 운행일지	
19	원재 료	원료수불대장	일별, 월별 기록 관리(3년간 보관)
20		원료 검수 점검표	검수점검표, 부적합관리기록등
21		원산지증명서	
22		포장재 시험성적서	
23	시설 관련	시설관련 (공장평면도, 시설배치도)	설비배치,작업장, 공정흐름,흡/배기, 온.냉스 배수 표기
24		공정도(제품설명서-대표제품)	공정별 중요관리 사항표기(온도,시간등)
25		방충 및 방서	위탁시 계약서, 소독필증
26		폐기물·폐수 관리 일지	위탁업체계약서
27		저수조 소독필증	물탱크 사용시 청소/ 소독기록 서류
28		온습도관리일지	온도관리 일지, 습도관리일지(관리필요시)
29		조도 관리 일지	
30		검교정성적서	표준온도계, 표준저울(분동가능) 성적서
31		MSDS	락스, 풍풍, 크린콜등
32		금속검출기(사용시) 모니터링 일지	
33	교육	영업자 위생교육수료증 (년간계획서)	1회/년 (계란업체에 한함)
34		종업원위생교육	1회/월, 임시직포함해서 전직원
35	매뉴얼	HACCP 플랜, 기준서(보유시)	
36		ISO 매뉴얼(보유시)	

<표 53. (참고) B 유통업체의 협력업체 대상 QC 체크리스트 [품질관리-생산단계 부문 발취]>

연번	지표	배점	지표계산법	배점기준	참고자료	유형별적용여부		
						신선	버섯	기타
1	산지 경쟁력	10	원물수급 산지 납품 품목의 특화계수	S. 특화계수가 매우 높은(1.5 이상) 수급산지에서 소싱 A. 특화계수가 높은(1.0~1.5 미만) 산지에서 소싱 B. 특화계수가 보통(1.0 내외) 산지에서 소싱 C. 특화계수가 낮은 (1.0 미만) 산지에서 소싱 D. 특화계수가 매우 낮거나 재배면적 감소 지역 또는 시장을 통한 매입	지자체 통계연보 통계청 (KOSIS)	○	○	○
2	품종통일 및 개선	10	납품 농산물 품종통일 수준	S. 품종통일이 90% 이상 / A. 70~90% / B. 50~70% / D. 50% 미만	법인 내부자료	○	X	X
		5	품종 개선노력 : 외형, 맛, 내병성 등	S. 품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B. 품종개선을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으나 효과는 미지수 D. 품종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음	회의자료, 종자(육묘) 회사계약자료	○	X	X
3	공동육묘장보유 (생산초기단계 관리)	10	공동육묘장 보유 수준	S. 법인 자체적으로 공동육묘장을 보유하고 있음 B. 법인 참여조직 단위에서 공동육묘장을 보유하고 있음 D. 공동육묘장이 없어 외부에서 육묘를 매입함	공동육묘장 시설현황 관련 자료	○	○	X
4	재배기술 상향평준화 노력	10	재배매뉴얼 보유 및 활용 여부	S. 재배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활용도가 높음 A. 매뉴얼 수준은 아니나 농가재배일지 등을 제공하여 상향 평준화 노력 B. 리플렛, 홍보물 수준의 재배기술자료 공유 C. 재배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도는 낮음 D. 재배기술 상향평준화 방안 없음	납품 품목에 대한 재배매뉴얼, 재배일지, 리플렛	○	○	X

연번	지표	배점	지표계산법	배점기준	참고자료	유형별적용여부		
						신선	버섯	기타
5	농가조직 관리시스템	15	생산자 조직과의 규약 및 사업원칙 보유	S. 세밀하게 작성된 규약과 원칙이 있으며, 상벌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 A. 규약과 원칙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벌제도 일부 시행 B. 규약과 원칙을 보유하고 있음 D. 규약과 원칙 보유하고 있지 않음	생산자조직 규약 및 사업원칙 관련 자료	○	○	X
6	생산단계 위기관리체계	5	생산문제(재해 등) 발생 시 위기관리시스템	S. 생산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에 대한 업무절차, 프로세 스, 담당인력 존재 B. 생산문제 발생 시 대처방안은 없으나 담당인력 존재 D. 생산문제 발생에 대한 대처방안, 담당인력 부재	법인 내부 업무매뉴얼, 담당인력 인터뷰	○	○	○
7	농가교육	5	사업 참여농가대상 재배기술교육	S.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빙자료 존재 B. 재배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증빙자료 없음 D. 재배교육을 실시하지 않음	교육사진, 결과 자료	○	○	X
8	생산현장 점검체계	10	생산현장 점검 전담인력 운영 및 점검 실시 여부	S. 현장점검 전담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 장 점검 실시 A. 현장점검 담당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정기적으 로 현장 점검 실시 B. 현장점검 인력은 없으나, 불특정 법인인력이 수시로 현장점검 실시 D. 현장점검 인력이 없으며,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음	법인 조직체계도. 현장점검 출장복명서 또는 방문일지 등	○	○	○
9	평가자 의견	20	현장평가자의 종합적인 의견 반영	S. 생산단계 품질관리 수준이 매우 높음 A. 생산단계 품질관리 수준이 높음 B. 생산단계 품질관리 수준 보통 C. 생산단계 품질관리 수준 낮음 D. 생산단계 품질관리 수준 매우 낮음		○	○	○
	합계	100						

제3절. 세부 사업

시군 GAP 인증지원센터 설립 지원사업

- 목적 : 시군단위의 GAP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 주관으로 운영 되는 GAP 인증지원센터 설립 운영 확대
- 총사업비 : 개소당 2억원 내외
- 사업기간 : 3년(1년차 50%, 2년차 25%, 3년차 25%)
- 사업내용 : 안전성 분석장비, 분석실 리모델링, 시료채취용 장비 및 수거차량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 * GAP 인증지원센터 신축건립 등은 본 사업에서 지원되지 않음.
- 지원요건
 - 시군 농업기술센터 내 별도의 GAP 인증지원센터 설립 희망 지자체
 -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축산물 관련 연구소 및 유관 사업소 내에 GAP 인증 지원센터 설립 희망 지자체
 - 기타 지자체와 연계된 공공성을 확보한 조직 내에 설립희망 지자체
 - * 본 사업은 민간 GAP인증기관 설립은 지원하지 않음.
- 지원조건 : 국고(지특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방비 50%(자부담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사업자

- ① 시·군 농업기술센터
- ② 시·군에서 설립한 공공조직(연구소 등에 센터 설립)

□ 운영주체 : 지자체 직영



참 고

GAP 인증지원센터 설립 세부 모델 예시

- GAP 규범화 실천을 위하여 지자체가 주도하는 형태의 GAP인증지원센터 설립 ⇒ GAP 필요성 홍보 및 인증 확대 유도
- GAP 인증 희망농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GAP인증확대지역을 선정 및 단계적으로 인증 확대 유도
- 시군 지자체 내 센터 설치의 의무화, 운영모델은 자율 결정

□ **총사업비** : 개소당 2억원 내외(사업내용에 따라 규모 결정)

□ **사업기간** : 3년(1년차 50%, 2년차 25%, 3년차 25%)

○ (1년차) 센터 설립 및 시설설치 → (2~3년차) 운영 안정화

□ **사업내용** : 안전성 분석 장비, 분석실 리모델링, 시료채취용 장비 및 수거차량 구입비,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

○ (1년차) 안전성 분석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 등 지원

○ (2~3년차) GAP 인증지원에 필요한 운영비 등 경상비만 지원

* 2018년까지 GAP 인증면적 25% 달성목표, 그 이후에는 인증을 규범화로 전환 예정

□ **지원요건**

<공통사항>

○ 시군 내 25% 이상의 GAP 인증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

<개별사항>

- GAP 인증지원센터 설립 후 직접 인증기관 업무를 수행하거나, 민간인증기관과 연계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 등 다양한 운영모델 추진가능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포함)

- 보조사업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공공성을 확보한 조직(연구소 및 기타 사업소 등)

- 운영주체 : 시·군 직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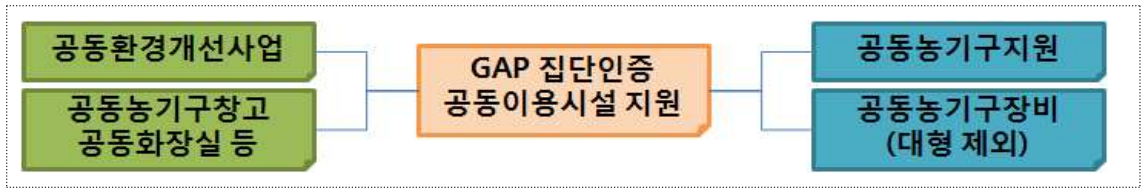
GAP 집단인증 공동이용시설 기반 조성 사업

- 목 적 : GAP 집단인증 활성화 및 환경개선을 통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기반 조성 지원
- 총사업비 : 개소당 3억원 내외
- 사업기간 : 2년(1년차 50%, 2년차 50%)
- 사업내용 : 환경개선시설(농자재공동창고, 공동화장실 등), 공동농기구 장비(대형 제외), GAP인증단지표지시설 등
 - * 농약, 비료 등 농자재 및 트랙터와 같은 대형농기구는 지원되지 않음.
- 지원요건
 - GAP 집단인증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경영체 (품목별 인증재배면적 기준 한도를 충족하여야 함)
 - GAP 집단인증을 확보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경영체가 출하하는 상위 산지 유통조직도 지원 가능 (소비자유통조직은 배제)
 - * 예) 인증단체 : 만인산갯잎연구회, 유통출하조직 : 만인산농협 일 경우 2개 조직 중 1개 명의로 신청가능
- 지원조건 : 국고(지특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방비 50% (자부담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사업자

- ① GAP 집단인증을 획득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경영체
- ② GAP 집단인증단체가 출하하는 상위 유통조직(산지조직에 해당)

□ 운영주체 : 민간 보조사업자



참 고

GAP 집단인증 공동이용시설 조성 세부 모델 예시

- GAP 집단인증을 확산하고 해당 집단인증 경영체의 깨끗한 농작업 환경개선 제고 ⇒ 집단인증 경영체 자부심 고취
-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시설하우스 단지 등의 경우에는 개별 경영주 단위 환경개선시설 지원 가능
- 기타 품목 및 집단인증단체 특성에 맞는 공동이용시설 지원

□ **총사업비** : 개소당 3억원 내외(사업내용에 따라 규모 결정)

□ **사업기간** : 2년(1년차 50%, 2년차 50%)

○ (1년차) 환경개선시설 우선 설치 → (2년차) 공동농기구 장비 구입

□ **사업내용** : 환경개선시설(농자재공동창고, 공동화장실 등), 공동농기구 장비(대형 제외), GAP인증단지표지시설 등

○ (1년차)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

○ (2년차)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동농기구 구입 (1년차 상호 협의)

* 공동이용시설의 규모와 범위는 품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공동농기구의 경우 대형농기구 구입은 해당되지 않음.(트랙터, 무인 방제기등)

□ **지원요건**

<공통사항>

○ GAP 집단인증을 획득하고, 품목별 재배면적 기준을 충족한 단체 및 상위 산지유통조직

<개별사항>

- GAP 집단인증과의 연계성이 낮거나, 개별경영주 단위의 단순시설지원사업은 배제하되, 품목과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타당성 결정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포함)
- 보조사업자 : GAP 집단인증 획득 생산자단체 및 상위 산지유통조직
- 운영주체 : 민간 보조사업자

GAP 로컬푸드 마을 지원 사업

- 목 적 : 도농교류가 활발한 체험마을 또는 로컬푸드 소비자를 확보한 마을단위 조직이 농업생산기반을 GAP인증을 통해 안전 농산물 생산 및 환경개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기반 조성 지원
- 총사업비 : 개소당 3억원 내외
- 사업기간 : 2년(1년차 10%, 2년차 90%)
 - * 1년차에 GAP관련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해 최소 20ha 이상 인증 추진
- 사업내용 : 로컬푸드 선별 및 세척, 포장시설, 소비자 및 마을공동이용 시설 확충(공동 화장실, 로컬푸드 판매장, 공동식당 등), 공동 농업시설(농자재공동창고, 폐농자재수거 및 보관시설, 공용 농약보관함 등) 설치 및 리모델링
- 지원요건
 - 마을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체험,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공동식당 등을 운영하는 체험마을 및 마을단위 조직이 해당 농산물 생산기반 20ha 이상 GAP 인증 계획 수립
 - * 체험마을 및 마을단위 조직은 GAP 인증 등록에 적합한 농업경영체 여야 함
 - 농산물 생산기반없이 농촌관광을 위주로 운영되는 체험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꾸러미사업 등의 로컬푸드 실적이 없는 마을 제외
 - * 창조적마을만들기 대상 마을은 사업 종료 후 2년

- 지원조건 : 국고(지특회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 50%, 지방비 50%(자부담 포함)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구청장
- 보조사업자
 - ①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정보화마을, 생태체험마을 등
 - ② 마을단위 로컬푸드 직판장 또는 마을농산물을 이용하는 마을공동식당을 보유하였거나,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산물 꾸러미사업 등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마을법인
- 운영주체 : 민간 보조사업자

참 고

GAP 로컬푸드 마을 지원 세부 모델 예시

- 소비자가 찾아오는 체험마을, 또는 로컬푸드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농촌마을의 GAP 안전 농산물 생산 및 소비기반 지원
- 체험마을 또는 마을법인에 지원하되, 1년차에 GAP 인증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역량강화 및 컨설팅을 통해 GAP 인증이 가능해야 함
- GAP 인증 받은 로컬푸드로 소비자 체험, 공동식당 운영, 직매장 운영 또는 관내 로컬푸드직매장 납품, 농산물 꾸러미 등으로 유통 소비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의 지원(2년차)

□ **총사업비** : 개소당 3억원 내외(사업내용에 따라 규모 결정)

□ **사업기간** : 2년(1년차 10%, 2년차 90%)

- (1년차) GAP 역량강화 및 컨설팅 → (2년차) GAP 로컬푸드 유통, 소비기반 설치 및 리모델링

□ **사업내용** : GAP인증 농산물의 로컬푸드 유통, 소비에 관련된 시설 및 마을 환경개선에 필요한 공동 이용시설 지원

- (1년차) GAP 역량 강화 및 컨설팅 : 마을내 농업생산기반 환경개선 계획, 로컬푸드 대상 품목별 GAP 인증계획 수립, 대상 농지의 토양·용수 분석, 영농일지 작성, 농약 및 농자재 공동 관리계획 수립 등
- (2년차) GAP 인증 농산물의 로컬푸드 유통·소비 관련 시설, 환경개선 시설 등의 설치 및 리모델링

*로컬푸드 유통·소비시설 : 체험장, 직매장, 공동식당, 화장실, 선별 및 세척·포장시설, 관련 장비 등

*환경개선 시설 : 마을 공동농자재창고, 폐농자재수거·보관함, 농약 공동보관함 등

□ 지원요건

<공통사항>

- GAP 인증 등록이 가능한 농업경영체여야 함 (마을 집단인증)

<개별사항>

- 고령 농업인의 비중이 너무 높거나 참여 농가의 GAP 인증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마을은 체험마을 사무장 또는 마을 내 역량있는 귀농인 등을 ‘GAP 인증 도우미’로 지정하여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영농일지 작성, 적정 농약사업 및 시비법 등에 대해 별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년차 역량강화비용을 집행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자부담포함)

□ 보조사업자 : 체험마을 및 GAP 인증 로컬푸드 농산물의 유통·소비기반을 갖춘 마을법인 등

□ 운영주체 : 민간 보조사업자



최종보고서

GAP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

제5장. 부 록

제1절 설문조사 결과

제1절. 설문조사 결과

1. 인증농가

생산단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적용 실태조사 (인증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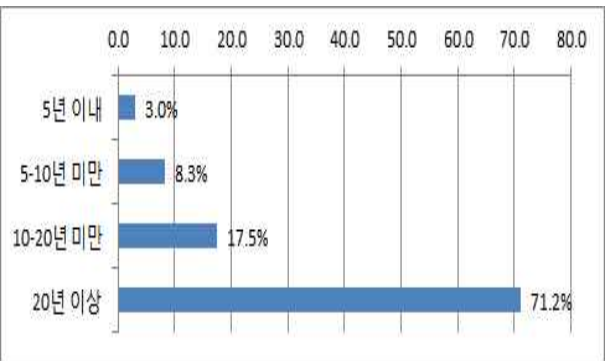
-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5.12.01.~2015.12.20
 - 설문대상 : GAP인증 농가
 - 설문내용 : GAP인증 현황, 만족도, 및 향후 개선방향 조사
 - 응 답 자 : 302농가

일반 현황 질문

1. 영농활동 일반현황

1-1 영농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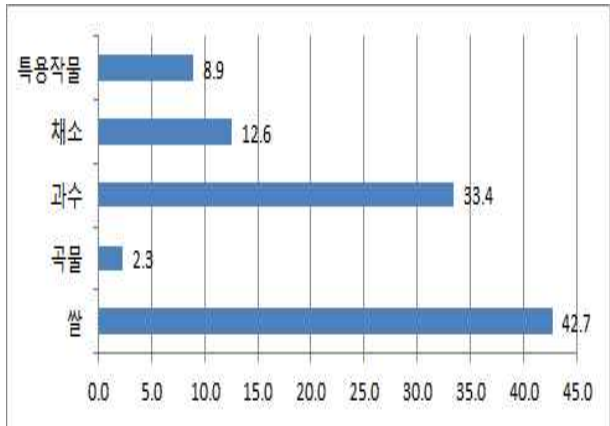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5년 이내	9	3.0
2 5-10년 미만	25	8.3
3 10-20년 미만	53	17.5
4 20년 이상	215	71.2
합계	302	100%



- 설문에 참여한 GAP 인증농가의 71.2%가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이 17.5%, 5~10년 미만이 8.3%, 5년이내가 3.0%로 나타남
- 87.7%의 응답자가 영농경력이 10년이상으로,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농가들의 영농경력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

1-2 주 인증 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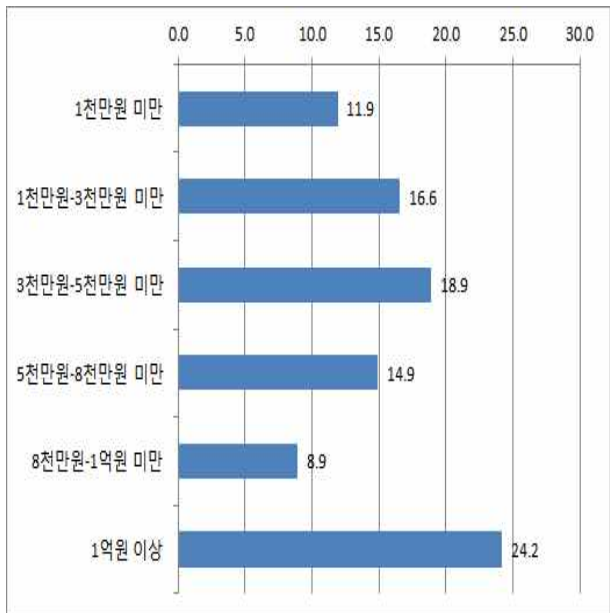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쌀	129	42.7
2 곡물	7	2.3
3 과수	101	33.4
4 채소	38	12.6
5 특용작물	27	8.9
합계	302	100%



□ GAP 주 인증작목으로는 쌀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수 33.4%, 채소 12.6%, 특용작물 8.9%, 곡물 2.3% 순으로 나타남

1-3 영농규모(연매출액)

구분	빈도	비중(%)
1 1천만원 미만	36	11.9
2 1천만원~3천만원 미만	50	16.6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7	18.9
4 5천만원~8천만원 미만	45	14.9
5 8천만원~1억원 미만	27	8.9
6 1억원 이상	73	24.2
7 무응답	14	4.6
합계	3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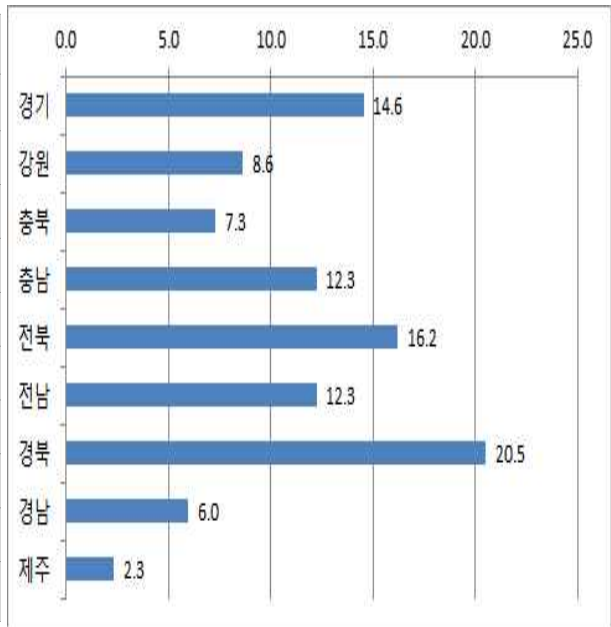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연 평균소득은 1억원 이상이 24.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8.9%,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6.6%, 1천만원 미만 11.9%, 8천만원~1억 미만 8.9% 순으로 나타남

- 2014년 평균 농가소득 3,400만원(출처 : 통계청)보다 대부분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다수 존재하며(48.0%의 응답자가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음), 소득 분포가 대부분 고르게 나타남

1-4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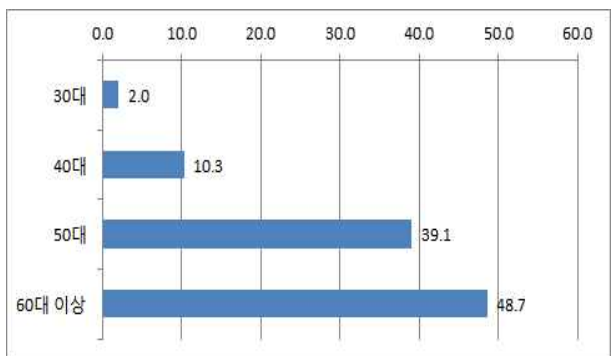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경기	44	14.6
2 강원	26	8.6
3 충북	22	7.3
4 충남	37	12.3
5 전북	49	16.2
6 전남	37	12.3
7 경북	62	20.5
8 경남	18	6.0
9 제주	7	2.3
합계	302	100%



- 경북지역이 2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북 16.2%, 경기 14.6%, 충남/전남이 각각 12.3%, 강원 8.6%, 충북 7.3%, 경남 6.0%, 제주 2.3%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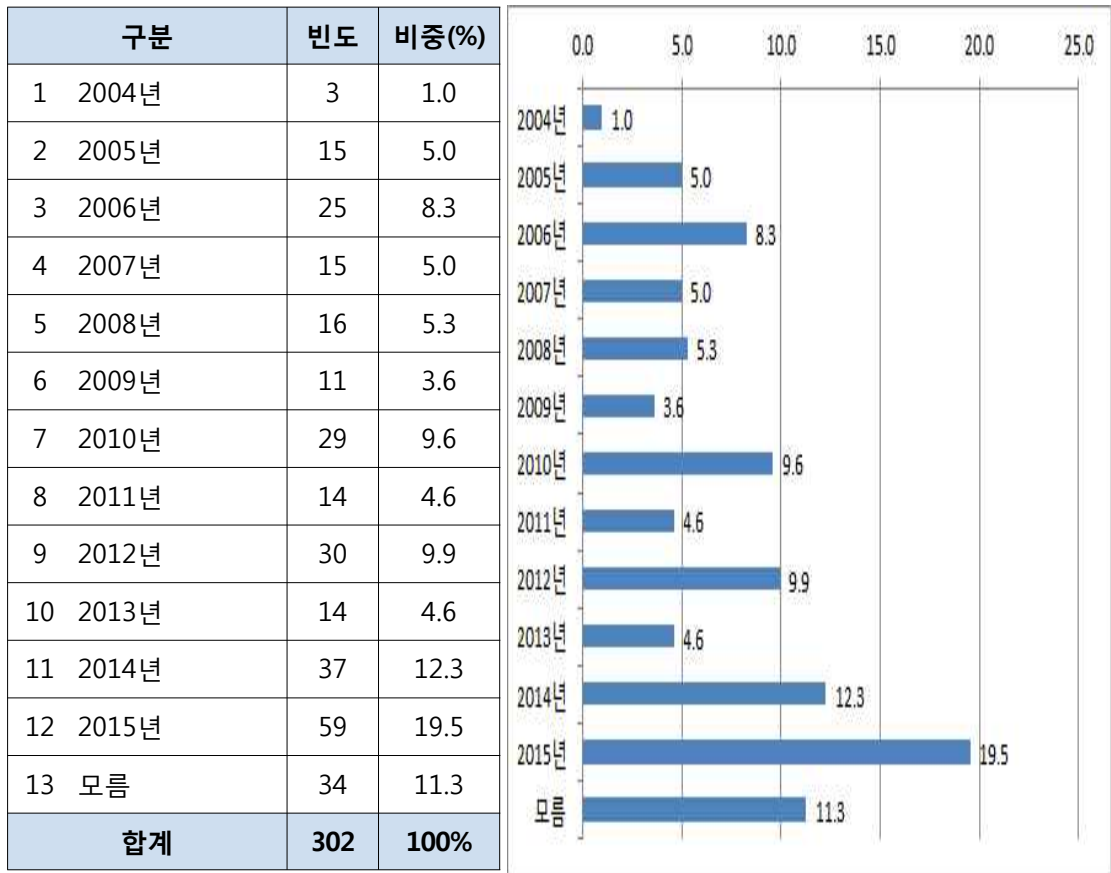
1-5 연령대

구분	빈도	비중(%)
1 30대	6	2.0
2 40대	31	10.3
3 50대	118	39.1
4 60대 이상	147	48.7
합계	302	100%



- 농가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50대 39.1%, 40대 10.3%, 30대 2.0% 순으로 나타남

1-6 GAP 최초 인증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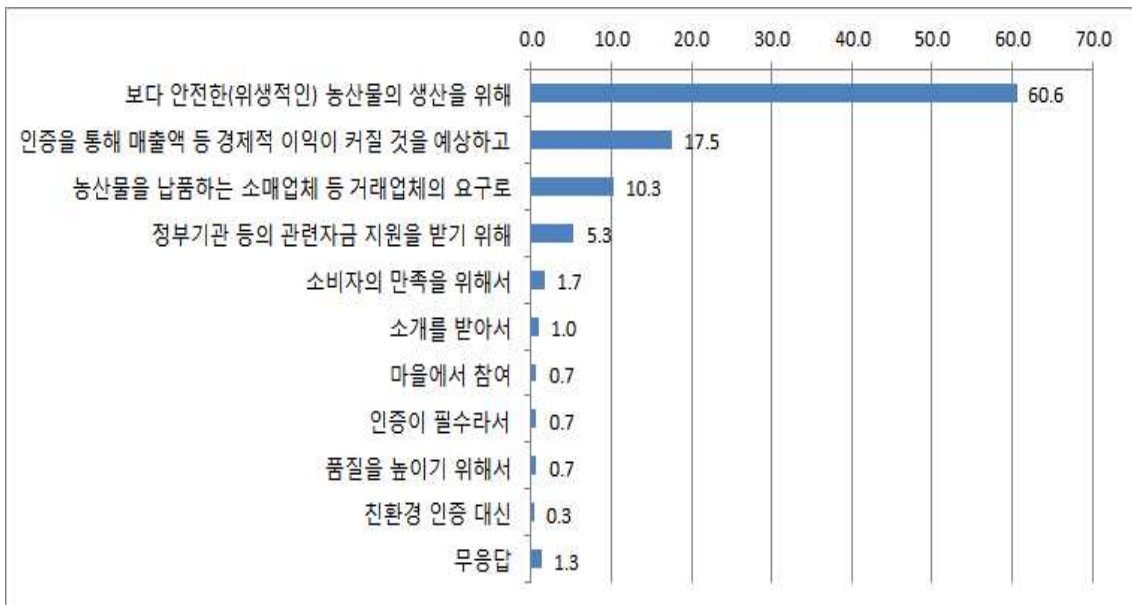


- GAP 최초 인증시기는 2015년이 1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014년12.3%로 나타남
- 최근 2년 동안 (2014~2015년) 인증을 받은 사람들이 전체의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개년(2011~2015년)동안이 62.2%로 최근 인증 받은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음

GAP인증실태 설문

2.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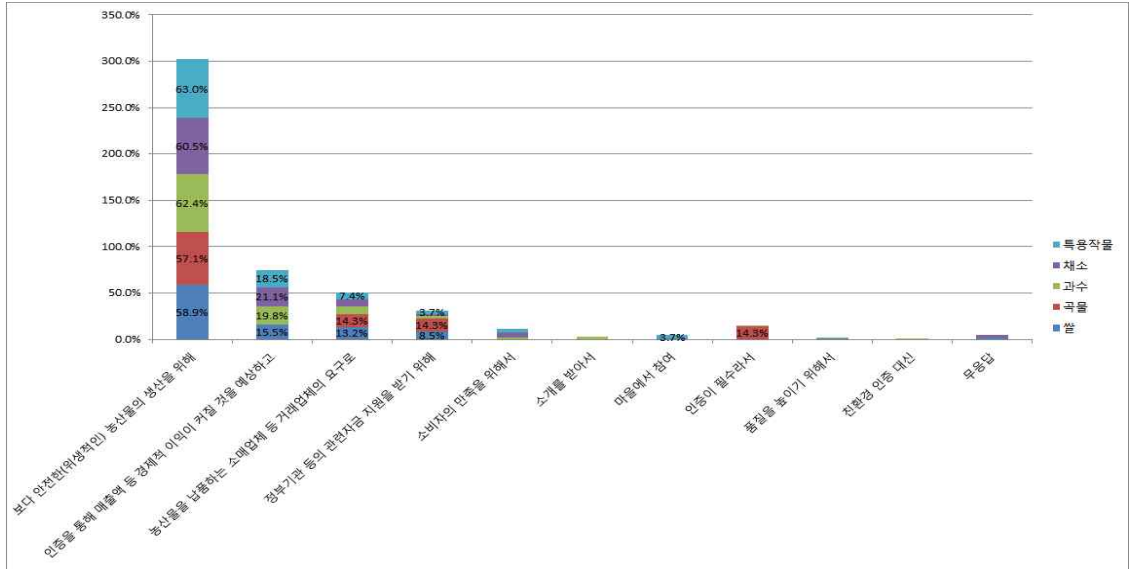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보다 안전한(위생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183	60.6
2 인증을 통해 매출액 등 경제적 이익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53	17.5
3 농산물을 납품하는 소매업체 등 거래업체의 요구로	31	10.3
4 정부기관 등의 관련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16	5.3
5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5	1.7
6 소개를 받아서	3	1.0
7 마을에서 참여	2	0.7
8 인증이 필수라서	2	0.7
9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2	0.7
10 친환경 인증 대신	1	0.3
11 무응답	4	1.3
합계	302	100%



- GAP 인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는 ‘보다 안전한 (위생적인)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가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증을 통한 이익증가’가 17.5%, ‘농산물을 납품하는 거래처의 요구로 인해’가 10.3%순으로 나타남
- 과반수가 넘는 농민들이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인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이 농산물의 안전과 위생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교차분석 - 작물별**

구분	쌀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1 보다 안전한(위생적인)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58.9%	57.1%	62.4%	60.5%	63.0%
2 인증을 통해 매출액 등 경제적 이익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15.50	0.0%	19.8%	21.1%	18.5%
3 농산물을 납품하는 소매업체 등 거래업체의 요구로	13.2%	14.3%	7.9%	7.9%	7.4%
4 정부기관 등의 관련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8.5%	14.3%	2.0%	2.6%	3.7%
5 소비자의 만족을 위해서	0.0%	0.0%	2.0%	5.3%	3.7%
6 소개를 받아서	0.0%	0.0%	3.0%	0.0%	0.0%
7 마을에서 참여	0.8%	0.0%	0.0%	0.0%	3.7%
8 인증이 필수라서	0.0%	14.3%	1.0%	0.0%	0.0%
9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0.8%	0.0%	1.0%	0.0%	0.0%
10 친환경 인증 대신	0.0%	0.0%	1.0%	0.0%	0.0%
11 무응답	2.3%	0.0%	0.0%	2.6%	0.0%



- 쌀,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별 GAP 인증이유를 살펴보면 모든 작물별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가 가장 높게 나타남
- 다른 항목들의 경우 모든 작물별로 고른 응답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인증이 필수라서’의 경우 곡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참여해서’의 경우도 특용작물과 쌀에 한정되어 있어, 쌀, 곡물, 특용작물의 경우 판매나 조직참여에 있어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3.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정에서 어느정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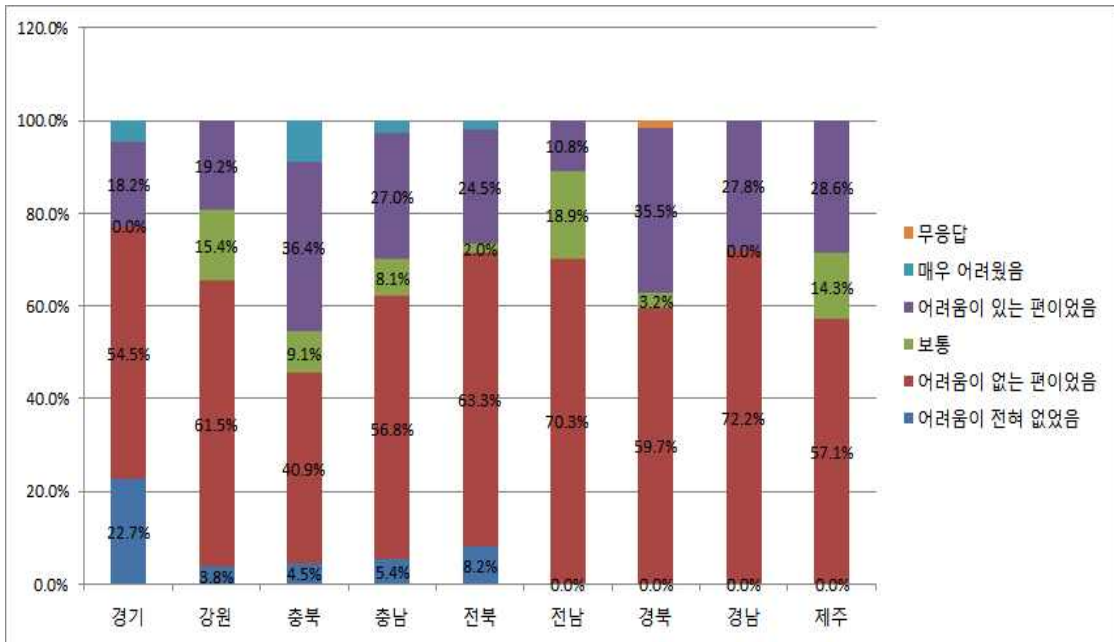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18	6.0
2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음	181	59.9
3 보통	20	6.6
4 어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76	25.2
5 매우 어려웠음	6	2.0
6 무응답	1	0.3
합계	302	100%



□ 과반수가 넘는 65.9%의 응답자가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어려움이 없는 편 59.9% +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6.0%), 27.2%의 응답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함(어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25.2% + 매우 어려웠음 2.0%)

***교차분석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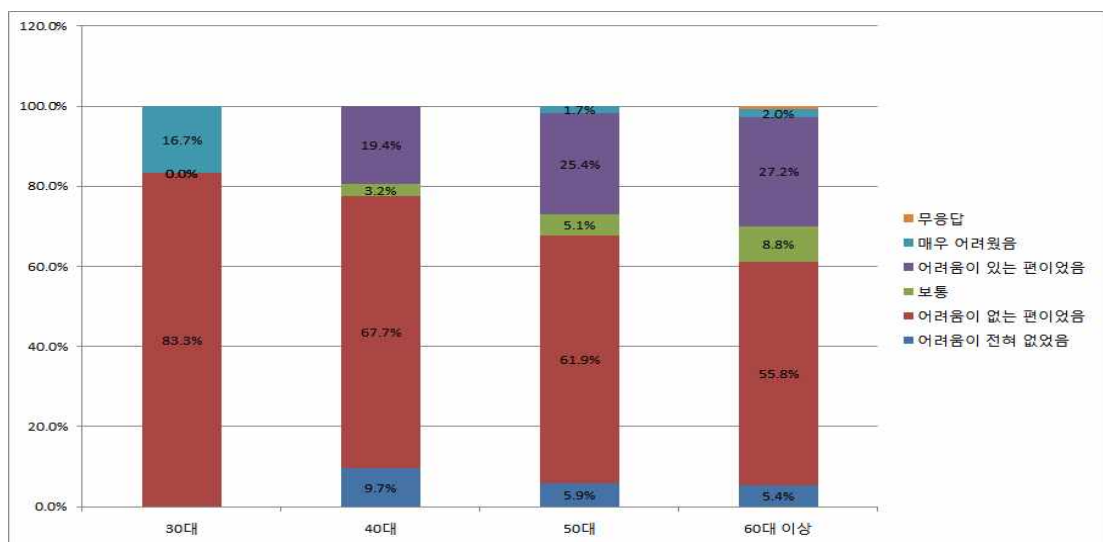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22.7%	3.8%	4.5%	5.4%	8.2%	0.0%	0.0%	0.0%	0.0%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음	54.5%	61.5%	40.9%	56.8%	63.3%	70.3%	59.7%	72.2%	57.1%
보통	0.0%	15.4%	9.1%	8.1%	2.0%	18.9%	3.2%	0.0%	14.3%
어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18.2%	19.2%	36.4%	27.0%	24.5%	10.8%	35.5%	27.8%	28.6%
매우 어려웠음	4.5%	0.0%	9.1%	2.7%	2.0%	0.0%	0.0%	0.0%	0.0%
무응답	0.0%	0.0%	0.0%	0.0%	0.0%	0.0%	1.6%	0.0%	0.0%



- 지역별로 인증과정에서의 어려움 여부를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어려움이 없었다’가 77.2%(어려움이 없는 편 54.5% +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남 72.2%(어려움이 없는 편 72.2%), 전북 71.8%(어려움이 없는 편 63.3% +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8.2%), 전남 70.3%(어려움이 없는 편 70.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는 충북이 45.5%(어려움이 있는 편 36.4% + 매우 어려웠음 9.1%), 경북 35.5%(어려움이 있는 편 35.5%), 충남 29.7%(어려움이 있는 편 27.% + 매우 어려웠음 2.7%), 제주 28.6%(어려움이 있는 편 28.6%)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교차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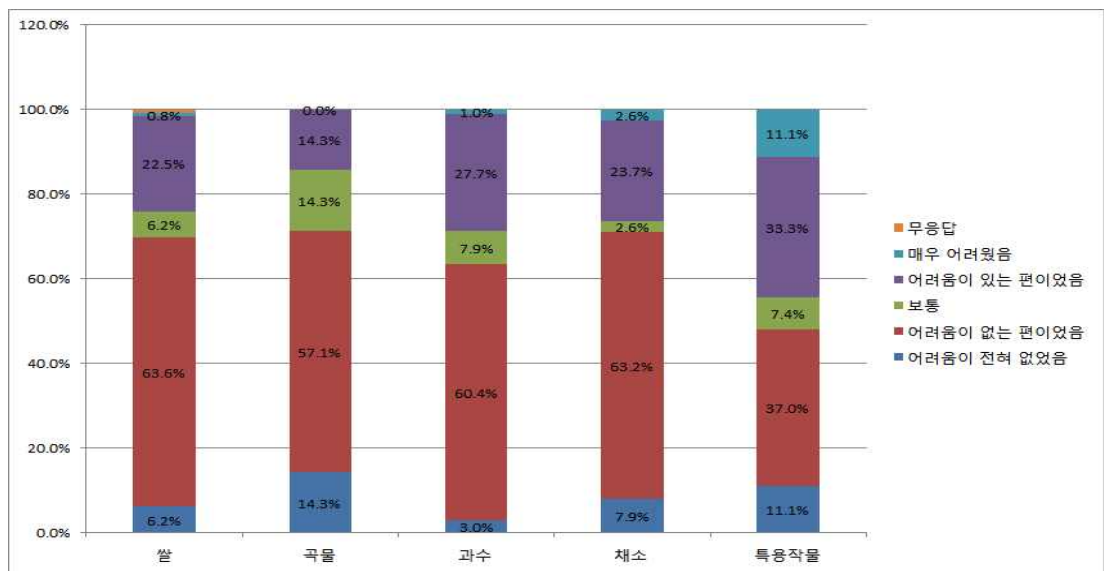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0.0%	9.7%	5.9%	5.4%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음	83.3%	67.7%	61.9%	55.8%
보통	0.0%	3.2%	5.1%	8.8%
어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0.0%	19.4%	25.4%	27.2%
매우 어려웠음	16.7%	0.0%	1.7%	2.0%
무응답	0.0%	0.0%	0.0%	0.7%



- 연령별로 인증과정에서의 어려움 여부를 살펴보면 30대가 83.3%(어려움이 없는 편 83.3%)로 가장 어려움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40대 77.4%(어려움이 없는 편 67.7% +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9.7%), 50대 67.8%(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음 61.9% +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9%), 60대 61.2%(어려움이 없는 편 55.8% +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5.4) 순으로 나타나, 나이가 젊을수록 어렵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반대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은 60대, 50대, 40대, 30대순으로 높게 나타남

***교차분석 - 작목별**

구분	쌀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6.2%	14.3%	3.0%	7.9%	11.1%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음	63.6%	57.1%	60.4%	63.2%	37.0%
보통	6.2%	14.3%	7.9%	2.6%	7.4%
어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22.5%	14.3%	27.7%	23.7%	33.3%
매우 어려웠음	0.8%	0.0%	1.0%	2.6%	11.1%
무응답	0.8%	0.0%	0.0%	0.0%	0.0%



- 작목별로 인증과정에서의 어려움 여부를 살펴보면 곡물이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이 전체의 7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채소 71.1%, 쌀 69.8%, 과수 63.4%, 특용 48.1%순으로 나타남
- 반대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특용작물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과수 38.7%, 채소 26.3%, 쌀 22.5%, 곡물 14.3%순으로 나타남
- 설문분석 결과 쌀, 곡물류는 전체적으로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나, 특용작물과 채소의 경우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비중이 크게 나타나 작목별로 GAP 인증 어려움 정도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됨

4.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인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25	24.5
2 인증조건이 다소 모호하다	10	9.8
3 인증절차가 복잡하다	28	27.5
4 인증 관련 비용이 많이 든다	14	13.7
5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	8	7.8
6 서류작성이 어렵다	5	4.9
7 교육일정을 맞추기 어렵다	2	2.0
8 홍보부족	2	2.0
9 환경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심사했다	1	1.0
10 무응답	7	6.9
합계	10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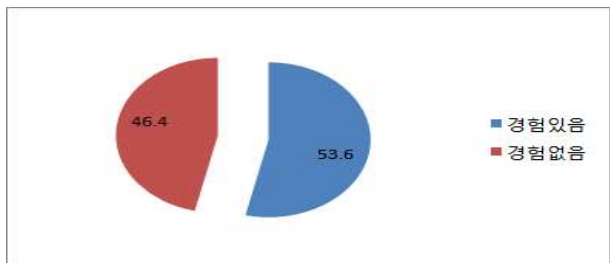


- GAP 인증과정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27.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24.5%, ‘인증 관련 비용이 많이 든다’ 13.7%, ‘인증조건이 다소 모호하다’ 9.8%, ‘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 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인증절차 및 조건, 비용에 대한 애로사항이 높게 나타남

5.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또는 생산단계 적용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등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5-1 지원 경험 유무

구분	빈도	비중(%)
1 경험있음	162	53.6
2 경험없음	140	46.4
합계	302	100%



- GAP 인증에 있어 관련 기관으로부터의 지원경험에 대한 설문 결과 전체의 53.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약 절반정도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5-2 지원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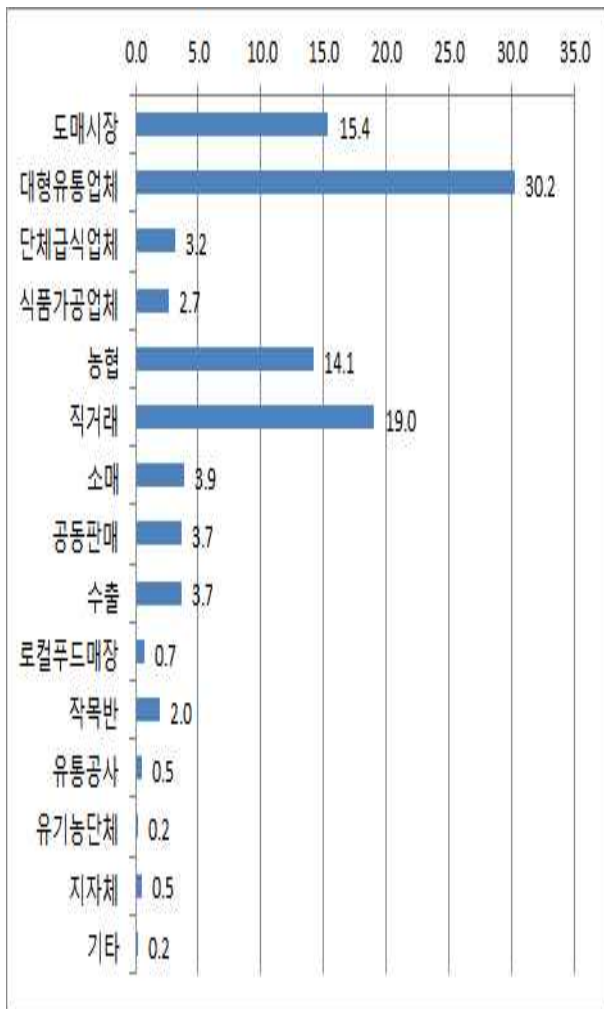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정부	27	15.9
2 지방자치단체	85	50.0
3 농협	49	28.8
4 농산물센터	1	0.6
5 법인단체	1	0.6
6 품질관리원	1	0.6
7 유통공사	1	0.6
8 영농지원센터	1	0.6
9 산림조합	1	0.6
10 특별조성기구	1	0.6
11 경남과학기술협력단	1	0.6
12 기타	1	0.6
합계	170	100%



- 지원받은 단체로는 지방 자치단체가 5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농협 28.8%, 정부 15.9% , 기타단체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의 94.7%가 지방자치단체, 농협, 정부기관으로, 농민들이 GAP 인증시 이 세 기관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귀하가 생산하고 있는 GAP인증 농산물의 유통경로별 유통(판매) 비중을 적어주십시오(주요 출하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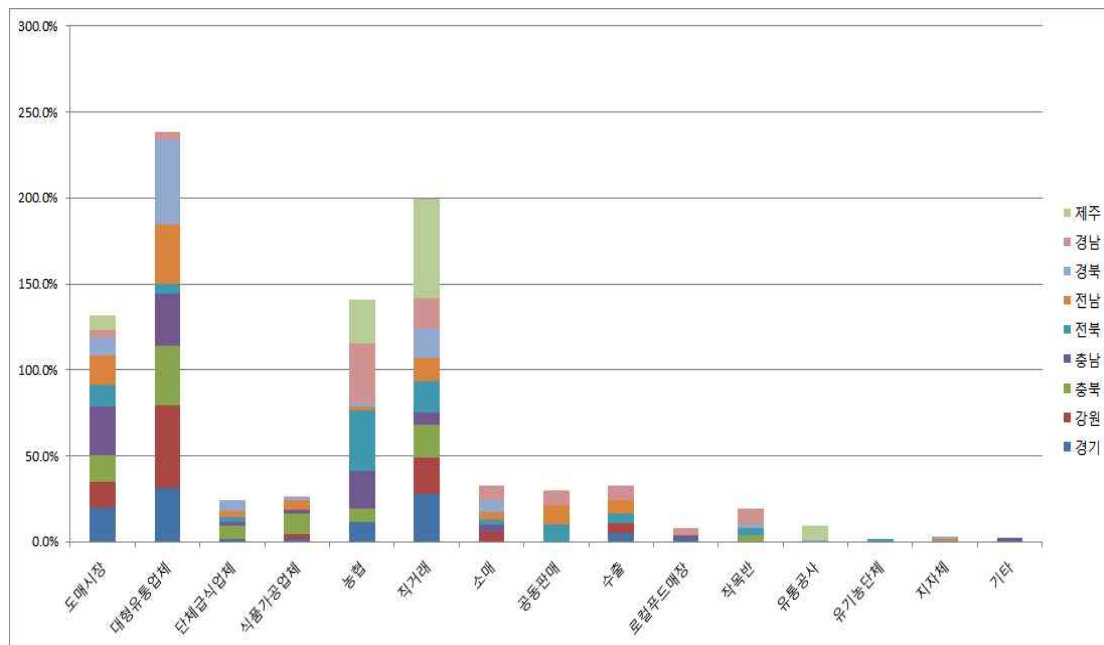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도매시장	63	15.4
2 대형유통업체	124	30.2
3 단체급식업체	13	3.2
4 식품가공업체	11	2.7
5 농협	58	14.1
6 직거래	78	19.0
7 소매	16	3.9
8 공동판매	15	3.7
9 수출	15	3.7
10 로컬푸드매장	3	0.7
11 작목반	8	2.0
12 유통공사	2	0.5
13 유기농단체	1	0.2
14 지자체	2	0.5
15 기타	1	0.2
합계	410	100%



- GAP 인증 농산물의 주요 판매처로는 대형 유통업체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직거래 19%, 도매시장 15.4%, 농협 14.1% 순으로 나타남
- 일반 농산물 유통과 달리 GAP인증 농산물의 경우 도매시장보다 대형 유통업체나 직거래를 통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교차분석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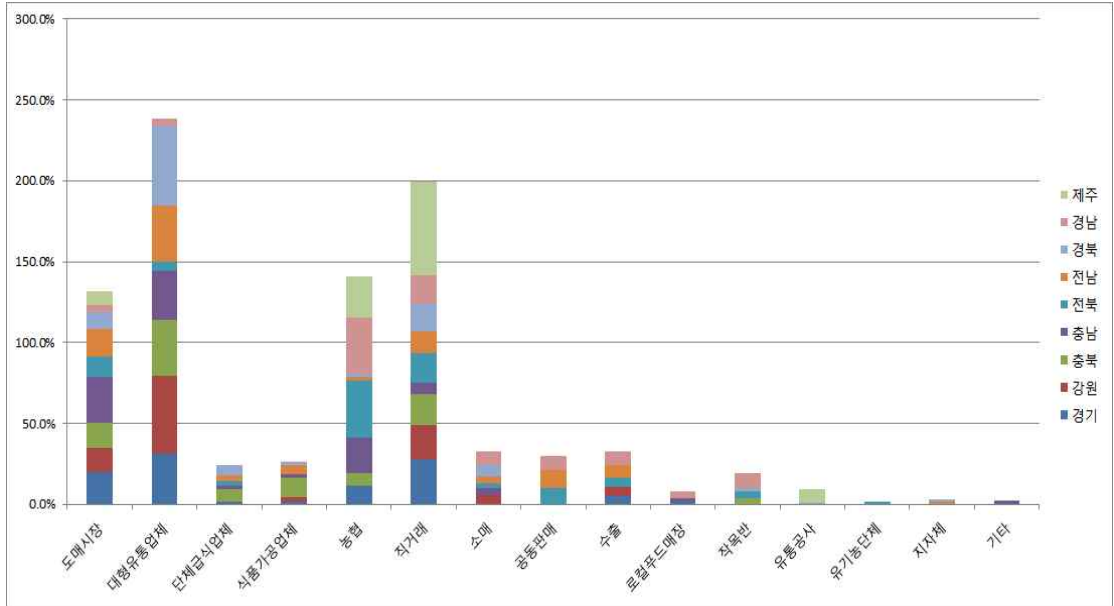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도매시장	19.7%	15.2%	15.4%	28.3%	12.9%	17.0%	10.5%	4.3%	8.3%
대형유통업체	31.1%	48.5%	34.6%	30.4%	5.7%	34.0%	50.0%	4.3%	0.0%
단체급식업체	1.6%	0.0%	7.7%	2.2%	2.9%	3.8%	5.8%	0.0%	0.0%
식품가공업체	1.6%	3.0%	11.5%	2.2%	0.0%	5.7%	2.3%	0.0%	0.0%
농협	11.5%	0.0%	7.7%	21.7%	35.7%	1.9%	2.3%	34.8%	25.0%
직거래	27.9%	21.2%	19.2%	6.5%	18.6%	13.2%	17.4%	17.4%	58.3%
소매	0.0%	6.1%	0.0%	4.3%	2.9%	3.8%	7.0%	8.7%	0.0%
공동판매	0.0%	0.0%	0.0%	0.0%	10.0%	11.3%	0.0%	8.7%	0.0%
수출	4.9%	6.1%	0.0%	0.0%	5.7%	7.5%	0.0%	8.7%	0.0%
로컬푸드매장	1.6%	0.0%	0.0%	2.2%	0.0%	0.0%	0.0%	4.3%	0.0%
작목반	0.0%	0.0%	3.8%	0.0%	4.3%	0.0%	2.3%	8.7%	0.0%
유통공사	0.0%	0.0%	0.0%	0.0%	0.0%	0.0%	1.2%	0.0%	8.3%
유기농단체	0.0%	0.0%	0.0%	0.0%	1.4%	0.0%	0.0%	0.0%	0.0%
지자체	0.0%	0.0%	0.0%	0.0%	0.0%	1.9%	1.2%	0.0%	0.0%
기타	0.0%	0.0%	0.0%	2.2%	0.0%	0.0%	0.0%	0.0%	0.0%



□ 지역별 유통경로(주요 출하처)분석결과 전북, 경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이 대형유통업체로 가장 많이 출하하고 있었으며 전북과 경남은 농협, 제주지역은 직거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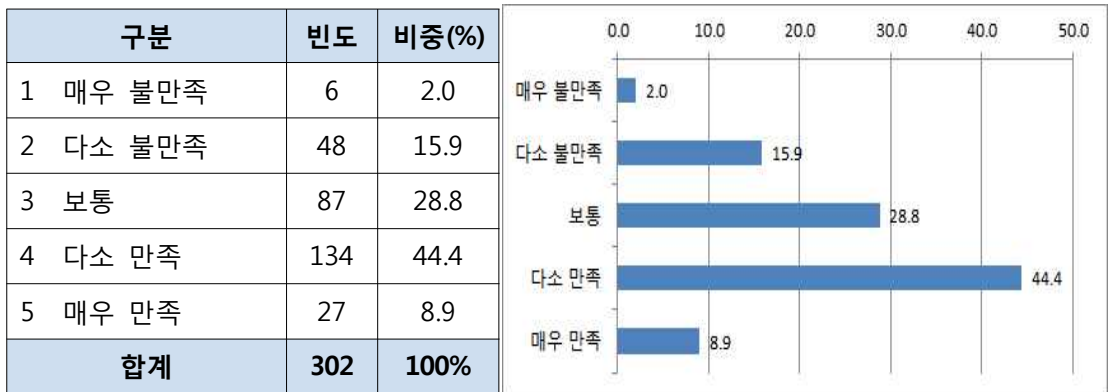
***교차분석 - 작목별**

	쌀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도매시장	5.3%	25.0%	19.3%	28.1%	18.8%
대형유통업체	43.4%	37.5%	20.0%	28.1%	20.8%
단체급식업체	6.6%	0.0%	0.0%	1.8%	4.2%
식품가공업체	1.3%	12.5%	2.1%	1.8%	8.3%
농협	28.9%	12.5%	6.9%	3.5%	2.1%
직거래	5.9%	0.0%	35.9%	12.3%	20.8%
소매	2.6%	12.5%	4.8%	1.8%	6.3%
공동판매	1.3%	0.0%	5.5%	7.0%	2.1%
수출	0.0%	0.0%	4.1%	10.5%	6.3%
로컬푸드매장	0.0%	0.0%	0.0%	3.5%	2.1%
작목반	2.6%	0.0%	0.7%	1.8%	4.2%
유통공사	0.0%	0.0%	0.7%	0.0%	2.1%
유기농단체	0.0%	0.0%	0.0%	0.0%	2.1%
지자체	1.3%	0.0%	0.0%	0.0%	0.0%
기타	0.7%	0.0%	0.0%	0.0%	0.0%



- 작목별 유통경로(주요 출하처)분석결과 쌀과 곡물은 대형유통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수는 직거래, 채소는 대형유통업체와 단체급식업체, 특용작물은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작목별 특성에 따라 주요 유통경로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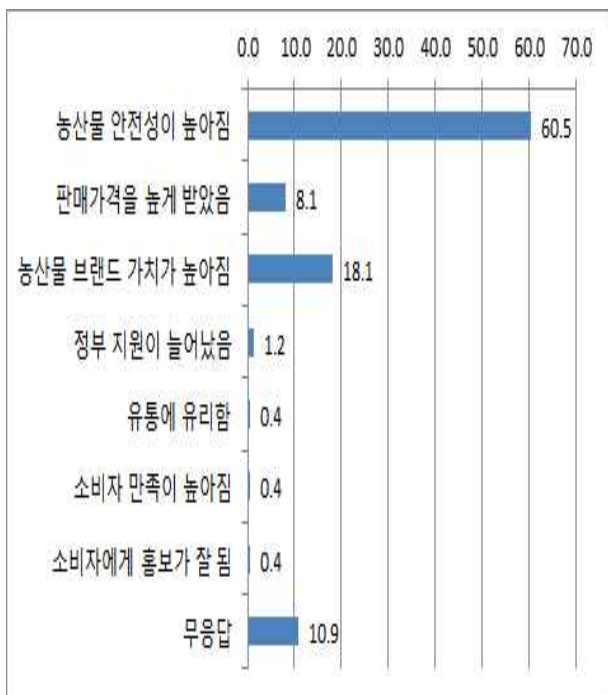
7.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참여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GAP인증제도 참여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하였다는 응답이 전체의 53.3%(다소만족 44.4% + 매우만족 8.9%)로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남
- 불만족하였다는 응답은 전체의 17.9%(매우 불만족 2.0%, 다소 불만족 15.9%)로 5명 중 1명꼴로 GAP 제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8.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에 참여를 잘 했다고 느낀 점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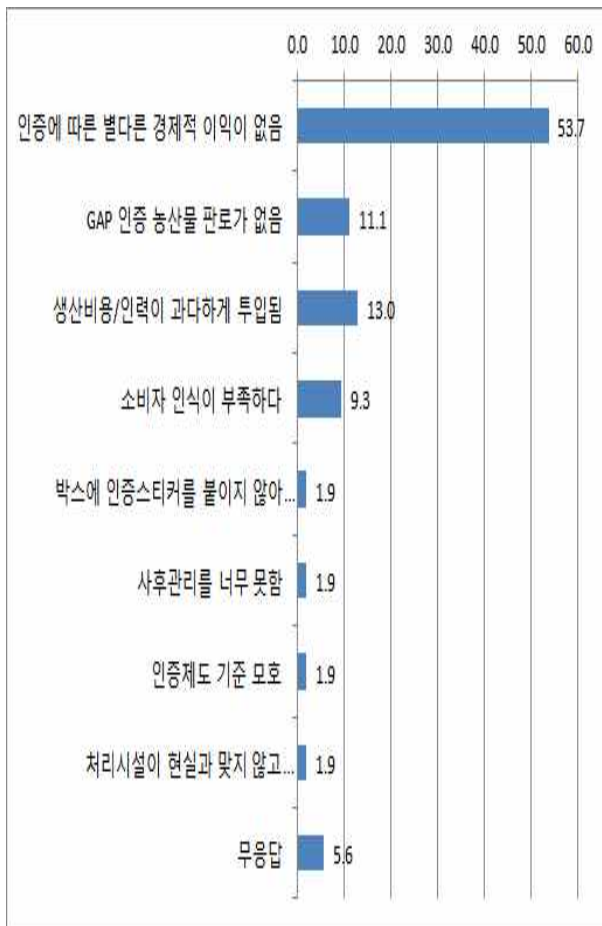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농산물 안전성이 높아짐	150	60.5
2 판매가격을 높게 받았음	20	8.1
3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	45	18.1
4 정부 지원이 늘어남	3	1.2
5 유통에 유리함	1	0.4
6 소비자 만족이 높아짐	1	0.4
7 소비자에게 홍보가 잘 됨	1	0.4
8 무응답	27	10.9
합계	248	100%



- GAP 인증제도 참여를 잘 했다고 느낀 점에 대한 설문결과 ‘농산물 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이 18.1%, ‘판매가격을 높게 받았음’이 8.1%, ‘정부지원이 늘어남’ 1.2%순으로 높게 나타남
- 대부분의 농가들이 판매가격 향상보다 농산물 안전성 증가 및 브랜드 가치 향상 등 품질향상부분에 만족하고 있음

9.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참여시의 불만사항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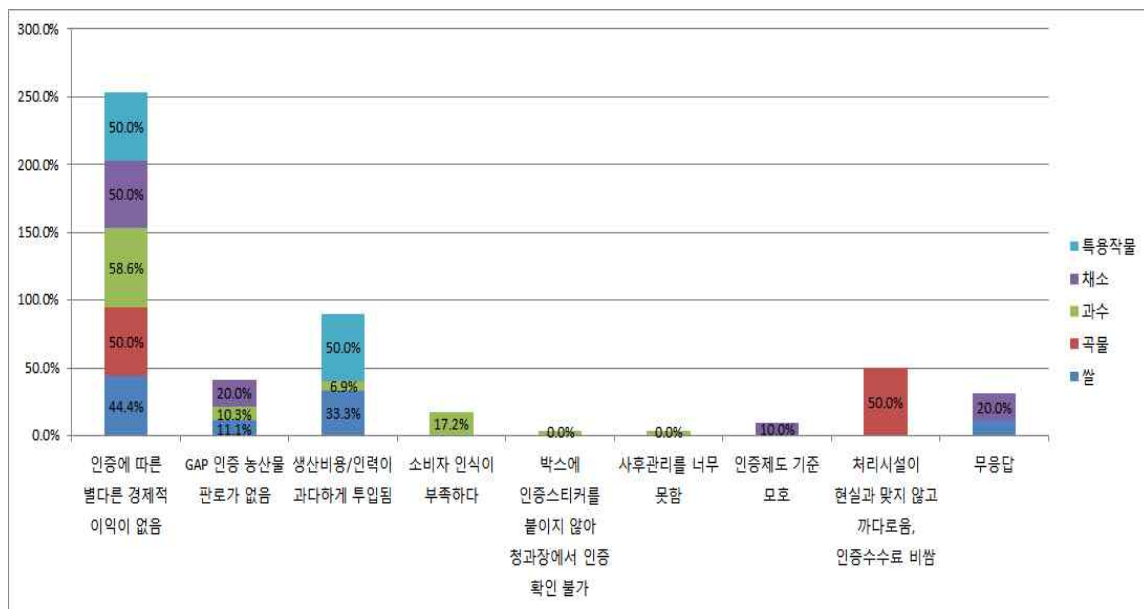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인증에 따른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음	29	53.7
2 GAP 인증 농산물 판로가 없음	6	11.1
3 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됨	7	13.0
4 소비자 인식이 부족	5	9.3
5 박스에 인증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청과장에서 인증 확인 불가	1	1.9
6 사후관리를 너무 못함	1	1.9
7 인증제도기준 모호	1	1.9
8 처리시설이 현실과 맞지 않고 까다로움, 인증수수료 비쌈	1	1.9
9 무응답	3	5.6
합계	54	100%



- GAP 인증제도 참여시의 불만사항에 대한 설문결과 ‘인증에 따른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음’이 53.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는 ‘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됨’이 13.0%, ‘GAP 인증 농산물 판로가 없음’이 11.1%, ‘소비자 인식 부족’이 9.3% 순으로 나타남
-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경제적 이익 및 생산비용등을 가장 큰 불만사항이라고 응답하여, 농산물 판로 등의 문제보다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교차분석 - 작물별

구분	쌀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인증에 따른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음	44.4%	50.0%	58.6%	50.0%	50.0%
GAP 인증 농산물 판로가 없음	11.1%	0.0%	10.3%	20.0%	0.0%
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됨	33.3%	0.0%	6.9%	0.0%	50.0%
소비자 인식이 부족하다	0.0%	0.0%	17.2%	0.0%	0.0%
박스에 인증스티커를 붙이지 않아 청과장에서 인증 확인 불가	0.0%	0.0%	3.4%	0.0%	0.0%
사후관리를 너무 못함	0.0%	0.0%	3.4%	0.0%	0.0%
인증제도 기준 모호	0.0%	0.0%	0.0%	10.0%	0.0%
처리시설이 현실과 맞지 않고 까다로움, 인증수수료 비쌈	0.0%	50.0%	0.0%	0.0%	0.0%
무응답	11.1%	0.0%	0.0%	2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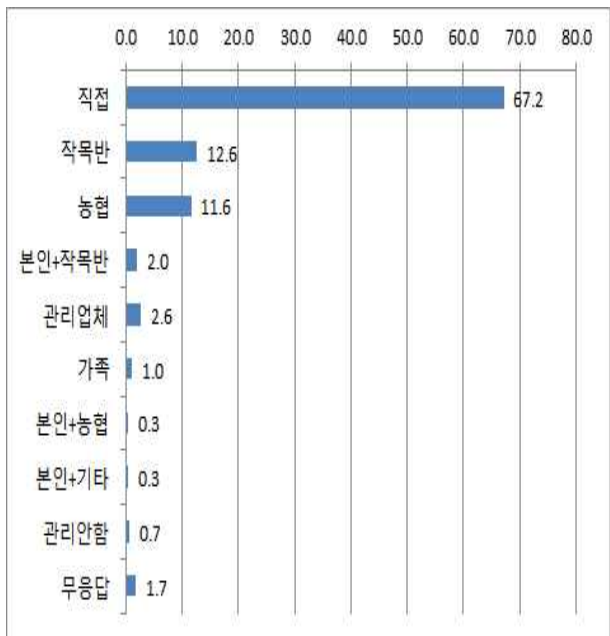


□ 작물별 불만사항의 경우 모든 작목별로 ‘인증에 따른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음’이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나타남

- 쌀과 특용작물의 경우 ‘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됨’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곡물은 ‘처리시설과 인증수수료 문제’, 과수는 ‘소비자 인식문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작목별로 불만사항에 대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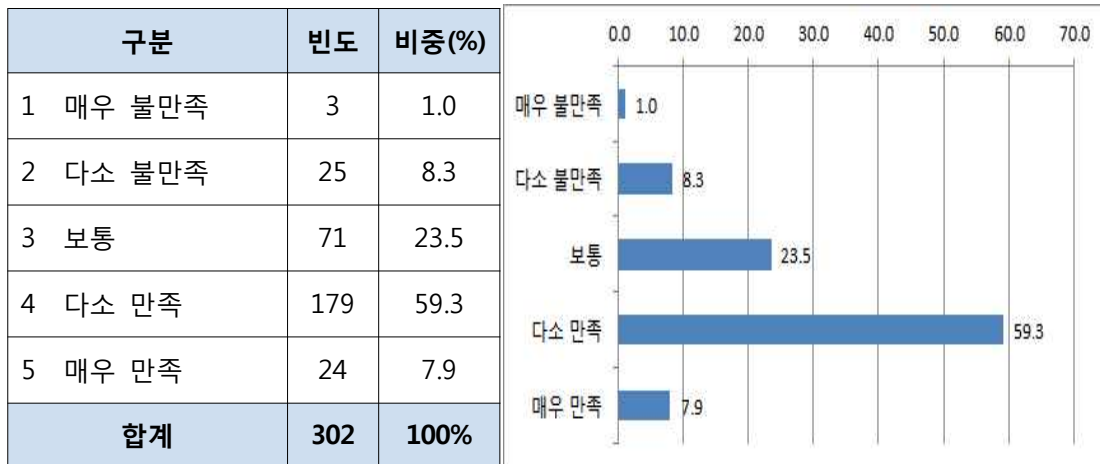
10. 현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에서는 GAP인증 농산물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장부기장(기록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직접	203	67.2
2 작목반	38	12.6
3 농협	35	11.6
4 본인+작목반	6	2.0
5 관리업체	8	2.6
6 가족	3	1.0
7 본인+농협	1	0.3
8 본인+기타	1	0.3
9 관리안함	2	0.7
10 무응답	5	1.7
합계	302	100



- 장부기록 관리의 경우 67.7%가 직접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작목반 12.6%, 농협 11.6% 순으로 나타남
- 작목반, 농협, 관리업체에서 작성하여주는 경우를 제외한 70.8%가 도움을 받고 있더라도 직접 장부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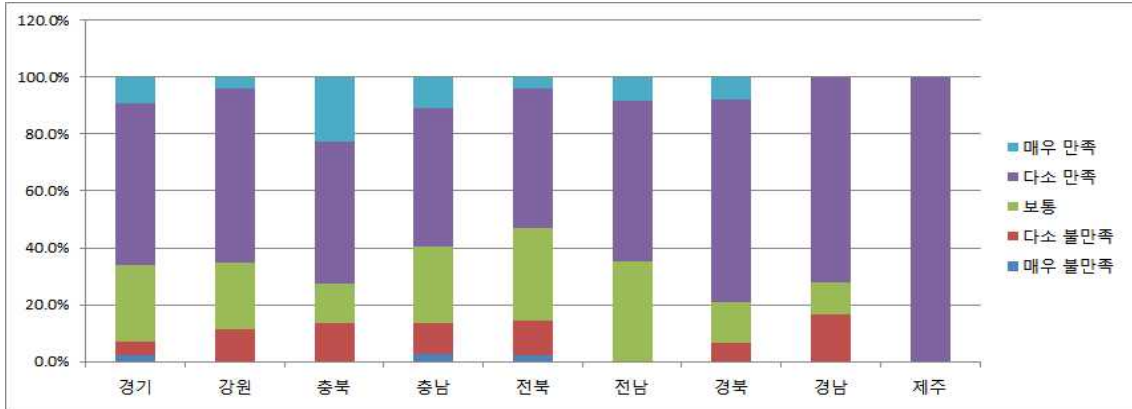
11.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GAP 인증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한다는 응답이 67.2%(다소 만족 59.3% + 매우 만족 7.9%)로 나타났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9.3%(다소 불만족 8.3% + 매우 불만족 1.0%)로 나타남
- 과반수 이상이 GAP 인증기관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음

*교차분석 - 지역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매우 불만족	2.3%	0.0%	0.0%	2.7%	2.0%	0.0%	0.0%	0.0%	0.0%
다소 불만족	4.5%	11.5%	13.6%	10.8%	12.2%	0.0%	6.5%	16.7%	0.0%
보통	27.3%	23.1%	13.6%	27.0%	32.7%	35.1%	14.5%	11.1%	0.0%
다소 만족	56.8%	61.5%	50.0%	48.6%	49.0%	56.8%	71.0%	72.2%	100.0%
매우 만족	9.1%	3.8%	22.7%	10.8%	4.1%	8.1%	8.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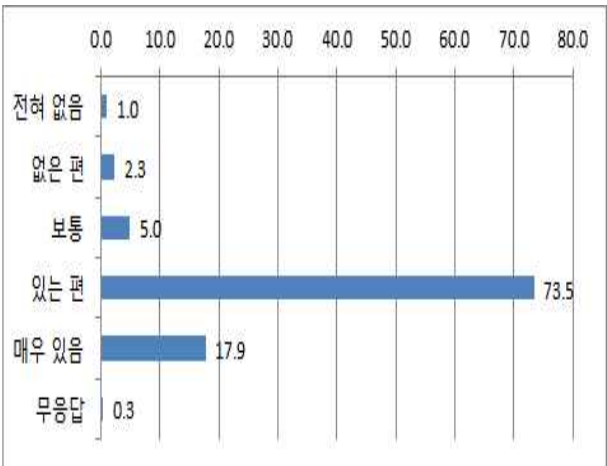


□ 지역별로 인증기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제주가 100% 만족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 79.1%, 경남 72.2%, 충북 72.7%, 경기 65.9%, 강원 65.3%, 전남 64.9%, 충남 59.4%, 전북 53.1% bs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만족도에 대한 차이가 나타남

GAP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12. 귀하는 향후에 계속하여 GAP인증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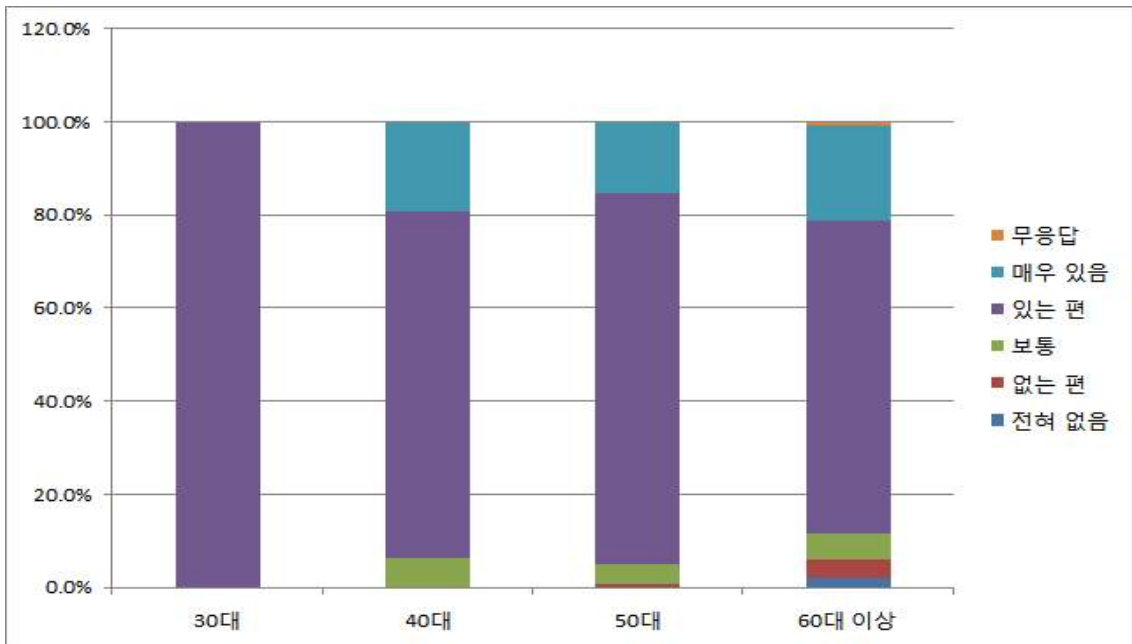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전혀 없음	3	1.0
2 없는 편	7	2.3
3 보통	15	5.0
4 있는 편	222	73.5
5 매우 있음	54	17.9
6 무응답	1	0.3
합계	302	100%



- 향후 지속적인 GAP 제도 참여의향 조사 결과 참여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1%(참여의사가 있는 편 73.5% + 매우 있음 17.9%)로 나타남
- 대다수의 참여 농민들이 GAP참여만족도 53.3%에 비해 높은 참여의지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 만족도와는 별개로 GAP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교차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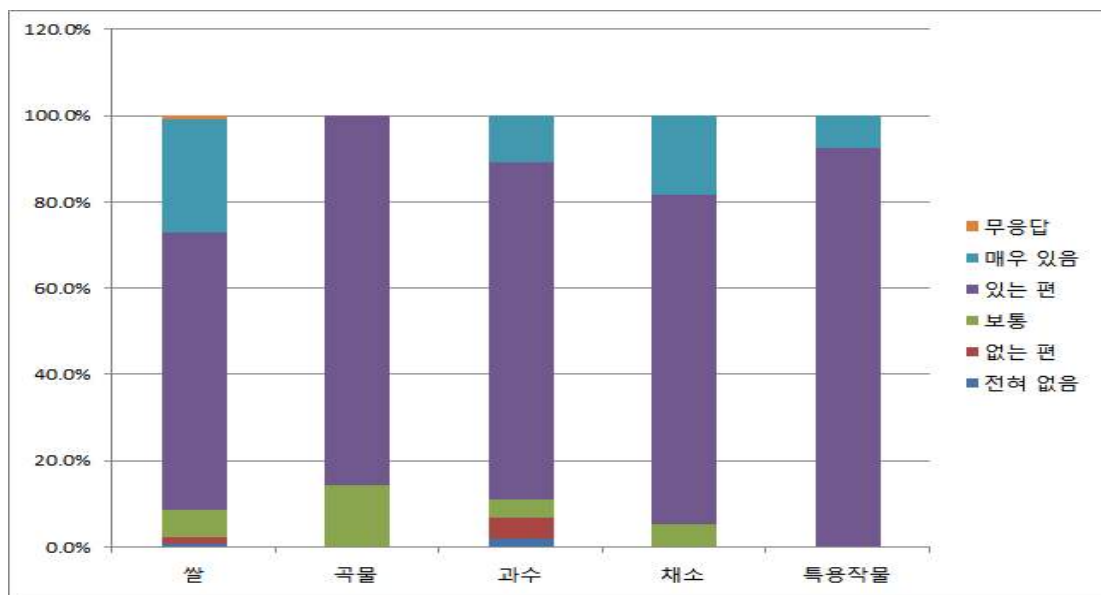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혀 없음	0.0%	0.0%	0.0%	2.0%
없는 편	0.0%	0.0%	0.8%	4.1%
보통	0.0%	6.5%	4.2%	5.4%
있는 편	100.0%	74.2%	79.7%	67.3%
매우 있음	0.0%	19.4%	15.3%	20.4%
무응답	0.0%	0.0%	0.0%	0.7%



- 연령별 참여의지 분석 결과 30대는 100%(참여의사가 있는편-100%)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50대는 95%(참여의사가 있는편 79.7% + 매우 있음15.3%), 40대는 93.4%(참여의사가 있는편 74.2% + 매우 있음 19.4%), 60대 이상은 87.7%(참여의사가 있는편 67.3% + 매우 있음 20.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 부정응답의 경우 30~40대의 경우 0%로 나타났으며 50대는 0.8%(없는 편-0.8%), 60대 이상 6.1%(없는편 4.1% + 전혀 없음 2.0%)로 나타나 차이가 크지는 않으나 연령대가 적을수록 GAP 참여 필요성을 높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차분석 - 작목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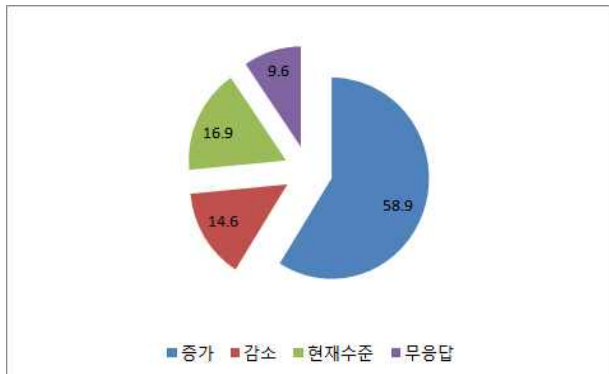
	쌀	곡물	과수	채소	특용작물
전혀 없음	0.8%	0.0%	2.0%	0.0%	0.0%
없는 편	1.6%	0.0%	5.0%	0.0%	0.0%
보통	6.2%	14.3%	4.0%	5.3%	0.0%
있는 편	64.3%	85.7%	78.2%	76.3%	92.6%
매우 있음	26.4%	0.0%	10.9%	18.4%	7.4%
무응답	0.8%	0.0%	0.0%	0.0%	0.0%



- 작목별 참여의지 분석 결과 특용작물은 100%(참여의사가 있는 편 92.6% + 매우 있음 7.4%)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채소류는 94.7%(참여의사가 있는 편 76.3% + 매우 있음 18.4%), 쌀 90.7%(참여의사가 있는 편 64.3% + 매우 있음 26.4%), 과수 89.1%(참여의사가 있는 편 78.2% + 매우 있음 10.9%), 곡물 85.7%(참여의사가 있는 편-95.7%)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용작물, 곡물, 채소의 경우 부정응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쌀과 과수의 경우 각각 2.4%, 7%로, 크진 않지만 작목별로 GAP 필요성에 대한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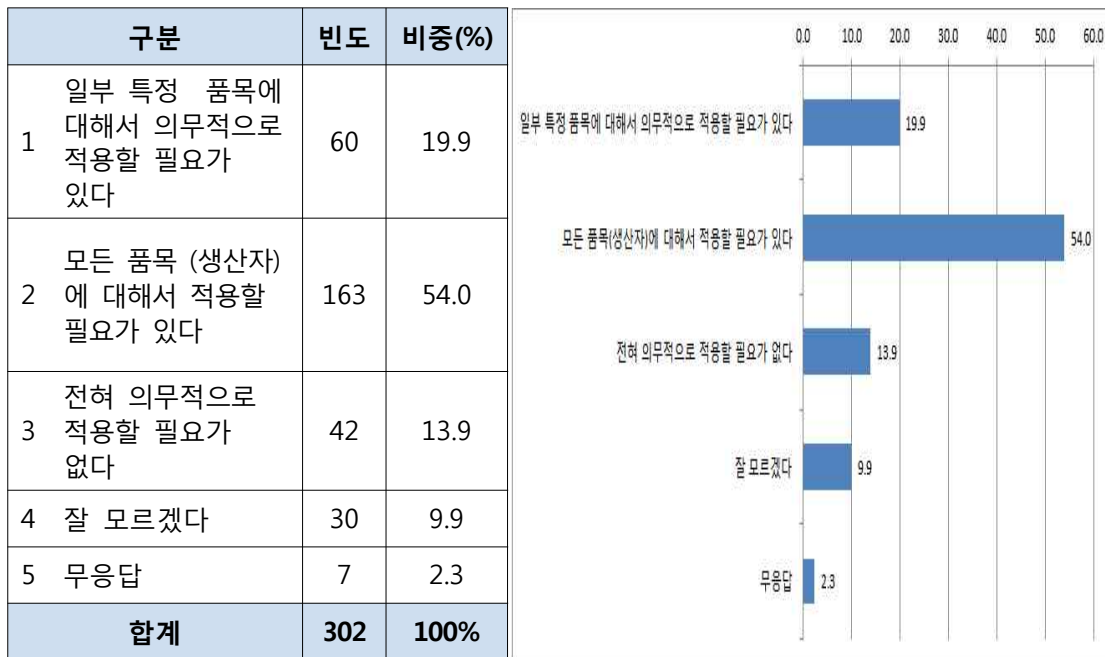
13. 귀하는 향후 5년 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GAP농산물의 판매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증가	178	58.9
2 감소	44	14.6
3 현재수준	51	16.9
4 무응답	29	9.6
합계	302	100%



- 과반수가 넘는 58.9%의 응답자가 5년 후 GAP 농산물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현재 수준으로 유지가 16.9%,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14.6%로 나타남
-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예상하는 평균 판매증가율은 46.78%였으며,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의 예상 평균판매 감소율을 29.5%로 나타나, 많은 농민들이 GAP 농산물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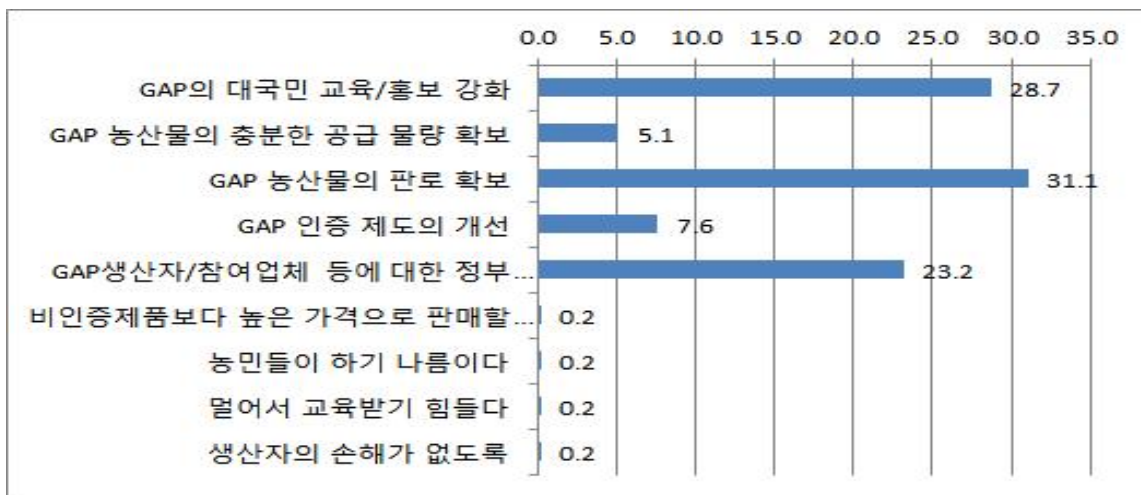
14.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을 모든 품목(생산자)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GAP 인증 의무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모든 품목에 대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가 5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가 19.9%, ‘전혀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가 13.9%, ‘잘 모르겠다’ 9.9%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모든 품목 또는 일부품목에 의무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73.9%의 농민들이 동의하여 GAP 의무적용에 대해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음

15.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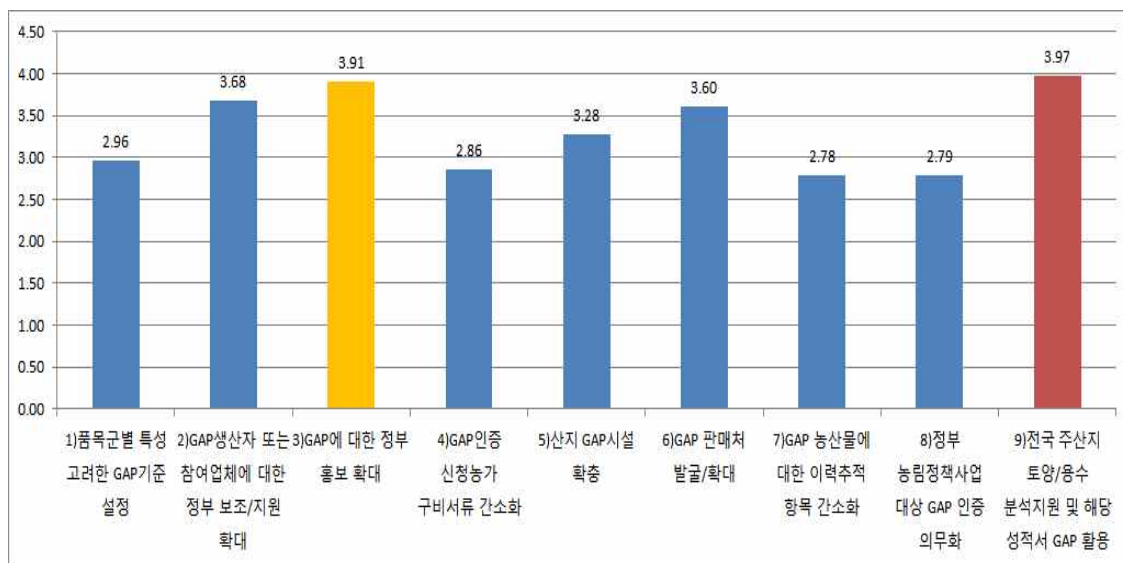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GAP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140	28.7
2 GAP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25	5.1
3 GAP 농산물의 판로 확보	152	31.1
4 GAP 인증 제도의 개선	37	7.6
5 GAP생산자/참여업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증대	113	23.2
6 비인증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필요	1	0.2
7 농민들이 하기 나름이다	1	0.2
8 멀어서 교육받기 힘들다	1	0.2
9 생산자의 손해가 없도록 해야함	1	0.2
10 무응답	17	3.5
합계	488	100%



□ GAP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문은 'GAP 농산물의 판로확보'가 31.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AP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28.7%, 'GAP 생산자/참여업체 등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 23.2%, 'GAP 인증제도 개선' 7.6%, 'GAP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물량 확보' 5.1% 순으로 높게 나타남

16.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비중(%)					평균 점수
	매우 불필요함 (1점)	불필요한 편 (2점)	보통 (3점)	필요한 편 (4점)	매우 필요 (5점)	
품목군별 특성 고려한 GAP기준 설정 (공통기준+품목군별 기준으로 구분)	0	4.0	21.5	64.9	5.6	2.96
GAP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확대	0	2.0	9.9	56.06	27.5	3.68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0	1.3	6.3	52.0	36.1	3.91
GAP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	1.7	7.9	22.2	52.6	11.6	2.86
산지 GAP시설 확충	0	3.0	14.2	65.2	12.3	3.28
GAP 판매처 발굴·확대	0	2.0	8.9	65.9	18.5	3.60
GAP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	0.7	9.6	212.2	53.0	9.3	2.78
정부 농림정책사업 대상 GAP인증 의무화	0.3	8.6	21.9	61.03	3.3	2.79
전국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지원 및 해당 성적서 GAP 활용	0	3.3	19.9	62.3	9.3	3.97



- GAP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전국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 지원 및 해당 성적서 GAP 활용’이 평균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가 평균 3.91점, ‘GAP 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확대’ 3.68점, ‘GAP 판매처 발굴/확대’ 3.60점, ‘산지 GAP시설 확충’ 3.28점으로 점수가 높게 나타남
- 이 외 ‘품목군별 특성을 고려한 GAP 기준설정(2.96점)’, ‘GAP 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2.86점)’, ‘정부 농림정책사업 대상 GAP 인증 의무화(2.79점)’, ‘GAP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2.78점)’로 모두 평점이 보통(3점) 아래로 나타나, 농민들이 해당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크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지 않는 것으로 보임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 설문응답자의 87.7%가 영농경력 10년 이상으로 설문에 참여한 GAP 인증농가들의 평균 영농경력이 오래된 것으로 나타남(영농경력 5년 이내 - 약 3.0%)
- 주 인증작목의 경우 쌀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과수 33.4%, 채소 12.6%, 특용작물 8.9% 순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연매출액)의 경우 1억원 이상이 24.2%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 농가평균소득 3,400만원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이 전체의 약 50%정도로, GAP 인증농가들의 경우 대부분 영농규모가 큰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으며 5,60대가 전체의 87.8%로 평균 연령대가 높은 편임
- GAP 최초 인증시기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다양하며, 최근 2년간 인증이 가장 많았음

- GAP 인증을 받은 가장 큰 이유로는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서가 60.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가 17.5%, 납품 거래업체의 요구가 10.3%로 나타나 대부분 경제적 이익 보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음
- 작목별로 살펴보았을 때 쌀, 곡물은 다른 작목에 비해 농산물을 납품 하는 거래업체의 요구로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가 높게 나타나, 작목별 로 인증이유에 대한 차이점이 조금씩 존재함
- 농산물 인증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과반수 이상이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지역별, 연령별, 작목별로 어려움을 느낀 정도에 차 이점이 있어 향후 정책수립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역별로 경기지역이 가장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충북, 경북 충 남, 제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의 경우 나이가 많을수록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응답하였으며, 작목 별의 경우 특용작물, 과수, 채소, 쌀, 곡물 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함
- 농산물 인증과정에서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하다는 응답과 인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가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 인증과정과 조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
- 농산물 유통비중으로는 대형유통업체가 30.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직거래, 도매시장, 농협 순으로 나타나, GAP 농산물의 경우 도매 시장보다 주로 유통업체나 직거래 비중이 높음(지역별, 작목별 특성에 따라 유통비중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
- GAP 제도 참여결과에 대한 만족도로는 과반수 이상(53.5%)이 만족하 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불만족하였다는 응답도 17.9%로 나타남
- 인증제도 만족이유로는 농산물안전성이 높아졌다는 응답이 60.5%로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산물 브랜드가치 향상이 18.1%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 농산물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에 대한 만족이 높게 나타남

- 가장 큰 GAP 인증이유였던 ‘안전한 농산물생산’이 60.6%였으므로, GAP 인증으로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GAP 제도 참여에 대한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인증에 따른 별다른 이익이 없는 것(53.7%)과 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것(13.0%)이 가장 높게 나타나, 인증을 통한 가격상승부분이 미미한 것에 대한 불만사항이 가장 많았음

2) GAP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 향후 지속적인 GAP 참여 의사로는 전체의 91%가 참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3%만이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여 GAP 인증유지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GAP참여만족도 53.3%에 비해 높은 참여의지(91%)를 나타내고 있어, 제도 만족도와는 별개로 GAP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 분석결과에서는 연령대가 적을수록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응답하여, 젊은 층에서 GAP 제도 필요성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작목별 분석결과에서도 특용작물, 채소류, 쌀, 과수, 곡물 순으로 참여의지가 높게 나타나, 작물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존재함
- GAP 인증 의무적용에 관해서는 농민들의 73%가 의무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모든 품목이 54.0%, 일부품목이 19.9%로 나타나, 대부분 의무적용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GAP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안으로는 판로확보(31%), GAP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28.7%), GAP 생산자/참여업체에 대한 정부지원 증대(23.2%)가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재 인증제도에 대한 개선보다는 농산물 판매를 위한 판로 및 소비자교육 등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GAP 제도 개선안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국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지원 및 해당 성적서 GAP 활용이 3.9점,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3.91점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전반적인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농민들이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GAP 제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향후 인증유지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남.
- 하지만 가격에 대한 불만사항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농산물 판로확보, 소비자교육 등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게 나타남.
- 또한 현재 GAP 인증절차와 인증제도에 대해서는 큰 불만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지역별/작목별로 인증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여 향후 차이점들을 고려한 정책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2. 미인증농가

생산단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적용 실태조사 (미인증농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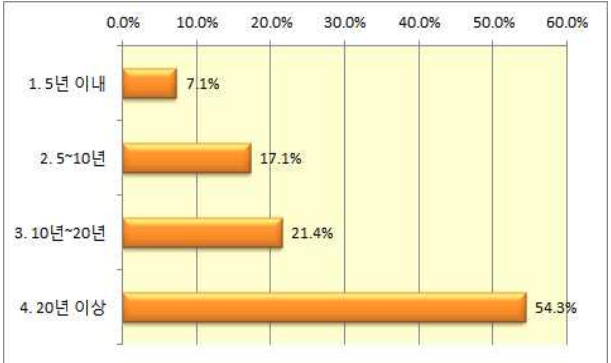
-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5.10.01.~2015.12.20
 - 설문대상 : GAP 미인증 농가
 - 설문내용 : GAP 미인증 현황, 향후 참여의향 및 개선방안 조사
 - 응 답 자 : 73농가

일반 현황 질문

1. 영농활동 일반현황

1-1 영농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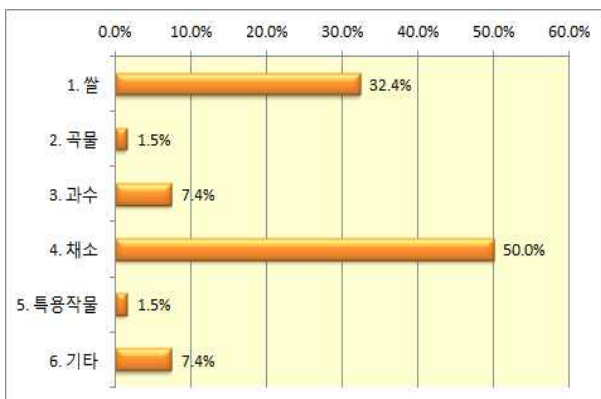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5년 이내	5	7.1%
2 5~10년 미만	12	17.1%
3 10~20년 미만	15	21.4%
4 20년 이상	38	54.3%
합계	70	100%



- 설문에 참여한 농가들의 54.3%가 영농경력이 20년 이상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10~20년 미만 21.4%, 5~10년 미만 17.1%, 5년 이내 7.1%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75.7%가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으로 나타나, 대부분 영농경력이 오래된 농가들이 설문에 많이 참여하였음

1-2 주 재배 작목

구분	빈도	비중(%)
1 쌀	22	32.4%
2 곡물	1	1.5%
3 과수	5	7.4%
4 채소	34	50.0%
5 특용작물	1	1.5%
6 기타	5	7.4%
합계	68	100.0%



- 농가들이 많이 재배하고 있는 작목으로는 채소가 50.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쌀 32.4%, 과수/기타가 각각 7.4%, 곡물과 특용작물이 각각 1.5% 순으로 나타남

1-3 영농규모(연매출액)

구분	빈도	비중(%)
1 1천만원 미만	0	0.0%
2 1천만원~3천만원 미만	12	28.6%
3 3천만원~5천만원 미만	15	35.7%
4 5천만원~8천만원 미만	15	35.7%
5 8천만원~1억원 미만	0	0.0%
6 1억원 이상	0	0.0%
합계	4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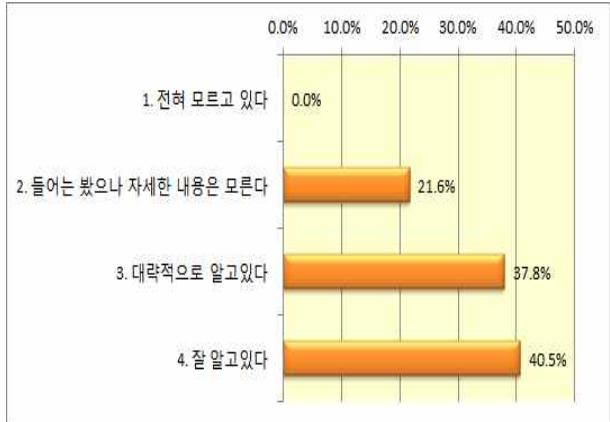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연평균소득은 3천만원~5천만원 미만, 5천만원~8천만원 미만이 각각 35.7%로 가장 높았으며, 1천만원~3천만원 28.6%로 나타남
-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층과 연평균 8천만원 이상의 저소득층은 0%였으며, 전체의 71.4%가 3천만원~8천만원으로 나타나. 중간소득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GAP인증실태 설문

2. 귀하는 정부의 농산물 인증제도 중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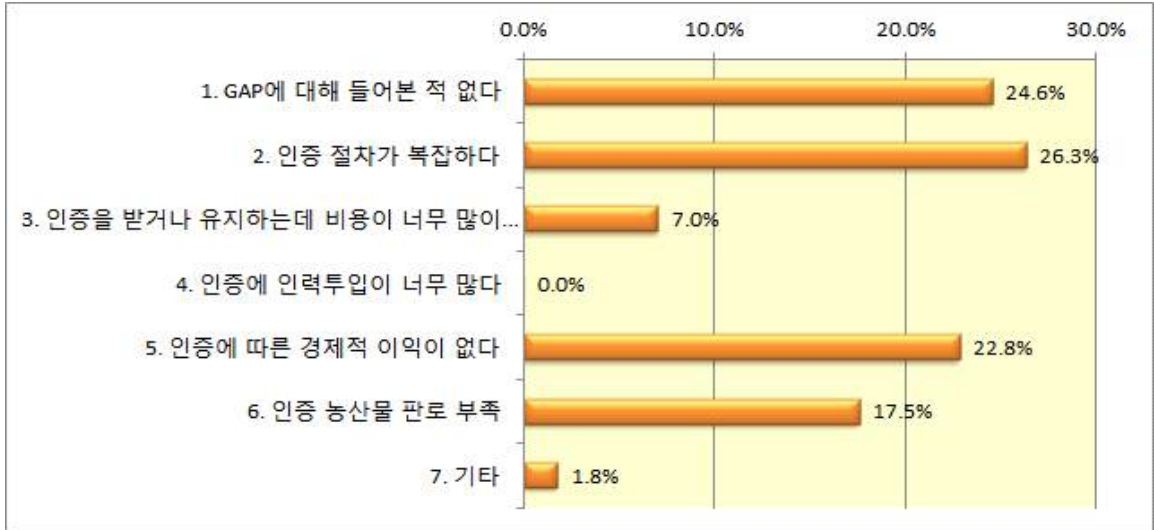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전혀 모르고 있다.	0	0.0%
2 들어는 봤으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8	21.6%
3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14	37.8%
4 잘 알고 있다	15	40.5%
합계	37	100%



- 미인증 농가들 중 GAP제도에 대하여 들어는 보았다고 응답한 농가들이 전체의 100%로 나타남
- 그 중 78.3%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40.5%가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농가들이 GAP에 대하여 어느정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빈도	비중(%)
1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14	24.6%
2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	15	26.3%
3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4	7.0%
4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0	0.0%
5 인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서	13	22.8%
6 인증 농산물의 판로가 부족해서	10	17.5%
7 기타 ()	1	1.8%
합계	5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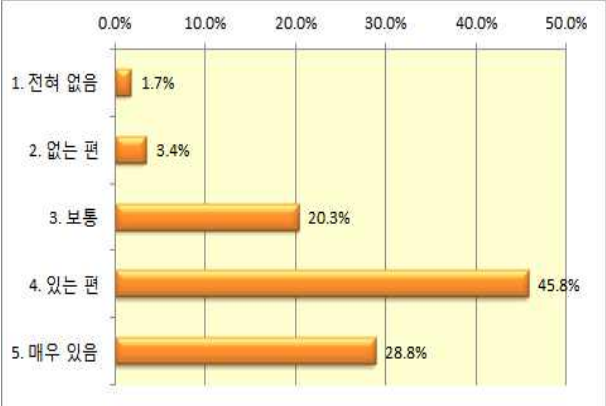


- 농가들이 GAP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하다’가 2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AP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24.6%, ‘인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없다’ 22.8%, ‘인증 농산물 판로부족’ 17.5%,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7.0%, ‘기타’ 1.8% 순으로 나타남
- 전체적으로 비용/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47.3%로 (경제적 이익 + 판로 부족 + 인증 유지비용) 경제적 이유로 인증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존재함

GAP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4. 귀하는 향후에 계속하여 GAP인증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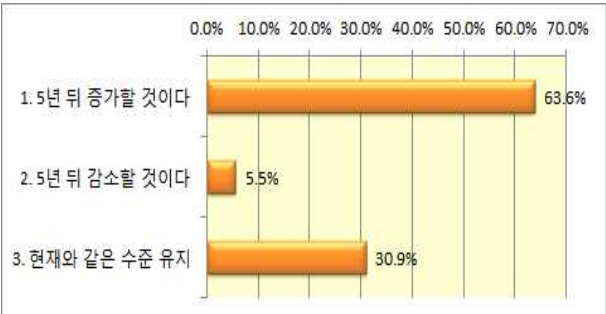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전혀 없음	1	1.7%
2 없는 편	2	3.4%
3 보통	12	20.3%
4 있는 편	27	45.8%
5 매우 있음	17	28.8%
합계	59	100%



- 미인증 농가들의 향후 GAP 참여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4.8%(참여할 의향이 있는 편 45.8% + 매우 있음 28.8%), 참여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5.1%(참여할 의향이 없는 편 3.4%, 전혀 없음 1.7%)로 나타남
-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을 매우 낮게 나오고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높아, 대부분의 농민들이 GAP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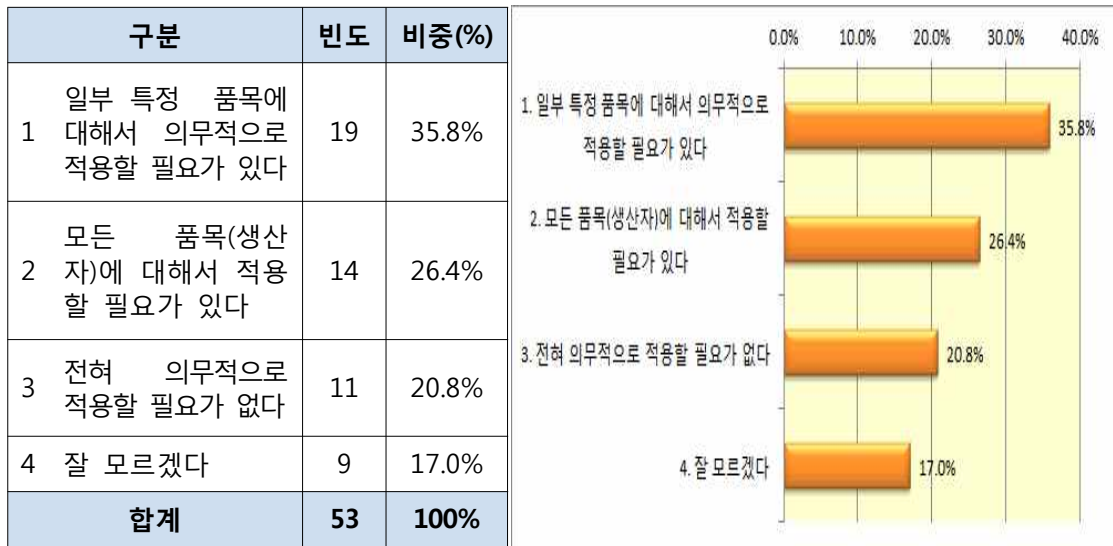
5. 귀하는 향후 5년 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GAP농산물의 판매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증가	35	63.6%
2 감소	3	5.5%
3 현재수준	17	30.9%
합계	55	100%



- 우리나라 GAP시장에 대한 전망으로는 63.6%의 농가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며, 현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응답은 30.9%,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5%로 대부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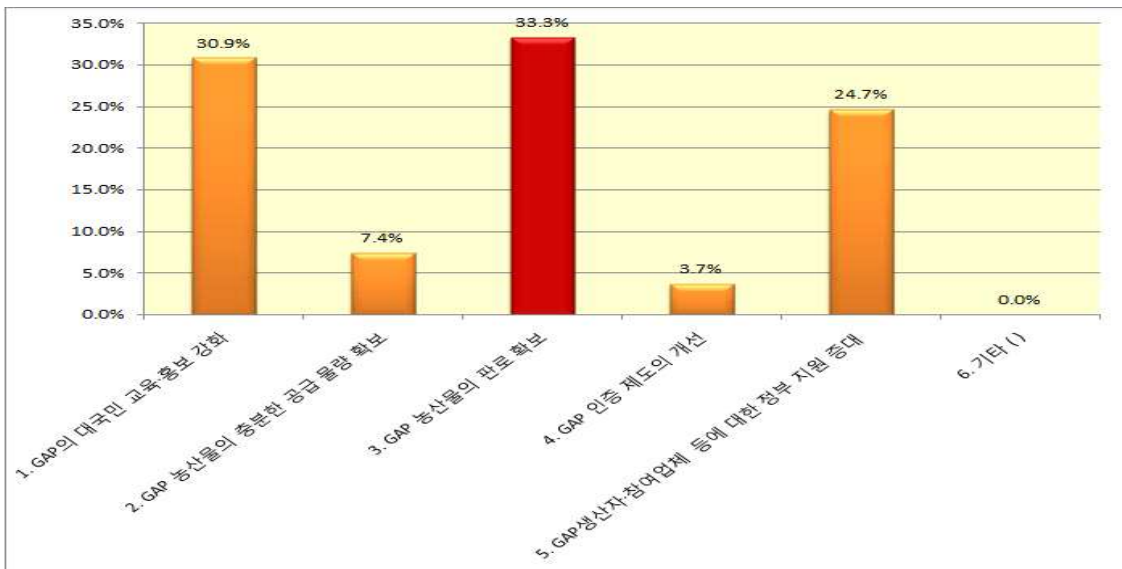
6.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을 모든 품목(생산자)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 GAP 의무적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가 35.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26.4%, ‘전혀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20.8%, ‘잘 모르겠다’ 17.0%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모든 품목 또는 일부 품목에 의무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62.2%의 농민들이 동의하여 GAP 의무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7.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빈도	비중(%)
1 GAP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25	30.9%
2 GAP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6	7.4%
3 GAP 농산물의 판로 확보	27	33.3%
4 GAP 인증 제도의 개선	3	3.7%
5 GAP생산자/참여업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증대	20	24.7%
6 비인증제품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 필요	0	0.0%
합계	8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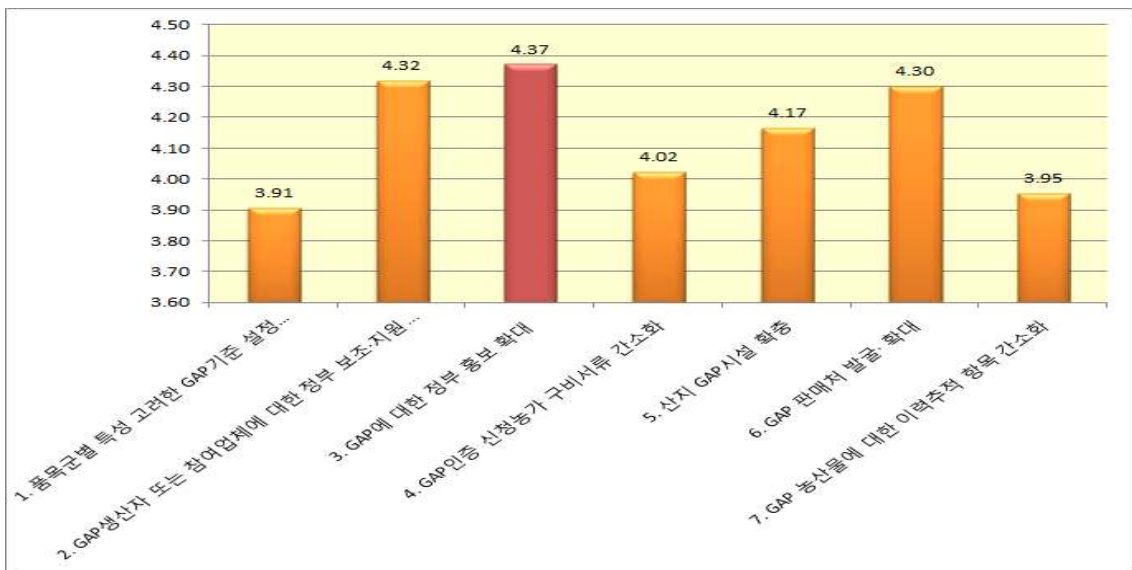


- GAP 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농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항으로는 ‘GAP 농산물 판로확보’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GAP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30.9%, ‘GAP 생산자/참여업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증대 24.7%’, ‘GAP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물량확보’ 7.4%, ‘GAP 인증제도의 개선’ 3.7%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농민들이 판로확보와 소비자 홍보, 정부 지원확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음

8.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구분	비중(%)					평균
	매우 불필요함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함	
품목군별 특성 고려한 GAP기준 설정 (공통기준+품목군별 기준으로 구분)	0.0%	4.7%	23.3%	48.8%	23.3%	3.91
GAP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확대	0.0%	7.0%	9.3%	30.2%	53.5%	4.32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0.0%	7.0%	9.3%	23.3%	60.5%	4.37
GAP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	0.0%	6.7%	26.7%	24.4%	42.2%	4.02
산지 GAP시설 확충	0.0%	4.8%	16.7%	35.7%	42.9%	4.17
GAP 판매처 발굴·확대	4.7%	2.3%	9.3%	25.6%	58.1%	4.30
GAP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	4.5%	0.0%	20.5%	45.5%	29.5%	3.95



- GAP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가 평균 4.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GAP 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보조/지원 확대’ 4.32점, ‘GAP 판매처 발굴/확대’ 4.30점, ‘산지 GAP시설 확충’ 4.17점, ‘GAP 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 4.02점, ‘GAP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 3.95점, ‘품목군별 특성을 고려한 GAP 기준 설정’ 3.91점 순으로 나타남
- 2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평균 4점(필요함)이상으로 나타나, 제안된 대부분의 개선안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특히 정부차원의 홍보 및 지원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음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 설문 응답자의 75.7%가 영농경력 10년이상으로 대부분 영농경력이 오래되었으며 주 재배작목은 채소, 쌀, 과수, 기타, 특용작물, 곡물 순으로 나타남
- 영농규모는 모든 응답자가 1천만원 ~ 8천만원이었으며 특히 3천만원~8천만원이 71.4%로 대다수를 차지함

2) GAP 인증실태

- 미인증농가들의 100%가 최소 GAP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중 78.3%가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농가들이 GAP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GAP 인증을 받지 않은 주요요인으로는 인증절차가 복잡해서, GAP에 대해 들어본 적 없다, 경제적 이익이 없다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전반적으로 비용/판매와 관련된 부분이 47.3%로 경제적 이유로 응답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으며, GAP 절차의 복잡함과 이해 부족에 대한 부분도 많아 향후 GAP 이해를 위한 농가교육 및 홍보활동과 인증절차에 대한 교육지원 또는 절차간소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GAP 인증 제도에 대한 인식

- 미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GAP 참여의향 조사결과 전체의 74.8%가 참여할 의사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여 참여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남
 -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비율은 5.1%로 매우 낮은 편임
 - 특히 참여하겠다는 비율 74.8%는 앞선 GAP 인식설문에서 GAP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인 78.3%와 비교하여 보면, GAP에 대해 알고 있는 농민들이 대다수 참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함
- 또한 향후 GAP 인증 의무화에 대한 설문결과 과반수가 넘는 62.2%가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며 반대의견은 20.8%로 나타나 미인증농가들도 의무적용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는 편이었음
- GAP 제도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항으로는 농산물 판로,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GAP생산자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증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선정됨
- GAP 개선안의 경우 GAP에 대한 정부홍보확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정부보조/지원 확대, 판매처 발굴/확대, 산지시설확충, GAP인증신청 및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가 4점 이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함
 - 인증신청 서류 및 이력추적 항목간소화의 경우, GAP 인증을 받지 않는 이

유인 ‘인증절차가 복잡해서’와 연관되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임

- 또한 함께 실시된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인증농가에 비해 미인증농가들이 개선안에 대한 전체적인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미인증농가들이 GAP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전체적으로 미인증농가의 경우 GAP 인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나 절차의 복잡함,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대부분 GAP에 참여할 의사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그를 위한 정부차원의 GAP 판로확보, 생산자 지원 및 소비자 홍보 등이 시행되어 GAP 농산물 시장이 확대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3. 소비자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 설문조사 개요
 - 일 시 : 2015.12.01.~2015.12.20
 - 설문대상 : 일반 소비자
 - 설문내용 : GAP농산물 구매여부 및 GAP 인식 현황 조사
 - 응 답 자 : 200명

일반 현황 질문

1. 소비자 일반현황

1-1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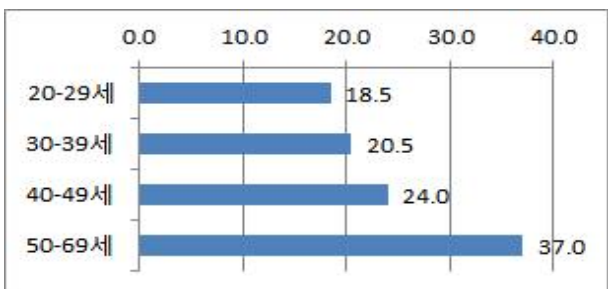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남자	96	48.0
2 여자	104	52.0
합계	200	100%



□ 설문에 참여한 소비자들의 52%가 여자라고 응답하였으며, 남자는 48%로 나타남

1-2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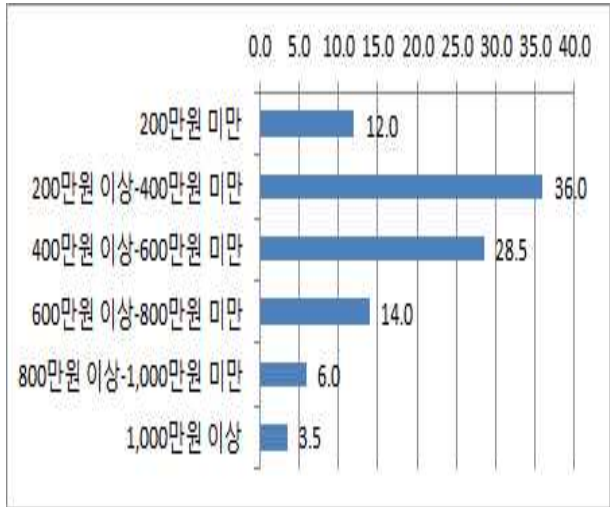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20-29세	37	18.5
2 30-39세	41	20.5
3 40-49세	48	24.0
4 50-69세	74	37.0
합계	200	100%



□ 응답자 연령으로는 50~69세가 3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49세 24%, 30~39세 20.5%, 20~29세 18.5% 순으로 높게 나타남

1-3 평균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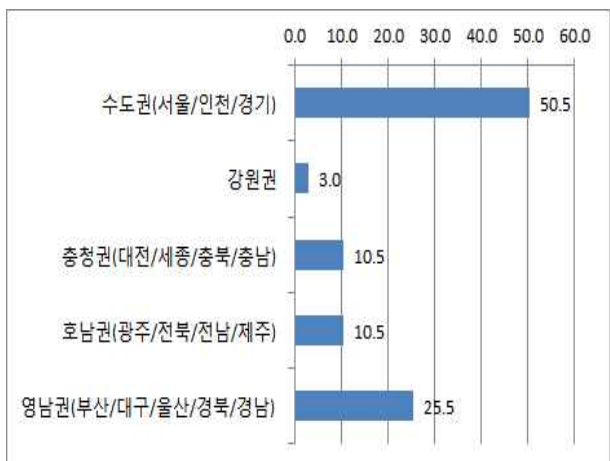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200만원 미만	24	12.0
2 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72	36.0
3 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57	28.5
4 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28	14.0
5 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12	6.0
6 1,000만원 이상	7	3.5
합계	200	100%



- 응답자 평균수입의 경우 월 200만원 ~ 400만원 미만이 3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00만원 ~ 600만원 28.5%, 600만원 ~ 800만원 14%, 200만원 미만 1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체 응답자의 64.5%가 월 200 ~ 600만원 사이의 평균수입을 올리고 있음

1-4 거주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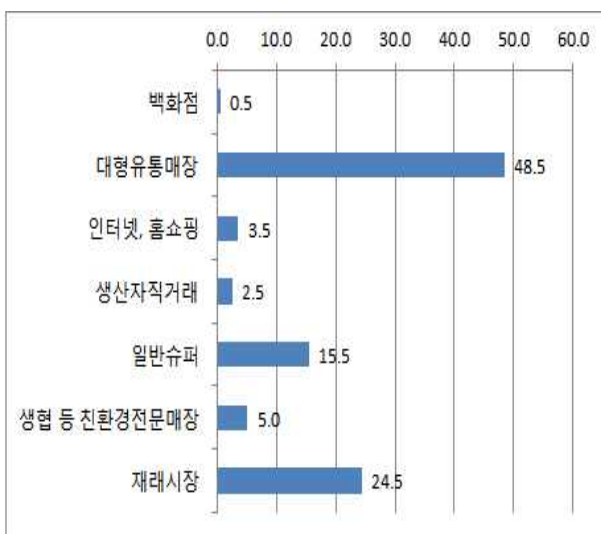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1	50.5
2 강원권	6	3.0
3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21	10.5
4 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21	10.5
5 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51	25.5
합계	200	100%



- 응답자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25.5%, 충청권과 호남권이 각각 10.5%, 강원권 3%로 순으로 나타남

1-5 농산물 구입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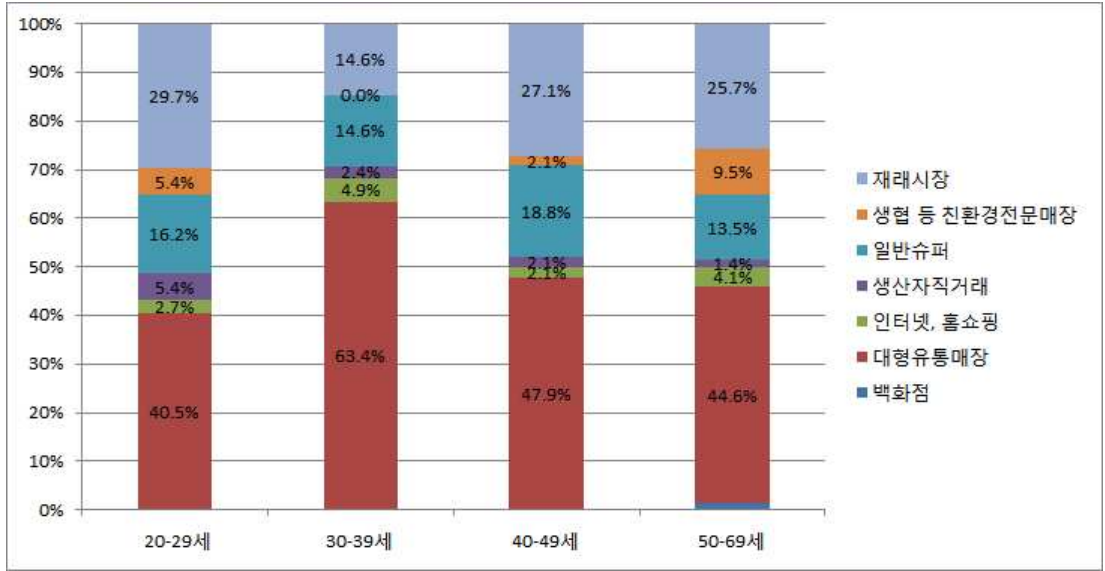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백화점	1	0.5
2 대형유통매장	97	48.5
3 인터넷, 홈쇼핑	7	3.5
4 생산자직거래	5	2.5
5 일반슈퍼	31	15.5
6 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10	5.0
7 재래시장	49	24.5
합계	200	100%



- 평소 농산물을 구입하는 장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대형유통매장이 4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재래시장 24.5%, 일반슈퍼 15.5%, 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5.0%, 인터넷 및 홈쇼핑 3.5%, 생산자 직거래 2.5%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대형유통매장 및 슈퍼가 전체의 64%로 나타나,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들이 공산품을 함께 판매하는 곳에서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음

*교차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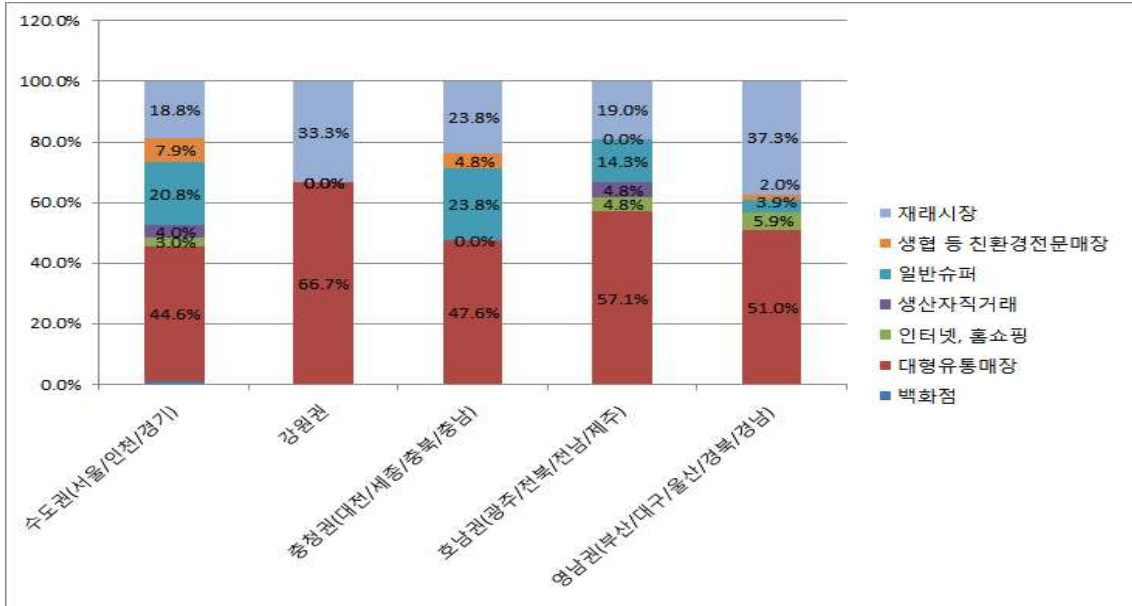
	20-29세	30-39세	40-49세	50-69세
백화점	0.0%	0.0%	0.0%	1.4%
대형유통매장	40.5%	63.4%	47.9%	44.6%
인터넷, 홈쇼핑	2.7%	4.9%	2.1%	4.1%
생산자직거래	5.4%	2.4%	2.1%	1.4%
일반슈퍼	16.2%	14.6%	18.8%	13.5%
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5.4%	0.0%	2.1%	9.5%
재래시장	29.7%	14.6%	27.1%	25.7%



- 연령별 농산물 구입장소 분석 결과 전 연령대에서 대형유통매장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중에서도 30대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의 경우 대형유통매장이 40.5%로 전연령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재래시장 이용율은 29.7%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로 농산물을 구입하는 장소가 조금씩 다르게 나타남

*교차분석 -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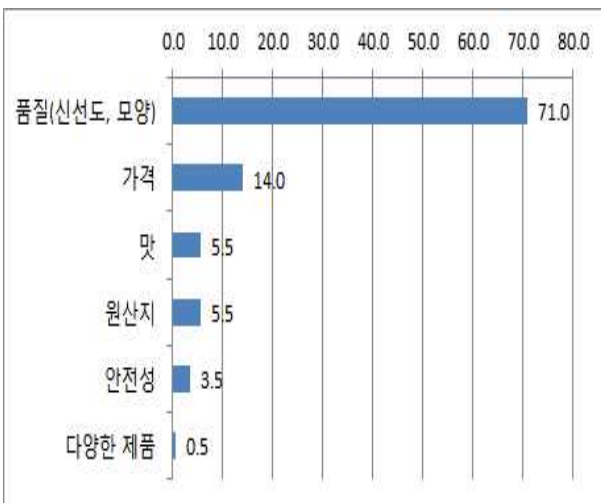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 전남/제주)	영남권 (부산/대구/울 산/경북/경남)
백화점	1.0%	0.0%	0.0%	0.0%	0.0%
대형유통매장	44.6%	66.7%	47.6%	57.1%	51.0%
인터넷,홈쇼핑	3.0%	0.0%	0.0%	4.8%	5.9%
생산자직거래	4.0%	0.0%	0.0%	4.8%	0.0%
일반슈퍼	20.8%	0.0%	23.8%	14.3%	3.9%
생협 등 친환경 경 전문매장	7.9%	0.0%	4.8%	0.0%	2.0%
재래시장	18.8%	33.3%	23.8%	19.0%	37.3%



- 지역별 농산물 구입장소 분석결과에서도 대형유통매장이 전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강원권이 66.7%, 호남권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인 경우 대형유통매장이 44.6%로 지역 중 가장 낮았으며 일반슈퍼, 재래시장, 친환경 매장 등 다양한 구입경로가 가장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영남권은 재래시장비율이 37.3%로 강원권 33.3%와 함께 지역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1-6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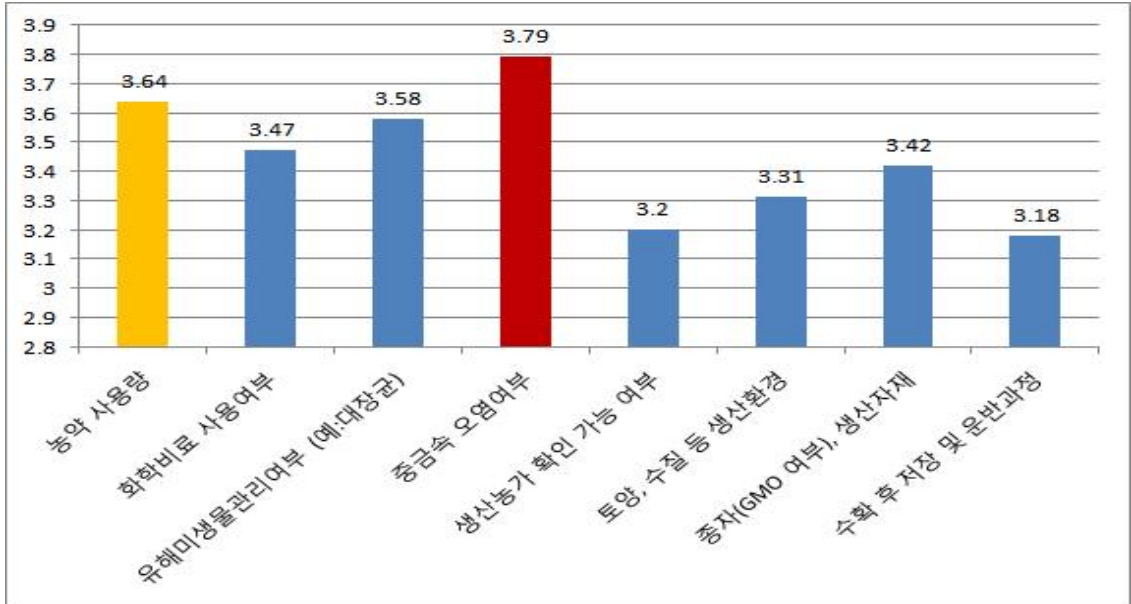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품질 (신선도, 모양)	142	71.0
2 가격	28	14.0
3 맛	11	5.5
4 원산지	11	5.5
5 안전성	7	3.5
6 다양한 제품	1	0.5
합계	200	100%



- 농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품질(신선도, 모양)이 7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 14.0%, 맛과 원산지가 각각 5.5%, 안전성 3.5%, 다양한 제품 0.5% 순으로 나타남

1-7 평소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안전성분야에 대한 관심정도

구분	비중(%)					평균 점수
	전혀 상관없다 (1점)	크게 상관없다 (2점)	보통 (3점)	어느정도 민감하다 (4점)	매우 민감하다 (5점)	
농약 사용량	0.0	7.0	22.0	48.5	22.5	3.64
화학비료 사용여부	0.0	10.0	33.5	43.5	13.0	3.47
유해미생물관리여부 (예:대장균)	0.0	6.0	30.0	46.0	18.0	3.58
중금속 오염여부	0.0	2.5	16.0	48.5	33.0	3.79
생산농가 확인 가능 여부	0.5	19.0	41.0	33.5	6.0	3.20
토양, 수질 등 생산환경	0.0	13.0	43.0	35.0	9.0	3.31
종자(GMO 여부), 생산자재 * GMO : 유전자 재조합	0.0	11.5	35.5	41.0	12.0	3.42
수확 후 저장 및 운반과정	0.5	13.0	55.0	25.5	6.0	3.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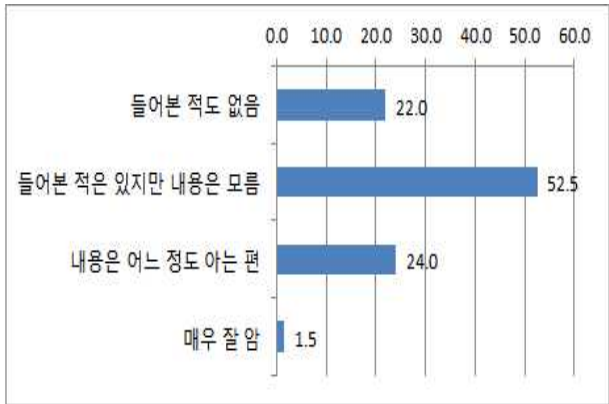


- 농산물 구입시 안전성분야에 대한 관심정도 분석결과 중금속 오염여부에 대한 평균점수가 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약사용량이 3.64점으로 나타남
- 중금속과 농약사용량을 제외한 화학비료, 미생물, 농가확인, 토양/수질환경, 종자(GMO), 수확 후 저장 및 운반과정에 대한 항목들도 전체 3점(보통)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안전성에 대한 관심을 고루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GAP 관련 일반 소비현황 질문

2. 귀하는 다음의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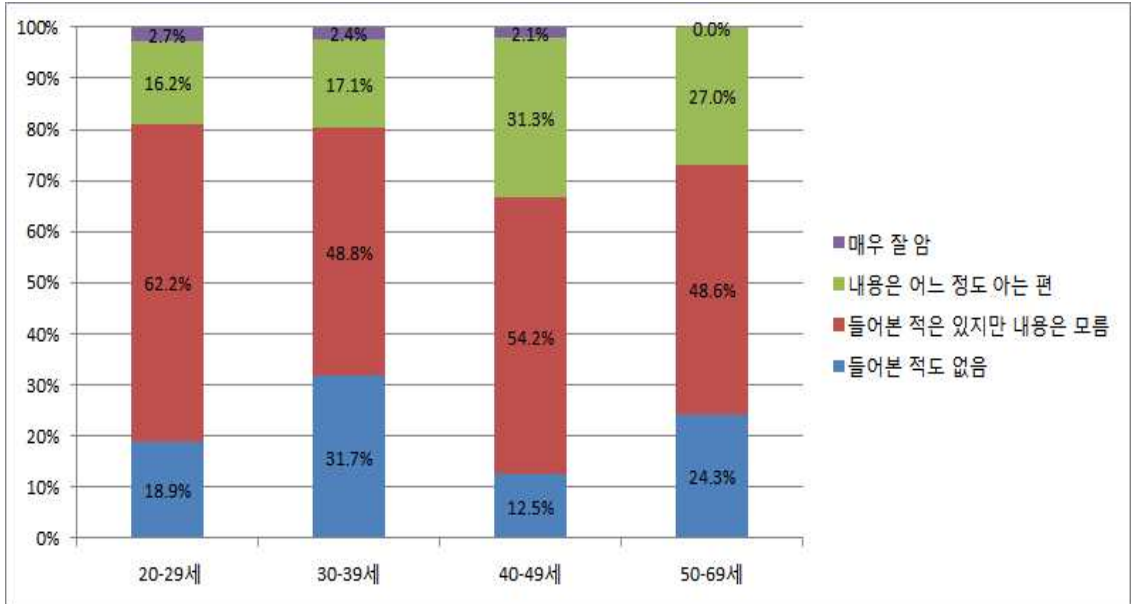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들어본 적도 없음	44	22.0
2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름	105	52.5
3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 편	48	24.0
4 매우 잘 압	3	1.5
합계	200	100%



- GAP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을 모름’이 5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편’ 24.0%, ‘들어본 적도 없음’ 22.0%, ‘매우 잘 압’ 1.5% 순으로 나타남
- GAP에 대해 들어본 적이라도 있다(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름 + 내용은 어느정도 아는 편 + 매우 잘 압) 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8%로 높게 나타났으나, 내용에 대해 안다(내용은 어느정도 아는 편 + 매우 잘 압) 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25.5%로 전체의 1/4수준으로 나타남

*교차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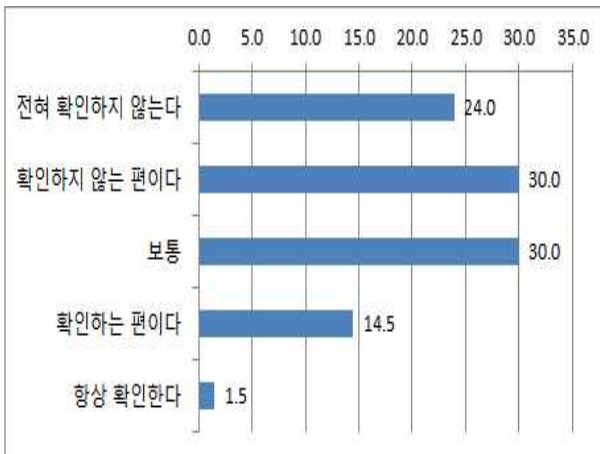
	20-29세	30-39세	40-49세	50-69세
들어본 적도 없음	18.9%	31.7%	12.5%	24.3%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름	62.2%	48.8%	54.2%	48.6%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 편	16.2%	17.1%	31.3%	27.0%
매우 잘 압	2.7%	2.4%	2.1%	0.0%



- GAP 인식에 대한 연령별 분석결과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름 + 내용은 어느정도 아는 편 + 매우 잘 암) 라고 응답한 비율은 40대가 87.5%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81.1%, 50대 이상 75.7%, 30대 68.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GAP 내용에 대해 안다(내용은 어느정도 아는 편 + 매우 잘 암) 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40대가 33.4%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27.0%, 30대 19.5%, 20대 18.9%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대 중에서 40대가 GAP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의 경우 GAP에 대해 자주 접하여 들어본 적은 많으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3. 귀하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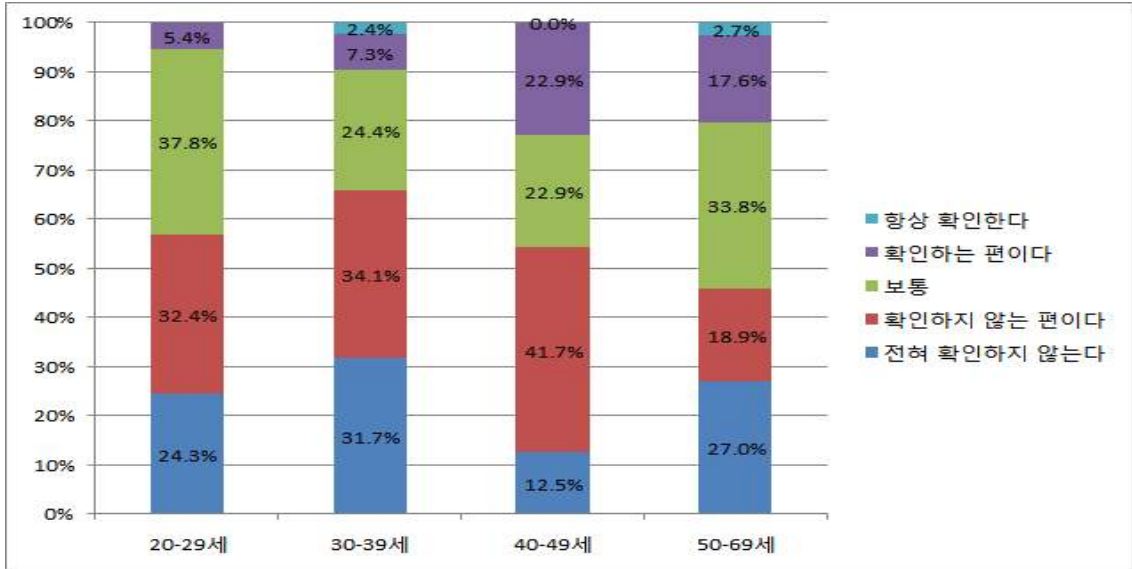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48	24.0
2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60	30.0
3 보통	60	30.0
4 확인하는 편이다	29	14.5
5 항상 확인한다	3	1.5
합계	200	100%



- 농산물 구입시 GAP 인증 확인여부 설문 결과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 각각 3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24.0%, ‘확인하는 편이다’ 14.5%, 항상 확인한다 1.5% 순으로 나타남
- GAP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하는 비중이 전체의 16%(확인하는 편이다 14.5% + 항상 확인한다 1.5%)로 대부분 농축산물 구입시 GAP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교차분석 - 연령별

	20-29세	30-39세	40-49세	50-69세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24.3%	31.7%	12.5%	27.0%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32.4%	34.1%	41.7%	18.9%
보통	37.8%	24.4%	22.9%	33.8%
확인하는 편이다	5.4%	7.3%	22.9%	17.6%
항상 확인한다	0.0%	2.4%	0.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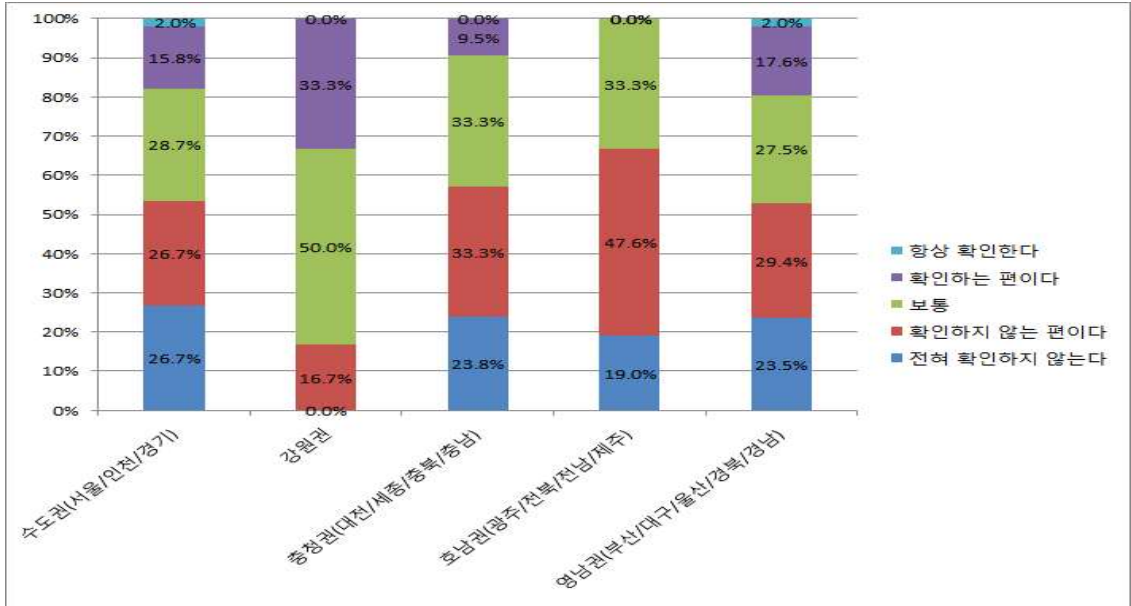


□ 연령별 교차분석 결과 40대가 22.9%로 농산물 구입 시 GAP 여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0대 이상 20.3%, 30대 9.7%, 20대 5.4%로 나타남

□ 이는 문항 2번의 GAP 제도 인식설문에서 GAP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연령대 순과 동일하게 나타나며, GAP 제도에 대한 정보가 실제 구매시 정보확인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됨

*교차분석 - 지역별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 전남/제주)	영남권 (부산/대구/울 산/경북/경남)
전혀 확인하 지 않는다	26.7%	0.0%	23.8%	19.0%	23.5%
확인하지 않 는 편이다	26.7%	16.7%	33.3%	47.6%	29.4%
보통	28.7%	50.0%	33.3%	33.3%	27.5%
확인하는 편 이다	15.8%	33.3%	9.5%	0.0%	17.6%
항상 확인한다	2.0%	0.0%	0.0%	0.0%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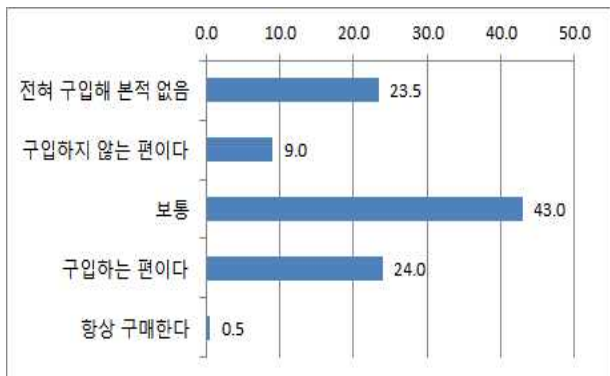


□ 지역별 교차분석 결과 강원지역에서 33.3%로 농산물 구입 시 GAP 여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19.6%, 수도권 17.8%, 충청권 9.5%, 호남권 0.0% 순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4. 다음은 귀하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구입경험과 관련된 설문입니다.

4-1.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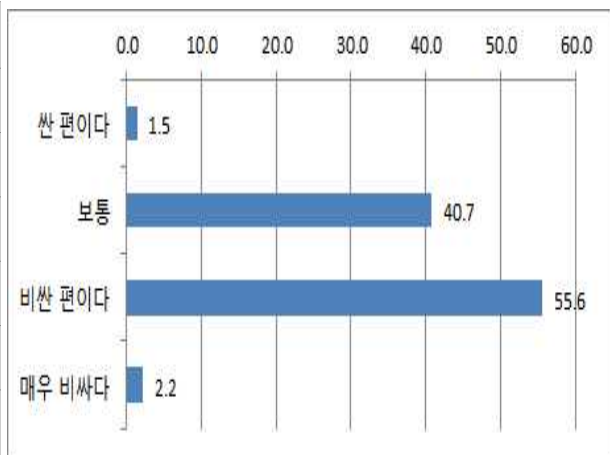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전혀 구입해 본적 없음	47	23.5
2 구입하지 않는 편이다	18	9.0
3 보통	86	43.0
4 구입하는 편이다	48	24.0
5 항상 구매한다	1	0.5
합계	200	100%



- 전체 응답자 중 24.5%가 GAP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32.5%가 구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구매한다는 응답에도 항상 구매한다는 0.5%로 매우 낮게 나타나 일정하게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구입하지 않는 응답자들의 경우는 전혀 구입해 본 적이 없음이 23.5%로 나타나 구입한 경험이 있으나 구입하지 않는 소비자들보다 한번도 구입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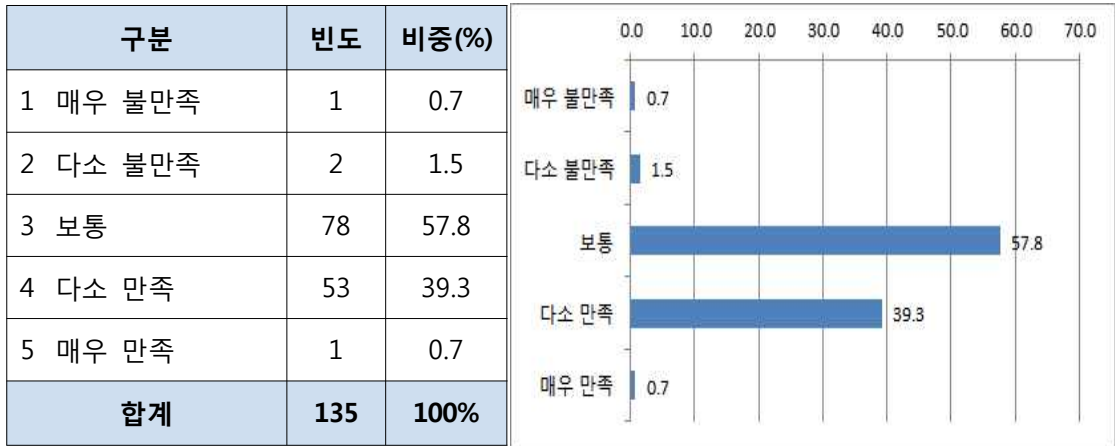
4-2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매우 싼 편이다	0	0.0
2 싼 편이다	2	1.5
3 보통	55	40.7
4 비싼 편이다	75	55.6
5 매우 비싸다	3	2.2
합계	135	100%



- GAP 농산물 가격 만족도에 대한 설문결과 ‘비싼 편’이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 40.7%, ‘매우 비싸다’ 2.2%, ‘싼 편이다’ 1.5%, ‘매우 싼 편이다’ 0.0% 순으로 나타남
- GAP를 구입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의 과반수 이상(57.8%)이 현재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42.2%는 가격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가격에 대한 의견이 거의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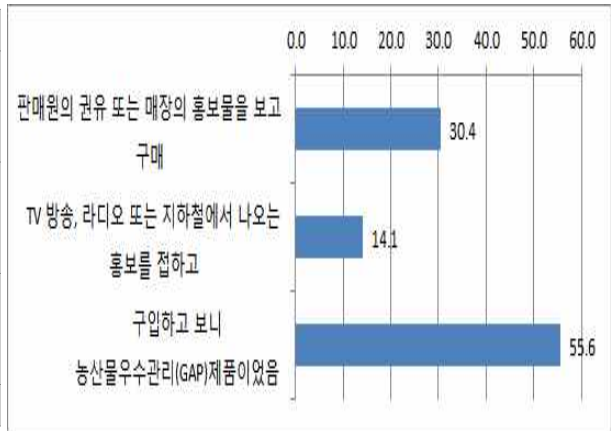
4-3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GAP 농산물 품질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보통이 5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다소 만족 39.3%, 다소 불만족 1.5%, 매우 만족/매우 불만족이 각각 0.7%로 나타남
- 품질에 불만족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2.2%로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은 매우 소량으로 나타나, 대부분 품질에 있어 큰 불만을 가지고 있지 않음

4-4.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주로 어떤 경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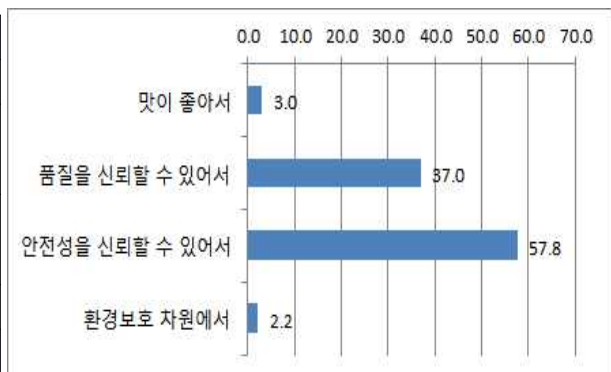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판매원의 권유 또는 매장의 홍보물을 보고 구매	41	30.4
2 TV 방송, 라디오 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홍보를 접하고 구입하고 보니	19	14.1
3 농산물우수관리(GAP)제품이었음	75	55.6
합계	135	100%



- GAP 농산물 구입 경로는 ‘구입하고 보니 농산물 우수관리제품이었음’이 55.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판매원의 권유 또는 매장의 홍보물을 보고 구매’ 30.4%, ‘TV 방송, 라디오 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홍보를 접하고’ 14.% 순으로 나타남
- 구입하고 보니 GAP농산물이었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대부분 GAP 농산물을 찾아 구입하는 것이 아닌, 우연히 구입하게 된 경우가 다수로 향후 GAP 농산물에 대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4-5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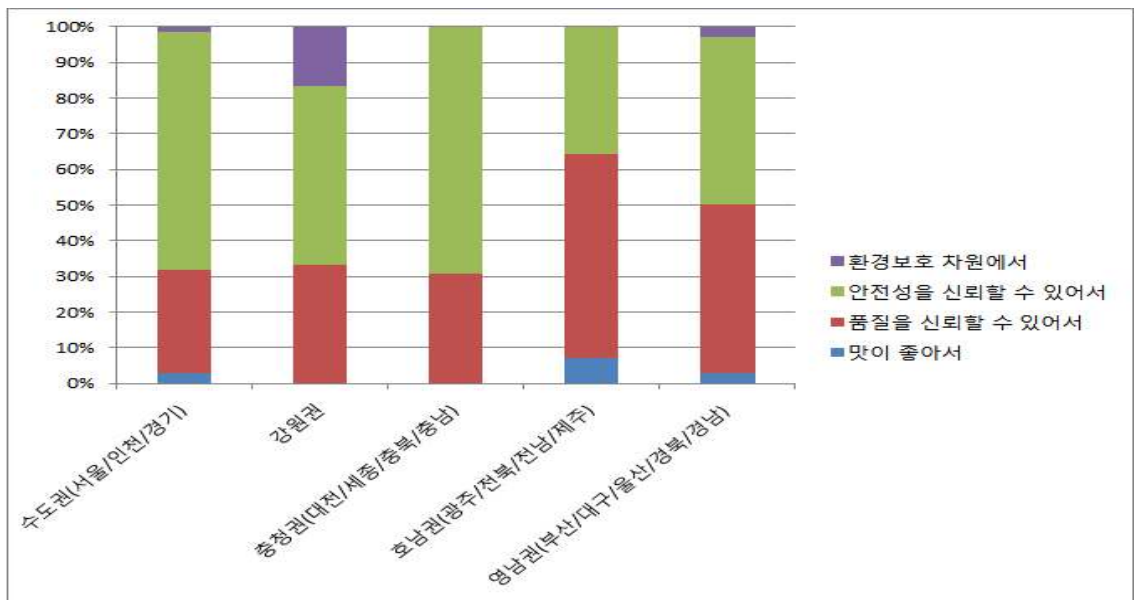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맛이 좋아서	4	3.0
2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서	50	37.0
3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78	57.8
4 환경보호 차원에서	3	2.2
합계	135	100%



- 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품질은 신뢰할 수 있어서’ 37.0%, ‘맛이 좋아서’ 3.0%, ‘환경보호 차원에서’ 2.2% 순으로 나타남
-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구매한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보아,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이 소비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교차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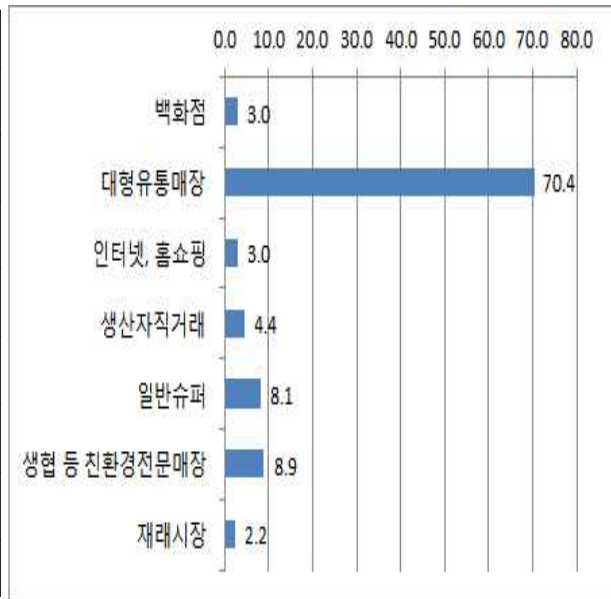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인천/ 경기)	강원권	충청권 (대전/세종/ 충북/충남)	호남권 (광주/전북/ 전남/제주)	영남권 (부산/대구/ 울산/경북/경 남)
맛이 좋아서	3.0%	0.0%	0.0%	7.1%	2.8%
품질은 신뢰 할 수 있어서	28.8%	33.3%	30.8%	57.1%	47.2%
안전성을 신뢰 할 수 있어서	66.7%	50.0%	69.2%	35.7%	47.2%
환경보호 차 원에서	1.5%	16.7%	0.0%	0.0%	2.8%



- 지역별 분석 결과 호남/영남의 경우 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각각 57.1%, 4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의 경우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구입한다는 응답이 각각 66.7%, 50.0%, 69.2%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지역별로 구입이유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함

4-6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주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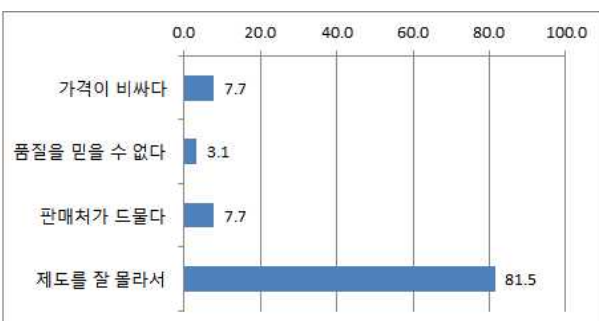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백화점	4	3.0
2 대형유통매장	95	70.4
3 인터넷, 홈쇼핑	4	3.0
4 생산자직거래	6	4.4
5 일반슈퍼	11	8.1
6 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12	8.9
7 재래시장	3	2.2
합계	135	100%



- GAP 농산물을 주로 구입하는 장소로는 대형유통매장이 70.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생협 등 친환경 전문매장 8.9%, 일반 슈퍼 8.1%, 생산자 직거래 4.4%, 백화점, 인터넷/홈쇼핑이 각각 3.0%, 재래시장 2.2% 순으로 나타남
- 앞선 농산물 구입장소 설문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1-5번 항) 평소 가장 농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대형유통매장에서 GAP농산물을 많이 구매하고 있었으며, 두 번째로 많았던 재래시장에서는 오히려 GAP 농산물 구입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4-7.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잘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가격이 비싸다	5	7.7
2 품질을 믿을 수 없다	2	3.1
3 판매처가 드물다	5	7.7
4 제도를 잘 몰라서	53	81.5
합계	135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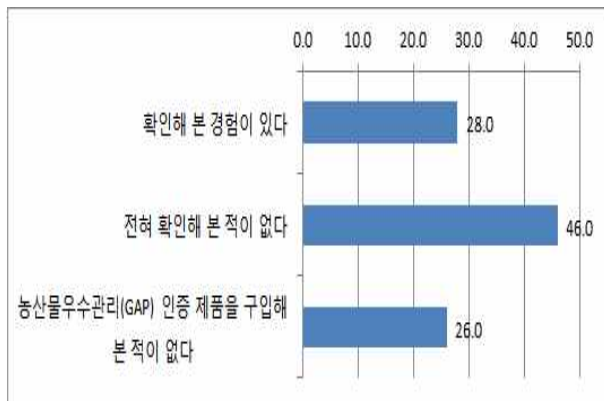


- 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도를 잘 몰라서’가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비싸다’, ‘판매처가 드물다’가 각각 7.7%, ‘품질을 믿을 수 없다’ 3.1%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GAP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므로 GAP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향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GAP인증 제도 관련 설문

5.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품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으신 경우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인증정보’를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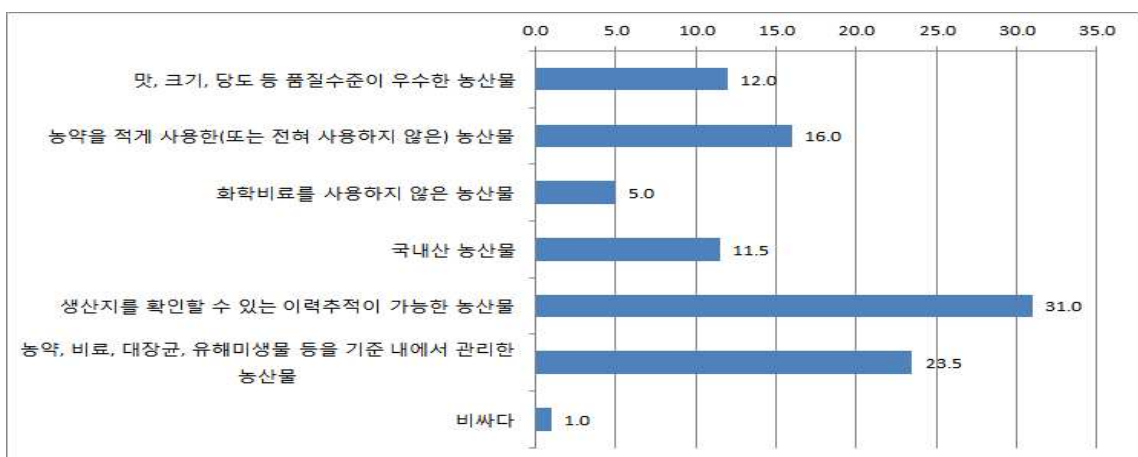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	56	28.0
2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92	46.0
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52	26.0
합계	200	100%



- 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인증정보 검색여부에 대한 설문결과 ‘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이 4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 28.0%, ‘GAP 인증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26.0% 순으로 나타남
- GAP 제품을 구매해 본 적이 없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을 제외하고,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37.8%가 인증정보를 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실제 인증제품 구입자중에서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남

6. 귀하가 농산물 구입시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표시를 보셨다면 어떤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 하면 떠오르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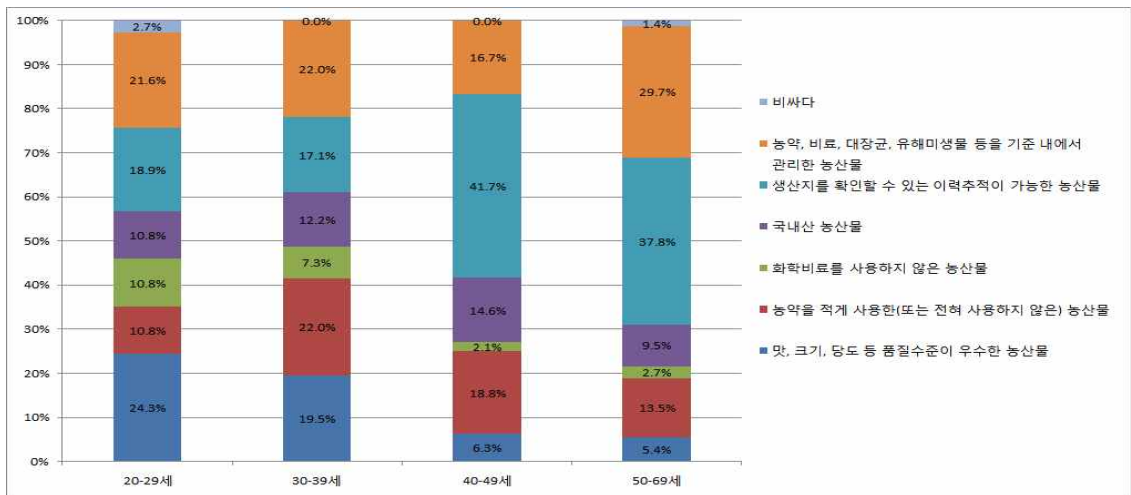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맛, 크기, 당도 등 품질수준이 우수한 농산물	24	12.0
2 농약을 적게 사용한(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32	16.0
3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10	5.0
4 국내산 농산물	23	11.5
5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62	31.0
6 농약, 비료, 대장균, 유해미생물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	47	23.5
7 비싸다	2	1.0
합계	200	100%



- GAP 하면 연상되는 이미지로는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음으로 ‘농약, 비료, 대장균, 유해 미생물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 23.5%, ‘농약을 적게 사용한 농산물’ 16.0%, ‘맛, 크기, 당도 등 품질 수준이 우수한 농산물’ 12.0%, ‘국내산 농산물’ 11.5%,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5%, ‘비싼 농산물’ 1.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교차분석 -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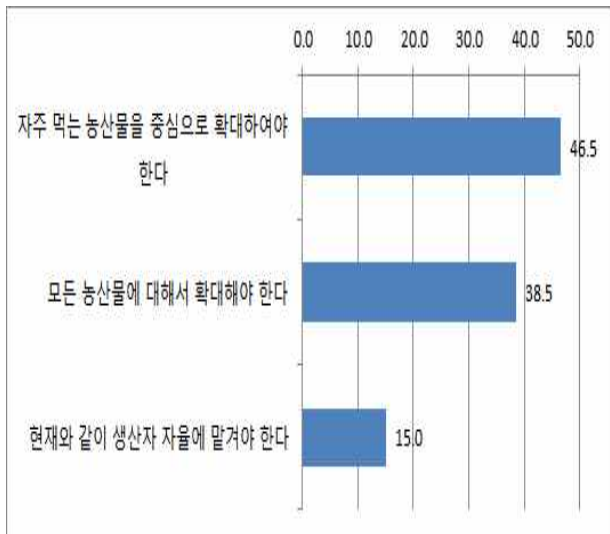
	20-29세	30-39세	40-49세	50-69세
맛, 크기, 당도 등 품질 수준이 우수한 농산물	24.3%	19.5%	6.3%	5.4%
농약을 적게 사용한 (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10.8%	22.0%	18.8%	13.5%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10.8%	7.3%	2.1%	2.7%
국내산 농산물	10.8%	12.2%	14.6%	9.5%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18.9%	17.1%	41.7%	37.8%
농약, 비료, 대장균, 유해미생물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	21.6%	22.0%	16.7%	29.7%
비싸다	2.7%	0.0%	0.0%	1.4%



- 연령별 교차분석 결과 20대는 ‘맛, 크기, 당도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2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의 경우 ‘농약을 적게 사용한 농산물’, ‘농약/ 비료/ 대장균/ 유해미생물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이 각각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40대, 50대 이상의 경우 ‘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이 각각 41.7%,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대 별로 GAP 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차이점이 존재함

7. 현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비율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4%수준입니다. 귀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GAP인증 적용 농산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93	46.5
2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	77	38.5
3 현재와 같이 생산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30	15.0
합계	2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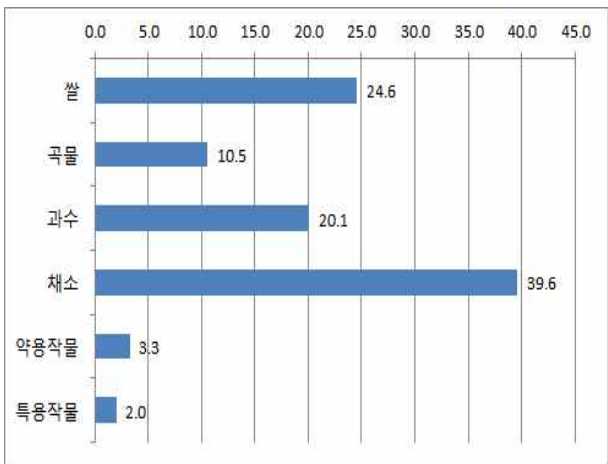


- 정부의 GAP 인증 농산물 비중확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가 4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 38.5%, ‘현재와 같이 생산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15% 순으로 나타남

- 전체응답자의 85%가 GAP인증 농산물을 확대해야 한다(자주 먹는 농산물 중심 + 모든 농산물)라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GAP 인증 농산물 확산에 긍정적임

8.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의 적용이 가장 필요한 농산물은 어느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빈도	비중(%)
1 쌀	98	24.6
2 곡물	42	10.5
3 과수	80	20.1
4 채소	158	39.6
5 약용작물	13	3.3
6 특용작물	8	2.0
합계	2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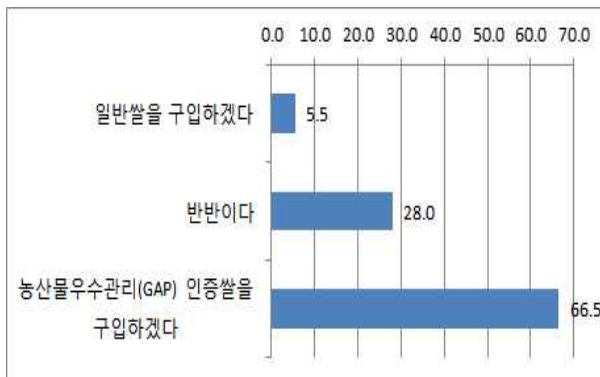


- GAP 인증제도 적용이 가장 필요한 농산물로는 채소류가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쌀 24.6%, 과수 20.1%, 곡물 10.5%, 약용작물 3.3%, 특용작물 2.0% 순으로 나타남
- 대부분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채소류, 쌀, 과수를 중심으로 인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9. 귀하는 일반쌀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쌀의 가격이 비슷한 경우 어떤 쌀을 구입하시겠습니까?

9-1 구입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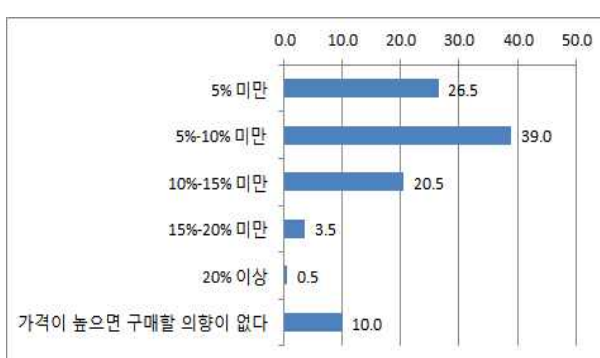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일반쌀을 구입하겠다	11	5.5
2 반반이다	56	28.0
3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쌀을 구입하겠다	133	66.5
합계	200	100%



- GAP인증쌀과 일반쌀의 가격이 비슷할 경우 66.5%의 응답자가 ‘GAP 인증쌀을 구입하겠다’고 하였으며, ‘반반이다’가 28.0%, ‘일반쌀을 구입하겠다’ 5.5%로 나타남
- 가격이 비슷할 경우 일반쌀을 구입하겠다는 의견보다, 94.5%의 응답자들이 다 대부분 구입을 고려하겠다고 응답하여, 향후 GAP 인증쌀 가격이 일반쌀과 비슷해 진다면 GAP 쌀 수요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임

9-2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쌀을 구매한다면, 일반쌀에 비해 몇 %까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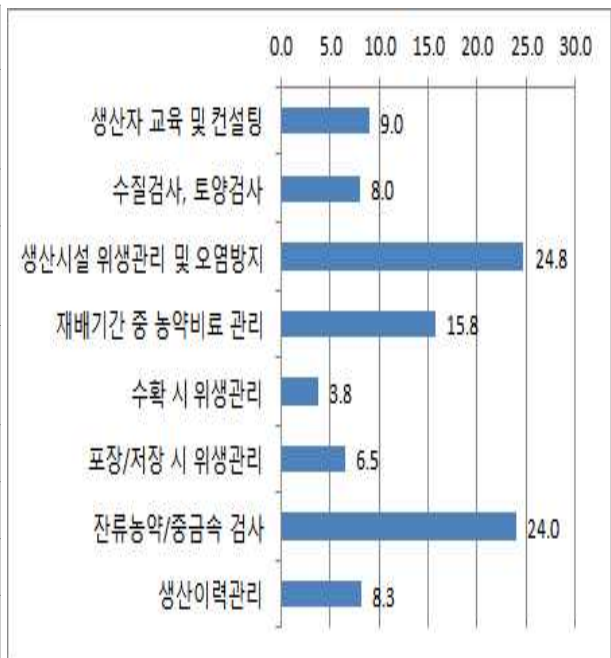
구분	빈도	비중(%)
1 5% 미만	53	26.5
2 5%-10% 미만	78	39.0
3 10%-15% 미만	41	20.5
4 15%-20% 미만	7	3.5
5 20% 이상	1	0.5
6 가격이 높으면 구매할 의향이 없다	20	10.0
합계	200	100%



- GAP 쌀 지불가능 가격에 대한 설문결과 ‘일반쌀보다 5~10%가량 비싼 경우’가 3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 미만’ 26.5%, ‘10~15%’ 20.5%, ‘구입할 의사가 없다’ 10.0%, ‘15%~20% 미만’ 3.5%, ‘20%이상’ 0.5% 순으로 나타남
- 따라서 GAP 쌀의 경우 일반쌀 대비 10%가량의 비싼 경우까지는, 일반 쌀과 비교하여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10. 현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도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번호를 2개 선택하여 주십시오

구분	빈도	비중(%)
1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36	9.0
2 수질검사, 토양검사	32	8.0
3 생산시설 위생관리 및 오염방지	99	24.8
4 재배기간 중 농약/비료 관리	63	15.8
5 수확 시 위생관리	15	3.8
6 포장/저장시 위생관리	26	6.5
7 잔류농약/중금속 검사	96	24.0
합계	400	100%



- GAP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생산시설 위생관리 및 오염방지’가 24.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잔류농약/중금속 검사’가 24.0%, ‘재배기간 중 농약/비료관리’ 15.8%, ‘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9.0%, ‘수질검사, 토양검사’ 8.0%, ‘포장/저장시 위생관리’ 6.5%, ‘수확시 위생관리’ 3.8% 순으로 나타남

요약 및 시사점

1) 일반 현황

- 응답한 소비자의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소득은 200~600만원이 전체의 64.5%로 가장 많았음
- 거주지역은 수도권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영남권, 충청권/호남권, 강원권 순으로 높게 나타남
- 농산물 구입장소로는 대형유통매장이 과반수에 달하는 48.5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래시장, 일반슈퍼, 생협 등으로 나타남
 - 연령별 구입장소로는 30대가 대형유통매장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20대가 가장 다양한 장소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20대,(29.7%) 40대(27.1%), 50대 이상(25.7%), 30대(14.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구입장소는 강원권, 호남권, 영남권, 충청권, 수도권 순으로 대형유통매장 비중이 높았으며, 수도권이 가장 다양한 경로로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었음
- 농산물 구입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품질이 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 맛, 원산지, 안전성, 다양성 순으로 나타남
- 또한 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정도로는 중금속오염 여부가 3.79점으로 가장 민감하다고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약사용량(3.64점), 유해미생물관리여부(3.5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8개 항목 모두 보통(3점) 이상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농산물 안전성과 관련하여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

2) GAP 관련 일반 소비현황 질문

- GAP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과반수 이상인 78%가 GAP 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내용에 대해서 안다고 응답한 소비자들은 25.5%로 나타나 아직 많은 소비자들이 GAP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
- 연령별 분석결과 GAP에 대해 들어보았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40대, 20대, 50대 이상,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내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연령대는 40대,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남
- 전체 연령대 중에서 40대~50대 이상이 GAP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하고, 알고 있었으며, 연령대가 어려질수록 많이 접하기는 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농산물 구입시 GAP 인증여부 확인에 대한 설문결과 전체의 16%만이 GAP 인증여부를 확인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농산물 구입 시 GAP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연령별 분석결과 40대가 GAP 인증 여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50대,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앞선 연령별 GAP 제도 인식결과와 동일한 연령대 순으로, GAP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연령대 순으로 농축산물 구입시 GAP 여부를 많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는 강원지역이 GAP 여부를 가장 많이 확인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영남권,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 GAP농산물 구입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4.5%가 구입한 경험이 존재하였으며, 전체의 32.5%가 구입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음
- 특히 구입하는 편이다의 응답은 24%였으나 항상 구매한다는 응답은 0.5%로 매우 낮게 나타나 지속적으로 구입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 GAP 인증 농산물 가격에 대한 의견으로는 비싸다는 응답이 전체의 57.8%로 나타났으나, 보통이하라고 응답한 소비자들도 42.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가격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나뉘어져 있음
- GAP 인증 농산물의 품질에 대해서는 보통이 5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한 편은 40%, 불만족한 편은 2.2%로 나타나 대부분 품질에 있어 큰 불만은 가지고 있지 않음
- GAP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가 과반수 이상(5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품질은 신뢰할 수 있어서(37.0%)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이는 대부분의 GAP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GAP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은 신뢰한다는 의미로, 이전까지 시행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우수관리제도에 대한 설명, 홍보활동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 GAP 농산물 구입장소로는 대형유통매장이 70.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생협 등 친환경 전문매장, 일반슈퍼, 직거래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GAP 농산물은 유통매장을 통해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농산물 구입장소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던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GAP 인증농산물 구입비중이 가장 낮게(2.2%) 나타남
- GAP 농산물을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 해서가 8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가격이 비싸다/판매처가 드물다가 7.7%로 나타남.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해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므로 향후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3) GAP인증 제도 관련 설문

- 현재 GAP농산물에 대한 인식조사결과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농약/비료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 m 농약을 적게 사용한 농산물, 맛/크기 등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국내산 농산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위해요소관리에 대한 인식이 23.5%로 높기는 하나 GAP와 이력추적을 동일시하여 인식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가장 많게 나타남
- 특히 GAP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40대, 50대 이상에서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이라는 인식이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남(40대 41.7%, 50대 이상 37.8%)
- 소비자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GAP에 대한 정확한 인식교육이 필요함
- 정부의 GAP 농산물 확대에 대한 의견으로는 전체의 85%가 확대하여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46.5%, 모든 농산물에 대해 확대하자는 의견이 38.5%로 나타남
- GAP 인증제도 적용이 가장 필요한 농산물로는 채소, 쌀, 과수, 곡물, 약용작물, 특용작물 순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인증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일반쌀과 GAP 쌀 중 가격이 비슷할 경우 GAP 쌀의 구입의사에 대한 조사결과 2/3에 해당하는 66.5%의 응답자가 GAP 쌀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반이다가 28.0%, 일반쌀을 구입하겠다고 5.5%로 나타나 가격이 비슷할 시 대부분 GAP 쌀을 구입할 의사가 존재함
- GAP쌀의 적정가격에 대한 의견으로는 5!10% 미만이 39.4%, 5% 미만이 26.5%로, 일반쌀에 비해 약 0~10% 높은 가격까지는 소비자들이 구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GAP에 대한 전반적인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GAP 제도에 대해서 들어본적은 있으나 자세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은 약 50% 미만으로 나타남.
- 농산물 구입 시 품질을 가장 중요시 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관심도 또한 높아 향후 GAP의 안전성관리 대한 측면을 중심으로 홍보를 확대한다면 충분히 구매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GAP농산물 구입장소로 대형 유통업체가 가장 높게 나타나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GAP 농산물 판로를 더욱 확대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GAP 농산물을 공급하고, 소비자들을 교육한다면 GAP 농산물을 꾸준히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4. 설문지 양식

1) 인증농가용

리스트 ID					
--------	--	--	--	--	--

ID					
----	--	--	--	--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_인증농가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과제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설문입니다. 향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AP농산물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시간 내주신 점 다시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 조사 주관 : 농림축산식품부(식생활소비정책과)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인증관리팀)
- 조사 수행 :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 실사 진행 : 주식회사 디앤알

SQ 응답자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목소리로 판단)

- ①남자 ②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택1)

- ①10대(⇒응답종료) ②20대 ③30대 ④40대 ⑤50대 ⑥60대이상

S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택1)

-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인천 ⑤광주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세종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A **영농 현황**

A1. 귀하는 영농활동을 하신지 몇 년 되셨습니까?(=택1)

- ①5년 이내 ②5~10년 미만 ③10~20년 미만 ④20년 이상

A2. 귀하가 최초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A3.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작목은 무엇입니까? 주요 작목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택1)

- ①쌀
 ②곡물(세부 품목명 : _____)
 ③과수(세부 품목명 : _____)
 ④채소(세부 품목명 : _____)
 ⑤특용작물(세부 품목명 : _____)
 ⑥기타(세부 품목명 : _____)

A4. 귀하가 (A3응답값)의 최초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년

B **GAP 인증 실태**

B1.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택1)

- ①보다 안전(위생)적인 농산물의 생산을 위해
 ②인증을 통해 매출액 등 경제적 이익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③농산물을 납품하는 소매업체 등 거래업체의 요구로
 ④정부기관 등의 관련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⑤기타(_____)

B2.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정에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택1)

어려움이 전혀 없었음	어려움이 없는 편이었음	보통	어려움이 있는 편이었음	매우 어려웠음
①(=B4)	②(=B4)	③(=B3)	④(=B3)	⑤(=B3)

B3. (B2=③④⑤)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택1)

- ①인증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다
- ②인증조건이 다소 모호하다
- ③인증절차가 복잡하다
- ④인증 관련 비용이 많이 든다
- ⑤인증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이 길다
- ⑥기타(_____)

B4.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또는 생산단계 적용과정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 등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모두 말씀해주시시오.

- ①정부 지원을 받았다
(지원내역:_____)
- ②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았다
(지원내역:_____)
- ③농협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원내역:_____)
- ④기타기관1(기관명 : _____)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원내역:_____)
- ⑤기타기관2(기관명 : _____)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지원내역:_____)
- ⑥지원 받은 경험이 없다

B5. 귀하가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유통경로별 유통(판매) 비중을 말씀해주시시오.

유통경로 별 생산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판매 비중	비중
1)도매시장	%
2)대형유통업체	%
3)단체급식업체	%
4)식품가공업체	%
5)기타1(_____)	%
6)기타2(_____)	%
합계	100%

B6.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참여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택1)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①(=B8)	②(=B8)	③(=B7)	④(=B7)	⑤(=B7)

B7. (B6=③④⑤)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에 참여를 잘 했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입니까?(=택1)

- ①농산물 안전성이 높아짐 ②판매가격을 높게 받았음 ③농산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
 ④정부 지원이 늘어났음 ⑤기타(_____)

B8. (B6=①②)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 참여 시의 불만사항은 무엇입니까?(=택1)

- ①인증에 따른 별다른 경제적 이익이 없음 ②GAP 인증 농산물 판로가 없음
 ③인생산비용/인력이 과다하게 투입됨 ④기타(_____)

B9. 귀하의 농가에서는 현재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에 대해서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장부기장(기록관리)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택1)

- ①스스로 직접 하고 있다 ②작목반에서 하고 있다
 ③농협에서 해주고 있다 ④기타(_____)

B10.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택1)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C GAP 제도에 대한 인식

C1. 귀하는 향후에 계속하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택1)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①	②	③	④	⑤

C2. 귀하는 향후 5년 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 농산물의 판매가 몇 %나 증가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택1)

- ①5년 뒤 증가 예상 경우 : 현재에 비해 판매량이 (_____) % 증가 예상
 ②5년 뒤 감소 예상 경우 : 현재에 비해 판매량이 (_____) % 감소 예상
 ③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 예상

C3.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을 모든 품목(생산자)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택1)

- ①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② 모든 품목(생산자)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 ③ 전혀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 ④ 잘 모르겠다

C4.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우선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최대2순위)

- ① GAP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 ② GAP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 ③ GAP 농산물의 판로 확보
- ④ GAP 인증 제도의 개선
- ⑤ GAP생산자/참여업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증대
- ⑥ 기타(_____)

C5.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들입니다. 각각의 개선방안에 대한 평소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각 택1)

	매우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매우 필요
1) 품목군별 특성 고려한 GAP기준 설정 (공통기준+품목군별 기준으로 구분)	①	②	③	④	⑤
2) GAP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3)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①	②	③	④	⑤
4) GAP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5) 산지 GAP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6) GAP 판매처 발굴/확대	①	②	③	④	⑤
7) GAP 농산물에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8) 정부 농림정책사업 대상 GAP 인증 의무화	①	②	③	④	⑤
9) 전국 주산지 토양/용수 분석지원 및 해당 성적서 GAP 활용	①	②	③	④	⑤

DQ

사회경제적 사항에 관한 질문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 ②고등학교 졸업
- ③대학 재학/중퇴
- ④대학 졸업
- ⑤대학원 졸업 이상

DQ2. 귀하가 (A3응답값) 작목으로 버는 연 매출액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①1천만원 미만
- ②1천만원~3천만원 미만
- ③3천만원~5천만원 미만
- ④5천만원~8천만원 미만
- ⑤8천만원~1억원 미만
- ⑥1억원 이상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 미인증 농가용

생산단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 적용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제인 “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설문입니다. 향후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료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AP농산물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반 현황 질문

1. 다음은 귀하의 영농활동과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농경력	① 5년 이내 ③ 10년 ~ 20년 미만	② 5년 ~ 10년 미만 ④ 20년 이상
주 취급작목	① 쌀 ② 곡물(세부 품목명 :) ③ 과수(세부 품목명 :) ④ 채소(세부 품목명 :) ⑤ 채소(세부 품목명 :) ⑥ 특작(세부 품목명 :) ⑦ 기타(세부 품목명 :)	
영농규모 (연 매출액)	① 1천만원 미만 ③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⑤ 8천만원 ~ 1억원 미만	②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④ 5천만원 ~ 8천만원 미만 ⑥ 1억원 이상

GAP인증실태 설문

2. 귀하는 정부의 농산물 인증제도 중에서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 | |
|------------------------|
| ① 전혀 모르고 있다. |
| ② 들어는 봤으나 상세한 내용은 모른다. |
| ③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
| ④ 잘 알고 있다 |

※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업환경 및 농산물 잔류 위해물질을 관리하는 제도임

**3.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를 하나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① 농산물 우수관리(GAP)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
| ②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서 |
| ③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
| ④ 인증을 받거나 유지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투입되어서 |
| ⑤ 인증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어서 |
| ⑥ 인증 농산물의 판로가 부족해서 |
| ⑦ 기타 () |

GAP 제도에 대한 인식 설문

4. 귀하는 향후 GAP인증제도에 새롭게 참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음	없는 편	보통	있는 편	매우 있음
①	②	③	④	⑤

5. 귀하는 향후 5년 뒤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에서 GAP농산물의 판매가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증가 또는 감소를 예상할 경우 몇 % 변화를 예상하는지 적어주십시오

① 5년 뒤 증가 예상 경우 : 현재에 비해 판매량이 ()% 증가 예상
② 5년 뒤 감소 예상 경우 : 현재에 비해 판매량이 ()% 감소 예상
③ 현재와 같은 수준 유지 예상

6.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을 모든 품목(생산자) 또는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① 일부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모든 품목(생산자)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③ 전혀 의무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④ 잘 모르겠다

7. (GAP) 인증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순위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① GAP의 대국민 교육홍보 강화
② GAP 농산물의 충분한 공급 물량 확보
③ GAP 농산물의 판로 확보
④ GAP 인증 제도의 개선
⑤ GAP생산자참여업체 등에 대한 정부 지원 증대
⑥ 기타 ()

8. 다음은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개선 방안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불필요함	불필요한 편	보통	필요한 편	매우 필요함
품목군별 특성 고려한 GAP기준 설정 (공통기준+품목군별 기준으로 구분)	①	②	③	④	⑤
GAP생산자 또는 참여업체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 확대	①	②	③	④	⑤
GAP에 대한 정부 홍보 확대	①	②	③	④	⑤
GAP인증 신청농가 구비서류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산지 GAP시설 확충	①	②	③	④	⑤
GAP 판매처 발굴 확대	①	②	③	④	⑤
GAP 대한 이력추적 항목 간소화	①	②	③	④	⑤

-설문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 소비자용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_소비자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과제인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 확산을 위한 인증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설문입니다. 향후 GAP 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 자료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 이오니,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문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연구수행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GAP 농산물의 발전을 위하여 귀한 시간 내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SQ 응답자 기본 사항에 대한 질문

SQ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택1)

- ①남자 ②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택1)

- ①20세 미만(=응답종료) ②20~29세 ③30~39세 ④40~49세 ⑤50~69세 ⑥70세 이상(=응답종료)

SQ3.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택1)

- ①수도권(서울/인천/경기) ②강원권 ③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④호남권(광주/전북/전남/제주) ⑤영남권(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A 농산물 구입 형태

A1. 귀하는 평소 농산물은 어디에서 구입하십니까?(=택1)

- ①백화점 ②대형유통매장 ③인터넷, 홈쇼핑 ④생산자직거래
⑤일반슈퍼 ⑥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⑦재래시장 ⑧기타()

A2. 귀하는 평소 농산물을 구입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택1)

- ①품질(신선도, 모양) ②가격 ③맛 ④원산지
⑤안전성 ⑥판매처 ⑦기타()

A3. 귀하는 채소나 과일, 기타 농산물 구입 시 안전성에 관련한 다음의 항목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각 택1)

	전혀 상관없다	크게 상관없다	보통	어느 정도 민감하다	매우 민감하다
1)농약 사용량	①	②	③	④	⑤
2)화학비료 사용 여부	①	②	③	④	⑤
3)유해미생물 관리 여부(예:대장균)	①	②	③	④	⑤
4)중금속 오염 여부	①	②	③	④	⑤
5)생산농가 확인 가능 여부	①	②	③	④	⑤
6)토양, 수질 등 생산환경	①	②	③	④	⑤
7)종자(GMO 여부), 생산자재 *GMO : 유전자 재조합	①	②	③	④	⑤
8)수확 후 저장 및 운반과정	①	②	③	④	⑤

B GAP 인증제품 소비 실태

B1.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계십니까?(☞택1)

들어본 적도 없음	들어본 적은 있지만 내용은 모름	내용은 어느 정도 아는 편	매우 잘 암
①	②	③	④

* 농산물우수관리(GAP) 제도는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업환경 및 농산물 잔류 위해물질을 관리하는 제도임

B2. 귀하는 농축산물을 구입할 때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십니까?(☞택1)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확인하는 편이다	항상 확인한다
①	②	③	④	⑤

B3.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으십니까?(☞택1)

전혀 구입해 본적 없음	구입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구입하는 편이다	항상 구매한다
①(☞B9)	②(☞B9)	③(☞B4)	④(☞B4)	⑤(☞B4)

B4. (B3=③④⑤)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가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택1)

매우 싸다	싼 편이다	보통	비싼 편이다	매우 비싸다
①	②	③	④	⑤

B5. (B3=③④⑤)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의 품질 수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택1)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다소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B6. (B3=③④⑤)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주로 어떤 경로로 구입하게 되었습니까?(☞택1)

- ①판매원의 권유 또는 매장의 홍보물을 보고 구매
- ②TV 방송, 라디오 또는 지하철에서 나오는 홍보를 접하고
- ③구입하고 보니 농산물우수관리(GAP)제품이었음
- ④기타()

B7. (B3=③④⑤)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구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택1)

- ①맛이 좋아서
- ②품질을 신뢰할 수 있어서
- ③안전성을 신뢰할 수 있어서
- ④환경보호 차원에서
- ⑤기타()

B8. (B3=③④⑤)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주로 어디서 구입하십니까?(☞택1)

- ①백화점
- ②대형유통매장
- ③인터넷, 홈쇼핑
- ④생산자직거래
- ⑤일반슈퍼
- ⑥생협 등 친환경전문매장
- ⑦재래시장
- ⑧기타()

B9. (B3=①②)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을 잘 구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택1)

- ①가격이 비싸다
- ②품질을 믿을 수 없다
- ③판매처가 드물다
- ④제도를 잘 몰라서
- ⑤기타()

C**GAP 제도에 대한 인식**

- C1.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품을 구입하신 경험이 있으신 경우, 포장지에 표시되어 있는 '이력추적관리 번호' 또는 '인증정보'를 컴퓨터나 휴대폰을 통해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택1)
- ①항상 확인한다 ②확인해 본 경험이 있다 ③전혀 확인해 본 적이 없다
④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품을 구입해 본 적이 없다
- C2. 귀하가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표시를 보셨다면, 어떤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하면 떠오르는 항목을 선택하여 주십시오.(=택1)
- ①맛, 크기, 당도 등 품질수준이 우수한 농산물
②농약을 적게 사용한(또는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③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④국내산 농산물
⑤생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⑥농약, 비료, 대장균, 유해미생물 등을 기준 내에서 관리한 농산물
⑦기타()
- C3. 현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비율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약 4%수준입니다. 귀하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GAP인증 적용 농산물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택1)
- ①자주 먹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②모든 농산물에 대해서 확대해야 한다
③현재와 같이 생산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 ④기타()
- C4. 귀하는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제도의 적용이 가장 필요한 농산물은 어느 품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2개 품목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최대2순위)
- ①쌀 ②곡물 ③과수 ④채소 ⑤약용작물 ⑥특용작물 ⑦기타()
- C5. 귀하는 일반쌀과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쌀의 가격이 비슷한 경우 어떤 쌀을 구입하시겠습니까?(=택1)
- ①일반쌀을 구입하겠다 ②반반이다 ③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쌀을 구입하겠다
- C6. 귀하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쌀을 구매한다면, 일반쌀에 비해 몇 %까지 높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으십니까?(=택1)
- ①5% 미만 ②5%~10% 미만 ③10%~15% 미만 ④15%~20% 미만 ⑤20% 이상
⑥가격이 높으면 구매할 의향이 없다
- C7. 현재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도의 효과적/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인을 우선순위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1순위_____, 2순위_____(=최대2순위)
- ①생산자 교육 및 컨설팅 ②수질검사, 토양검사
③생산시설 위생관리 및 오염방지 ④재배기간 중 농약비료 관리
⑤수확 시 위생관리 ⑥포장/저장 시 위생관리
⑦잔류농약/중금속 검사 ⑧생산이력관리

DQ

사회경제적 사항에 관한 질문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무학,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②고등학교 졸업 ③대학 재학/중퇴
④대학 졸업 ⑤대학원 졸업 이상

DQ2.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①200만원 미만 ②2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③4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④600만원 이상~800만원 미만 ⑤8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⑥1,000만원 이상

DQ5.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농/임/수산/축산업
②자영업(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및 택시운전사, 프리랜서)
③판매직/서비스직(상점점원, 세일즈맨 등)
④기술직/기능공/숙련공(중장비 운전사, A/S 기술자, 숙련공 등)
⑤일반직업직(현장 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⑥사무직(공무원, 교사, 일반회사 사무직 등)
⑦경영관리직(고급공무원, 교장, 일반회사 부장 이상 등)
⑧전문직(대학교수, 변호사, 종교인, 언론인, 연구원 등)
⑨전업주부
⑩학생(대학(원)생, 휴학 군복무)
⑪무직(파트타임)

-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